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국어, 도덕, 사회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목 차

- 국 어 -

I.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3
1.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수업’으로 전환	3
2. 언어 환경의 변화	4
3.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적 문제 개선	4
II.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8
1. 구성 방향	8
2. 구성 체제	8
3. 목 표	9
4. 내 용	9
5.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10
III.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11
1.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중심의 국어 교육 지향	11
2. 실체와 내용 요소 간의 관련성, 내용 요소 간의 통합성 강조	11
3. 학교 수준에서의 수준별 교육 지향	12
4. 담화와 글의 생산, 수용 활동에 작용하는 맥락의 강조	12
5. 교육 내용의 타당성, 적정성, 연계성 강화	13
6.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통성의 강화	13
7.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매체’ 관련 내용의 확대	14
IV.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15
1. 성 격	15
2. 목 표	16
3. 내 용	18
4. 교수·학습 방법	154
5. 평 가	172

V. 국어과 신·구 교육과정 비교	185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용어 해설	190
참고 문헌	202

- 도 덕 -

I.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207
1. 제7차 교육과정의 편제 유지와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실화	207
2. 연구에 기반을 둔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207
3.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정	208
4. 현장 교사의 의견 수렴에 중점을 둔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정	209
5. ‘도덕과 교육과정 연구 공동체’ 구성을 통한 참여식 교육과정 개발	209
II. 도덕과 교육과정의 변천	211
1. 교수요목기(1945년~1954년)	212
2. 제1차 교육과정기(1954년~1963년)	213
3. 제2차 교육과정기(1963년~1973년)	213
4. 제3차 교육과정기(1973년~1981년)	214
5. 제4차 교육과정기(1981년~1987년)	214
6. 제5차 교육과정기(1987년~1992년)	215
7. 제6차 교육과정기(1992년~1997년)	216
8. 제7차 교육과정기(1997년~2007년)	217
III.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219
1.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219
2. 국민공통기본 도덕과 교육과정의 영역별 개정 내용	222
IV. 도덕과 교육과정 해설	229
1. 성 격	229
2. 목 표	235
3. 내 용	241
4. 교수·학습 방법	275
5. 평 가	282

V. 도덕과 신·구 교육과정의 비교	289
---------------------------	-----

- 사 외 -

I.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295
1. 사회 환경의 변화	295
2. 국가·사회적 요구	296
3. 사회과의 쟁점 및 문제점 개선	296
II.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	298
1. 교수요목의 시기(1946~1954)	298
2. 제1차 교육과정의 시기(1954~1963)	298
3. 제2차 교육과정의 시기(1963~1973)	298
4. 제3차 교육과정의 시기(1973~1980)	299
5. 제4차 교육과정의 시기(1981~1987)	300
6. 제5차 교육과정의 시기(1987~1992)	300
7. 제6차 교육과정의 시기(1992~1997)	301
8. 제7차 교육과정의 시기(1997~2007)	302
III.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303
1. 개정의 기본 방향	303
2. 개정의 중점	304
IV.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306
1. 성 격	306
2. 목 표	308
3. 내 용	313
4. 교수·학습 방법	364
5. 평 가	372
V. 사회과 신·구 교육과정 비교	384
참고 문헌	385

국 어

박 미 현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이 재 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 인 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 구 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 용 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신 명 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노 은 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 영 진 (전 북 대 학 교)
김 봉 순 (공 주 교 육 대 학 교)
민 병 곤 (경 인 교 육 대 학 교)
정 현 선 (경 인 교 육 대 학 교)
김 정 우 (영 남 대 학 교)

- I.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 II.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 III.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 IV.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 V. 국어과 신·구 교육과정 비교
-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용어 해설

I.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제7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지 10년이 지났다. 10년이면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의 폭이 작을 수 없다. 그동안 국어 교육 학문 공동체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축적하였고, 현장 교사 및 연구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도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또한 다매체, 다문화 등 언어적·사회적 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어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그동안 축적한 학문적 성과, 국어 교육의 안팎에서 제기된 다양한 비판과 요구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을 정리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수업’으로 전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이 수준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공통 내용 외에도 수준별 심화 내용이나 보충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수준별 교육 내용을 국가에서 규정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 내용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모든 학습자가 공통으로 학습해야 할 공통 교육 내용만을 제시함으로써 수준별 교육 내용의 선정, 수준별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을 국가 수준에서 학교 및 교사 수준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는 수준별 교육이 국가 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학교 및 교사 중심의 ‘수준별 수업’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해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문제 제기는 수준별 교육 내용을 국가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즉 학습자의 수준이 학습자의 수만큼 다양한 현실에서 학습자의 수준을 국가에서 ‘기본’, ‘보충’, ‘심화’ 등 몇 가지로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을 정확하고 섬세하게 구분하고 이를 근거로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주체는 해당 교과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수업으로의 전환은 수준별 교육 도입 취지를 유지하면서 수준별 교육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준별 교육의 변화를 국어과 교육 내용의 선정·배열,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도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언어 환경의 변화

현대 한국 사회가 정보화·다매체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정보·지식의 습득과 문화생활은 물론 일상적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사용과 영향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이와 같은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영화·인터넷·휴대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특성과 정보·지식·문화의 수용·생산에 대해 이해하는 일이 국어 교육에서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매체 변화에 따른 언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국어 교육의 내용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교수·학습 방법 차원에서의 매체 활용을 강조하였다.

이제 국어 교육에서 매체의 수용은 교수·학습 활동에서 매체를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즉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매체 담화·글의 비판적 수용과 창의적 생산 능력 신장을 국어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매체 언어에 대한 이해와 매체 담화·글의 수용과 생산은 그것이 전달되는 경로인 매체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매체 특성에 대한 이해는 제도나 기술에 대한 이해보다는 매체에 따른 언어 사용 방식, 소통 주체 간 상호 작용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인쇄 매체, 영상 매체, 인터넷 매체 사이의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 특정 매체의 생산자와 수용자 간 상호작용이 일방적인지 양방향적인지의 차이, 소수의 전문가만이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매체인지 일반인도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매체인지의 차이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매체 담화·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생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언어 환경은 더욱 큰 폭으로 변화하였다. 일상 세계, 직업 세계에서 요구하는 국어 능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언어 환경의 변화에 맞게 국어과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3.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적 문제 개선

그동안 국어과 교육과정은 일곱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국어 교육에 대한 사회, 학문 공동체, 학교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국어과 교육과정이 개인의 행복과 성숙, 사회의 민주성·합리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설명 및 실천 논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다음에서는 국어 교육에 대한 개인적·사회적·학문적 요구를 국어과 교육과정은 어떻게 내재화, 체계화, 구체화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국어과 교육과정이 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 요소 중심의 교육 내용 선정

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의 국어 능력 신장에 있다. 이 때 국어 능력은 담화와 글¹⁾의 수용, 생산 능력을 의미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가 반드시 학습해야 할 내용의 범주로 ‘본질’, ‘원리’,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내용 범주인 ‘본질’, ‘원리’, ‘태도’에서 선정된 지식, 기능을 학습하면 국어 능력이 신장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 지식과 기능을 학습한다고 해서 저절로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능력이 신장되지는 않는다. 학습자의 국어 능력은 다양한 담화와 글을 직접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 속에서 신장된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을 의미하는 ‘실제’를 독립된 범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실제’ 범주는 본질, 원리, 태도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능을 학습한 후, 그 지식과 기능을 ‘적용’ 또는 ‘활용’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다. 즉 본질, 원리, 태도에 관한 지식이나 기능이 중심이고,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으로서의 실체는 주변이었다. 일상 세계, 직업 세계에서 요구되는 실제적인 국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이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지식, 기능 중심에서 벗어나 한 편의 구체적인 담화와 글을 직접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나. 실제와 내용 간, 내용 간의 분절성

제7차 교육과정의 ‘본질’, ‘원리’, ‘태도’ 범주에서 선정된 ‘내용’은 특정 담화나 글을 전제하지 않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나 기능들이다. 이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식, 기능의 학습이 모든 담화와 글의 수용과 생산 능력 형성에 기여한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정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은 특정 지식이나 기능의 적용을 요구한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실제’(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와 ‘내용’(지식, 기능) 간의 상호 관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편, 담화나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식과 기능은 서로 긴밀하게 교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본질’, ‘원리’, ‘태도’를 독립된 범주로 설정함으로써, 이들이 통합되고, 교섭할 수 있는 길을 막아왔다. 실제와 내용 간, 내용

1)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 기능을 지닌 최소 발화 단위로서 ‘텍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개념의 모호성, 외래어 사용 등의 문제로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대신 영역에 따라 텍스트란 용어를 달리 사용하기로 하였다. 예컨대,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는 ‘담화’로, 읽기, 쓰기 영역에서는 ‘글’로, 문법 영역에서는 ‘언어 자료’로, 문학 영역에서는 ‘작품’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앞으로 국어과 학문 공동체 내의 충분한 연구와 토의를 통해 ‘텍스트’란 용어를 대신할 수 있는 용어가 정리되기를 기대한다. 텍스트란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맥락에서는 원칙적으로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라고 표현해야 하나,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발화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서 ‘담화와 글’, ‘담화나 글’, ‘담화·글’이란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과 내용 간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이들이 서로 깊이 소통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 작용하는 맥락에 대한 관심 부족

언어 활동은 진공 상태가 아닌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즉 담화와 글의 수용과 생산 활동은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 범주인 본질, 원리, 태도에서 선정된 지식이나 기능은 그 자체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지식이나 기능에 작용하는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이제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이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학습자를 형성하여 왔다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언어 활동이 갖는 사회성, 대화성, 관계성, 소통성을 소홀하게 다루었기 때문이다.

라. 교육 내용의 타당성, 적절성, 연계성 부족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타당성, 적절성,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인적·학문적·사회적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거나,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학습량이 많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해당 학년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내용의 난이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한편 학년 간 내용이 단절되어 학습 경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영역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영역 간의 통합 지도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 온 교육 내용의 타당성, 적절성, 연계성 부족 문제를 제7차 교육과정도 여전히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하고 원활한 소통을 돕는 정보의 부족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둘러싼 주체 간의 정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육과정은 가능하면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석은 교육과정 수요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해 왔다. 이제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은 단지 교육 내용만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수요자에게 위임한 측면이 강하며 결과적으로 소통성과 친절함을 잃은 측면이 있다. 모든 국어 수업이 국어과 교육과정의 규정을 받고 있고, 다양한 국어 교육 논의가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국어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실행 주체 간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 교육과정을 지역 수준, 학교 수준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 재구성이 타당성과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교육과정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Ⅱ.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국어과 교육과정은 그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내용과 형식 면에서 정교화, 체계화되었다. 각 시기의 교육과정이 지향한 기본 방향과 교육과정의 체제, 목표, 내용,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구성 방향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기본적인 언어 습관’, ‘언어 사용 기능’을 올바르게 기르는 데 역점을 두고, 경험을 통한 지도를 강조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은 제1차 교육과정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제3차 교육과정은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과 가치관 교육의 강화를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기본적인 지도 사항을 정선했고 아울러 계열화를 시도하였고, 가치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 선정 기준’을 신설하여 제시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은 국어 교과 특성 명료화, 언어 기능 신장 강화, 학습 내용의 적정화를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내용 영역을 ‘표현·이해’, ‘언어’, ‘문학’으로 구분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은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을 국어과 교육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기능 중심 교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학습의 결과보다는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고, 교수·학습 상황의 주체를 학습자로 삼아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구조의 체계화, 목표 체계의 구조화, 내용의 정선 및 내적 구조화, 지도와 평가에 관한 사항의 구체화를 기본 방향으로 삼아, 주로 교육 내용들 간의 유기적 관련성 추구를 강조하여 개정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 10년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성격과 목표를 일원화하였다. 그리고 교육 내용의 정선 및 내적 구조화를 지향하고, 교육 내용의 학습 범위와 수준을 구체화하였다.

2. 구성 체계

제1차부터 제5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체제는 ‘교과 목표, 학년별 목표 및 내용,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이었다. 제1차와 제2차 교육과정은 국어과의 목표, 내용, 방법 등 국어 교과 교육 전반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제시하였으나 그 체계성은 부족하였다. 이는 제3차 교육과정에서도 큰 변화 없이 계승되었고, 제4차와 제5차 교육과정에서도 구성 체제상 변화는 거

의 없었다. 이러한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틀은 제6차 교육과정에 와서 크게 변화하였다. 즉, 제5차 교육과정까지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틀이었던 ‘교과 목표, 학년별 목표 및 내용,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의 체제가 ‘1. 성격, 2. 목표, 3. 내용(내용 체계, 학년별 내용), 4. 방법, 5. 평가’ 체제로 변화됨으로써 비로소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목 표

제1차부터 제6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국어과의 교육 ‘목표’ 체계는 초·중·고 국어 교육을 통괄할 수 있는 국어 교육의 목표가 없이, 학교급별 교과 목표와 학년별 목표를 제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제1차부터 제3차 교육과정까지는 국어과의 특수성보다는 교육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제4차부터는 국어과 교육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학교급별 목표를 설정하였고, 각 학년별 목표는 각 시기의 교육과정이 구분한 내용 영역과 일치하게 설정·제시하였다. 제1차와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항목을, 제3차 교육과정부터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영역별로 한 항목씩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년별 목표를 제시할 때에는 학년별 수준의 차를 드러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학년별 도달 수준의 설정이 구체적인 연구 성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어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었다. 학년별 목표 설정 제시의 학문적, 실제적 유용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학년별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교육 기간인 10년 동안 학습한 결과로서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최종 성취 기준을 국어과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4. 내 용

제1차와 제2차 교육과정은 언어 활동을 중심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도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영역 구분 방식은 제3차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계승하였으나, 학년별 각 영역별 ‘내용’에 대한 ‘지도 사항과 주요 형식, 그리고 제재 선정의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체제상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다가 제4차 교육과정에 와서는 지도 내용을 ‘표현·이해’, ‘언어’, ‘문학’의 세 영역으로 구분한 뒤 이를 다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세분하여 학년별 지도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제3차와 제4차 교육과정의 지도 내용 영역 구분 방식을 조화시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계승하였다.

5.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지침’은 국어과 교육과정의 의도를 바르게 전개하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제1차부터 제5차 교육과정까지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이라는 항목으로 제시되었는데, 그 지침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항목에 제시된 지침이 포괄적이라는 한계는 극복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문서 체제로 볼 때에는 ‘지도에 관한 지침’이 제시된 것이 제2차 교육과정부터이고, ‘평가에 관한 지침’이 ‘지도에 관한 지침’과 독립적으로 제시된 것이 제4차 교육과정부터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 와서는 ‘방법’과 ‘평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 방법’, ‘평가’로 나누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Ⅲ.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1.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중심의 국어 교육 지향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개별적·독립적·탈맥락적인 지식, 기능의 학습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 속에서 학습자의 국어 능력이 신장된다고 보고, 교육 내용을 ‘실제’ 범주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즉, 실제 범주(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 작용, 정서 표현)를 상위 범주로, 내용 요소 범주(지식, 기능, 맥락)를 하위 범주로 설정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상위 범주인 실제 범주는 담화와 글의 수용과 생산 활동에 해당하는 범주로서 하위 범주인 내용 요소 범주를 규정하고 통어하는 범주로서 기능한다. 학습자가 국어 수업을 통하여 도달해야 할 ‘성취 기준’은 실제 범주에서 선정하였으며,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익혀야 할 ‘내용 요소의 예’는 내용 요소 범주에서 선정하였다.

2. 실제와 내용 요소 간의 관련성, 내용 요소 간의 통합성 강조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실제와 내용 요소 간의 관련성, 내용 요소 간의 통합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먼저,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실제’ 범주를 1차 조직자로, 담화와 글을 생산하고 수용하는 활동에서 요구되는 ‘내용 요소’를 2차 조직자로 설정하여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강화하였다. 예컨대, 성취 기준이 설명문의 수용과 관련되어 있다면, 내용 요소는 해당 설명문을 수용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식, 기능, 맥락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특정 담화와 글의 수용과 생산은 특정 지식, 기능을 요구한다는 관점을 수용한 결과이다.

한편, 내용 요소 간의 통합과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본질, 원리, 태도가 독립적·분절적으로 인식되고 학습된 이유는 이들의 통합과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가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실제’를 중심에 놓음으로써, 구체적인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 속에서 다양한 지식, 기능, 맥락이 서로 통합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학교 수준에서의 수준별 교육 지향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규정하는 주체를 국가가 아닌 단위 학교로 설정하였다. 학습자의 수준이 학습자의 수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학습자의 수준을 국가에서 몇 가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 차이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주체는 학습자와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는 교사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수준을 해석하는 권한과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적절한 교육적 처방을 하는 권한을 교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수준별 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기본】과 【심화】로 구분하여 제시한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를 삭제함으로써 학교 단위, 교사 단위의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준별 학습을 의도하고자 하였다. 한편,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단위, 교사 단위의 수준별 학습을 기획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담화와 글의 내용, 범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년별·영역별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또한 수준별 수업을 위한 사항을 ‘4. 교수·학습 방법’ 항의 ‘교수·학습 계획’, ‘교수·학습 운용’에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4. 담화와 글의 생산, 수용 활동에 작용하는 맥락의 강조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 선정 범주에 지식, 기능 외에 맥락 범주를 새롭게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행위의 정확성, 적절성, 윤리성 등을 다양한 맥락 속에서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맥락은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한다. 상황 맥락은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맥락으로 언어 행위 주체(화자·필자, 청자·독자), 주제, 목적 등을 포함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은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맥락으로 역사적·사회적 상황, 이데올로기, 공동체의 가치·신념 등을 포함한다.

맥락은 언어 공동체에서 형성된 언어 규범·관습과 언어 행위자의 개별적인 언어 행위가 만나는 공간으로 언어 행위의 구심력과 원심력이 만나고 경쟁하는 공간이다. 맥락 범주의 설정은 언어 활동에 시간성, 공간성을 부여함으로써 언어 활동을 역사적 맥락, 사회적 맥락에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동안 국어과 교육과정은 탈맥락적인 지식, 기능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자신의 언어 행위를 역사, 문화, 사회라는 넓은 맥락에서 사고하고 성찰하는 길을 열어주지 못하였다. 모국어 사용자는 정확하고 유창한 언어 활동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언어 활동을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성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관점을 국어과 교육과정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5. 교육 내용의 타당성, 적정성, 연계성 강화

교육 내용의 타당성을 사회적 요구, 학문적 요구, 학습자 요구에 근거하여 분석하여 새로운 교육 내용을 추가하거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타당성을 강화하였다. 교육 내용의 적정성(내용의 많고 적음, 내용 수준의 높고 낮음)을 전체 수업 시수, 중복 여부, 내용의 층위, 학습자의 수준에 근거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을 유지·삭제·조정(학년 간, 학교급 간 이동)·추가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교육 내용의 학년 간, 학교급 간의 수직적 위계성, 학년 내의 수평적 관련성에 근거하여 분석하여 수정·보완함으로써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년 내 영역 간의 연계성을 담화와 글의 차원에서 강화하고자 하였다.

6.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통성의 강화

국가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둘러싼 주체 간의 정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하였으며, 이러한 성취 기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설정한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 ‘내용 요소의 예’ 항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하나의 개별적인 담화 또는 글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수준과 범위를 지닌 담화 또는 글을 국어 수업에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 항목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해당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세부적인 지식, 기능, 맥락을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내용 요소의 예’ 항목에 제시하였다.

한편, 교육과정의 구체성이 강화될수록 교육과정 실행 주체의 재량권과 해석권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 ‘내용 요소의 예’를 제시하여 소통성을 높이되, 이들을 지침의 성격이 아닌 하나의 ‘예’로 제시하였다. 즉,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한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 ‘내용 요소의 예’는 국어과 교육과정 실행 주체에 의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석되고 추가·변형될 수 있는 성격을 지닌다.

7.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매체’ 관련 내용의 확대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사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다. 다매체 시대로 일컬어지는 언어 환경의 변화는 국어과뿐만 아니라 많은 교과와 교육 내용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매체 언어 역시 기호라는 점에서 국어과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즉 담화와 글의 수용과 생산 능력 신장을 목표로 삼고 있는 국어과에서 매체 담화·글의 수용과 생산을 국어과의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매체 담화·글의 창의적, 비판적 수용을 강조함으로써 국어 교육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IV.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1. 성 격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과의 성격을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며,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 교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어과는 기능적 문식성의 신장과 국어 문화의 창조, 공동체의 발전과 자아 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교과임을 분명히 하였다.

국어과의 성격에 제시된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내용의 범주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전통적으로 국어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국어 능력 신장을 강조하여 왔다. 이 능력은 기존 지식의 단순 수용이나 표출 능력이 아니라, 언어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사고(의미)와 언어를 연결지어야 하는 지적 기능으로서의 고등 정신 능력이다. 이 능력은 단순히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기초 기능이 아닌, 의미를 언어화(표현)하고 언어에서 의미를 추출하여 재구성(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맥락의 학습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에 효과적으로 신장되는 능력이다. 이는 국어 활동의 지적 기반으로 서 지식 학습이 강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고 있는 창의적, 비판적 국어 능력은 언어 활동의 반복에 의한 숙달보다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의 체계적인 학습이 선행될 때 효과적으로 향상된다. 국어 활동에 대한 지식은 비판적·창의적인 국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국어에 대한 지식은 국어 현상을 탐구하고 국어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문학에 대한 지식은 문학 작품의 수용을 통해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심미적 정서를 함양하는 데 지적 기반이 된다. 이러한 지적 기반이 곧 국어 사용 양상과 내용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사상과 정서를 효과적이고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국어 교육의 이념적 지향인 국어 문화의 이해와 창조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성격을 규정하였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은 실제 상황에서의 주체적인 국어 활동을 강조하였다. 주어진 문제 상황을 자신의 언어 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경험을 할 때,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국어 능력이 신장된다는 관점을 수용한 것이다. 답화나 글은 구체적인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상황을 배제하고 담화와 글을 수용,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습자는 답화나 글이 실제 상황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생성, 변화한다는 점을 인식할 때 주체적인 국어 활동을 할 수 있다.

‘문법’ 학습은 언어 현상의 규칙을 찾아내는 탐구 활동을 강조하고, 학습한 지식을 국어 사용 실제에 적용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다. 즉, 문법에 대한 학습은 교사 위주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언어 현상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규칙을 발견하게 하고, 이렇게 습득한 지식을 국어 사용 과정에서 활용하는 활동을 강조하였다. 이는 단편적인 지식 전달 위주의 문법 학습을 개선하려는 의도이다.

‘문학’ 학습은 문학 작품을 찾아 읽고 해석하며, 문학 작품을 생산하는 학습 활동을 함으로써 작품에 나타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 상상력이 향상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간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문학적 상상력의 향상이 문학을 학습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러한 능력은 작품에 대한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해석 활동과 작품 창작 활동을 통해서 길러진다고 본 것이다.

한편, 국어과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해력과 표현력 신장 교육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정확성과 효율성을 중시하고, 중등학교에서는 정확성과 더불어 비판적 태도와 창의성을 강조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어 활동을 통해 초등학교에서는 사고력과 상상력을 기르는 데, 중등학교에서는 고등 사고력과 심미적 안목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하였다. 국어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 초등학교에서는 국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즐기는 데, 중등학교에서는 국어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물론 학교급별 국어 교육의 지향점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두 학교급 모두 앞에서 제시한 지향점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발달 특성과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도의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하였다.

2. 목 표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국어과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가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도달점을 포괄적, 종합적으로 기술한 ‘전문’과 이를 한 단계 구체화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 진술을 통하여 국어과의 지향점이 인지적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의 습득과 기능의 향상, 정의적 교육 내용으로서의 태도, 가치, 동기, 습관 등에 대한 학습을 균형 있게 하여 지적으로 성숙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균형 잡힌 한국인을 양성하는 데 있음을 명시하였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 진술 방식을 유지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국어과 교육 목표를 일원화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도달해야 할 교육 목표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도달해야 할 교육 목표와 동일하다. 다만, 학습자의 국어 사용 양상이 얼마만큼 정확하고 비판적이며, 효과적이고 창의적인가에 따라 학교급별 성취 기준이 다르게 설

정된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어 학습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지향점으로서의 국어과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 활용하면서 자신의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한다.
- 나.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
-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미래 지향의 국어 문화를 창조한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 제시 방식을 유지하여 ‘전문’과 ‘세부 목표’로 구분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전문에서는 학습자가 학습의 결과로서 ‘알아야 할 것’(이해 영역), ‘실천해야 할 것’(실천 영역), ‘지녀야 할 태도’(태도 영역)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학습자는 국어 수업을 통해서 ‘국어 활동’, ‘국어’, ‘문학’에 대한 이해를 확충해야 하며, 국어 활동에 작용하는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어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세부 목표는 전문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세 개의 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향에서는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해서 국어과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지식은 국어 활동, 국어, 문학에 대한 지식임을 밝히고, 이러한 지식을 배우는 의의는 지식 자체의 습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국어 능력의 신장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나’향에서는 국어 능력은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능력이며, 이러한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학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담화와 글의 수동적인 수용·생산을 지양하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수용·생산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다’향은 정의적 교육 내용과 관련된 목표로서 국어 세계에 대한 흥미, 언어 현상의 탐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의 창조를 강조하였다.

3. 내 용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3. 내용’항은 학년별 내용을 선정하는 준거로서의 ‘가. 내용 체계’와 이를 바탕으로 선정한 교육 내용을 학년별로 제시한 ‘나. 학년별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가. 내용 체계

(1) 내용 체계 구성의 기본 관점

가) 제7차 교육과정의 취지를 유지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정신 구현에 적합한 내용 체계를 구안하였다. 즉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 10년(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 단일한 ‘내용 체계’를 마련하였다.

나) 제7차 교육과정과 같이 영역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²⁾, 문학으로 설정하였으며, 6개 영역은 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어 능력의 신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다.

다) 국어 교육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며 단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익히는 활동보다는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을 지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는 내용 범주(본질, 원리, 태도)가 상위 범주였고, 실제 범주는 하위 범주였다. 그러나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실제 범주를 상위 범주(1차 조직자)로 설정하고, 내용 요소 범주(지식, 기능, 맥락)를 실제 범주의 규정을 받는 하위 범주(2차 조직자)로 설정하였다.

라)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 범주에서 태도 범주를 삭제하였다. 태도 범주에 포함된 ‘동기’, ‘흥미’, ‘습관’, ‘가치’를 학년별, 영역별로 제시함으로써 언어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특정 학년, 영역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언어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형성은 모든 학년,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에서 강조하였고,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에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한편, 특정 학년,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한 태도 관련 내용은 해당 학년의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에서 제시하였다.

마)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 범주로 ‘맥락’ 범주를 새롭게 설정하였다.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 지식과 기능의 쓰임은 그 자체만으로 적절성을 평가할 수 없다.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적절성이 평가된다. 맥락의 강조는 언어 활동에 역사성, 사회성, 윤리성을 부여하고, 언어 활동이 갖는 관계성, 소통성, 대화성을 환기시킴으로써 비판적, 성찰

2) 제7차 교육과정에서 사용하였던 ‘국어 지식’이라는 영역명을 ‘문법’으로 바꾸었다. 이는 1) ‘국어 지식’에서 ‘국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영역 모두를 지시한다는 점, 2) ‘국어 지식’에서 ‘지식’이 ‘쓰임과 활용’까지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적인 언어 학습자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바) 제7차 교육과정의 실제 범주는 정보 전달, 설득, 친교, 정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범주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제7차 교육과정의 ‘친교’라는 범주명을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 바꾸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언어 활동은 1) 개인적·사회적 목적으로, 2) 공식적·비공식적 상황에서, 3) 긍정적·비판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친교’라는 용어는 개인적 목적으로 비공식적 상황에서 긍정적 인간관계의 형성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 범주명을 바꾸었다.

사)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 범주인 ‘본질’, ‘원리’는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 범주인 ‘지식’, ‘기능’과 각각 대응한다. 본질, 원리는 그 용어가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해당 내용을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본질’을 ‘지식’으로³⁾, ‘원리’를 ‘기능’으로 바꾸었다.

(2) 내용 체계 범주의 의미와 범주 간의 관계

가) ‘실제’는 성취 기준 선정 범주에 해당하며,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을 의미한다. 실제 범주를 구성하는 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 작용, 정서 표현은 언어 활동의 목적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나) ‘지식’, ‘기능’, ‘맥락’은 내용 요소 선정 범주에 해당하며, 내용 요소는 실제, 즉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서 요구되는 세부적인 지식, 기능, 맥락을 의미한다. 학년별 내용에 제시한 ‘내용 요소의 예’는 이들 세 가지 범주에서 각각 선정하였다.

다) ‘지식’은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서 요구되는 형식적, 본질적, 명제적 지식’을 의미한다. 하위 요소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영역은 소통의 본질, 담화 특성, 매체 특성을, 문법 영역은 언어의 본질, 국어의 특질, 국어의 역사, 국어의 규범을, 문학 영역은 문학의 본질과 속성, 문학의 양식과 갈래, 한국 문학의 역사를 포함한다.

라) ‘기능’은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 관여하는 사고의 절차나 과정’을 의미한다. 하위 요소는 영역별 특성에 따라 다르다.

마) ‘맥락’은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문화적 배경’을 의미한다. 하위 요소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영역은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문법 영역은 국어 의식, 국어 생활 문화를, 문학 영역은 수용·생산의 주체,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을 포함한다.

바) ‘실제’ 범주는 내용 요소의 범주를 규정하고 통어한다. 즉 내용 요소는 실제와의 관계 속에서만 그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관계는 학년별 내용에 제시한 성취 기준(실제 범주에서 선정)과 내용 요소의 예(내용 요소 범주에서 선정)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즉 내용 요소는 학습자가

3) 제7차 교육과정의 ‘본질’ 범주를 구성하는 하위 항목과 개정 교육과정의 ‘지식’ 범주를 구성하는 하위 항목은 동일하지 않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7차 교육과정의 ‘본질’ 범주에 포함된 ‘필요성’, ‘목적’, ‘상황’은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맥락’ 범주에서 다루어진다.

해당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학습하고 익혀야 할 요소로서 기능한다.

사) 지식, 기능, 맥락은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서 긴밀하게 교섭하고 상호 작용한다.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 체계 구성의 기본 관점, 범주의 의미 및 범주 간의 관계에 따라 구성한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과의 내용 체계

- 듣 기 -

듣기의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를 전달하는 말 듣기 - 사회적 상호 작용의 말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득하는 말 듣기 - 정서 표현의 말 듣기
지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의 본질 ○ 담화 특성 ○ 매체 특성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확인 ○ 추론 ○ 평가와 감상
맥 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맥락 ○ 사회·문화적 맥락 	

- 말 하 기 -

말하기의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를 전달하는 말 하기 - 사회적 상호 작용의 말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득하는 말 하기 - 정서 표현의 말 하기
지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의 본질 ○ 담화 특성 ○ 매체 특성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생성 ○ 내용 조직 ○ 표현과 전달
맥 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맥락 ○ 사회·문화적 맥락 	

- 읽 기 -

읽기의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읽기 - 설득하는 글 읽기 - 사회적 상호 작용의 글 읽기 - 정서 표현의 글 읽기 	
지 식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의 본질 ○ 글의 특성 ○ 매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확인 ○ 추론 ○ 평가와 감상
맥 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맥락 ○ 사회·문화적 맥락 	

- 쓰 기 -

쓰기의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 설득하는 글 쓰기 - 사회적 상호 작용의 글 쓰기 - 정서 표현의 글 쓰기 	
지 식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의 본질 ○ 글의 특성 ○ 매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생성 ○ 내용 조직 ○ 표현과 고쳐 쓰기
맥 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맥락 ○ 사회·문화적 맥락 	

- 문 법 -

국어 사용의 실제			
- 음운	- 단어	- 문장	- 담화/글
지 식		탐 구	
○ 언어의 본질 ○ 국어의 특징 ○ 국어의 역사 ○ 국어의 규범		○ 관찰과 분석 ○ 설명과 일반화 ○ 판단과 적용	
맥 락			
○ 국어 의식 ○ 국어 생활 문화			

- 문 학 -

작품의 수용과 생산의 실제			
- 시(시가)		- 소설(이야기)	
		- 극(연극, 영화, 드라마)	
		- 수필·비평	
지 식		수용과 생산	
○ 문학의 본질과 속성		○ 내용 이해	
○ 문학의 양식과 갈래		○ 감상과 비평	
○ 한국 문학의 역사		○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 작품 창작	
맥 락			
○ 수용·생산의 주체			
○ 사회·문화적 맥락			
○ 문학사적 맥락			

나. 학년별 내용

(1) 성취 기준⁴⁾

성취 기준은 학습자가 국어 수업을 통해 도달해야 할 국어 능력의 내적·외적 특성을 의미한다. 성취 기준은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함으로써, 국어 수업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한 명료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리에 따라 진술하였다.

첫째, 성취 기준은 ① 담화 또는 글의 유형+② 주요 내용 요소(지식, 기능, 맥락)+③ 행동(분석, 해석, 평가, 조사 등)을 결합하여 진술한다.

둘째, 성취 기준은 개별적인 지식, 기능, 맥락보다는 한 편의 담화 또는 글을 수용하거나 생산하는 활동에 맞추어 기술한다.

셋째, 성취 기준에 포함되는 지식, 기능, 맥락 관련 내용 요소는 해당 담화 또는 글을 생산, 수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요소로 한다.

넷째, 성취 기준은 교육과정 실행 주체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각 성취 기준은 하나의 담화 또는 글의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학년별, 영역별 담화와 글의 유형을 선정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 활동 목적별(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 작용, 정서 표현)로 대표성을 지니는 담화·글을 선정하였다. 둘째, 내용과 형식면에서 완결성을 갖추었다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담화·글을 선정하였다. 셋째,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사회생활에서 두루 쓰이고 있는 담화·글을 선정하였다.

학년별 담화·글의 배열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수준, 담화·글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예컨대, 소재의 경우 저학년에서는 친숙하고 가깝고 구체적인 소재를 다루도록 하고, 고학년에서는 낯설고 멀고 추상적인 소재를 다루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제 혹은 내용의 경우 저학년에서는 친숙하고 간단한 주제를, 고학년에서는 추상적이고 복잡한 주제를 다루도록 하였다. 둘째, 담화·글의 형식성, 공식성을 고려하여 저학년에서는 비형식적, 비공식적 담화·글을, 고학년에서는 형식적, 공식적 담화·글을 제시하였다. 셋째, 동일한 언어 활동 목적을 공유하면서 담화·글의 유형을 세분화하기 어렵고 학습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담화·글은 소재, 주제, 학습 내용의 수준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제시하였다.

(2)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는 각 성취 기준에 제시된 담화·글을 수준과 범

4)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에 해당한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내용’은 학습자가 국어 수업을 통해 도달해야 할 능력을 의미하였다. 지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에는 ‘내용’보다는 ‘성취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측면에서 한 단계 구체화하여 진술한 것이다.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에 제시한 담화·글의 유형은 네 가지 언어 활동 목적에서 각각 선정한 것이다.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에 제시된 담화·글은 1) 학습자가 성취 기준에 도달한 결과 수용·생산할 수 있는 담화·글, 2)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학습 과정에서 다루어야 하는 담화·글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는 성취 기준과 차례대로 대응한다.

제시한 담화 또는 글은 하나의 예시로서 교실 수업 상황에서 다른 담화나 글을 다룰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언어 활동의 목적, 성취 기준, 학습자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내용 요소의 예

내용 요소는 해당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상황에서 배우고 가르쳐야 할 학습 내용을 의미한다. 내용 요소는 내용 요소 선정 범주인 ‘지식’, ‘기능’, ‘맥락’에서 각각 선정하였다. 각 내용 요소 선정 범주에서 1개 이상의 내용 요소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성취 기준의 성격, 특성에 따라 1개 이상 선정된 경우도 있고, 선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내용 요소는 성취 기준당 3~4개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제시 순서는 대체로 ‘지식→기능→맥락’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내용 요소는 하나의 예시로서 교실 단위의 교수·학습 장면에서 구체화, 상세화, 간략화할 수 있으며 교체·통합·변형도 가능하다.

<1 학년>

- 듣 기 -

【1-듣-(1)] 여러 가지 소리를 구별하여 듣고 흉내 낸다.

【내용 요소의 예】

- 소리 표현 인식하기
- 소리 흉내 내기
- 즐겁게 참여하기

이 성취 기준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자연이나 대상에서 나는 여러 가지 소리를 구별하여 듣고 이를 따라함으로써, 소리에 대한 감각적 인식 능력을 신장시키고 음성언어의 소통에 즐겁게 참여하는 기초적인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다양한 소리를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하되, 소리를 정확하게 지각하게 하고 이를 의미를 가진 표현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소리를 표현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연이나 대상에서 나는 여러 가지 소리를 언어의 분절음으로 전환하여 지각하고, 이것을 일정한 의미와 연결하여 소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소리를 듣고 그 대상을 떠올려 보고, 들은 소리를 반복하여 나타내면서 소리를 정확하게 지각하게 하고, 아울러 소리와 대상의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학습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감각하고 있는 소리와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하여 보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음성언어 소통에 즐겁게 참여하게 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소리 표현 인식하기’는 1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2)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즐겁게 참여하기’는 1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말의 재미를 느끼면서 시, 노래를 듣는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 있고 어린이가 흉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리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소리 중에서 특정 대상을 떠올릴 수 있고 어린이 수준에서 흉내 내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기침 등 인체의 소리, 음식을 먹으면서 내는 소리, 전화 벨 소리 등 주변 기기의 소리,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의 소리, 차나 기차 등 탈것이 내는 소리, 비·바람·시냇물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 등 일상적이고 주변적인 소리를 대상으로 한다. 학습자들이 사물이 각각 다른 소리를 지니며 그 소리가 의미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므로 소리가 나는 대상을 학습자들이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1-듣-(2)】 다른 사람의 말을 자연스러운 자세로 듣는다.

【내용 요소의 예】

- 듣기 자세의 중요성 이해하기
- 몸가짐을 바로하면서 집중하기
- 적절한 반응 보이기

이 성취 기준은 자연스러운 자세와 적절한 반응을 통해 상대방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초적인 듣기 태도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자연스러운 자세로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태도의 문제이며 언어 예절과도 관계가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태도에 관한 내용이 잘 학습되면 나중에 학습할 인지적인 기능과 전략 학습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자연스러운 자세로 주의 깊게 듣는 데 필요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하되, 특히 말하는 이와 그 내용에 따라 적절한 신체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듣기 자세의 중요성 이해하기’는 지식 관련 내용 요소이다. 이를 지도할 때는 듣기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상대방과 그 발화에 대해 적절한 자세와 반응을 보임으로써 정보 수용과 대인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한다. ‘몸가짐을 바로하면서 집중하기’는 적절한 눈 맞춤과 바른 자연스러운 자세를 통해 상대방에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바른 자세를 강조하면 자칫 경직된 자세 혹은 딱딱한 자세로 오해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자세를 강조하면 다소 흐트러진 자세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지도한다. ‘적절한 반응 보이기’는 미소와 같은 긍정적인 표정을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 신체적인 반응과 맞장구를 치는 등 언어적인 반응을 보이는 적극적인 듣기 태도의 하나로, 상대방과 그 발화에 따라 반응을 보임으로써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고 발화의 양이나 속도,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적절한 반응 보이기’는 1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일상생활에서 상대와 상황에 맞게 인사를 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어린이의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짧은 이야기

다루는 소재는 학습자가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생활상의 화제를 중심으로 한다. 이야기의 내용에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낼 만한 요소가 담겨 있어야 한다. 가능하면 듣기 자세나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의 이야기를 포함하는 화제가 좋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 상하적인 관계를 가진 상황이나 학교 수업의 듣기 상황 등 학습자와 직접 관련이 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짧은 이야기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1-듣-(3)】 말의 재미를 느끼면서 시, 노래를 듣는다.

【내용 요소의 예】

- 재미있는 말 찾기
- 소리의 운율 느끼기
- 운율을 살려 시, 노래 따라 하기

이 성취 기준은 재미있는 말을 통해 듣기가 재미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듣기에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좋은 듣기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즐겨 듣는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재미있는 말을 찾아 재미를 느끼는 것은 들은 내용의 이해에 필요한 기초 능력이기도 하다. 시나 노래에 들어 있는 재미있는 말을 찾아보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그것이 재미가 있는 이유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시나 노래의 내용 감상보다는 시어나 가사의 말소리가 지니는 재미를 느끼는 데 중점을 둔다.

의성어, 의태어, 대구적 표현, 관용적 표현 등에서 반복성으로 인해 재미와 운율이 느껴지는 말을 찾아보도록 지도한다. 재미있는 말 중에서 소리의 운율이 두드러진 부분을 찾아보도록 지도한다. 소리의 운율을 살려 시를 읽어보거나 노래를 따라 해 보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운율을 살려 시, 노래 따라 하기’는 1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1)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의 재미를 느낀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운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나 노래

어린이의 정서를 담은 시나 노래 중에서 소리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이 드러나는 것을 중심으로 다룬다. 의성어나 의태어 등 소리 자체가 재미있는 낱말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선정할 수 있다. 추상적인 대상물보다는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등 주변의 구체적인 대상물을 표현한 것이어야 학습자들의 재미를 이끌어내기 쉽다.

【1-듣-(4)】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다.

【내용 요소의 예】

-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 파악하기
-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의 모습 상상하기
- 상상한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이 성취 기준은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면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야기를 즐기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내용을 상상하고 해

석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듣기의 과정을 깨닫게 할 수 있다.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하되,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하고 상상의 결과를 말하거나 그림이나 행동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들려주는 이야기에 어떠한 인물이 나오는지 그 인물의 모습과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어떠한지 상상하게 한다. 상상한 결과를 흉내 내거나 말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게 한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단계에서는 내용의 정확성보다 상상한 인물의 특징을 파악하여 인물의 모습을 잘 상상하였는지에 초점을 두되,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바를 말로 설명하게 함으로써 언어 표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 파악하기’는 1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3) 그림 동화 속의 그림을 이야기와 관련지어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상상한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1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대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소개하는 글을 쓴다.’, 1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2) 문학 작품에서 재미있는 내용을 그림이나 말로 표현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인물의 행동이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의인화된 동물 이야기, 위인전, 옛날이야기

인물 중심의 이야기로 의인화된 동물 이야기, 위인전, 옛날이야기 등을 다루되,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선정한다. 지나치게 많은 수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보다 2~3명의 주된 인물들이 대조적인 성격을 드러내거나 인물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야기가 적절하다.

- 말 하기 -

【1-말-(1)】 여러 사람 앞에서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언어 표현 알기
- 말할 내용 선정하기
-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 있게 말하기

이 성취 기준은 학교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학습자들이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말을 함으로써 공적 말하기 상황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목소리는 말의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말하는이의 자신감을 나타내 준다. 듣는이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크기를 조절하여 정확한 발음과 끝맺음이 분명한 목소리로 소개하는 말을 하

는 데 중점을 둔다.

소개하는 말하기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냄으로써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자신을 소개하는 말하기의 예를 보여줌으로써, 소개하는 말을 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지 지도한다. 1학년 수준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말할 만한 내용으로는 이름, 사는 곳, 가족, 친한 친구, 좋아하는 것, 인사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나는 ○○○이야. 학교 뒤편 ○○동에 살아.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동생 그리고 나 이렇게 넷이야. 나는 ○○을 좋아해. 친구들아, 만나서 반가워.”와 같이 몇 문장 정도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짝과의 일대일 대화나 모둠 활동 등을 통해서 표현 연습을 한 후, 전체 학급 친구들을 대상으로 말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이때 목소리의 크기, 발음, 끝맺음 등에 유의하여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1학년 듣기 영역 성취 기준 ‘(2) 다른 사람의 말을 자연스러운 자세로 듣는다.’와 연계하여, 말하는이에게 주의를 집중하면서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듣도록 지도할 수 있다. 또 1학년 쓰기 영역 성취 기준 ‘(2) 대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소개하는 글을 쓴다.’와 연계하여 자신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소개하는 글을 쓰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일상생활에서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말

1학년 학습자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말을 하는 경우는 학교나 그 밖의 생활공간에서 친구들과 선생님, 친척이나 친지 등을 처음 만났을 때이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말하기 상황을 상정하여 자신을 소개하는 말을 할 수 있다.

【1-말-(2)】 일상생활에서 상대와 상황에 맞게 인사를 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여러 가지 인사말 알기
- 또렷한 목소리, 공손한 자세로 인사하기
- 인사가 관계 형성과 유지에 도움이 됨을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상대와 상황에 맞게 인사를 함으로써 기본적인 언어 예절을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인사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데 기초가 된다. 인사를 주고받을 상대와 인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상대와 상황에 맞는 인사말을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인사는 서로 마주 대하거나 헤어질 때 말이나 행동으로 표하는 예절이다. 인사를 주고받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생각해 봄으로써 인사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 그리고 인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 가령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학교에 갈 때, 친구를 만났을 때, 선생님을

뵈었을 때, 선생님과 헤어질 때, 도움을 받았을 때, 미안한 일이 있을 때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인사말을 확인하고 익히게 한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은영아,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도와줘서 고마워.”, “정원아, 미안해. 괜찮니?” 등 구체적인 예를 활용하여 말해 보게 하고 인사말을 생활화하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인사를 할 때에는 알맞은 목소리로 공손하게 하여야 함도 알게 한다. 우물우물하는 목소리나 공손하지 않은 자세로 하는 인사를 받을 때의 느낌을 경험해 보게 함으로써 인사 예절의 중요성도 알게 한다. 이 성취 기준은 인사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므로 인사를 받는 사람이 적절히 반응할 수 있도록 1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다른 사람의 말을 자연스러운 자세로 듣는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일상생활에서 친구, 가족이나 친지, 교사 등과 주고받는 간단한 인사말 1학년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인사말은 한두 마디 정도로 간단하다. 그러나 상대와 상황에 맞는 인사말을 떠올리지 못하거나 습관화되지 않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한 인사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1-말-(3)】 감정을 나타내는 낱말을 알맞게 사용하면서 대화한다.

【내용 요소의 예】

-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 알기
- 상황별로 감정을 나타내는 말 고르기
-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상황에 알맞게 표현하기

이 성취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정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적절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대인 관계에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감정 표현은 정서적 유대감과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 가지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낱말을 알고 이를 상황에 알맞게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감정(感情)이란 어떤 대상이나 일에 대하여 느끼는 마음이나 기분이다. 감정은 대인 관계나 하는 일 또는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개인의 내면에 다양하고 복잡하게 형성될 수 있다. 언어를 통하여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정서적 균형감 유지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1학년 학습자들이 가정과 학교의 일상생활에서 학습과 놀이, 그 밖의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하여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익히고 이를 상황에 알맞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학년 수준에서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서술어로 사용한 하나의 문장과 그러한 상태를 설명하는 뒷받침 문장 하나 정도를 연결하여 표현하도록 한다. “학교에

서 칭찬 스티커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선생님께 칭찬을 많이 받았으니까요.”나 “누가 일부러 나를 툭 치고 가면 화가 나요. 일부러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서요.”와 같은 표현을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로는 ‘좋다, 싫다, 사랑스럽다, 밋다, 미안하다, 기쁘다, 슬프다, 화나다, 즐겁다, 재미있다, 지루하다, 심심하다, 짜증 나다, 힘들다, 귀찮다’ 등이 있다. 이 형용사들을 ‘정말, 참, 너무’ 등의 부사와 어울려 쓸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은 1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다른 사람의 말을 자연스러운 자세로 듣는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간단한 대화

친구, 선생님, 가족 등 주위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나 직접 경험한 일 또는 책, 텔레비전, 다른 사람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말을 짝 또는 선생님과 대화통을 통하여 사용하게 한다. 긴 대화보다는 다양한 상황에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짧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1-말-(4)】 일이 일어난 차례에 따라 이야기를 정리하여 말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일이 일어난 차례를 나타내는 표현 알기
- 이야기의 내용을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정리하기
- 이야기의 내용을 실감나게 말하기

이 성취 기준은 이야기를 사건의 순서에 따라 말하게 함으로써 서사적 말하기의 기초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이야기하기는 경험을 언어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활동이다. 직접 경험한 일이나 듣거나 읽은 이야기의 내용을 일이 일어난 차례에 따라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직접 경험한 일이나 듣거나 읽은 이야기의 내용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하게 한다. 듣거나 읽은 이야기를 말할 때에는 내용을 이해, 요약, 기억하여야 하므로 학습자가 다소 어려워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경험한 일을 말하는 활동을 먼저 해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일이 일어난 차례는 ‘어제, 토요일에, 주말에, 아침에, 저녁에’ 등과 같은 시간 표현과 ‘처음에, 그 다음에, 그 후, -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결국’ 등과 같은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정리한 내용을 떠올리며 순서에 유의하면서 실감나게 표현하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에서 실감나게 말하기는 이야기의 내용을 글을 읽듯이 문어투로 표현하지 않고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이야기의 내용을 실감나게 말하기’는 1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

면서 이야기를 듣는다.’와, ‘이야기의 내용을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정리하기’는 1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사건의 순서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간단한 이야기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나 듣거나 읽은 이야기 중 사건의 순서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야기를 말하게 한다.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읽게 할 때에는 인물의 행동이 명료하고 중심 사건이 서너 가지 정도로 간추려지는 간단한 것을 선정한다.

- 읽 기 -

【1-읽-(1)】 낱말과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다.

【내용 요소의 예】

- 낱자 알기
- 글자의 짜임 알기
- 변하는 소리에 주의하면서 소리 내어 읽기

이 성취 기준은 처음 문자 형태의 언어를 접하는 학습자가 한글을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오늘날은 글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비중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할 경우 원만한 삶을 살아가기가 불가능하다. 한글은 한국어를 기록할 수 있는 문자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고 익혀야 한다. 이렇듯 중요한 한글을 정확히 익히게 하기 위하여 한글의 원리를 알고, 한글을 유창하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하여 이전에 익혔거나 새롭게 배워야 하는 한글의 특징을 낱자, 글자, 낱말, 문장의 각 수준에서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한다. 낱자의 수준에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구별하고 자음과 모음의 종류를 알게 하며, 글자의 수준에서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을 알아 글자의 짜임을 이해하게 하고, 기본적인 글자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한다. 낱말과 문장의 수준에서 이들을 정확한 발음으로 읽을 수 있게 하고, 글자와 소리가 다른 경우 그 변화의 원리를 이해하게 하여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게 한다. 낱말, 문장과 같이 뜻이 있는 단위는 뜻을 활용하여 쉽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글자나 낱말,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 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함으로써 글자의 모양과 발음이 확실히 연결되어 기억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뜻이 자연스럽게 연상될 수 있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1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1)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리를 안다.’와 ‘(2)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안다.’의 학습 내용과 연계

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우리말 글자의 짜임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문장이나 짧은 글

간단하고 쉬운 구조의 글자로 된 한 글자 낱말부터 시작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의 글자로 된 두 글자 이상의 낱말을 다룬다. 또한 간단한 내용과 형식의 구절 및 문장을 다루고, 짧은 글을 포함한다. 이들 단어나 문장, 짧은 글은 학습자들의 생활과 밀착된 내용의 것이 적절하다.

【1-읽-(2)】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다.

【내용 요소의 예】

- 띄어 읽기의 방법 알기
-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띄어 읽기
- 방법을 달리 하여 띄어 읽고 비교하기

이 성취 기준은 의미에 따라 글을 알맞게 띄어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글자를 익혀 글을 읽게 되면서, 글자를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며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을 소리 내어 읽으며 의미의 단위나 호흡의 길이를 판단하게 하고 이에 따라 알맞게 띄어 읽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띄어 읽기는 글의 의미 단위와 일치할 때 가장 적절하다. 의미 단위의 기본은 띄어쓰기의 단위인 어절이며, 어절보다 더 큰 의미 단위는 문장 부호로 알 수 있거나 학습자들이 이미 갖고 있는 구어 능력에 잠재되어 있는 지식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절별 띄어 쓰기를 고려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마침표, 쉼표, 따옴표, 묶음표 등 문장 부호의 쓰임새에 따라 알맞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 크고 작은 의미의 단위를 구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획득한 주어부와 서술부의 구별, 구나 절의 구별, 문장 종류의 구별, 단락의 구별 등의 인식을 활용하여 알맞게 띄어 읽을 수 있도록 한다. 띄어 읽기는 호흡의 길이, 붙여 읽는 속도, 쉬는 지점과 쉼의 길이 등으로 실현되는 데, 이들을 다르게 하였을 때 생기는 의미의 변화나 이해의 어려움 등을 알게 하고 이로써 알맞은 띄어 읽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이 성취 기준은 1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3) 문장 부호의 이름과 쓰임을 안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띄어 읽기에 주의를 요하는 문장이나 짧은 글

띄어 읽기에 주의를 요하는 문장이나 글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문장과 글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문장이나 짧은 글은 의미가 간명한 수준의 것을 다루되, 다양한 문장 부호와 다양한 의미 단위를 포함한 것이 바람직하다.

【1-읽-(3)】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핵심어 찾기
- 중요한 내용 간추리기
- 글쓴이의 생각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글에는 의미가 있음을 알고 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글을 읽는 것은 글에 담긴 의미를 알기 위해서이다. 지금까지 문자의 해독이나 정확한 소리대기에 중점을 두어 읽기를 지도하였다면, 이 단계에서는 의미에 집중하며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글의 의미는 기본적인 수준에서부터 고차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높은 수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된 그대로의 의미를 대강 아는 수준에서 다룬다.

글의 의미를 대강 안다는 것은 글의 세세한 내용까지는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대략 알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설명하는 글의 경우 설명의 대상, 곧 화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야기 글의 경우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아는 등, 핵심적인 대상이나 어휘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설명하는 글은 화제에 대해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 이야기 글은 주인공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알도록 하여 글의 내용을 간추릴 수 있도록 한다. 중심 내용을 간추리는 일은 글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요약하기의 수준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화제가 어떠한가.’ 또는 ‘주人公이 무엇을 하였다.’와 같이 주요 내용을 하나 또는 몇 개의 문장으로 정리하는 수준에서 다룬다.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글이 글쓴이의 생각을 담은 것이라는 점을 알고, 글쓴이의 생각이 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 표현 등의 목적에 비추어 어느 쪽에 가까운 것인지를 생각하며 글쓴이의 생각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끈다.

【글의 수준과 범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일이나 사물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글

친숙한 소재를 다룬 짧은 길이의 완결된 글을 대상으로 한다. 글의 소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친숙한 것이어서 내용이 어렵지 않도록 하고, 글의 길이가 길지 않으면서도 내용에 완결성이 있어 부분을 발췌한 글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야 한다. 설명하는 글이나 이야기 글, 기타 생활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1-읽-(4)】 글의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연관 지어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경험을 담은 글의 특성 이해하기

- 글쓴이의 경험 파악하기
- 글쓴이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비교하면서 읽는 태도 기르기

이 성취 기준은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연관 지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면서 글을 읽는 태도를 기르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읽기는 의미 파악이라는 수동적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읽는 이는 글을 읽으며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생각이나 판단 등을 글의 내용 이해에 적용함으로써,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읽은 결과를 자신의 삶에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읽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경험과 지식, 생각이나 판단 등을 글의 내용과 관련지으며 읽는 능동적인 읽기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경험을 담은 글은 글쓴이가 겪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기록한 글로서, 일기나 동화, 생활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경험을 담은 글을 읽을 때에는 인물의 행동이나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고, 그런 행동이나 생각을 하게 된 상황이나 분위기, 까닭 등을 생각하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글쓴이의 경험을 읽는 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과 비교해 보게 함으로써, 글의 내용에 깊이 공감하게 하거나 글의 내용을 평가하게 하고, 또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이러한 활동으로써 읽기 전반에서 읽는 이 자신과 관련지으며 글을 능동적으로 읽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글의 수준과 범위】 일상생활 경험을 담은 일기나 동화

경험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식의 글을 다룬다. 일기나 동화를 포함하여 생활문, 관찰문, 보고문 등 경험이 담길 수 있는 모든 글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학습자가 글의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쉽게 연관 지을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였거나 겪었을 법한 일이 담긴 글을 선정하도록 한다.

- 쓰 기 -

【1-쓰-(1)】 글씨를 바르게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연필을 바르게 잡기
- 바른 자세로 글씨 쓰기
- 날자, 글자를 바르게 쓰기
- 낱말, 문장을 받아쓰기

이 성취 기준은 연필을 바르게 잡고, 바른 자세로, 낱자와 글자를 차례에 맞게 쓰는 것이 모든 글쓰기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중시하여 설정하였다. 바른 집필 자세, 서사 자세, 필순에 맞게 쓰기 등의 기초 기능은 처음에 정확하게 익히고,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1학년 1학기 초에는 글의 내용을 구성하는 측면보다는 이러한 기초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학습의 중점을 둔다.

학습은 바른 서사 자세 익히기, 바른 집필 자세 익히기, 낱자와 글자를 필순과 방향에 맞게 쓰기, 낱말과 문장을 정확하게 받아쓰기의 순서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바른 서사 자세 학습에서는 시선, 허리, 팔과 다리의 위치 등에 유의하게 하고, 집필 자세 학습에서는 손가락으로 연필을 잡는 방법, 연필의 각도 등에 유의하게 한다. 낱자 바르게 쓰기에서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필순과 방향에 맞게 쓰는 것에 초점을 두며, 글자 바르게 쓰기에서는 글자를 모양에 맞게 쓰는 것에 초점을 둔다. 단, 학습 활동을 할 때 낱자, 글자 자체를 필순, 모양에 맞게 쓰는 기계적 연습에 한정하지 말고, 친숙한 사물 이름을 써 보는 의미 있는 활동을 병행하도록 한다. 한편, 낱말, 문장 받아쓰기 학습에서는 낱말이나 문장의 발음법, 낱말이나 문장의 발음 듣기, 낱말이나 문장의 표기법,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관계 등에 대한 학습을 포함하도록 한다. 불러주는 낱말은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낱말로 제한하고, 불러주는 문장은 읽기 교과서나 다른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들로 한정하도록 한다.

【글의 수준과 범위】 친숙하고 쉬운 낱말이나 문장

가족, 학용품, 동물, 과일, 채소 등 가정이나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 중에서 낱말을 선택한다. 받아쓰기 활동에서 불러주는 문장은 읽기 교과서나 다른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들로 한정하도록 한다.

【1-쓰-(2)】 대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소개하는 글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소개하는 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 이해하기
- 자신, 가족, 학교 등에 대하여 소개할 내용 선정하기
- 대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쓰기

이 성취 기준은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물이나 사물의 특징을 글로 자세하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쓰기에 흥미를 갖게 하고, 쓰기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글을 쓸 수 있게 되면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글을 통해 주위의 인물이나 사물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러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글쓰기 욕구를 자유롭게 표출하게 함으로써 글쓰기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고, 글쓰기의 기능을 스스로 깨닫도록 할 필요가 있다. 어떤 대상을 소개

하는 글을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대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쓸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데 중점을 둔다.

소개하는 글을 쓰게 되는 상황, 소개하는 글의 일반적인 특징, 소개하는 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소개하는 글에 들어갈 내용은 미리 정해져 있기보다는 소개하는 목적, 소개하는 글을 읽는 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소개할 대상에는 사람이나 사물 등을 두루 다루되, 가깝고 친숙한 대상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소개할 내용은 소개할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될 수 있으면 외양을 묘사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한다. 즉 사람인 경우에는 얼굴의 생김새, 행동의 특성 등을, 사물인 경우에는 사물의 모양, 색깔 등을 적절한 비유를 써서 소개하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 선정하기’와 관련하여 1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여러 사람 앞에서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대상을 소개하는 글

가정이나 학교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소개할 만한 대상을 선정한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신, 친구, 선생님, 부모님 등의 외모나 성격, 취미를 소개하거나, 우리 학교, 좋아하는 장난감, 애완동물 등의 특징과 좋아하는 점 등을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읽는 이는 가족, 선생님, 친구 등으로 설정한다.

【1-쓰-(3)】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자신의 생각 떠올리기
-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까닭 정리하기
- 생각과 까닭이 잘 드러나게 쓰기

이 성취 기준은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게 함으로써,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을 글쓰기를 통해 성찰하고, 창의적·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되, 일어난 일 자체보다는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까닭이 잘 드러나는 글을 쓰는 데 중점을 둔다.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서 직접 보거나 겪은 일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하게 한다. 비록 1학년일지라도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없을 수 없다. 단지, 그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그 생각의 전개가 정연하지 않을 뿐이다. 먼저 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하면서, 말할 내용의 양이나 형식을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몇 개의 낱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허용한다. 중요하게 학습해야 할 활동은 자신

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까닭을 정리하여 쓰도록 하는 활동이다. 학습자들이 제시하는 까닭은 매우 추상적이거나 개인적인 경험에 갇힌 것, 또는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것 등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적인 한계는 교사가 직접 지적하거나 수정하기보다는 친구의 글을 함께 읽는 과정에서 학습자들 스스로 찾고, 조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는 글

친구나 형제와 다투었던 경험,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경험, 가정이나 학교의 규칙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던 경험 등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 있는 일상의 경험을 활용한다. 본격적으로 주장하는 글을 쓰기보다는 쪽지, 일기, 토의문, 생활문 등 자연스럽게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글을 쓰도록 상황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좋다. 읽는 이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1-쓰-(4)】 인상 깊었던 일을 정리하여 그림일기를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그림일기의 형식 알기
- 하루 중 있었던 일을 떠올리기
- 인상 깊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쓰기
- 그림일기를 쓰는 태도 생활화하기

이 성취 기준은 겪은 일 중에서 인상 깊었던 일을 그림일기로 쓰게 함으로써 쓰기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고, 그림일기를 즐겨 쓰는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글쓰기는 입체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선조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으로서 1학년 학습자에게는 다소 어렵고 낯선 표현 방식일 수 있다. 학습자에게 익숙하고 편한 표현 방식인 그림 그리기를 글쓰기와 병행하게 함으로써, 글쓰기에 흥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어렵듯하게나마 글과 그림의 표현 방식의 차이도 알게 할 수 있다. 그림일기의 형식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림일기를 쓰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익히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그림일기를 즐겁게 쓰는 태도를 생활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림일기는 그림과 글로 구성됨을 이해하게 하고, 특히 그림과 글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깊이 관련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하루 중에 있었던 일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떠올려보게 한 후, 그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일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한다. 인상에 남는 일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겪은 일을 서사적으로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이므로 그림 그리기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유의한다. 그림에 대해 글을 쓰기 전에 그 그림을 말로 설

명해 보도록 하는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그림일기에 대해 수시로 반응을 보여주고, 그림일기 쓰기의 의미를 학습자 스스로 깨닫게 함으로써 그림일기를 쓰는 태도를 생활화하도록 돕는다. 이 성취 기준은 ‘인상 깊었던 일을 그림으로 표현하기’와 관련하여 1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2) 문학 작품에서 재미있는 내용을 그림이나 말로 표현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인상 깊었던 일을 표현한 그림일기

하루 일과를 나열하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과 특별하게 있었던 사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주변 환경이나 자연의 변화로부터 느낀 점 등 인상 깊었던 일에서 소재를 찾게 한다. 실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인상 깊게 읽은 책,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감상 일기 등도 쓸 수 있다.

- 문 법 -

【1-문법-(1)】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리를 안다.

【내용 요소의 예】

- 글자가 자음자와 모음자로 이루어짐을 이해하기
- 한글 자모 정확하게 읽기
- 자음자와 모음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글자를 소리 내어 읽기
- 한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기르기

이 성취 기준은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문자 해독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글자가 자음자와 모음자로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한글 자모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지도하되, 특히 글자 해독 능력을 신장시키고 한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한글 낱자의 모양과 음가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을 이해하여 글자의 짜임과 의미의 관련성을 익힐 수 있게 지도한다. 낱자가 모여서 글자를 만드는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본 음절표를 제시하거나 낱말 카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가능하면 개별화 수업의 형태로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이 성취 기준은 1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낱말과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한글 자음자와 모음자

한글 자음자와 모음자를 자료로 하되, 간단한 낱말도 활용한다. 받침이 없으면서 한 글자나 두 글자로 된 낱말,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낱말 등에서 출발하

여 받침이 있으면서 세 글자 이상으로 된 낱말,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는 없지만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낱말 등으로 확대한다.

【1-문법-(2)】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소리 나는 대로 적었을 때와 어법에 맞게 적었을 때의 차이 이해하기
- 한글 자모,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기

이 성취 기준은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여 규범에 맞게 발음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소리와 표기가 다른 다양한 낱말들을 접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하되, 소리 내어 읽고 바르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이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소리와 표기가 같은 낱말과 소리와 표기가 다른 낱말이 있음을 알고, 소리와 표기가 다른 낱말의 경우 소리 내어 바르게 읽기(발음하기), 소리 나는 대로 적기, 어법에 맞게 적기 등의 활동을 병행하여 소리 나는 대로 적었을 때와 어법에 맞게 적었을 때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글 맞춤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가져 궁극적으로는 국어 규범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이 성취 기준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교육과정과 통합하여 지도할 수 있다. 특히 1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여러 가지 소리를 구별하여 듣고 흉내 낸다.’, 1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낱말과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그리고 1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1)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리를 안다’는 활동과도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을 직접적으로 가르칠 필요는 없으나 한글 맞춤법이 있음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이 성취 기준은 2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1) 소리를 혼동하기 쉬운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한다.’, ‘(2) 표기와 소리가 다른 낱말을 정확하게 표기한다.’의 기초 활동이 되므로 2학년 교육과정과의 위계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을 계획한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간단한 글자와 낱말

소리와 표기가 같은 낱말과 소리와 표기가 다른 낱말을 다루되, 발음과 표기가 쉬운 낱말로써 두세 글자로 이루어진 낱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소리 내어 바르게 읽기(발음하기)나 바르게 쓰기 활동에 두려움을 갖지 않게, 지나치게 어려운 낱말 특히 겹받침이 있는 낱말 등은 학습의 초기에는 피한다.

【1-문법-(3)】 문장부호의 이름과 쓰임을 안다.

【내용 요소의 예】

- 문장에 쓰인 온점, 반점, 물음표, 느낌표의 쓰임 알기
- 온점, 반점, 물음표, 느낌표의 쓰임에 맞게 문장 읽기

이 성취 기준은 문장부호의 이름과 쓰임을 알아 문장을 바르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갖추게 함으로써 문장 표현 능력과 문장 이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문장부호의 이름과 쓰임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되, 특히 문장부호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읽기와 쓰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문장부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온점, 반점, 물음표, 느낌표의 이름과 쓰임을 알고, 문장부호를 고려하여 바르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글에서 문장부호를 찾거나 문장부호의 이름과 쓰임을 정리하거나 문장부호의 쓰임에 맞게 띄어 읽는 활동 등을 하게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문장부호가 효과적인 읽기와 쓰기를 돕는 도구임을 인식하게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읽기 및 쓰기 활동과 통합하여 지도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문자 해독 수준을 고려하여 쓰기보다는 읽기와 통합하여 지도한다. 특히 띄어 읽기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데, 1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문장 부호의 쓰임을 보여주는 간단한 문장

간단한 인사 등을 소재로 한 글로서, 온점, 반점, 물음표, 느낌표가 들어간 짧은 글을 대상으로 한다. 짧은 문장이 여러 개 들어 있는 글로 하되, 안은 문장은 가능한 제외한다.

- 문 학 -

【1-문학-(1)】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의 재미를 느낀다.

【내용 요소의 예】

- 반복되는 말의 재미 느끼기
- 일상생활의 말에서 반복되는 말 찾기
- 단순한 운율 유형 접하기

이 성취 기준은 학습자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의 재미를 느끼고 즐겨 읽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반복되는 말에서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 반복되는 말을 찾아보고, 반복되는 말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말해 보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일상 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반복되는 말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며, 그 말의 기억을 쉽게 해 주기도 한다. 학습자는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반복되는 말을 찾는다는, 반복적인 말이 들어 있는 동요를 부른다가, 운율 유형을 찾아보는 활동을 통하여 흥미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문학 작품의 일부인 운율이 나타난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고, 또 일상 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운율이 사용된 말을 찾고 즐기는 활동을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여기서 운율(韻律)이란 주로 소리(음운)의 반복과 관련된 ‘운’(rhyme)과 음악의 박자 개념과 유사한 ‘율’(meter)의 합(合)으로 이해되는 엄밀한 학문적 개념이라기보다 1학년 아동들도 어렵지 않게 주목할 수 있는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즐거움을 주는 말’이라는 정도까지 비교적 느슨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 성취 기준은 말의 재미를 느끼는 것과 관련하여 1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말의 재미를 느끼면서 시, 노래를 듣는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운율이 잘 드러나는 짧은 표현이나 시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반복되는 말이나 동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되, 가능하면 예를 위한 예가 아니라 일상 생활의 맥락이나 그 작품 자체의 맥락을 중시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1-문학-(2)】 문학 작품에서 재미있는 내용을 그림이나 말로 표현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작품의 인상적인 부분에 주목하기
- 작품에 등장하는 재미있는 말이나 구절 등을 활용하여 짧게 표현하기
- 재미있거나 인상적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기

이 성취 기준은 문학 작품에서 재미있는 내용에 주목하게 하고, 그 읽은 느낌을 그림이나 말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문학적 능력의 발전을 위해서 문자 매체 혹은 음성 매체를 통하여 작품을 수용하고, 그 수용한 내용을 다양한 표현 매체를 통하여 표현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제로 표현해 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문학 작품에는 인상적인 장면이나 재미있는 표현 혹은 감동적인 표현이 등장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인상적인 장면, 재미있는 표현, 감동적인 표현을 접하는 경험으로 인하여 우리는 문학 작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느끼게 된다. 흥미와 즐거움에서 비롯된 활동이 학습자로 하여금 활동 자체에 의미를 느끼게 하여 활동의 자발성을 보장하고 또 그 활동에 지속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은 문학에서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내용이나 표현 방식을 떠올려 보고 그것을 말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표현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

써 그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는 기회를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표현 행위 자체의 기쁨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은 말을 그림으로 또는 그림을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과 관련하여 1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3) 그림 동화 속의 그림을 이야기와 관련지어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또 ‘인상적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기’와 관련하여 1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인상 깊었던 일을 정리하여 그림일기를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재미있는 표현이 드러나는 글이나 작품

재미있거나 인상적인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선택하되 표현 효과가 극대화되거나 시각적인 이미지(심상)가 명료하게 표현되어, 그림이나 말로 표현하기가 쉬운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1-문학-(3)】 그림 동화 속의 그림을 이야기와 관련지어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과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하여 말하기
- 그림에 나타난 주요 인물, 대상, 사건 파악하기
- 그림에 나타난 인물의 몸짓과 표정을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하기

이 성취 기준은 그림 동화를 보고 이야기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뿐 아니라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에도 주의를 기울여 이야기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림 동화는 글과 그림이 함께 어우러져 내용을 전하는 그림책의 일종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데 그림이 글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동화에서는 이야기 속 인물, 대상(서사 기능을 담당하는 배경 요소 등의 대상), 사건에 대한 정보가 그림을 통해 보충되기도 하고, 글에는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이 그림에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그림 동화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과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연관 짓는 것이 중요하다.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과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하여 말하기, 그림에 나타난 주요 인물, 대상, 사건을 파악하기, 그림에 나타난 인물의 몸짓과 표정을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하기 등을 통해 그림 동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상상이나 환상의 세계를 담은 작품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상과 환상의 세계를 담은 그림 동화를 감상하도록 하되, 글을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작품이 아니라 글과 그림 모두가 이야기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2 학년>

- 듣 기 -

【2-듣-(1)】 설명하는 말을 듣고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추측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설명하는 말 듣기의 필요성 이해하기
- 모양이나 쓰임을 나타내는 말에 주의하기
-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기
- 어떤 대상인지 판단하기

이 성취 기준은 일차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기존 정보와 통합하여 이해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대상에 대한 정보 확인을 토대로 그 대상을 정확하게 추측하여 판단하게 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상황을 계획하되, 설명하는 말을 토대로 대상을 점진적으로 추측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대상을 설명하는 말은 정확한 정보 확인을 토대로 특정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그 대상을 판단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한다. 설명하는 대상을 추측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대상을 추측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이때 대상의 특성을 설명할 때 주로 언급되는 모양이나 쓰임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그 대상을 추측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학습자의 배경지식이나 경험을 연결 지어 대상을 추측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설명 내용의 일정 부분을 듣고 대상을 추측하고, 그 추측을 바탕으로 배경지식을 활성화하여 다시 다음 내용을 예측하여 듣는 과정이 회귀적으로 반복되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기’는 2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듣는이를 고려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한다.’와, ‘어떤 대상인지 판단하기’는 2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설명하는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여러 가지 대상을 설명하는 말

사물의 특성이 두드러져 구체적인 모양과 쓰임을 보이는 대상을 설명하는 담화를 선정한다. 대상은 학습자의 경험 세계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을 소재로 한다.

【2-듣-(2)】 칭찬이나 충고를 들으면서 말하는이의 마음을 헤아린다.

【내용 요소의 예】

- 칭찬이나 충고의 내용 이해하기
- 칭찬이나 충고의 이유 짐작하기
- 자신의 말과 행동 돌아보기

이 성취 기준은 칭찬이나 충고를 듣고 말하는이의 의도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말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칭찬이나 충고의 상황을 제시하되, 직접적으로 드러난 칭찬이나 충고의 표현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의도와 감정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칭찬은 상대방이나 상대방과 관련된 것에 긍정적 평가를 표현하는 것이고 충고는 부정적 평가를 토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다. 칭찬이나 충고는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적극적인 언어 행위로, 듣는이의 수용 혹은 거부 반응에 따라 관계 형성의 향방이 달라지기도 한다. 칭찬이나 충고를 들을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쉬워서 그 진의를 파악하는 데 실패하기도 한다. 따라서 칭찬이나 충고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칭찬이나 충고의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인 감정에 따라 반응하기보다는 우선 표현에 담겨진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칭찬이나 충고에서 언급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신을 객관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칭찬이나 충고를 들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지 선택하게 하고 그 이유를 제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자들의 경험 중에서 칭찬이나 충고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자신의 말과 행동의 변화로 어떻게 연결하였는지 점검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칭찬이나 충고의 내용 이해하기’는 1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감정을 나타내는 낱말을 알맞게 사용하면서 대화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칭찬이나 충고의 이유 짐작하기’는 2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감정을 표현하는 글을 읽고 글쓴이의 감정을 파악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칭찬이나 충고

가정생활, 학교생활, 또는 지역사회 생활에서 부모, 형제, 친구, 선생님, 이웃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칭찬이나 충고를 대상으로 한다. 말하는이의 의도와 마음이 겉으로 분명히 드러난 칭찬이나 충고는 물론 학습자의 수준으로 이해 가능한 범위에서 겉으로 그 의도와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은 칭찬이나 충고도 포함하여 다룬다.

【2-듣-(3)】 대화를 나누면서 말하는이에게 적절히 반응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대화에서 듣는이의 반응이 중요함을 이해하기
- 대화에 어울리는 표정과 몸짓으로 반응하기
- 말하는이에게 공감하는 말로 맞장구치기
- 대화를 나누면서 궁금한 내용 물어보기

이 성취 기준은 대화를 나눌 때 말하는이에게 적절히 반응하게 함으로써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대화 상황과 말하는이에 따라 적절히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경험을 제공하되, 대화의 분위기에 맞추어 언어적·비언어적 경로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반응을 보이는 데 중점을 둔다.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화제로 하나의 흐름을 이루며 함께 진행하는 대인 의사소통이다. 따라서 대화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단순히 침묵을 지키며 구경만 하지는 않는다. 즉, 듣는이가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으로 반응을 보이면, 말하는이는 그 반응을 살피 대화의 흐름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듣는이의 적절한 반응은 대화 진행을 매끄럽게 하고 상대방과의 관계 형성을 부드럽게 한다. 듣는이가 상대방에게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경로를 통해 자신이 듣고 있고 화제에 관심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함을 지도한다. 듣는이는 대화의 화제에 따라 표정과 몸짓으로 반응할 수 있고, 때로는 말하는이와 그의 발화에 공감하는 말로 적극적인 맞장구를 칠 수 있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대화하기 위해, 말하는이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대화에서 경청은 기본적인 자세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언어적·비언어적 반응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을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대화에 어울리는 표정과 몸짓으로 반응하기’와 관련하여 1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다른 사람의 말을 자연스러운 자세로 듣는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교실이나 놀이 공간에서 친구들과 주고받는 친교적 대화

친교적 대화는 보통 자유로운 화제로 이야기를 번갈아 나누는 유쾌한 담화이므로, 교실이나 놀이 공간에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대화 상황을 대상으로 한다.

【2-듣-(4) 인물의 말과 행동에 주의하면서 인형극을 본다.

【내용 요소의 예】

- 인물의 말과 행동에는 관련이 있음을 이해하기
- 인물의 행동에 주의하면서 보기
- 인물의 목소리에 주의하면서 듣기
- 작품의 내용을 역할극으로 표현하기

이 성취 기준은 인형극을 통해 인물의 말과 행동을 관련시켜 이해하게 함으로써 듣기와 보기가 결합된 종합적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인형극은 인형을 통해 자연스럽게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여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고 통합적·실제적인 언어 사용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의 언어 학습에 유용하다. 실제 인형극을 보는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하되, 인물의 말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인형극이란 극화 활동의 한 형태로서 무대에 사람이 아닌 인형이 등장하여 연기하는 극예술이다. 인형극은 인형으로 대신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보통 인형은 표정을 바꾸기 어려우므로 대사와 동작을 통해 인물의 특성을 주로 드러내게 된다. 따라서 인형극에서 인물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인물의 특성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이해하는 것은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인물의 행동과 목소리에 인물의 특성이 잘 드러나므로 이를 주의하여 보거나 듣게 한다. 인형극의 인물을 학습자가 간단한 역할극으로 표현해 봄으로써 인물의 특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인형극을 통해 효과적인 감정 이입의 경험을 한 학습자는 이야기의 전개에서 그 인물의 역할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인물의 말과 행동에 는 관련이 있음을 이해하기’는 1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다.’, 2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2) 문학 작품 속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그리고 ‘작품의 내용을 역할극으로 표현하기’는 2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이야기 속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조리 있게 말한다.’, 2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문학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말을 실감나게 표현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이야기를 바탕으로 꾸민 인형극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인형극을 대상으로 하되, 인물들의 성격이 분명하여 이것이 말과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표현된 인형극을 선정한다. 학습자가 인형극을 직접 관람하는 것이 좋으나, 텔레비전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상영되는 인형극을 보는 것도 가능하다. 간단한 형태로 교사나 학습자들이 인형극을 시연할 수도 있다.

- 말 하 기 -

【2-말-(1)】 듣는이를 고려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설명할 대상의 특성 파악하기
- 듣는이가 궁금해 하는 내용 알아보기
- 듣는이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이 성취 기준은 설명의 목적이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음을 알고 듣는이를 고려하여 설명하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말하는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할 때 듣는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듣는이가 설명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명할 대상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대상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듣는이가 궁금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한다. 2학년 수준에서 이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이다. 이 성취 기준에서는 한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학습 활동을 구안하여 듣는이 중심의 설명하기가 중요함을 깨닫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즉,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조사하여 알게 된 내용 중 듣는이가 궁금해하는 것을 설명하기, 또는 대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설명하기와 같이 학습 활동을 초점화하여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듣는이가 알기 쉽게 설명하기’는 2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설명하는 말을 듣고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추측한다.’와, ‘설명할 대상의 특성 파악하기’는 1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대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소개하는 글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나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

일상생활 공간에서 자주 접하고 학습자들이 잘 알고 있는 물건, 장소, 사건, 놀이, 인물 등 다양한 설명의 대상을 소재로 활용하되 필요할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하여 조사해 본 후 설명하는 말을 하게 한다. 설명하는 말을 짝 활동이나 모둠 활동 속에서 하게 함으로써 말하는이가 듣는이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말-(2) 이야기 속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조리 있게 말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말하고 싶은 인물 선정하기
- 하고 싶은 말을 의견과 까닭으로 나누기
- 상대의 처지 이해하면서 말하기

이 성취 기준은 이야기 속 인물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이유와 함께 말해 봄으로써 설득하는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이야기는 학습자가 하고 싶은 말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학습자가 인물의 행동에 대한 의견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밝혀 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야기를 듣거나 읽은 후 이야기 속 인물 중에서 말을 하고 싶은 인물을 선정하게 한다. 인물을 선정할 때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주목하고 자신이 공감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

지 생각해 보게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도 한두 가지 덧붙여 보게 한다. 말을 할 때에는 인물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누듯이 말하게 한다. 2학년 수준에서 조리 있게 말하는 정도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놀부야, 너는 부자이면서 왜 동생을 괴롭히니? 동생을 도와주는 착한 형님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살다가는 언젠가 벌을 받게 될 거야.” 정도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상대의 처지 이해하면서 말하기’는 2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인물의 말과 행동에 주의하면서 인형극을 본다.’와, ‘하고 싶은 말을 의견과 까닭으로 나누기’는 2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요청하는 글을 쓴다.’와, ‘말하고 싶은 인물 선정하기’는 2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2) 문학 작품 속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이야기 속 인물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말

이야기 속 인물을 듣는이로 삼아 인물의 행동이나 생각을 언급하고 그에 대해 공감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을 그렇게 생각한 까닭과 함께 표현하는 말을 한다. 짝 활동이나 모둠 활동을 통하여 이야기 속 인물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의견을 주고받게 한다.

【2-말-(3)】 여러 가지 말놀이에 즐겨 참여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알맞은 말놀이 선정하기
- 말놀이의 규칙 이해하고 지키기
- 말놀이에 즐겁게 참여하기

이 성취 기준은 말놀이를 통하여 언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어휘 능력, 추론력, 사회적 상호 작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말놀이는 어휘 지식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말을 주고받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놀이이다. 여러 가지 말놀이의 규칙을 알고 즐겨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둔다.

말놀이는 말을 주고받으며 즐기는 놀이로, 그 예로는 스무고개, 수수께끼, 끝말 이어가기, 말 전하기, 새말 짓기, 빨리 발음하기, 어려운 문장 말하기 등이 있다. 말놀이는 단순히 놀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휘 능력과 추론력을 높여 주고 사회적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말놀이의 규칙과 요령을 익히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어휘 능력과 추론력 향상을 위해서 일정한 범위의 지도 대상 어휘를 선정하여 이를 말놀이에 활용하게 하거나 말놀이를 응용한 수행 과제를 부여하여 이를 모둠별로 해결하게 할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은 2학

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설명하는 말을 듣고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추측한다.’, 2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3) 낱말과 낱말 간의 의미 관계를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스무고개, 수수께끼, 끝말 이어가기 등의 말놀이

일상생활과 관련한 소재를 바탕으로 말놀이의 종류와 말놀이에 활용할 어휘의 범위를 정하고 모듈별로, 모듈 간에, 또는 교사 주도 하에 말놀이를 할 수 있다.

【2-말-(4)】 문학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말을 실감나게 표현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인물의 말에 성격이 반영됨을 이해하기
-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 알맞은 목소리와 어조로 표현하기
- 작품의 내용을 역할극으로 표현하기

이 성취 기준은 문학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말을 해 봄으로써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문학 작품에는 다양한 언어 표현, 목소리, 어조를 연습할 수 있는 말하기 학습의 자료가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다.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말을 알맞은 목소리와 어조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상황에 따라 목소리의 크기나 어조를 달리하여 말하는 것은 구어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목소리나 어조는 의사소통의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말하는이의 심리를 반영한다. 학습자들은 작품 속 인물의 말을 표현해 봄으로써 작품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요구되는 말하기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인물의 말에 성격이 반영됨을 알고, 인물의 성격을 살려 알맞은 목소리와 어조로 말해 보게 한다. 인물의 말을 실감나게 표현해 본 후 모듈별로 또는 전체 학급에서 작품의 내용을 역할극으로 표현하게 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인물의 말에 성격이 반영됨을 이해하기’는 2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인물의 말과 행동에 주의하면서 인형극을 본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드라마, 영화 등에 등장하는 인물의 말

역할극을 통해 표현해 볼 만한 인물의 말이 포함되어 있는 문학 작품,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등을 선정한다. 작품 전체에서 인상적인 부분이나 인물의 말과 행동이 부각되어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읽 기 -

【2-읽-(1)】 글의 분위기를 살려 효과적으로 낭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글의 목적과 분위기에 따라 다르게 낭독하여야 함을 이해하기
- 글의 분위기를 살려 낭독하기
-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글을 읽는 태도 기르기

이 성취 기준은 글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이해한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유창한 낭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낭독은 입문기 독자들에게 문자의 해독(decoding) 기능을 숙련시키고, 글 내용의 적극적인 이해를 도모하며, 글 읽기의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글을 평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글의 성격이나 분위기 등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리하거나 상상하게 하고, 그것을 극대화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정확한 발음과 효과적인 표현법으로 낭독하게 함으로써, 유창한 문자 해독의 성취감과 총체적인 읽기의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다. 글의 내용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해하여 이것을 낭독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하여 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게 한다. 글의 종류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글의 전체적인 성격이나 분위기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글의 부분적 내용에 대해서도 그 특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들 특징을 고려하여 낭독하게 하되, 같은 글을 다르게 낭독해 보게 함으로써 글의 성격이나 분위기, 내용 전달력 등이 달라짐을 알게 하고, 이해한 바에 가장 적합한 낭독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게 한다. 정확한 발음과 알맞은 띄어 읽기 등 기본 원리에 충실하고, 음색, 어조, 속도, 억양 등의 반언어적 전달 요소의 특징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신이 파악한 글의 의미가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방식으로 낭독하게 한다. 이로써 글의 의미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읽기 태도를 기르고, 낭독으로 즐겨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2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문학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말을 실감나게 표현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글의 목적이나 글의 분위기가 다른 짧은 글

다양한 목적이나 성격, 서로 다른 분위기를 가진 글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글의 목적이나 성격, 분위기 등 글쓴이의 목소리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글로서, 주장하는 글이나 생활문, 감상문 등을 비롯하여 상황이 잘 드러난 동화, 동시 등을 다룬다.

【2-읽-(2)】 설명하는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대상을 설명하는 표현의 특성 이해하기
- 설명하는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기
- 설명하는 글이 필요한 상황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설명적인 글을 친숙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저학년기 학습자는 옛이야기나 창작동화 등의 허구물을 주로 읽기 때문에, 정보나 지식을 다룬 사실적인 글을 어려워하거나 그러한 글에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글의 형식과 내용에 친숙해지고,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글의 가치와 그러한 글을 읽는 재미를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 사실적인 정보나 지식을 얻는 데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설명하는 글을 즐겨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설명하는 글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나 지식이 중요한 내용이 된다. 설명하는 글을 읽음으로써 새로운 사실에 대해 알게 되고, 지식을 쌓아 여러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중심 화제를 알고 그 화제에 대한 설명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다. 그러나 체계적인 이해를 강조하여 글의 구조나 체계적인 요약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새로 알게 된 사실이나 관심 있는 내용에 주목하여 그 뜻을 알게 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읽은 내용을 정리하게 한다. 알아가는 기쁨을 스스로 느끼거나,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이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설명하는 글을 읽는 가치와 재미를 맛볼 수 있게 할 수 있다. 설명하는 글은 정보나 지식 등 가치 있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독자는 그러한 정보나 지식을 알기 위하여 읽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하여 설명하는 글을 찾아 즐겨 읽을 수 있도록 이끈다.

【글의 수준과 범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대상을 쉽게 설명하는 글

대상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담아 쉽게 설명한 글을 대상으로 한다. 정보나 지식을 다룬 아동용의 도서는 대개 과학 동화나 학습 만화와 같이 동화나 만화의 형태로 제작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들 형식의 글은 제외한다. 사진이나 그림의 지원을 받으면서 내용을 문자 언어로 진술한 글을 대상으로 한다.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거나 생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글,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충족시키는 내용의 글 등이 바람직하다.

【2-읽-(3)】 재미있는 글에 나타난 상황을 상상한다.

【내용 요소의 예】

- 글에 나타난 상황을 상상하기

- 재미있는 표현을 찾아 정리하기
- 웃음을 유발하는 글의 효과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즐거움을 얻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읽기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재미있는 것을 소재로 하여 쓰인 글은 읽는 이에게 휴식과 여가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글의 재미를 흠뻑 느끼며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읽기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글에서 재미를 유발하는 상황이나 표현을 충분히 상상하거나 음미할 수 있도록 하여 즐거움을 얻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재미를 소재로 하는 글은 글이 재미있는 사건으로 구성되거나 재미있는 표현으로 진술된다. 재미를 느끼게 하는 글은 이야기의 반전이나 상황의 특이성 등 재미의 근원을 포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물의 어리석음이나 유쾌한 오해, 재치 등 사건을 재미있게 하는 요소를 발견하고 그 상황을 상상해 봄으로써 웃음과 감동을 느끼게 한다. 또한 말장난이나 반어, 돌려 말하기 등 재미를 유발하는 표현을 인식하고 이들 표현이 연상시키는 상황을 상상함으로써 상황의 연관성과 표현의 어울림을 깨달아 재미있는 표현의 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재미있는 글이 지니고 있는 재미를 충분히 느끼며 읽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글 읽기의 가치를 알고 휴식과 여가의 충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끈다.

【글의 수준과 범위】 재미있는 이야기나 생활문, 웃음을 유발하는 이야기

재미를 주요 소재로 하는 모든 형식의 글을 다룰 수 있다. 재미있는 일을 모티브로 하는 동화나 일화, 콩트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재미있는 내용과 표현을 담은 유머, 난센스 퀴즈, 수수께끼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글, 만화, 그림책 등 다양한 형태의 것을 포함할 수 있으나, 재미의 요소가 그림과 같은 언어 외적 요소로 구현된 것보다는, 재미있는 소재의 내용이나 글 표현 등 언어적인 요소로 구현된 것을 중심으로 한다.

【2-읽-(4)】 감정을 표현하는 글을 읽고 글쓴이의 감정을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감정을 나타내는 낱말과 표현 알기
- 글쓴이의 감정이나 생각을 파악하여 정리하기
- 감정을 표현하는 글이 필요한 상황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인지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의적인 측면에도 주목하여 글의 내용을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초보 독자들이 글의 내용을 이해할 때에는 주로 인지적인 사안에만 주목하거나 명시적으로 언급된 내용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로 암시적으로 나타나는 글쓴이

의 마음이나 정서, 감정 등 정의적인 측면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글 내용의 정의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은 읽기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글쓴이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 감정을 짐작하면서 글을 읽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글쓴이의 감정은 글의 성격에 따라 직접 표현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암시될 수도 있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즐겁다, 기쁘다, 슬프다, 화나다’ 등의 어휘나 이에 준하는 감정을 진술하는 표현을 글에 명시하여 두며,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행동이나 사건을 묘사하면서 감정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거나 감정을 내포하는 어휘나 문장을 구사하게 된다. 따라서 글쓴이의 마음이나 정서, 감정 등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서를 찾는 것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거나 내포하는 표현을 찾아 감정을 짐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쓴이의 감정은 그 대상에 따라 독자에 대한 감정과 제삼의 대상에 대한 감정 등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감정이 작용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상에 따라 감정의 내용을 구별할 필요도 있다. 축하와 감사, 화해와 사과, 불만 전달과 기쁨의 표출 등 감정의 소통이 중요한 상황이 있음을 알게 하고, 글쓴이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1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감정을 나타내는 낱말을 알맞게 사용하면서 대화한다.’와 2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칭찬이나 충고를 들으면서 말하는이의 마음을 헤아린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즐거움, 기쁨,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을 표현한 글

글쓴이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현되거나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글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주로 감상문이나 일기, 편지 등을 다루되, 초대장이나 알림장 등의 유형도 포함할 수 있다. 시작 단계에서는 글쓴이의 감정 자체가 중심 내용이 되는 글을 다루고, 심화 단계에서는 글쓴이의 감정이 중심 내용은 아니지만 글쓴이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글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정이 어휘, 문장, 내용 서술 등 주로 언어로써 표현된 것을 중심으로 다루되, 문자의 형태나 여타의 기호, 그림 등 언어 이외의 표현 장치가 보조적으로 활용된 것도 포함할 수 있다.

- 쓰 기 -

【2-쓰-(1)】 보고 들은 것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요약의 목적, 개념 이해하기
- 보고 들은 것 중에서 알릴 만한 중요한 내용 떠올리기
-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추려서 쓰기
- 쓴 내용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이 성취 기준은 일상생활이나 학습 상황에서 보고 들은 것을 간추려 글로 표현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보고 들은 것을 모두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때 중요한 것이 일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간추려서 표현하는 것이다.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글을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서 쓰는 방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둔다.

요약의 목적과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되, 요약의 목적은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글쓰기 경험 속에서 귀납적으로 도출되도록 한다. 요약의 목적은 효율성, 상황성 등을 바탕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요약의 개념은 엄밀하게 정의하는 방식을 피하고, ‘선택하기’, ‘빼기’, ‘줄이기’ 등 실제 활동과 관련 지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보고 들은 것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서 쓰는 방법을 지도할 때에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하도록 한다. 첫째, 중요한 내용은 읽는 이의 요구, 관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쓰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간추리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례를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간추려 쓴 글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게 하고, 친구의 반응을 살핌으로써 일을 바라보는 시각, 일의 중요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글의 수준과 범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요약하는 글

책,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흥미 있는 소재를 찾는다. 재미있게 읽은 책의 줄거리, 새로운 놀이 방법, 새롭게 배운 사회적·과학적 지식 등의 소재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그 소재에 대해 전혀 모르는 동생이나 친구, 그 소재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 등 다양한 독자를 설정하여 요약의 주요 내용이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2-쓰-(2)】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요청하는 글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요청하는 글의 특성 이해하기
- 친구, 부모님, 선생님에게 바라는 내용 떠올리기
- 주장과 이유를 중심으로 쓸 내용 정리하기
- 읽는 이의 생각, 태도를 고려하여 쓰기

이 성취 기준은 논리적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고, 글쓰기가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글쓰기는 나와 타인,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재구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요청하는 글을 써서 실제 독자에게 전달하고, 자신이 쓴 글이 독자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체험하도록 하는 학습 활동은 의미

가 있다.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자신의 글쓰기 전 과정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그 원인을 탐색하는 활동도 의미가 있다. 요청하는 글을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생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요청하는 글은 글을 쓰는 사람이 한 명인지 여러 사람인지에 따라, 그 글이 전달되는 상황이 공식적인지 사적인지에 따라, 읽는 이가 개인인지 기관인지에 따라 글의 특성과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에서는 개인 필자, 개인 독자, 비공식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요청하는 글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요청하는 글에는 글쓴이가 요청하는 내용, 그 요청이 타당하고 합리적임을 입증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내용을 생성할 때는 먼저 읽는 이를 정하고, 그 사람에게 평소 바라던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도록 한다. 바라는 내용을 주장으로 삼고, 그 바램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한 것임을 이해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 글을 쓰도록 한다. 한편, 요청하는 내용에 대한 읽는 이의 구체적인 생각이나 태도를 미리 짐작하고 이를 쓸 내용에 반영하면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적절한 이유 제시하기’와 관련하여 2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이야기 속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조리 있게 말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주변 인물에게 요청하는 내용을 쓴 글

부모님께 꼭 사 달라고 하고 싶은 것, 학교생활에서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등 평소 바라던 것을 소재로 삼아 글로 표현해 보게 한다. 공식적인 요청문의 형식보다는, 학습자에게 친숙한 편지, 쪽지 등을 활용한다.

【2-쓰-(3)】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쪽지를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제안하는 글의 특성 이해하기
- 상대와 함께 하고 싶은 일 떠올리기
- 함께 하고 싶은 일과 그 이유가 잘 드러나게 쓸 내용 정리하기
- 읽는 이를 배려하는 친근한 표현 사용하기

이 성취 기준은 다른 사람의 동참을 제안하는 글을 쓰게 함으로써 글쓰기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하고,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글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글은 눈의 마주침, 친근한 몸짓과 같은 직접적인 정서 표현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렵고,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자신의 제안을 즉각적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제

안하는 쪽지를 쓰는 과정에서 이러한 외적 표현 활동까지를 쓰기에 반영해야 함을 알게 되고, 효과적인 내용 구성과 표현 방법까지를 익힐 수 있게 된다. 제안하는 쪽지를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고, 친근한 표현을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제안하는 글을 쓰는 상황은 비공식적인 상황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또한 상대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은 상상을 통해서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보다는 학습자가 실제 생활에서 바라고 원했던 일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함께 하고 싶은 이유는 함께 하면 좋은 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제안하는 글은 읽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친근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며, 친근한 표현의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도록 한다. 한편, 쓴 쪽지를 실제 독자에게 전달하고 실제 독자의 반응을 살피도록 하며, 그러한 반응이 나온 이유를 말해 보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쓴 쪽지의 좋은 점과 고쳐야 할 점을 스스로 찾는 경험을 하도록 한다.

【글의 수준과 범위】 주변 인물에게 어떤 일을 제안할 목적으로 쓴 쪽지

친구와 함께 하고 싶은 일, 친구와 싸운 후 화해하고 싶은 마음, 부모님과 함께 가고 싶은 곳 등 평소 바라던 것을 소재로 삼아 글로 표현해 보게 한다. 공식적인 제안문의 형식보다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쪽지, 편지, 엽서, 초대장 등을 활용한다.

【2-쓰-(4)】 (4)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일기를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일기를 쓰는 목적 이해하기
- 자신이 겪은 일 떠올리기
- 겪은 일과 그 일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쓰기
- 일기를 쓰는 습관 가지기

이 성취 기준은 겪은 일을 일기로 기록함으로써 일기 쓰기를 습관화하도록 돕고, 일기 쓰기가 하루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중요한 행위임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글쓰기는 성찰과 성숙의 계기를 포함하고 있다. 성찰과 이를 통한 성숙은 자신의 행위를 객관화할 때 가능해지며, 글쓰기는 이러한 객관화를 돕는다. 성찰을 위한 대표적인 글쓰기 활동이 일기 쓰기이다. 학습자는 일기를 쓰는 과정에서 자신이 한 일을 객관화하고, 성찰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일기 쓰기가 갖는 의의를 체감하게 된다. 일기를 쓰는 목적, 일기의 일반적인 형식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일기를 쓰는 목적은 한두 가지로 정리하기 힘들다. 또한 일기를 쓰는 목적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일기를 쓰는 목적을 선형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학습자들이 일기를 직접 쓰는 과정에서 생겨난 생각을 중심으로 일기 쓰기의 목적을 공유하도록 한다. 자신이 겪은 일을 중심으로 쓸 내용을 생성하도록 하되, 직접 겪은 일뿐만 아니라, 듣거나 읽은 내용까지도 허용한다. 한편, 겪은 일만을 단순히 기록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도록 한다. 일기의 형식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되, 겪은 일과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꼭 포함하여 쓰도록 지도한다. 한편, 무엇보다 강조해야 할 것은, 일기를 매일 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쓰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형식과 분량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일기 쓰기의 목적과 필요성을 학습자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의 수준과 범위】 중요한 일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일기

하루에 일어난 일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 주변 사람·책·텔레비전 등에서 듣거나 읽은 것 중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일에서 소재를 찾게 한다. 일기의 다양한 형태와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아기의 성장을 기록한 육아 일기, 생물의 변화를 기록한 관찰 일기, 학습의 진전을 기록한 학습 일지 등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일기를 쓰는 방식도 만화, 시, 이야기, 대화체 등 다양한 형식이 있음을 이해시킨다.

- 문 법 -

【2-문법-(1)】 소리를 혼동하기 쉬운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한다.

【내용 요소의 예】

- 표준 발음에 대한 규정이 있음을 알기
- 자주 사용하는 낱말의 표준 발음 알기
-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하려는 태도 가지기

이 성취 기준은 소리를 혼동하기 쉬운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함으로써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하려는 태도를 길러, 궁극적으로는 정확한 발음의 필요성과 의의를 깨닫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낱말 중 소리를 혼동하기 쉬운 낱말의 표준 발음을 지도하되, 표준 발음법에 관한 지식보다는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깨닫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소리를 혼동하기 쉬운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생각해 보고 그 중요성을 깨닫도록 지도하면서 표준 발음에 대한 규정이 있음을 소개한다. 이 때 표준 발음법

의 원리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표준 발음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갖는 의의를 스스로 깨달아,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하려는 태도를 지니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특히 듣기·말하기 활동과 병행하여 지도할 수 있다. 소리를 혼동하기 쉬운 낱말을 넣어 듣기·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2학년 교육과정의 듣기나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중 하나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그리고 1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2)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한다.’와도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소리를 혼동하기 쉬운 낱말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낱말 중 소리를 혼동하기 쉬운 낱말을 언어 자료로 선택한다.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문장 수준으로 확대하지 말고 낱말 수준에서 지도하도록 한다.

【2-문법-(2)】 표기와 소리가 다른 낱말을 정확하게 표기한다.

【내용 요소의 예】

- 한글 맞춤법 규정이 있음을 알기
- 자주 사용하는 낱말의 바른 표기 알기
- 표기와 소리가 다른 낱말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이 성취 기준은 자주 사용하는 낱말의 바른 표기를 알게 함으로써, 표기와 소리가 다른 낱말을 정확하게 표기하려는 태도를 길러, 궁극적으로는 바른 표기의 필요성과 의의를 깨닫고 바르게 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낱말을 바르게 표기할 수 있게 지도하되, 한글 맞춤법에 관한 지식보다는 표기와 소리가 다른 낱말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깨닫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자주 사용하는 낱말의 바른 표기를 지도하면서 표기와 소리가 다른 낱말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한글 맞춤법이 있음을 소개하되, 그 원리나 특징 등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지 말고 표기와 소리가 다른 낱말을 정확하게 표기하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한다. 이 성취 기준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 모두와 결합하여 지도할 수 있는데 특히 2학년 교육과정의 읽기 및 쓰기 영역 성취 기준과 연계하여 영역 간 활동을 통합하여 지도할 수 있다. 그리고 2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1) 소리를 혼동하기 쉬운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1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2)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한다.’를 고려하여 1학년 때에 학습한 내용보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한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표기와 소리가 다른 낱말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 표기와 소리가 다른 낱말을 언어 자료로 선택한다.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문장 수준으로 확대하지 말고 낱말 수준에서 지도한다.

【2-문법-(3)】 낱말과 낱말 간의 의미 관계를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유의 관계, 반의 관계 등의 개념 이해하기
- 낱말들 간의 의미 관계를 바탕으로 어휘 더 알기
- 낱말들 간의 다양한 의미 관계에 관심 가지기

이 성취 기준은 낱말과 낱말 간의 의미 관계를 지도하여 낱말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이해시키고, 학습자들의 어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낱말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하도록 지도하되, 낱말들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유의 관계와 반의 관계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여러 낱말들에 흥미를 가져 더 많은 낱말들을 알게 지도한다. 가능하면 유의어, 반의어 쌍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교수·학습 자료로 제공하도록 한다. 학습자들이 유의 관계와 반의 관계의 개념을 바탕으로 낱말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음을 깨닫고 상하 관계 등에도 관심을 갖게 지도한다. 어떤 글을 읽은 뒤 글에 나오는 중요 낱말들을 골라 해당 단어의 유의어나 반의어를 찾는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또한 유의어나 반의어를 넣어 짧은 글을 쓰는 활동도 병행할 수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낱말

‘밤-낮’, ‘좋다-싫다’, ‘해-태양’ 등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낱말을 언어 자료로 선택한다. 가능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낱말을 선택하여 학습자들이 여러 분야의 낱말들을 접하게 한다.

- 문 학 -

【2-문학-(1)】 느낌을 살려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낭송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운율에 맞춰 표현하고 그 효과 느끼기
- 시에 담긴 의미나 느낌이 잘 살아나도록 낭송하기
- 운율에 맞게 읽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작품의 느낌을 살려서 노래하거나 낭송함으로써 작품의 수용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한 편의 시 작품이나 노래에 담긴 의미나 느낌이 잘 살아나도록 낭송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의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현되는 내용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시나 노래에 나타난 음성적 측면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나 노래의 내용은 그 시나 노래의 음성적 측면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시나 노래의 내용은 그 음성적 측면을 통하여 비로소 자신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의 느낌을 살려서 낭송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시나 노래의 운율을 살려서 그 시나 노래의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다. 시에 담긴 의미나 느낌이 잘 살아나도록 낭송하기 위해서는 운율에 맞춘 표현의 효과를 인지할 수 있는 활동이나 운율을 무시한 낭독의 효과에 대한 평가 등 활동이 어느 정도 전제되어야 한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운율이 잘 드러나는 짧은 표현이나 시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동시나 노래를 선택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하되, 가능하면 낭독의 차이에 의해서 표현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하여 감상하도록 한다.

【2-문학-(2)】 문학 작품 속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인물의 말과 행동이 인물의 특성과 관련됨을 이해하기
- 작품을 읽고 인물의 모습과 행동 떠올리기
- 인물의 모습과 행동에서 인물의 특성 파악하기

이 성취 기준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에 흥미를 가지고 그 특성을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난 인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

문학 작품, 특히 서사 갈래나 극 갈래에서 인물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에 표현되어 있는 정서나 생각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 느끼는 정서나 행동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동화나 동시 등의 작품을 듣거나 읽고, ‘주인공은 어떠하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주인공은 어떤 모습일까?’,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가?’ 등 역할 놀이를 통하여 상상한 것을 이야기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인물의 성격을 바꾸어 말하기, 작품 속 등장 인물을 이전에 접했던 다른 매체에서 본 인물과 관련해서 이해하고 표현하기 등을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 친숙한 인물이 등장하는 시나 노래, 극, 이야기, 수필
- 상상이나 환상의 세계를 담은 작품

다루는 주제가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므로 경험적인 서사(이야기) 작품은 친숙한 인물이 등장하는 다양한 작품을, 허구적인 작품은 상상이나 환상의 세계를 담은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발달 단계에 맞고, 동물 이야기나 모습과 행동이 분명한 전형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감상하도록 한다.

【2-문학-(3)】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여 이야기를 꾸민다.

【내용 요소의 예】

- 일상생활에서 상상하여 본 경험 말하기
- 처음, 중간, 끝에서 중간이나 끝 부분을 꾸며 말하기
- 작품 속 인물의 미래 예측하기

이 성취 기준은 이야기의 흐름을 고려하여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는 활동을 통하여 상상력과 이야기를 꾸미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작품의 한 부분이나 실마리를 통하여 다음에 이어질 적절한 내용을 상상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가능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꾸미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상상력은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상상하여 어떤 새로운 형상을 꾸며 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상상력은 자유로운 활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무(無)에서 전혀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 보라는 요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럴 때에야 비로소 비슷한 경험을 가진 독자의 이해 가능성과 설득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이런 점에 근거하여 일상에서 상상하여 본 경험을 말하고, 부분적인 단서나 앞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음의 이야기를 예측하거나 떠올려 보고, 인물의 이전의 행동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활동 등을 지도할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은 상상하기와 관련하여 2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2) 문학 작품 속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 상상이나 환상의 세계를 담은 작품
- 친숙한 인물이 등장하는 시나 노래, 극, 이야기, 수필

상상력을 기르는 데 적합한 제재로는 일반적으로 상상이나 환상의 세계를 담은 작품을 활

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일반적인 경험적인 이야기를 활용해서도 지도할 수 있다. 상상이나 환상의 세계를 담은 작품이 자유로운 상상력의 신장을 위해서 적절한 제재라면, 경험적인 이야기는 상상력 구축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제재로서 적합하다고 하겠다.

【2-문학-(4)】 재미있는 말이나 반복되는 말을 넣어 글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재미있는 말이나 반복되는 말 찾기
- 그림을 보고 재미있는 말을 떠올리기
- 재미있는 말이나 반복되는 말의 효과 파악하기

이 성취 기준은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이나 직유 표현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말이나 반복되는 말을 활용하여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이 활동은 여러 가지 발랄하며 창의적인 발상이나 직유 등 재미있는 표현이 들어간 글을 읽고 또 그러한 종류의 기초적인 글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표현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재미있는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쓰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직유 표현을 찾아보거나 재미있는 말이나 반복되는 말을 찾아보거나, 그림을 보고 그것을 재미있는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등의 활동이 자기 표현 능력으로서의 창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중요하다. 그림을 보고 떠오른 느낌을 재미있는 말로 표현해 보는 활동은 그 반대의 활동, 곧 재미있는 말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과 비슷하게 학습자가 표현 능력이나 이해 능력 자체를 점검하고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능력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반복되거나 재미있는 표현의 발상법이나 그 효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성취 기준은 재미있는 말이나 반복되는 말의 학습과 관련하여 1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1)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의 재미를 느낀다.’와 1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말의 재미를 느끼면서 시, 노래를 듣는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 창의적인 발상이나 재미있는 표현이 드러나는 작품
- 운율이 잘 드러나는 짧은 표현이나 시

창의적이고 다양한 표현 방식을 경험하고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미있는 발상이나 재미있는 표현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나 그러한 부분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3 학년>

- 듣 기 -

【3-듣-(1)】 안내하는 말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안내하는 말의 특성 이해하기
- 알고 싶은 내용에 주의하면서 듣기
-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메모하기

이 성취 기준은 정보를 사실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안내하는 말을 듣고 정리해 보는 다양한 교수·학습 경험을 제공하되, 듣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다르고 그 내용을 달리 정리하고 기억해야 함을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안내하는 말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정보를 소개하여 알려주는 것이다. 안내할 때 말하는 이는 듣는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체계적인 구조를 마련하여 설명하려 함을 이해하게 한다. 보통 안내하는 말은 안내 대상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먼저 주고 구체적인 정보를 보충해 주거나 일정한 순서(공간 순서, 시간 순서, 기능 순서 등)에 따라 구조화하여 표현하므로 이에 대한 지도를 한다.

정보를 정확히 모르거나 필요한 만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제공된 적절한 안내의 말은 다음 말이나 행동의 지표가 된다. ‘알고 싶은 내용에 주의하면서 듣기’를 지도할 때는 듣기 전에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그리고 안내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정보를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중요한 내용은 그때마다 메모하고 자신이 알 수 있게 정리해 보도록 한다. 메모가 여의치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머릿속으로 안내하는 말의 순서를 고려하여 구조화하여 듣는 것도 필요함을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안내하는 말의 특성 이해하기’는 3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정확하고 알기 쉽게 안내하는 말을 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안내하는 말

학교, 박물관, 교통시설 등 대중적 장소나 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한 정보가 담긴 안내의 말을 대상으로 한다. 학습자들이 학교생활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안내의 상황을 주로 활용한다.

【3-듣-(2)】 훈화를 듣고 이야기에 담겨 있는 교훈을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대강의 내용 파악하기
- 이야기의 내용에서 교훈 추리하기
- 교훈의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 훈화가 필요한 상황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훈화를 통해 이야기의 교훈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종합적인 이해 능력 향상과 정서적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훈화에서 교훈을 파악하는 것은 내용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그 가운데 말하는이의 중심 생각과 의도를 파악하는 중핵적인 과업이다. 훈화를 듣고 교훈을 파악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하되, 훈화에 담긴 교훈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효용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살피는 데 중점을 둔다.

훈화는 교훈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우화나 일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하기도 한다. 또한 일반적 윤리를 강조하는 훈화나 특정한 사건이나 시기와 관련된 훈화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훈화의 시기, 장소, 목적 등에 따라 말하는이의 뜻을 헤아려 보게 한다. 훈화는 일방적으로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인격적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한 교육 활동의 한 수단으로서 스승과 제자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훈화를 듣고 그 교훈을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주체적으로 교훈을 수용하여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적극적인 내면화를 시도하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대강의 내용 파악하기’는 2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보고 들은 것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이야기의 내용에서 교훈 추리하기’는 3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이야기나 속담을 활용하여 주장하는 말을 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훈화

훈화 내용은 새롭고 감동적이면서도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것이 좋다. 학습자들은 새로움이 없는 훈화에 여간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만큼,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다양한 학습자의 욕구와 정서에 대응할 수 있는 소재가 좋다. 직접 강의식 훈화는 물론 온라인을 통한 훈화도 다룰 수 있다. 훈화를 하는 강연자는 학교장은 물론 모든 교사가 가능하며, 덕망 있는 사회적 인사나 이웃 어른도 가능하다.

【3-듣-(3)】 전화 대화를 하면서 상대의 말을 예의 바르게 듣는다.

【내용 요소의 예】

- 전화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기
- 상대에 대해 예의를 갖추어 응대하기

이 성취 기준은 친교적 대화 능력과 매체의 수용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다양한 전화 대화의 상황을 교수·학습 활동으로 계획하되, 전화 대화의 상대, 목적, 상황에 따라 듣는 방법과 예절이 달라짐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음성을 통한 전화 대화는 대체로 상대방을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라는 매체를 통해 질문과 대답으로 발화를 교환하는 과정이다.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더욱 집중하여 듣고, 상대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전화 대화는 시작 단계, 화제 전개 단계, 종결 단계로 진행되는데 각 단계마다 다소 정형화된 예의와 절차를 요구하게 된다. 학습자가 이러한 전화 대화의 특성을 이해하여 대화에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매체를 통한 소통이므로 상대의 말을 들을 때에는 주의를 집중하여 듣고 필요한 경우 들은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다. 상대와의 소통 과정에서 예의를 갖추어 응대하도록 한다. 특히 상대, 목적, 상황에 따라 다른 단계와 절차를 거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화의 흐름과 상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그에 따라 예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점검하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상대에 대해 예의를 갖추어 응대하기’는 3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전화 예절을 지키면서 대화를 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친구 또는 웃어른과 주고받는 전화 대화

전화 대화는 목적에 따라 크게 친교 중심의 전화 대화와 용건 중심의 전화 대화로 나눌 수 있다. 안부를 묻고 정답을 나누는 친교 중심의 전화 대화나 의례적인 전화 예절이 필요한 용건 중심의 전화 대화를 고루 포함한다. 최근 전화 매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므로, 일반 전화 대화 상황 외에도 휴대 전화, 화상 전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는 대화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

【3-듣-(4)】 애니메이션을 보고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애니메이션의 특성 이해하기
- 느낌을 표현하는 말과 행동 찾기
- 말의 빠르기, 높낮이, 강약 인식하기
- 인물의 인상적인 몸짓 비교하기

이 성취 기준은 학습자에게 친숙한 대중매체 텍스트 가운데 하나인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의 이해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는 말의 빠르기, 높낮이, 강약 등과 같은 반언어적 표현과 그들의 표정, 몸짓, 의상 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애니메이션은 움직임이 없는 연속된 그림이나 사진을 이어 붙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동영상상을 말한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인물의 말의 빠르기, 높낮이, 강약 등과 같은 반언어적 표현과 그들의 표정, 몸짓, 의상 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은 마치 실제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며, 그 인물의 성격, 감정, 다른 인물과의 관계, 사회적 지위 등을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인물의 느낌을 표현하는 말과 행동 찾기를 통해 인물의 말과 비언어적 표현을 관련지어 이해하도록 지도하고, 말의 빠르기, 높낮이, 강약 인식하기 등의 반언어적 표현을 언어적 표현과 관련지어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애니메이션의 특성에 대한 지식을 독립적으로 지도하기보다는, 애니메이션에 나타나는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에 의해 구현되는 방식에 초점을 두어 지도하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2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인물의 말과 행동에 주의하면서 인형극을 본다’, 3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고 인물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안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다양한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이 드러나는 애니메이션

학습자에게 친숙한 텔레비전이나 광고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혹은 교육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보도록 하되, 인물들의 성격이나 그가 표현하려는 느낌이 다양한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장면들을 통해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이해하도록 한다.

- 말 하 기 -

【3-말-(1)】 정확하고 알기 쉽게 안내하는 말을 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안내할 내용 조사하기
- 조사한 내용 정리하기
- 안내할 내용의 정확성 판단하기
- 듣는이가 알기 쉽게 말하기

이 성취 기준은 길, 장소, 여정, 행사 따위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안내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학습자의 활동 범위나 관심 대상이 확대되면 안내하는 말을 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학습자들이 안내할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안내하는 말을 할 때에는 안내할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령, 평소 잘 아는 곳이라 할지라도 듣는이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평소 자신의 생활공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안내할 대상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조사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안내할 대상은 길, 장소, 여정, 행사, 상품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안내할 대상에 따라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정보가 달라짐을 알도록 지도한다. 가령, 길이나 장소를 안내할 때에는 위치, 방향, 거리, 공공 기관, 건물 이름, 상호, 이정표 등의 정보가 중요할 것이다. 안내하는 말을 할 때에는 손짓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3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안내하는 말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고, 내용 요소 중 ‘안내할 내용 조사하기’는 3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설명하는 글을 읽고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길을 묻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말

자신의 생활 공간 즉, 학교와 집 주변에서 길을 묻는 사람에게 학교, 우체국, 은행, 시장, 버스 정류장, 전철역, 공원 등의 위치를 안내하거나 학교 내에서 교무실, 도서관, 체육관 등의 시설을 안내하는 말을 하게 한다. 이 밖에도 장소, 여정, 행사 등에 대해 안내하는 말을 하게 할 수 있다.

【3-말-(2)】 이야기나 속담을 활용하여 주장하는 말을 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주장하고 싶은 내용 선정하기
- 관련된 이야기나 속담 조사하기
- 이야기나 속담을 활용하여 주장하기

이 성취 기준은 이야기나 속담이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이야기나 속담에는 교훈적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적절히 활용할 경우 듣는이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학습자가 이야기나 속담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주장하는 말에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장하는 말은 어떤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듣는이의 생각이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강화할 목적으로 하는 말이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에는 다양한 근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야기나 속담이 가지는 설득성에 주목하여 학습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상생활에서는 논리적인 설득보다 한 편의 이야기나 한 마디의 속담이 더 큰 감화력

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야기나 속담을 활용하게 하려면 먼저 의견이 대립하는 문제나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야기나 속담을 조사하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이야기는 내용을 간추려 기억하고 속담은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주장하는 말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한다. 주장하는 말을 할 때에는 자신의 주장을 먼저 밝히고 이야기나 속담을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식과, 반대로 먼저 이야기나 속담을 인용하고 이로부터 자신의 주장을 이끌어 내는 방식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해 보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야기가 활용되는 사례를 학습하기 위하여 3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훈화를 듣고 이야기에 담겨 있는 교훈을 파악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말하기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3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3)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내용을 간추린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이야기나 속담을 활용하여 주장하는 말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와 관련지어 전래 이야기, 우화, 일화 등을 활용하거나 이야기에 내포되어 있는 교훈을 자신의 주장으로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주장하는 말을 할 수 있다. 속담의 경우에는 속담의 유래담을 활용하거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속담을 인용하여 주장하는 말을 할 수 있다.

【3-말-(3) 전화 예절을 지키면서 대화를 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전화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 전화 대화 시 지켜야 할 예절 알기
- 상황에 따라 예절을 지키면서 전화로 대화하기

이 성취 기준은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알고 전화 대화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전화 대화를 할 때에는 대화의 상대, 목적, 장소에 따라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 전화 예절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지키며 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전화 대화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안부를 묻거나 용무가 있을 때 전화기를 통하여 나누는 대화이다. 일반적으로 전화 대화는 주로 목소리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집에서 가족이 함께 쓰는 전화로 통화를 하는 경우에는 특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대화하여야 한다. 전화를 걸었을 때 대화할 상대자가 아닌 사람이 먼저 전화를 받아 연결해 주거나 전화 통화 중에 다른 가족을 찾는 전화가 걸려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화 대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전화 대화 상황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지키면서 전화로 대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전화 대화에서 지켜야 할 예절로는 인사 주고받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기, 통화 상대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말하기, 주위 상황을 고려하여 통화하기, 요청 내용 전달하기 따위를 들 수 있다. 최근에는 휴대 전화 보급의 확대로 공공장소에서의 전화 예절이 특히 더 중요하게 되었다. 공공장소에서는 전화 통화를 삼가되 불가피할 경우 목소리 크기를 낮추어서 통화하여야 함을 알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전화 대화 시 지켜야 할 예절 알기’는 3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전화 대화를 하면서 상대의 말을 예의 바르게 듣는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안부를 주고받는 간단한 전화 대화

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가족에게 연결해 주는 전화 대화, 친구 집에 전화를 걸어 친구를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는 전화 대화, 친구와 나누는 전화 대화, 친척이나 웃어른의 안부를 묻거나 전하는 전화 대화,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주고받는 전화 대화,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 대화 등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여 전화 대화를 해 보도록 지도한다.

【3-말-(4)】 겪은 일이나 들은 이야기를 인과 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말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 이해하기
- 겪은 일이나 들은 이야기 떠올리기
-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내용 정리하기
- 인과 관계가 잘 드러나게 말하기

이 성취 기준은 이야기를 인과 관계에 따라 정리하여 말함으로써 논리적 사고력과 서사적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에 따른 사건의 진행을 인과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서술하는 말하기의 방식이다. 겪은 일이나 이야기의 내용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구성하여 말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실은 사건의 연쇄로 이루어지며 한 사건은 다른 사건과 무관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현실에서 사건의 전개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인과 관계를 형성하지만 이야기에서는 시간의 순서나 원인과 결과의 순서로만 사건이 배열되는 것은 아니며, 원인을 추정하거나 결과를 예측하는 일 자체가 이야기의 흐름을 형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야기를 듣거나 말할 때에는 사건의 인과 관계를 고려하면서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구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학습자들은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의 내용을 인과 관계에 따라 재구성해 봄으로써 서사의 특성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그래서, 결국, 왜냐하면, 때문

에, 원인은, 결과적으로’ 등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교사의 경험담이나 알려진 이야기를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잘 드러나는 만화나 그림 자료로 제작하여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은 3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3)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내용을 간추린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사건의 전개 과정이 인과 관계로 잘 연결된 경험담

학교생활이나 체험 학습 등을 통하여 직접 경험한 일, 다른 사람이나 매체를 통하여 알게 된 사건이나 사고, 자신이 저지른 터무니없는 실수 등 인과 관계로 잘 연결된 경험담을 말해 보게 한다.

- 읽 기 -

【3-읽-(1) 설명하는 글을 읽고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문단의 개념 이해하기
-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별하기
- 설명의 내용 파악하기

이 성취 기준은 설명하는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설명하는 글은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이 위계적으로 연관되는 의미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학습의 기초 능력이자 논리적인 사고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설명하는 글을 흥미 중심으로 또는 지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대상과 그에 대한 설명 내용을 일관된 체계로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명하는 글의 위계적인 의미 구조의 특성을 알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산문을 설명하는 글(expository text)과 이야기 글(narrative text)의 두 가지로 분류할 때, 설명하는 글은 이야기 글과 달리 그 의미 구조가 위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심 화제와 이에 대한 주요 설명으로 이루어지는 중심 내용이 글의 주축이 되고, 이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거나 자세하게 풀이하는 세부 내용이 중심 내용을 보조한다. 이러한 구조가 가장 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문단으로서, 하나의 중심 내용과 이에 대한 여러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는 문단의 의미 구조를 알게 함으로써 설명하는 글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게 할 수 있다. 긴 글은 이러한 구조가 몇 단계 더 반복될 수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 내용과 이것을 설명한 세부 내용이 있고, 또 그 세부 내용을 더욱 자세히 설명한 세부 내용이 있다. 여기에서 각 단계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이 무엇인

지를 구별하게 함으로써 설명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게 할 수 있다. 이로써 글 전체의 내용을 일관된 체계로 이해하게 하고, 요약하거나 중심 내용 진술하기 등의 활동을 통하여 내용을 정리하게 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대상을 자세하게 설명한 글

문단과 글의 짜임이 간결하고 의미 관계가 분명한 설명문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전형적인 설명문 외에도, 논설문, 보도문, 기록문, 비평문 등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다른 글도 설명의 의미 구조가 뚜렷할 경우 포함할 수 있다. 의미 구조를 분석하였을 때 내용이 균형감 있고 완결성 있게 다루어진 글이 바람직하다.

【3-위-(2)】 설명서를 읽고 제시된 절차와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설명서의 표현 특성 이해하기
- 설명서의 정보를 정리하기
- 정확한 설명의 중요성 깨닫기

이 성취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는 설명서나 안내문, 표지판 등과 같이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글들이 있다. 이런 글들은 글 자체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원활한 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설명서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요건들이 고도로 발달됨에 따라 정확한 읽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학습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사용 설명서를 대상으로 사용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지시한 바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도의 중점을 둔다.

설명서는 대상에 대한 내용이나 이유, 사용법 등을 설명한 글로서 설명문의 한 양식이다. 이중 물건의 사용법을 설명한 사용 설명서는 글의 내용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글의 내용이 지시하는 바대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사용 설명서는 대개 물건의 특징을 소개하고, 내용물의 구성, 조립·조작·사용·관리법, 주의 사항, 품질 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한다. 물품에 대한 소개는 주요 기능이나 다른 물품과의 차이점 등을 보여주므로 이로써 물품의 주요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물의 구성과 조립·조작·사용·관리법은 물건의 활용 방법을 알려주는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용어나 명칭을 정확하게 알고, 절차나 방법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설명과 실물을 대조하여 지시하는 바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주의 사항과 품질 보증에 관한 사항 등은 그 내용을 학습자가 충분히 숙지하여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

할 수 있게 한다. 설명서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거나 모호한 내용이 있을 경우 실물을 통해 추리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확하고 친절한 설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물건의 사용 절차와 방법에 대해 쉬운 낱말과 문장으로 표현한 설명서 설명서 중에서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물건의 사용법에 관해 설명한 사용 설명서를 대상으로 한다. 사용 지침서(manual), 사용서, 안내서 등과 같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도 그 내용이 사용 설명서와 같은 것이면 포함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즐겨 사용하고 직접 조작할 수 있는 학습 교구, 장난감, 운동 기구, 생활용품 등의 대상에 대하여 쉽고 명료한 언어로 설명한 사용 설명서가 바람직하다.

【3-읽-(3)】 독서 감상문을 읽고 책의 내용과 책에 대한 감상을 구별한다.

【내용 요소의 예】

- 감상문의 특성 이해하기
- 책의 내용과 책에 대한 감상 구별하기
- 여러 독서 감상문을 함께 읽고 비교하기

이 성취 기준은 독서 감상문을 바르게 읽는 능력을 길러 주고, 나아가 독서 감상문을 통해 원 책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글은 사람마다 서로 다른 느낌과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며, 다른 독자와의 공감대나 생각의 차이를 경험함으로써 글에 대한 사고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할 수 있다. 독서 감상문은 책에 대해 이해한 바가 담겨 있는 글로서, 독서 감상문을 읽고 책의 내용과 책에 대한 감상을 구별하며 글쓴이의 책에 대한 생각을 이해하게 하고 이로써 책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독서 감상문은 책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책에서 얻은 감상을 적은 글이다.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해설하고, 느낌이나 감동을 기술하며, 인상적이거나 기억할 만한 것을 언급하기도 하고, 독서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한 내용을 담기도 한다. 이러한 독서 감상문에서 글쓴이가 정리한 요약이나 해설 등으로부터 책의 내용에 대해 짐작하게 하고, 감상을 쓴 부분으로부터 책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이해하게 하며 책이 줄 수 있는 감동이나 의미를 상상할 수 있게 한다. 글쓴이를 대상 책에 대한 안내자 또는 대화자로서 여기게 하고, 같은 책에 대한 서로 다른 독서 감상문 찾아 읽고 비교하게 함으로써 글에 대해 폭넓고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독서 감상문을 독서할 자료를 스스로 판단하고 선정할 수 있는 실용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독서 감상문

책의 내용과 책에 대한 감상의 내용이 담긴 독서 감상문을 대상으로 한다. 책의 내용을 기록하는 데 비중을 많이 둔 기록문이나, 생각이나 느낌을 논리적으로 펼치고 증명하고자 한 비평문과 구별하여, 책의 내용은 간략히 소개하고 감상은 잘 표현되어 있는 감상 중심의 글을 다룬다. 전형적인 독서 감상문의 형식 외에도 편지나 일기 등 다양한 형식의 것을 포함할 수 있으나, 광고, 동시, 만화 등의 형식은 다루지 않는다. 문학 책과 비문학 책을 대상으로 한 독서 감상문을 고루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3-읽-(4)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고 인물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안다.**【내용 요소의 예】**

-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는 방식 이해하기
-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 찾기
- 인물의 성격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찾아 언어로 바꾸어 표현하기

이 성취 기준은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대중매체인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현실에서는 인물의 외모와 성격 사이에 뚜렷한 관련성을 발견하기 어렵지만,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는 특정의 성격에 어울리는 인물로 묘사하기 위하여 시각적으로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이 캐릭터 상품에서처럼 이야기와 관련 없는 국면에서도 인물의 성격이 연상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시각적 표현의 효과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인물의 성격이 시각적 요소로써 표현됨을 알고, 시각적 요소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인물의 성격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표현될 뿐만 아니라 인물의 외모나 행동 및 분위기 등을 통해서도 표현된다. 얼굴과 몸의 크기와 모양 및 색깔, 표정, 몸짓, 의상 등 인물의 외모와 인물의 행동이나 분위기 등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시각적 요인들이 인물의 성격과 어울릴 수 있도록 구상되고 묘사된다. 때로 이들 요인 모두가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징적인 한 가지 요인이 인물의 성격을 대표하여 드러낼 수도 있는데, 인물의 성격이 전반적인 시각적 묘사를 통해 드러날 때에는 이들 요인을 각각 성격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적인 특징으로 강하게 드러날 때에는 핵심 요인을 찾아 그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착한 인물과 나쁜 인물, 똑똑한 인물과 어리석은 인물, 잘생긴 인물과 못생긴 인물, 부지런한 인물과 게으른 인물 등 서로 대립되는 인물을 설정하고 각각 대비되는 특징을 찾게 한다. 그리고 인물의 성격이 시각적으로 묘사된 것을 언어적인 묘사로 바꾸어 표현해 보게 함으로

써 시각적 표현이 갖는 효과를 실감하게 할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은 3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애니메이션을 보고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인물의 성격이 잘 표현된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성격이 선명하게 외모나 행동 및 분위기에 반영된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대상으로 한다. 등장인물이 사람인 것과 사람이 아닌 것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성격이 대립적으로 설정된 작품과 다양한 양상으로 설정된 작품을 고루 다루도록 하고, 짧지만 완결된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쓰 기 -

【3-쓰-(1)】 일의 절차, 방법 등을 설명하는 글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절차, 방법 등을 설명하는 글의 구조 이해하기
- 자신이 잘 아는 일의 절차나 방법 떠올리기
- 읽는 이가 이해하기 쉽게 절차, 방법을 정리하기
- 설명할 내용을 문단이 갖춰야 할 요건에 맞게 표현하기

이 성취 기준은 일의 절차나 방법을 설명하는 글을 쓰게 함으로써, 글을 쓰는 목적에 맞게 글을 구성하는 능력을 기르고, 쓰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사람은 체험과 학습을 통하여 획득한 지식을 타인과 공유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설명하는 글쓰기는 이러한 욕망 표현의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과 독자 사이에 존재하는 지식의 양과 질의 차이를 가늠하게 되며, 어떤 구성 방식과 표현 방식이 독자의 이해를 돕는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 경험은 내용 생성 능력, 내용 조직 능력의 형성을 돕는다. 설명하는 글을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읽는 이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조직하는 방법, 설명할 내용을 문단의 요건에 맞게 쓰는 방법에 중점을 둔다.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글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절차나 방법을 설명하는 글의 구조를 지도할 때는 해당 글을 실제로 분석해 봄으로써 글 구조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설명 대상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에서 선정하도록 하되, 설명 대상을 몇 가지로 간추린 후 모듬별로 쓸 내용을 함께 정리하게 할 수도 있다. 쓸 내용은 읽는 이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표나 그림 등과 같은 도식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을 지도할 때에는 문단 쓰기를 함께 지도한다.

구체적으로 문단의 개념, 문단이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을 이해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에 맞추어 설명하는 글을 쓰도록 한다. 문단의 개념, 요건에 대한 지도는 학습자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되, 최소한 다음 두 가지의 내용은 포함하도록 한다. 첫째, 문단은 하나의 생각을 포함한다. 둘째, 문단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된다.

【글의 수준과 범위】 일의 절차, 방법 등을 설명하는 글

특정 음식의 요리 방법, 새로운 놀이 방법, 전자 제품의 사용 방법, 장난감 조립 방법 등 절차화하기 쉽고 일상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소재를 활용하여 쓰고 싶은 의욕을 높인다. 전형적인 설명하는 글의 형식뿐 아니라, 어떤 제품의 사용 설명서, 절차나 방법을 설명하고 어떤 일에 대한 설명인지 맞게 하는 퀴즈, 표나 그림을 곁들인 안내문 등 다양한 유형을 활용할 수 있다.

【3-쓰-(2)】 어떤 사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 사실과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중심으로 쓸 내용 정리하기
-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 읽는 이의 의견 고려하기

이 성취 기준은 어떤 사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글을 쓰도록 함으로써, 글쓰기가 사고를 형성하고 확장시키는 수단임을 인식하게 하고,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타인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대개 형성된 사고가 글쓰기를 통해 표현된다고 생각하나, 실제 글쓰기 활동을 살펴보면, 글쓰기를 통해 사고가 형성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어떤 사실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정교화되고, 구체화된다. 글쓰기 과정이 사고 형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사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 정교화, 구체화하게 되며, 이러한 학습 경험은 학습자의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어떤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실과 의견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도하도록 한다. 예컨대,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문장과 글쓴이의 의견을 진술하고 있는 문장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사실과 의견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다. 사실과 의견을 대조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첫째, 사실은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나 의견은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하다.

둘째, 사실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거나 의견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 셋째, 사실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나, 의견은 이들에 영향을 받는다.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3학년임을 고려하여 의견이나 생각을 진술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라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한편, 읽는 이를 고려하여 의견을 나타낼 때에는 오해나 모호함을 야기하지 않도록 명료하고도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한다.

【글의 수준과 범위】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실제 겪었던 일에서 소재를 찾도록 한다. 다루는 문제는 학교, 학원, 게임, 숙제, 놀이 문화 등 학습자의 생활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문제가 좋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은 주장하는 글뿐 아니라, 편지나 간단한 건의문 등 다양한 유형을 활용할 수 있다.

【3-쓰-(3)】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글의 특성 이해하기
- 친구나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일 떠올리기
- 있었던 일, 그에 대한 자신의 마음 등을 중심으로 내용 정리하기
- 읽는 이와 내용을 고려하여 알맞은 낱말 선택하기

이 성취 기준은 알맞은 낱말을 선택하는 능력이 글쓰기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글쓰기를 통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공동체 생활은 구성원의 지원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협력적 인간관계는 다른 사람의 배려, 도움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통해 유지되고 강화된다. 학습자는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글쓰기가 긍정적, 협력적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활동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내용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글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을 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글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학습하도록 한다. 글쓰기의 과정을 중심으로 학습하되, 감사하는 글의 내용 조직하기에서는 ‘있었던 일’과 ‘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중심으로 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다. 알맞은 낱말 사용과 관련해서는, 알맞은 낱말 선택의 중요성 알기, 알맞은 낱말 선택 방법 알기 등과 같은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글을 쓰는 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데, 주어진 낱말 중에서 알맞은 낱말을 선택하여 빈칸을 메워 글 완성하기, 주어진 낱말 중에서 알맞은 낱말을 선택하여 글쓰기, 주어진 낱말을 모두 이용하여 글쓰기 등의 학습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은 ‘알맞은 낱말 선택하기’와 관련하여 3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1)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는 방법을 안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주위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글

부모님, 친구, 선생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일, 또는 경찰, 의사 등 주변 어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일 등을 소재로 하며, 도움을 준 사람을 독자로 할 수도 있고, 일반인을 독자로 할 수도 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글 형식은 편지, 감사장, 시, 생활문 등 다양한 유형을 활용할 수 있다.

【3-쓰-(4)】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감상문의 특성 이해하기
- 자신의 경험과 글의 내용을 관련짓기
-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기
-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는 태도 가지기

이 성취 기준은 글을 읽고 감상문을 쓰는 것이 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킨다는 점을 중시하여 설정하였다. 글을 읽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사고나 정서는 일회적이고, 단편적이며, 피상적이다. 글읽기가 촉발한 사고나 정서를 지속시키고 구체화, 정교화하기 위해서는 글쓰기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 글쓰기를 통해 학습자는 글읽기 경험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게 되며, 이러한 재구성 과정에서 글쓰기 능력이 향상된다. 감상문을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글을 읽고 감상문을 즐겨 쓰는 태도, 쓴 감상문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는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감상문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되, 감상문의 형식과 내용은 목적, 독자, 매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 하고, 감상문을 형식에 맞게 쓰는 데에서 오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무엇보다 감상문 쓰기의 목적과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한다. 독서를 통한 개인의 성숙과 발달은 독서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읽은 내용에 대한 독자의 깊은 사색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사색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계기가 쓰기 활동에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배경 지식의 확보 및 확장을 위해서는 독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읽은 글에 대해 감상문을 쓸 때, 배경 지식도 효과적으로 확충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감상문 쓰기는 자신의 경험과 글의 내용을 관련짓는 활동, 글의 내용을 해석하는 활동 등을 수반하는데 이러한 활동이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중요한 활동임을 강조하도록 한다. 글에 대한 해석은 독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나와 다른 해석을 하는 독자와의 소통을 통해 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자신의 관점을 확장하고, 사유의 방식과 느낌의 방식을 정교화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 감상문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기’와 관련하여 3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1) 문학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감상문

생활 동화, 전래 동화, 우화, 시 등 3학년 아동의 수준에 맞는 글을 읽고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감상문의 형식은 틀을 정해놓기보다는 인상 깊은 장면을 덧붙인 그림일기, 느낌을 표현한 시, 주인공에게 보내는 편지 등 다양한 형식이 가능함을 인식시키고, 학습자들이 꾸준히 감상문을 모아서 독서 기록장을 만들도록 안내한다.

- 문 법 -

【3-문법-(1)】 국어사전에서 낱말 찾는 방법을 안다.

【내용 요소의 예】

- 국어 품사의 기초 개념 이해하기
- 용언의 기본형 알기
- 국어사전 찾는 방법 알기
- 국어사전의 효용성과 가치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국어사전에서 낱말 찾는 방법을 학습하여 국어사전의 효용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어사전을 즐겨 이용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제대로 찾으려면 국어 품사의 기초 개념을 이해하고 용언의 기본형을 알아야 하는 등 관련 지식에 대한 설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 최소한의 수준에서 다루도록 하며, 국어사전이 갖고 있는 효용성과 가치를 학습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명사, 대명사, 수사 등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 낱말과 동사나 형용사처럼 그 형태가 변하는 낱말로 나누어 국어사전 찾는 방법을 지도한다. 또한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는 사전 등재 방식이 다르므로 이들을 구분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국어사전의 체제와 이용 방법을 알고 국어사전의 효용성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한다. 더 나아가 다양한 종류의 사전, 예컨대 유

의어·반의어 사전이나 도해 사전, 전자 사전, 백과 사전 등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3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2) 소리가 동일한 낱말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현상을 분석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특히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사전 등재 방식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국어사전

종이 사전의 경우, 대사전보다는 소사전을 언어 자료로 사용한다. 국립국어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사전도 소개할 수 있다.

【3-문법-(2)】 소리가 동일한 낱말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현상을 분석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개념 이해하기
-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사용 양상 관찰하기
-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활용하여 문장 만들기

이 성취 기준은 소리가 동일한 낱말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현상을 분석하여 낱말들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의사소통 상황과 낱말의 관계를 이해하여 국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지도하되, 특히 동음이의어와 다의어가 국어 생활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여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각 낱말의 의미가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구체적인 국어 생활에서 동음이의어와 다의어가 사용되는 양상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의미가 문맥 속에서 어떻게 확정되는지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소리가 동일한 낱말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현상이 왜 생기는지 탐구하여 언어의 경제성에도 관심을 갖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1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1)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리를 안다.’와 3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1) 국어사전에서 낱말 찾는 방법을 안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그리고 2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3) 낱말과 낱말 간의 의미 관계를 이해한다.’와도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동음이의어와 다의어가 들어 있는 언어 자료

동음이의어와 다의어가 들어 있는 언어 자료로서, 의사소통 상황이 잘 드러나는 짧은 글이나 대화를 언어 자료로 삼는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낱말들을 교육 대상으로 한다. 짧은

글이나 대화의 소재는 학습자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제공한다.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특성을 의도적으로 활용하여 표현의 효과를 높인 언어 자료, 예컨대 광고 등도 제시할 수 있다.

【3-문법-(3)】 의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의도에 따라 문장의 종류가 달라짐을 이해하기
-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 등 종류가 다른 문장들을 찾아 분류하기
- 표현 의도에 맞게 문장의 종류를 달리하여 표현하기

이 성취 기준은 문장의 종류에 대한 학습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표현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국어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다양한 문장의 종류를 이해하도록 지도하되, 표현 의도가 문장의 종류와 관련이 있음을 이해하여 구체적인 국어 생활에서 자신의 표현 의도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둔다.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 등 다양한 종류의 문장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문장의 종류와 표현 의도의 관련성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 등은 각각 일차적으로 평서, 의문, 청유, 명령, 감탄의 표현 의도를 드러낸다. 그러나 실제 국어 생활에서는 이들이 반드시 이렇게만 사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의문문은 ‘의문’ 외에도 ‘공손’이나 ‘청유’ 등의 표현 의도를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각 문장이 실제 국어 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를 관찰하고 분석하여 구체화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표현 의도와 문장의 종류와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표현 의도에 맞게 문장의 종류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하나의 표현이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서로 다른 의도를 드러낼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또 반대로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을 정해 놓고 똑같은 표현 의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게 하는 활동도 병행할 수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 등 여러 종류의 문장 화자나 필자의 표현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대화나 글로써, 의사소통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을 언어 자료로 삼는다.

- 문 학 -

【3-문학-(1)】 문학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작품을 읽은 느낌 떠올리기
- 작품의 전체적인 느낌 정리하기
-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이 성취 기준은 문학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하여, 풍부한 글쓰기나 말하기로 표현할 수 있는 작품 감상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작품을 읽고 난 후의 여러 가지 느낌에 기초하여, 전체적인 작품에 대한 느낌을 완결된 글이나 담화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작품을 읽은 느낌에 대하여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마음 속에서의 쓰기 활동을 하는 것이며, 이를 소통 가능한 형태로 표현하는 본격적인 쓰기 활동은 그러한 읽기 활동을 완성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초보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한 편의 감상하는 글을 쓰려면 작품을 읽은 다양한 느낌을 떠올리고 정리하는 활동, 아울러 이러한 느낌을 전체 작품 내용과 관련하여 다시 정리하는 활동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이 전제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작품 전체에 대한 느낌을 정제된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글이나 담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타인과 공유하고자 하는 태도를 실제 활동으로까지 옮길 수 있다면 표현된 글이나 담화는 더욱 설득력 있게 될 것이다. 이 성취 기준은 글의 수용과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의 표현과 관련하여 3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감상문의 특성에 대한 지식이나 글에 나타난 생각을 타인과 공유하고자 하는 태도를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 운율, 이미지 등이 잘 드러나는 시, 노래
- 뛰어난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나 글
- 친숙한 세계 또는 상상적인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제재가 제한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발달 수준을 고려할 때, 뛰어난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나 친숙한 세계 또는 상상적인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되 지나치게 어려운 작품은 피하도록 한다.

【3-문학-(2)】 문학 작품에는 일상의 세계와 비슷한 상상의 세계가 담겨 있음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일상의 세계와 상상의 세계 이해하기
- 작품 속의 세계는 글쓴이가 꾸며 낸 세계임을 이해하기
- 또래의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읽고 자신의 일상과 비교하기

이 성취 기준은 작품의 세계가 근거 없이 꾸며 낸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 세계와 비슷한 인간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음을 인식할 때 작품에 대한 친밀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설정하였다. 이야기나 극본에 드러난 인물, 사건, 배경 등이나 동시의 정경 등을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 환경과 비교하여 보고, 비슷한 점을 찾아보게 하며, 이야기나 극본에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동시에는 일상생활의 기쁨이나 슬픔 등의 정서가 압축되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작품의 세계는 일상의 세계를 반영한 것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지도의 중점을 둔다.

상상의 세계는 일상의 세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일상의 세계는 상상 세계의 근거가 되며, 상상의 세계는 일상 세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작품 속 세계는 일상의 세계에 어떤 변형을 가하여 만들어진다. 문학 작품의 세계는 글쓴이가 꾸며 낸 세계인 것이다. 여기에는 글쓴이의 상상이 가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세계는 상상적인 세계이든 경험적인 세계이든 기본적으로 일상세계와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어떤 이야기와 자신의 일상의 유사성은 그 문학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유사성이 읽는 이에게 분명하게 의식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최소한의 유사성이 감지되지 않으면 작품에 대한 이해는 힘들어질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은 상상과 관련하여 2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2) 문학 작품 속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한다.’나 3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4) 문학 작품 속 인물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이야기를 꾸민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 뛰어난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나 글
- 친숙한 세계 또는 상상적인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

일상의 세계와 상상의 세계를 비교할 수 있게 하고,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예컨대 우의(알레고리) 등과 같이 현실의 사건과 작품에 수용되어 변형된 사건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서, 그것에 대한 비교가 명확하게 되는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3-문학-(3)】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내용을 간추린다.

【내용 요소의 예】

- 이야기의 전개 과정 파악하기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 정리하기
- 간추린 내용 발표하기

이 성취 기준은 이야기나 극(연극, 영화, 드라마) 등의 갈래에서 사건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는 능력을 중시하여 설정하였다.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듣는이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전체의 흐름에 질서를 부여하여 파악·정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문학 작품에 대한 읽기에서 간추리기 활동은 작품에 대한 인상을 명료하게 해 주며, 다른 활동의 근거가 되게 해 준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간추리기는 원래의 작품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원래의 작품에 대한 양적인 축약 활동만은 아니다. 그것은 원래 작품을 읽는 이가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재구성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한편, 이야기 능력의 발달을 위해서도 간추리기 활동은 필요한데, 이 시기 학습자의 이야기 능력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인과 관계 등 이야기의 논리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정리하거나 간추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추린 내용은 나름의 질서가 부여되어 정리된 담화의 형태로 조(組)나 혹은 전체 학습자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조별 정리 활동은 자신의 간추리는 활동에 대한 좋은 교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은 내용을 간추리는 것과 관련해서 2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보고 들은 것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쓴다.’나 3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겪은 일이나 들은 이야기를 인과 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말한다.’ 등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 뛰어난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나 글
- 친숙한 세계 또는 상상적인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이 시기 학습자들이 읽을 만한 이야기나 극 갈래 가운데서 적당히 복잡한 줄거리를 가진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작품이 너무 복잡하여 학습자가 간추리는 것이 아주 어려운 작품이나 작품의 구조가 지나치게 단순하여 간단한 뒷받침 문장들을 기계적으로 삭제하는 것만으로 완벽하게 간추려지는 작품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3-문학-(4)】 문학 작품 속 인물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이야기를 꾸민다.

【내용 요소의 예】

- 작품 속 인물의 특성 이해하기
- 인물의 특성과 사건의 관계 파악하기
- 인물의 특성을 살려 다른 이야기로 꾸미기

이 성취 기준은 인물에 중점을 두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꾸미거나 기존의 이야기를 창의적으로 바꾸어 쓰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이야기를 꾸미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인물의 특성 파악이나 인물과 사건의 관계 파악 등을 토대로 하여 이야기를 꾸미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 성취 기준에서 내용 요소들의 의미나 관계는 분명하다. 경험적인 이야기에서는 인물의 현재 드러나 있는 것과는 다른 삶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를 꾸밀 수 있을 것이다. 허구적인 이야기에서는 주어진 이야기에 나타난 인물의 특성에 다른 특성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원래 인물의 특성과는 다른 특성으로 조금 바꾸거나 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꾸밀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에서 인물은 중심적인 요소로 주어지므로, 인물의 특성 파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에 기초하여 모든 변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성취 기준은 이야기 꾸미기와 관련하여 2학년 문학 영역의 ‘(3)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여 이야기를 꾸민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고, 상상적 이야기의 구성과 관련하여 3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2) 문학 작품에는 일상의 세계와 비슷한 상상의 세계가 담겨 있음을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인물과 관련하여 2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2) 문학 작품 속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 뛰어난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나 글
- 친숙한 세계 또는 상상적인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

인물의 개성이 명료하게 드러난 작품이나 인물의 다양한 행위를 보여 주는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되, 초보적인 수준에서 개작의 가능성이 높은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아울러, 변형되었을 때 원 작품과 비교하여 변형된 작품의 수용 효과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4 학년>

- 듣 기 -

【4-듣-(1) 설명하는 말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설명 대상에 따라 중요한 내용이 달라짐을 이해하기
- 설명 대상에 대한 배경 지식 떠올리기
-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정보의 중요도 판단하기
-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메모하기

이 성취 기준은 설명하는 말을 듣고 관련 정보에 대한 중요도를 판단하고 이를 종합하여 요약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설명하는 말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선별할 수 있는 교수·학습 상황을 계획하되, 설명하는 대상, 듣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정보의 중요도가 달라짐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설명이란 어떤 대상의 내용을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명의 말은 그 대상에 따라 담화의 내용과 구조가 다르고 중요한 정보가 제시되는 순서가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듣는이는 지엽적 내용이나 구체적 사실보다 요지나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이때 듣는이는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여 설명 대상을 추론하고 자신의 듣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 중요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중요한 내용은 메모하여 이를 중심으로 설명 내용을 재구성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설명 대상에 대한 배경 지식 떠올리기’와 관련하여 2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설명하는 말을 듣고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추측한다.’, 2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설명하는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내용 요소 중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정보의 중요도 판단하기’는 2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듣는이를 고려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한다.’, 3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설명하는 글을 읽고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메모하기’는 3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일의 절차, 방법 등을 설명하는 글을 쓴다.’, 4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조사한 내용을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사물, 개념, 절차 등을 설명하는 말

학습자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물, 개념, 절차 등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말을 다룬다. 이때 사물, 개념, 절차 등은 학습자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수준에서 새로

운 정보이지만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그 대상을 추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4-듣-(2)】 토의에서 자신의 의견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

【내용 요소의 예】

- 토의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 알기
- 토의 논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파악하기
- 의견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하기
-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 가지기

이 성취 기준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의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비교하며 듣게 함으로써 논리적, 비판적 이해 능력을 신장시키고 적극적 경청을 통하여 공동체의 문제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토의 활동을 계획하되, 의견들을 상호 비교하면서 좀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며 듣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토의의 절차는 그 형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토의는 문제를 설정하고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그 안들을 평가하고 검증한 뒤, 그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방안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토의 참여자는 다른 사람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태도와 토의 진행에 도움이 되는 발언을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려면 다른 사람의 발언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의 깊게 들어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논제를 분석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세워야 한다. 토의에서 제시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자신의 의견과 비교하여 보고 어느 의견이 좀 더 나은 것인지 판단하게 한다. 각 의견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 또는 각 의견의 장단점을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이때 각 의견의 타당성, 가치성, 실천 가능성 등을 살펴보다 더 나은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토의 논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파악하기’는 2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요청하는 글을 쓴다.’, 3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어떤 사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 가지기’는 4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회의의 절차와 방법을 알고 학급 회의에 참여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시사적인 문제를 논제로 한 토의 학교, 지역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논제로 한다. 토의 유형에는 심포지엄, 포럼, 회의, 원탁 토의, 패널 토의, 세미나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회의나 원탁 토의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유형을 선택하도록 한다. 일부 학습자들은 패널로 참여하고, 나머지 학습자들은 청중이 되어 각 패널들의 의견을 비교 분석하고 패널들의 토의 수행에 대해 평가하는 패널 토의도 활용할 수 있다.

【4-듣-(3)】 소개하는 말을 듣고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소개하는 말의 특성 이해하기
- 소개한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 기억하기
-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 질문하기
- 소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응하기

이 성취 기준은 새로운 사물이나 사람을 접하는 최초의 국면에 이를 소개하는 말을 듣고 이 가운데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다양한 상황에서 대상을 소개하는 말을 접하도록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하되, 소개하는 대상과 내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전략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둔다.

소개는 듣는이가 잘 모르는 사물이나 사람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듣는이의 입장에서 낯선 사물을 접하고 낯선 사람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은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안겨 준다. 따라서 소개하는 말에는 듣는이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상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이 들어 있다. 소개하는 대상은 듣는이에게는 생소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듣고 이를 기억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소개 대상에 대해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질문하면서 상대방의 소개에 적극적인 관심과 반응을 보여야 한다. 소개하는 대상이 사람인 경우 학습자들에게 어른부터 친구까지 다양한 인물을 폭넓게 제시하여 예의나 친밀감을 표현하게 하거나, 소개하는 대상이 사물인 경우 친밀한 사물에서 생소한 사물까지 다양하게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렇게 해서 얻은 소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자신의 의견과 느낌을 전달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소개하는 말의 특성 이해하기’는 1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여러 사람 앞에서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한다.’, 1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대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소개하는 글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소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응하기’는 4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대상의 특성을 살려 주변의 인물이나 관심사를 인상 깊게 소개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낯선 사물이나 사람을 소개하는 말

소개하는 말은 상대방과의 친밀도, 격식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학습자의 연령별 특성에 따라 관심과 호기심을 보일 수 있는 인물과 사물을 소개의 대상으로 한다. 인물의 경우 학습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소개의 상황, 예컨대 친구를 부모님께, 부모님을 선생님께, 친구를 친구에게 소개하는 상황 등을 설정하여 친밀도와 격식성 등의 정도를 달리하는 다양한 소개 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4-듣-(4)】 이야기를 듣고 주제를 파악한다.**【내용 요소의 예】**

- 주인공의 말과 행동에 주목하면서 듣기
- 사건을 중심으로 줄거리 파악하기
-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주제 파악하기

이 성취 기준은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이해의 핵심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이야기에서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교수·학습의 경험을 제공하되, 특히 이야기에서는 인물, 사건 같은 구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야기의 주제를 파악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하나의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자칫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에 이끌리어 전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놓치기 쉽다. 따라서 ‘주인공들은 이야기의 큰 흐름에서 볼 때 어떤 사건을 겪고 있는가?’,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사건의 해결을 통해 듣는이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세부 내용들의 연결 관계에 주의를 기울여 전체 줄거리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사건을 중심으로 줄거리 파악하기’는 3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3)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내용을 간추린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교훈적 이야기, 우화, 창작 이야기

인물과 사건의 구성 요소가 분명하고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교훈적인 이야기, 우화, 창작 이야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이야기 전체에서 인물의 성격이 크게 변하지 않고, 사건이 비교적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를 선정하도록 한다.

- 말 하 기 -

【4-말-(1)】 조사한 내용을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듣는이를 고려하면서 내용 조사하기
-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게 내용 조직하기
- 교실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이 성취 기준은 조사한 내용을 발표할 때 듣는이를 고려하여 말하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발표할 때에는 발표의 내용, 대상, 매체, 장소 따위를 고려하면서 말하여야 한다. 이 성취 기준에서는 조사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다.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일은 1대1 대화나 소집단 대화와 달리 다수의 청중을 상대하는 데 따르는 심리적 긴장감과 내용의 기억과 전달에 따르는 인지적 부담감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긴장과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표할 내용에 대한 준비와 발표 상황에 대한 적응 및 연습을 통한 숙달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학습자들이 발표 준비 단계에서부터 듣는이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사하고,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조직하며, 교실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알맞은 목소리와 어조로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발표할 내용이 적혀 있는 공책이나 읽기 자료를 보고 읽는 것을 지양하고 듣는이와의 소통 과정을 중시하여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4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설명하는 말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메모한다.’, 4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1) 표준어와 방언의 사용 양상을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나 조사한 내용에 대한 발표

국어 교과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학습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나 조사한 내용도 발표할 수 있다. 발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기보다는 교실 앞으로 나와서 반 전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게 하고, 메모한 내용을 참고하면서 발표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실물 화상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4-말-(2)】 회의의 절차와 방법을 알고 학급 회의에 참여한다.

【내용 요소의 예】

- 회의의 절차와 방법 알기
- 회의 안건에 대하여 숙고하기
- 요점을 간결하고 분명하게 말하기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의 문제 해결하기

이 성취 기준은 학습자가 회의의 특성과 원리를 알고 학급 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회의는 일정한 진행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학습자들이 회의 진행 요령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회의의 절차와 참여 방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회의는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 또는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은 대표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일 또는 그 모임이다. 회의에서는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학급 회의에서도 학급 공동체의 생활 규범, 행동 규칙이나 방향을 정하고 학급 대표나 임원을 선발하는 등 학급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급 회의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회의의 절차와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회의 안건을 숙고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회의 진행 절차와 관련하여 동의(動議), 개 의(改議), 이 의(異議), 재청(再請), 가부(可否), 찬성, 반대, 표결, 과반수 등의 개념들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이러한 용어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 “…… 하기로 제안합니다.”, “이 문제를 먼저 결정했으면 합니다.”, “…… 의견을 수정하여 제안합니다.”, “저도 …… 제안에 찬성합니다.” 등과 같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표현하는 것도 무방하다. 의견을 말할 때에는 요점을 간결하고 분명하게 말하도록 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협력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4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토의에서 자신의 의견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학급이나 학교 생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안건을 다루는 회의

학급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학급의 생활 규범이나 행동 규칙 또는 현안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학급 회의를 실제로 개최하거나 임의의 상황과 의제를 설정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한다.

【4-말-(3)】 듣는이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부탁, 거절, 위로의 말을 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듣는이의 처지를 고려하여 내용 생성하기
- 부탁, 거절, 위로의 상황에 맞는 어조로 말하기
- 듣는이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태도 가지기

이 성취 기준은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듣는이의 처지를 생각하며 예절을 지켜 말하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친구나 주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는 부탁이나 거절 또는 위로의 말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있다. 학습자들이 듣는이의 처지를 헤아리면서 말하는 데 중점을 둔다.

부탁은 어떤 일을 해 달라고 청하거나 말기는 일이다. 부탁은 대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기 때문에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방식으로 말하기보다는 부탁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상대방이 결정하도록 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거절은 상대방의 요청, 제안,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일이므로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은 채 무조건 받아들일 경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거절의 말을 할 때에는 자신의 형편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 주거나 슬픔을 달래 주는 일이다. 위로의 말에는 상대방의 처지를 공감하는 마음이 반영된 표현과 더불어 아픔이나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어 주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학습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듣는이의 처지를 생각하며 부탁, 거절,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4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여 마음을 나누는 편지를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일상생활에서 하는 부탁, 거절, 위로의 말

학습 활동이나 놀이 활동 또는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친구나 가족에게 부탁하는 말과 그러한 부탁이나 제안, 요청 등을 거절하는 말, 그리고 아프거나 마음 쓰이는 일을 겪고 있거나 슬픔에 잠겨 있는 친구를 위로하는 말 등 부탁, 거절, 위로의 말이 필요한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을 설정하여 대화에 참여하게 한다.

【4-말-(4)】 문학 작품에서 받은 감동을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내용을 요약하고 생각이나 느낌 덧붙이기
- 작품에서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 경험과 관련짓기
- 꾸며 주는 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말하기
-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기

이 성취 기준은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을 언어로 표현하고 다른 이와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작품에 대한 감동을 소통하는 일은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참여자 간의 상호 이해에도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다. 문학 작품에서 감동의 요소를 찾아 이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문학 작품에서 받을 수 있는 감동의 요소는 작품 내적인 요소 즉,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서 촉발된다. 그런 의미에서 감동은 작품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문학 작품의 내

용을 자기 나름으로 재구성하여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각이나 느낌을 말해 보는 활동이 중요하다. 감동의 요소는 작품 내적 요소뿐만 아니라 그것을 읽는 독자의 체험이나 처지 또는 생각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작품에서 감동적인 부분을 자신의 경험과 관련짓는 것도 중요한 활동이다. 감동을 표현할 때에는 형용사나 부사 같이 꾸며 주는 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작품 자체에 대한 정보보다는 작품을 읽고 말하는이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문학 작품을 매개로 한 대화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4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4) 문학 작품을 읽고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을 바탕으로 감상문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문학 작품에 대한 감동을 표현하는 말

문학 작품에 대한 감동은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받은 느낌도 중요하지만 감동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그 부분이 감동적이었던 까닭을 설명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시나 이야기를 읽고 작품의 형식이나 내용을 자신의 체험이나 안목과 관련지어 말해 보게 한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대화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

- 읽 기 -

【4-읽-(1)】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사전을 읽는 방법을 익힌다.

【내용 요소의 예】

- 사전의 특성과 기능 이해하기
- 사전 활용하는 방법 알기
- 사전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는 습관 기르기

이 성취 기준은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고 빨리 찾을 수 있는가는 중요한 능력이다. 알고자 하는 바에 대해 본격적으로 서술해 놓은 글을 찾아 읽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핵심을 압축적으로 정리해 놓은 사전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읽는 것도 또한 가치가 있다. 이에 사전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방법을 익히고 사전의 내용을 이해하여 활용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전은 체계적인 항목과 압축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글이다. 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거나 논의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다른 글들과 달리, 방대한 양의 지식을 간략히 정리하여 담음으로써 짧은 시간 안에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알차게 얻을 수 있는 글이다. 또한 내용을 항목화

하여 일련의 규칙을 부여해 배열함으로써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쉬이 찾아 활용할 수 있는 글이다. 사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먼저 사전의 항목 분류법과 배열법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전에 기술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약호를 알게 하고, 압축적인 설명과 어려운 용어 등 사전 독해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사전에서 안 내용을 필요나 목적에 따라 필요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골라 기록 또는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전을 활용하게 하고 사전별로 해당 항목을 비교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사전이 필요한 상황이 있음을 알고 사전을 활용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고, 사전을 활용하여 스스로 독해나 학습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 성취 기준은 3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1) 국어사전에서 낱말 찾는 방법을 안다.’에서 학습한 사전 찾기 방법을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국어사전, 백과사전 등 다양한 사전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형식의 사전을 대상으로 한다. 국어사전, 유의어 및 반의어 사전과 같은 언어사전, 과학 백과, 역사 백과 등의 다양한 분야별 백과사전, 인물 사전, 독서 사전 등 특정 대상이나 주제에 대한 사전류를 주로 다루고, 도감과 같이 사전의 형식으로 편집된 자료를 포함하여 다룰 수 있다. 또한 전자사전과 인터넷 사전을 포함할 수 있다.

【4-읽-(2)】 글을 읽고 어휘 사용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의 차이 이해하기
- 맥락에 따라 낱말 선택이 달라짐을 이해하기
- 적절한 표현과 적절하지 않은 표현 찾기
- 어휘의 적절성을 평가하면서 읽는 태도 기르기

이 성취 기준은 평가적인 사고를 하며 글을 읽는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대개의 경우 독자들은 글의 권위를 존중하며 해석적인 태도로 글의 의미를 구성해 내지만, 글의 내용이나 구조, 표현 등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읽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읽기 능력이다. 평가하며 읽기의 출발점 단계로서 글의 가장 기본 단위인 단어를 대상으로 그 사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게 하고, 그와 함께 평가하며 읽는 태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모든 단어는 다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동일한 단어라도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더욱이 글에 개인적 경험이나 사회적 분위기 등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거나 강조될 때에는 단어의 의미가 더욱 특수하게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와, 단어가

특정 문맥에서 사용되었을 때 실제로 갖는 의미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을 정확하고 예리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동일한 대상이나 의미역을 칭하는 것이라도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맥락에 따른 단어 선택의 적절성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높임말과 예사말, 고유어와 한자어, 문어적 표현과 구어적 표현, 격식 표현과 비격식 표현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이들 단어나 표현이 의미는 같더라도 맥락에 어울리게 사용되어야 자연스러울 수 있음을 알고, 맥락에서 적절한 표현과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구별하여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적절한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글을 평가하며 읽어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단어 사용을 비롯해 글의 표현 및 내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며 읽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글의 수준과 범위】 어휘 선택이 적절한 글과 어휘 선택이 어색한 글

동일한 단어가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됨을 비교하여 볼 수 있는 글과, 동일한 의미가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단어나 표현으로 사용됨을 보여 주는 글을 다룬다. 후자의 경우 높임말과 예사말, 고유어와 한자어가 대비되어 사용된 글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문어적 표현과 구어적 표현, 격식 표현과 비격식 표현의 차이를 보여주는 글을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논설문, 설명문, 이야기 글, 편지, 광고 등 다양한 종류의 글을 활용할 수 있다.

【4-읽-(3) 글쓰기가 제시한 의견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의견을 제시한 글의 특성 이해하기
- 글쓰기가 주목한 인물, 대상, 상황을 파악하기
- 글쓴이의 의견의 적절성 평가하기
- 글쓰기가 주목한 인물, 대상,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제시하기

이 성취 기준은 글쓴이의 의견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을 당면할 때 이에 합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듯이, 글을 읽을 때에도 글쓴이의 의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합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여러 가지 관련 요인을 검토하며 그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의견을 제시하는 글은 글의 내용이 사실이나 느낌이 아니라 글쓴이의 의견에 비중이 있는 글이다. 이런 글은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글과는 달리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의견을 피력하는 데 집중한다. 의견을 제시하는 글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 견해를 밝힌 것이므로, 주요 사안이 무엇이며 사안

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말했는가를 명확히 알도록 한다. 주요 사안은 인물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대상이나 상황에 관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들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 제시되었는지 중심 내용을 아는 차원에서 분명하게 파악하도록 한다. 그리고 해당 사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 즉 관련 당사자의 입장이나 여건, 사안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배경, 의견의 실현 가능성 등의 요인을 살펴서 이들 요인에 비추어 의견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게 한다. 이러한 검토 결과에 따라 글쓴이의 의견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한다. 그 결과 만약 글쓴이의 의견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읽는 이의 입장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이로써 의견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고의 과정과 요소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글의 수준과 범위】 인물, 대상,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글

인물, 대상,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한 글을 대상으로 한다. 제안서나 요청서 등 의견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글을 다루고, 생활문이나 편지 등의 형식으로 의견을 담은 글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주장과 근거 및 설득의 기법 등이 뚜렷이 드러나는 논증적이거나 설득적인 논설문은 다루지 않는다. 학습자들이 관심을 갖고 흥미롭고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소재의 글이 바람직하다.

【4-읽-(4)】 기행문을 읽고 여정과 감상을 정리한다.

【내용 요소의 예】

- 기행문의 특성 이해하기
-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쓴이가 다닌 곳 정리하기
- 여행지나 여행 과정에 대한 글쓴이의 감상 부분 찾기
- 다양한 기행문을 찾아 읽기

이 성취 기준은 실용과 교양을 겸비한 글인 기행문을 읽는 방법을 알게 하고, 나아가 기행문 읽기의 가치를 깨달아 기행문을 즐겨 읽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기행문은 사실적인 정보나 지식을 파악하며 읽을 수도 있고 동시에 그 내용을 감상하거나 음미하며 읽을 수도 있어서, 실용적이면서 문학적인 읽기를 할 수 있는 글이다. 기행문을 읽고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얻고 글쓴이의 인식이나 감상을 음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행문이란 여행 경험을 기록한 글이다. 여행 경험은 문화나 자연 등 여행 대상에 대해 보고들은 내용인 견문과 이러한 대상에 대해 느끼고 생각한 내용인 감상으로 정리된다. 견문은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새로운 해석, 여행지의 정보 등 주로 지식적인 성격의 내용이며, 감상은 대상에 대

한 감동이나 여행의 감회, 새롭게 깨달은 각성 등 정서적인 성격의 내용이 주가 된다. 기행문 읽기에서는 우선 여정을 정리하게 한다. 견문과 감상은 여정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여정은 기행문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자 시작점으로서 중요하다. 그리고 기행문에서 지적인 성격의 견문 내용과 정서적인 성격의 감상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음미할 수 있도록 한다. 지적인 성격의 내용이 주가 되는 기행문도 있고 정서적인 성격의 내용이 주가 되는 기행문도 있는데, 지적인 성격의 내용에 비중이 있는 기행문의 경우 지식이나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정에서 만나는 자연이나 문화를 직접 경험하거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깨닫는 데서 생기는 감상이나 감동 등의 정서적인 내용을 찾거나 추리하여 이해하고 음미하게 한다. 정서적인 성격이 더 강한 기행문의 경우 글쓴이의 감상과 사색의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정 속에서 서술되는 지적인 성격의 내용을 찾아 정리하는 한편 감상을 자아내게 한 대상을 상상하게 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지역이나 분야에 대한 다양한 기행문을 찾아 읽게 하고, 기행문의 가치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글의 수준과 범위】 여정과 감상이 잘 나타난 기행문

서적, 잡지,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된 기행문을 대상으로 한다. 글과 함께 영상 자료나 음향이 지원된 것을 포함할 수 있으나, 글로써의 표현이 충실한 것이어야 한다. 견문이 중심인 기행문과 감상이 중심인 기행문을 모두 포함하고, 자연을 소재로 한 글과 문화를 소재로 한 글을 모두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 쓰 기 -

【4-쓰-(1)】 사건이나 행동의 변화가 잘 드러나게 이야기의 내용을 요약하여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줄거리의 개념 이해하기
- 사건, 행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하기
- 이야기의 줄거리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 줄거리 요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이야기를 읽고 사건이나 행동의 변화가 잘 드러나게 요약하여 쓰는 능력이 글 쓰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글쓰기의 과정은 재구성 과정이다. 요약하기 역시 재구성 활동에 포함되며 상당히 어려운 재구성 활동 중의 하나이다. 이야기 요약하기를 선택한 것은 학습자들이 가장 많은 흥미를 보이는 글이 이야기이기 때문이며, 어떤 일

을 사건이나 행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요약하는 일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행동의 변화에 주목하여 이야기를 요약하는 활동과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요약하는 활동은 사실 매우 유사한 활동이다. 이야기의 내용을 요약하여 쓰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사건이나 행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쓸 내용을 생성, 조직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줄거리는 소설이나 희곡 속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집합을 말한다. 이야기는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이야기는 사건이나 인물의 행동을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한다. 줄거리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사건이나 행동의 개념 알기, 사건이나 행동의 관계 알기,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건이나 행동의 변화가 잘 드러나게 이야기 요약하기 등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편, 사건이나 행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요약한 글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도록 한다.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친구가 요약한 내용과 내가 요약한 내용의 차이에 주목하도록 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토의해 보도록 한다. 사람마다 관점, 배경 지식, 관심 등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이나 행동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줄거리의 차이를 낳는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사건, 행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하기’와 관련하여 4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2) 구성 요소에 주목하여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사건이나 행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내용을 요약하는 글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읽은 이야기이나 전기문 등을 대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의 행동 변화를 살펴본 후, 시간이나 장면, 혹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관점에 따라 요약문을 작성해 본다.

【4-쓰-(2)】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제안하는 글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제안하는 글의 특성 이해하기
-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의 차이 파악하기
- 타당하고 합리적인 제안 마련하기
- 제안할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하게 고쳐 쓰기

이 성취 기준은 글쓰기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변화시키고, 글쓰기를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쓰기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설정하였다. 생각과 행동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글쓰기를 요구한다. 생각과 행동의 차이를 좁히는 가장 강력하고 합리적인 도구 중의 하나가 글쓰기이기 때문이다. 글쓰기는 서로의 차이가 무엇이고,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로 어떤 변화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가장 좋은 모습은 서로 조금씩 변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변화는 서로를 인정할 때 가능해진다. 따라서 제안하는 글을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제안하는 글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되, 제안하는 글에는 제안 내용, 제안의 근거가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과정을 중심으로 학습 활동을 기획하되, 먼저 나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찾게 하고,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어느 쪽의 사고나 행동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평가하도록 한다. 자신의 사고나 행동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생성하도록 한다. 제안을 통해 타인의 사고나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제안 내용과 제안 근거가 타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쓴 글을 친구들과 바꾸어 읽고 제안 내용과 제안 근거를 적절하게 고쳐 쓰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의 차이 파악하기’와 관련하여 4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듣는이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부탁, 거절, 위로의 말을 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또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제안 마련하기’와 관련하여 4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글쓰기가 제시한 의견의 적절성을 평가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읽는 이에게 제안하는 글

용돈 사용, 방과 후 청소, 게임 등과 같이 학습자에게 익숙한 소재에서 쓸거리를 찾도록 한다.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한다. 그리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친구들과 토론한 후에 타당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담은 글을 쓰도록 한다.

【4-쓰-(3)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여 마음을 나누는 편지를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편지의 형식 알기
- 읽는 이의 상황을 고려하여 알맞은 내용 선정하기
- 자신과 읽는 이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쓰기
- 자신과 읽는 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쓰기

이 성취 기준은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좋은 글을 쓰는 관건이라는 점과 편지 쓰기를 통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편지는 가장 많은 사

람들에 의해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글의 유형이다. 이는 편지가 다양한 기능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편지는 그리움과 슬픔을 달래고, 미움과 분노를 가라앉히는 치유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긴 호흡으로 자신의 어제와 오늘을 찬찬히 살피면서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는 성찰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서로의 자리를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관계를 차분하게 모색하게 하는 관계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편지는 문자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중적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즐겨 편지를 쓰고, 그 과정에서 편지의 힘을 체감하도록 한다. 또한 편지는 무엇보다 상대를 전제로 한 글이므로 상대의 마음, 서로의 관계를 고려하여 쓸 내용을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편지는 다른 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격식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편지는 대체로 호칭, 안부 인사, 본문, 작별 인사, 날짜와 쓴 사람의 이름 등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한편 글을 쓰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 이들 내용 중 빠지는 내용도 있고, 추가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음을 알게 한다. 다른 글과 마찬가지로 편지도 역시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편지를 쓰는 목적, 읽는 이의 상황, 자신과 읽는 이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자신과 읽는 이의 관계에 따라 쓸 내용과 편지의 형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즉 둘 사이의 관계가 소원한지 가까운지, 불편한지 친밀한지, 모르는 사람인지 잘 아는 사람인지, 친구인지 어른인지 등에 따라 편지에 담을 내용과 편지의 형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 한다. 이 성취 기준은 ‘읽는 이의 상황을 고려하여 알맞은 내용 선정하기’와 관련하여 4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듣는이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부탁, 거절, 위로의 말을 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비교적 가까운 사람과 소식을 주고받는 글

위문편지나 반성문, 혹은 전학 간 친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친지께 안부 편지를 드리는 경우를 상기하며 상대방이 어떤 상황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하여 나는 어떤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내용을 구성할 것인지 생각하여 글을 쓰도록 한다. 편지 외에 인터넷 댓글이나 간단한 메모 등 학습자에게 익숙한 다양한 형식의 글을 쓰도록 한다.

【4-쓰-(4)】 글과 그림이 잘 어울리게 그림책을 만든다.

【내용 요소의 예】

- 읽는 이를 고려하여 내용 생성하기
- 글과 그림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하여 표현하기
- 글과 그림이 서로 어울리도록 구성하기
- 완성된 그림책을 발표하고 전시하기

이 성취 기준은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그림책 만들기를 통해,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사람은 모두 표현의 욕망, 창조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 글과 그림은 이러한 표현, 창조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또한 글과 그림은 모두 실재를 재현하는 기호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그 재현과 형상화의 방법이 다르다. 학습자는 글과 그림을 함께 사용하여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글과 그림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같음과 다름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글과 그림을 통해 표현의 욕망을 자유롭게 드러내면서 그림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글과 그림이 잘 어울리도록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을 통해 뜻을 전달하는 매체이다. 글을 위주로 내용이 전달되는 일반적인 책과는 달리, 그림책에서는 글과 그림이 서로를 보완하여 뜻하는 바를 전달한다. 어렵고 복잡한 정보나 지식도 글과 그림으로 함께 표현하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고, 동화 속 인물, 배경, 사건 등도 글과 그림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다. 그림책을 만들 때에는 읽는 이의 경험과 지식, 흥미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생성하도록 하되, 글과 그림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하여 표현하고, 글과 그림이 서로 어울리게 구성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성취 기준은 ‘읽는 이를 고려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표현하기’와 관련하여 4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조사한 내용을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인상 깊었던 일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책

학습자가 자신의 생활에서 인상 깊게 보고 들은 글이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되,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그림책을 만들게 할 수도 있고, 정서 표현이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을 만들게 할 수도 있다.

- 문 법 -

【4-문법-(1)】 표준어와 방언의 사용 양상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표준어와 방언의 개념 이해하기
- 표준어와 방언이 사용되는 상황 이해하기
- 상황에 맞게 표준어와 방언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이 성취 기준은 표준어와 방언의 사용 양상을 이해함으로써 표준어와 방언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궁극적으로는 국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

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표준어와 방언의 개념을 이해하고 표준어와 방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하도록 지도하되, 특히 상황에 맞게 표준어와 방언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둔다.

표준어와 방언의 개념을 이해하고, 표준어와 방언을 사용한 다양한 언어 자료를 국어 생활 문화를 고려하여 관찰하고 분석하여 표준어와 방언을 사용하는 상황을 정리할 수 있게 지도한다. 표준어를 사용할 때와 방언을 사용할 때에 표현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표준어와 방언의 사용 효과를 정리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상황에 맞게 표준어와 방언을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표준어나 방언 중 한 쪽의 가치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 성취 기준은 4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글을 읽고 어휘 사용의 적절성을 평가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특히 맥락에 따라 적절한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이 있음을 이해시키는 활동을 할 때에 표준어와 방언 사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표준어와 방언이 들어 있는 언어 자료

표준어와 방언을 사용하여 표현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 대화나 글을 언어 자료로 삼는다. 짧은 만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표준어와 방언 사용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언어 자료도 제공할 수 있다.

【4-문법-(2)】 국어 높임법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높임법의 개념과 종류 이해하기
- 높임법을 써야 할 상황 이해하기
- 높임법을 적절히 써서 효과적으로 말하기

이 성취 기준은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국어 높임법을 사용하는 양상을 이해함으로써 국어 생활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어를 효과적으로 표현 및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국어 높임법의 개념과 종류를 이해하도록 지도하되, 특히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대상 등을 고려하여 높임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높임법을 사용한 언어 자료를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높임법의 개념과 종류를 이해하고, 국어 생활 문화 속에서 높임법이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고 소통되는지 설명할 수 있게 지도한다. 높임법을 사용하는 상황과 사용 효과를 정리하여 높임법을 적절히 써서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3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

준 ‘(3) 의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에서 배운 내용 중 ‘표현 의도’의 개념을 이용하여 ‘표현 의도에 맞게 높임법 사용하기’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국어 높임법을 쓴 언어 자료

같은 연배 사이에서 높임법을 사용한 경우와 나이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높임법을 사용한 경우, 비공식적 상황에서 높임법을 사용한 경우와 공식적인 상황에서 높임법을 사용한 경우 등 높임법을 사용한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을 학습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다양한 언어 자료를 제공한다.

【4-문법-(3)】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을 분석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문장 성분의 개념 이해하기
- 문장 성분 분석하기
- 문장 성분과 문장과의 관련성 파악하기

이 성취 기준은 문장 성분의 개념을 이해하여 올바른 문장을 생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어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고 국어 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문장 성분의 개념을 이해하고 올바른 문장을 생산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을 깨달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언어 자료를 접할 때에 그 언어 자료에 나타난 문장의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국어 의식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둔다.

여러 종류의 문장을 언어 자료로 하여 문장 성분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문장 성분의 개념을 이해하고 문장 성분과 문장의 관련성을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깨닫게 지도하여 올바른 문장을 생산하려는 태도를 지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한다. 구어에서는 필요한 문장 성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문어에서도 문맥에 따라 필요한 문장 성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시키는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어 생활 문화의 특성을 이해시킬 수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문장의 형식을 보여 주는 언어 자료

문장의 형식을 보여 주는 다양한 언어 자료를 이용하되,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진 어색한 문장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신문, 방송, 인터넷, 안내판 등에 사용된 문장들 중에서 문장 성분에 문제가 있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된 자료도 이용할 수 있다.

- 문 학 -

【4-문학-(1)】 좋아하는 시를 분위기를 살려 암송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작품의 분위기나 정서를 이해하기
-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고르고 그 이유 말하기
- 좋아하는 시를 여러 사람 앞에서 암송하기

이 성취 기준은 작품의 분위기를 살려 암송함으로써 시 작품을 즐기는 태도를 기르고 시 작품의 수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선정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타인과 소통하며, 그 시를 암송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와 관련된 문학 능력의 발달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하게 시도되어야 하겠지만, 시를 많이 접하고 즐겨 읽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시의 특성에 대하여 자각하고 그것을 암송하는 것은 시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의 표현이자 좋아하는 마음을 타인과 공유하려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시를 좋아하는 마음을 기쁨으로써 시 수용 능력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자발적인 것이 되어서 교실 밖에서도 활동이 이어질 수 있다면 문학 생활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된다. 개별 암송, 공동 암송 등의 방법과 더불어 음악이나 그림 또는 무언극(마임)을 곁들이거나 여러 가지 매체와 결합된 낭송의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이 성취 기준은 낭송이나 낭독과 관련해서 2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1) 느낌을 살려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낭송한다.’나 2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글의 분위기를 살려 효과적으로 낭독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분위기 혹은 정서의 파악과 관련해서 4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듣는이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부탁, 거절, 위로의 말을 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운율, 이미지 등이 잘 드러나는 시, 노래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동시나 노래를 선택하되, 가능하면 분위기나 정서가 풍부하게 드러나서 정서에 대한 이해의 폭 확장을 위한 활동을 촉발하기에 용이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4-문학-(2)】 구성 요소에 주목하여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작품의 구성 요소 이해하기

-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이야기 이해하기
- 운율, 이미지 등을 중심으로 시를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작품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통하여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시나 이야기 작품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며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작품을 이해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지도의 중점을 둔다.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를 토대로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최소한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한 개념들 가운데 작품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개념들은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하여 문학 작품은 전체를 이루는 하위 요소인 여러 가지 구성 요소와의 관련을 통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적인 수준의 하위 요소가 시에서 운율, 이미지 등이라면 이야기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 등과 같은 것이다. 이들 요소를 통하여 작품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이해에 근거하여 작품에 대하여 말하기, 쓰기 등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그 의사소통의 결과로 우리는 작품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은 기능적인 하위 구성 요소와 글 전체와 관련하여 4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사건이나 행동의 변화가 잘 드러나게 이야기의 내용을 요약하여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 운율, 이미지 등이 잘 드러나는 시, 노래
- 영웅이나 위인이 등장하는 이야기나 글
- 친숙한 세계 또는 상상적인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

원칙적으로 다양한 문학 갈래의 다양한 작품이 모두 가능하며 그러한 한 특별한 제한이 필요 없다고 하겠지만, 시 작품의 경우에는 운율이나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난 작품을, 이야기 체재의 경우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 두드러지는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4-문학-(3)】 문학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삶의 모습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작품의 시대적, 공간적 배경 파악하기
- 작품에 나타난 인물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파악하기
-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삶을 일상생활 속 인물과 연관 지어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삶의 모습을 인물의 처지 및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

적 상황과 관련하여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삶을 인물이 살아 가는 시대의 배경 및 우리 일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문학 작품에서 시대 배경이 드러난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생각이나 말, 행동 등 인물의 삶의 모습이 그 시대의 배경과 관련됨을 이해하도록 하며, 인물의 그러한 삶의 모습은 작품의 시대적, 문화적 상황이 반영된 것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문학 작품에는 인물이 존재하고, 그 인물은 시대적, 공간적 배경 속에서 살아간다. 인물의 그러한 삶은 우리 시대의 삶 혹은 우리 모두가 겪는 일상 생활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유사성을 통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절차이기도 하다. 이 성취 기준은 인물과 관련하여 2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2) 문학 작품 속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한다.’ 및 3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4) 문학 작품 속 인물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이야기를 꾸민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 영웅이나 위인이 등장하는 이야기나 글
- 친숙한 세계 또는 상상적인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

원칙적으로 모든 갈래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겠지만, 시대적 배경에 주목한다면 이 시기의 학습자에게는 시 작품보다는 서사(이야기)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며, 특히 영웅이나 위인이 등장하는 이야기나 글이 그러할 것이다.

【4-문학-(4)】 문학 작품을 읽고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을 바탕으로 감상문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문학 감상문의 특징 이해하기
- 작품을 읽고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 정리하기
- 작품에서 느낀 감동을 정리하고 표현하기

이 성취 기준은 작품을 읽고 느낀 감동을 정리하여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작품을 읽고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을 포함한 감동을 감상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문학 감상문 갈래는 학교에서 쓰는 문학적 글쓰기 갈래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문학 감상문의 특징을 이해하고, 작품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정리해서 편지글이나 일기 등의 형식으로 질서화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문학적 수용 능력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활동에 속한다. 읽는 활동도 실상 쓰는 활동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구체화의 정도가 약하고, 자기 내부에서의 쓰는 활동에

불과하다. 작품을 읽은 느낌은 구체적으로 쓰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독자와의 소통에 구체적인 응답을 발견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직접 써 보는 과정을 통하여 머릿속의 생각은 구체적인 모습을 비로소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성취 기준은 3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1) 문학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 운율, 이미지 등이 잘 드러나는 시, 노래
- 영웅이나 위인이 등장하는 이야기나 글
- 친숙한 세계 또는 상상적인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제제가 제한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 시기의 글쓰기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된 작품들이 효과적이다. 특히 시 갈래의 경우 조건을 부과하거나 해서 학습자의 부담을 줄여 준다면 글쓰는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학년>

- 듣 기 -

【5-듣-(1) 발표를 듣고 매체 활용의 효과를 판단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발표의 목적과 내용 파악하기
- 매체의 특성과 기능 이해하기
- 매체 활용의 효율성 판단하기

이 성취 기준은 설명하거나 주장하는 발표를 듣고, 발표에 사용된 매체가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발표에 활용된 매체가 효과적인지에 주목하여 발표를 듣도록 하되, 특히 활용된 매체가 발표 내용을 더 분명하게 하거나 관심을 끌도록 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경우,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거나 듣는 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말하려는 바의 핵심을 간략히 요약한 단어나 문장을 제시하는 글이나 관련된 그림·도표·사진·동영상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보여주면 발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긴 글이나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흥미 위주의 시각 자료를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발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따라서 ‘매체 활용의 효율성 판단하기’는 ‘발표의 목적과 내용을 파악하기’와 연계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또 ‘매체의 특성과 기능 이해하기’는 그 자체로 독립된 지식으로 지도할 것이 아니라 ‘매체 활용의 효율성 판단하기’와 관련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비언어적 표현의 전달 효과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5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경험담을 듣고 비언어적 표현의 전달 효과를 파악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하거나, 대상의 특성에 맞는 시청각 보조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5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대상의 특성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여 발표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한 발표

학습자가 직접 매체를 활용하여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도할 수도 있고,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발표하는 모습을 담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자료, 혹은 수업 시간이나 학교 행사에서 학습자가 매체를 활용하여 발표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물을 보면서 지도할 수도 있다.

【5-듣-(2)】 토론에서 상대의 주장과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한다.

【내용 요소의 예】

- 토론의 특성 이해하기
- 토론의 논제와 토론자의 역할 이해하기
- 찬반 양론의 주장과 근거 파악하기
- 주장과 근거의 적절성 평가하기

이 성취 기준은 상대를 설득하는 경쟁적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논리적, 비판적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토론 능력은 다양한 가치와 요구가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복잡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 토론에서 제시된 찬반 양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하고 그 요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토론은 어떤 논제에 대하여 찬성자와 반대자가 각기 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논거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담화의 한 유형이다. 토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가자들의 대립적인 주장을 통해 최선의 결론에 이르는 데 있다. 토론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논거를 충분히 준비하고, 상대방이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논거들을 예측하여 그것들을 반박할 수 있는 논거를 마련한 후 토론에 임해야 한다. 토론 사회자의 주된 역할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토론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공정하게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다. 토론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 자료, 즉 논거이다. 증거 자료에는 통계, 사례, 실험 등의 사실적 증거와 정황적 증거 및 전문가의 의견, 관찰자의 증언 등의 의견적 증거 자료가 있다. 토론을 할 때는 상대방이 수집한 증거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등을 검증해 보아야 한다. 만약 상대방의 증거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믿을 만하지 못하면 올바른 논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박할 수 있다. 증거 자료의 검증에서는 우선 그것이 증거로서 적합한지 검토한 다음, 그 출처가 믿을 만한지 검토한다. 그리고 질과 양을 검증하여 보아야 하는데, 질(質)의 검증은 주어진 자료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일관성이 있는가, 정확한가, 최근의 자료인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양(量)의 검증은 자료가 충분하며 완벽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토론의 논제와 토론자의 역할 이해하기’는 5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의견이 대립하는 논제를 정하여 규칙을 지키면서 토론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찬반 양론의 주장과 근거 파악하기’는 5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다른 사람의 입장과 관점에 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일상생활 또는 시사적 쟁점을 논제로 한 토론

학습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논제들로, 찬반양론이 뚜렷하며 찬성과 반대의 여론이 비슷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논제에 대해 토론하도록 한다. 일상생활의 내용에서

추출한 쟁점이나 학습자들과 관련이 있는 사회 문화적인 쟁점을 논제로 택한다. 사실·가치·정책 논제 가운데 정책 논제가 학습자들이 다루기에 수월하다.

【5-듣-(3)】 온라인 대화를 일상 대화와 비교하여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온라인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 온라인 대화와 일상 대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하기
- 바람직한 온라인 대화 태도 형성하기

이 성취 기준은 인터넷 대화방이나 게시판 댓글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온라인 대화의 특성을 일상 대화와 비교하여 이해함으로써, 바람직한 온라인 대화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온라인 대화와 일상 대화의 목적이나 언어 사용 방식 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화 태도를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화자와 청자가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마주보는 상황에서 음성 언어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상 대화와는 달리, 온라인 대화에서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해 실시간으로 혹은 시간의 거리를 두고 화자와 청자가 문자 언어를 통해 의사를 주고받는다. 온라인 대화는 음성이 아니라 문자를 이용하지만 글보다는 말에 가깝고, 화자와 청자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는 일상 대화와는 달리 얼굴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어조, 음색, 높낮이, 장단, 강약 등과 같은 반언어적 표현이나 표정, 몸짓, 의상 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와 청자의 감정과 분위기를 전달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온라인 대화를 할 때에는 문자 언어와 이모티콘 등의 기호를 통해 말하는이의 감정과 분위기를 전달하는 방식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 대화의 특성을 일상 대화와 비교하여 이해하고, 바람직한 온라인 대화 태도를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온라인 대화는 면 대 면 상황이 아니고 더러는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의에 어긋나는 태도를 취하기 쉽다. 학습자들이 온라인 대화를 활발하게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올바른 온라인 대화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일상 대화에서 비언어적 표현이 갖는 기능이 온라인 대화에서는 문자나 기호에 의해 어떻게 실현되는지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성취 기준은 5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경험담을 듣고 비언어적 표현의 전달 효과를 파악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내용 요소 중 ‘온라인 대화와 일상 대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하기’는 5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4) 말하는이, 듣는이, 상황, 매체 등에 따라 언어 사용 방식이 달라짐을 안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친구들 간의 온라인 대화

인터넷 대화방이나 게시판 댓글 등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친구들과 나눈 온라인 대화를 수집해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 학습자들이 수집하는 온라인 대화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대화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대화를 기록할 것임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지도한다.

【5-듣-(4)】 경험담을 듣고 비언어적 표현의 전달 효과를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경험담의 특성 파악하기
- 비언어적 표현에 주목하기
- 비언어적 표현의 기능 이해하기
- 비언어적 표현의 전달 효과 평가하기

이 성취 기준은 비언어적 표현의 성격을 이해하고 비언어적 표현을 바탕으로 경험담을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 표현이 의미 이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비언어적 표현의 사례와 그 효과를 귀납적으로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험담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듣는 데 중점을 둔다.

인간은 삶의 경험 가운데 특별히 흥미롭거나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로 구성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살아간다.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담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교감의 정서를 나눈다. 경험담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듣는이에게 구연하는 이야기이다. 화자는 같은 경험이라도 좀 더 실감나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연하게 된다. 이때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야기의 상황이나 인물을 묘사하거나 주요 부분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언어적 표현으로 인해 듣는이는 이야기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기능과 전달 효과를 이해하게 되면 비언어적 표현이 많은 경험담을 비롯한 일상의 말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비언어적 표현의 기능 이해하기’는 3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애니메이션을 보고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비언어적 표현의 전달 효과 평가하기’는 5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1) 반언어적 표현의 특성을 알고 의사소통에서의 역할을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비언어적 표현을 다양하게 활용한 개인적 경험담

일상에서 친구로부터 듣는 체험에 바탕을 둔 이야기, 부모나 주위 어른으로부터 듣는 교훈이 담긴 경험담, 텔레비전 토크쇼에서 출연자들이 전하는 개인 경험담 등을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말 하 기 -

【5-말-(1)】 대상의 특성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여 발표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대상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내용 선정하기
-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는 적절한 표현 선정하기
- 시청각 보조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이 성취 기준은 수업, 학급 회의, 방송과 같은 공식적 상황에서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발표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발표는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의 특성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대상의 특성에 맞는 어휘의 선정과 문장 표현에 중점을 둔다.

발표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말하기로서 보통 다수의 청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공식성을 띤다. 지도의 중점은 표현에 두되, 발표할 내용의 선정, 조직, 표현 및 전달의 전 과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발표할 내용은 인물, 사물, 행동 등 관찰 가능한 대상을 위주로 하고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생성하게 한다. 내용을 표현할 때에는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어휘 및 문장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가령, 인물에 대하여 발표할 때에는 연대기적 요소와 관련된 표현이나 일화를 소개하는 데 필요한 표현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관찰한 사물에 대하여 발표할 때에는 그것의 생김새나 쓰임 따위와 관련된 표현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발표할 때에는 사진이나 그림, 실물 등 시청각 보조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4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조사한 내용을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한다.’, 5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발표를 듣고 매체 활용의 효과를 판단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수업, 학급 회의, 방송과 같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하는 발표

발표 상황은 수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발표, 학급 회의에서 안건을 제안하거나 건의하기 위한 발표, 학교 방송이나 학급 방송에서의 발표 등으로 할 수 있다. 수업의 경우는 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 수업의 상황을 설정하고, 학급 회의의 경우는 평소 학급에서의 경험과 연계하여 상황을 설정하며, 방송의 경우는 교내 방송이나 학급 방송 또는 지역 방송 등의 상황을 설정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5-말-(2)】 의견이 대립하는 논제를 정하여 규칙을 지키면서 토론한다.

【내용 요소의 예】

- 토론의 일반적인 절차 알기

- 논제를 정하고 토론 준비하기
- 근거를 들어가면서 주장 펼치기
-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토론하기

이 성취 기준은 토론의 특성을 이해하고 토론의 구체적인 수행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토론은 일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게임이므로 학습자들이 토론의 일반 원리와 전략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 성취 기준에서는 논제의 설정과 규칙의 준수에 중점을 둔다.

토론이란 의견이 대립하는 논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두 진영이 서로를 설득하고 논박하며 제삼자의 판단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1대1 또는 소집단 의사소통 방식이다. 토의가 토의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 방식인 데 비하여, 토론은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는 두 진영이 일관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그 결과를 판정 받는 의사소통 방식이다. 이 성취 기준을 지도할 때는 토론과 관련한 지식, 기능, 맥락 요소가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지도한다. 토론의 특성과 절차 등 일반 원리를 학습한 후, 논제의 설정, 토론의 준비, 입론과 논증 등 토론의 절차를 익히고, 의견이 대립하는 논제를 정하여 규칙에 따라 토론을 수행하게 한다. 그리고 토론이 개인의 삶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의견이 대립하는 논제들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듣기 영역에서는 토론의 담화 유형적 특징, 참여자의 역할, 주장과 근거의 비판적 이해에 중점을 두고, 말하기 영역에서는 토론의 준비와 수행 능력 및 규칙의 준수에 중점을 둔다. 이 성취 기준은 5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토론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한다.’, 5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다른 사람의 입장과 관점에 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다루는 모둠 토론

4~6명으로 모둠을 구성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 사회자, 기록자 등의 역할을 나누어 토론하게 하되, 논제는 학급 및 학교생활의 개선을 위한 정책 논제나 5학년 수준에서 다루기에 적합한 가치 논제를 다룰 수 있다. 학급 단위에서 한 모둠이 중심이 되어 토론을 진행하고 다른 학습자들은 방청객이나 배심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교사가 사회자가 되어 모둠 토론이나 학급 토론을 중재하는 형태로 교수·학습 활동을 할 수도 있다.

【5-말-(3) 공식적·비공식적 상황에서 적절한 칭찬이나 사과의 말을 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칭찬이나 사과의 말에 사용되는 표현 알기

- 칭찬이나 사과의 말이 필요한 상황 이해하기
-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어조로 말하기
- 상대를 배려하는 대화 태도 기르기

이 성취 기준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칭찬하는 말이나 사과하는 말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칭찬이나 사과의 말은 대인 관계에서 대화자 간의 친밀감과 신뢰감을 높이고 감정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칭찬이나 사과가 필요한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내용 요소에는 칭찬이나 사과의 말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이해, 칭찬이나 사과의 말에 사용되는 언어 표현에 대한 지식, 상황에 따른 적절한 표현과 어조의 사용, 상대를 배려하는 대화 태도 등이 연계되어 있다. 칭찬의 말은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바탕으로 한다. 칭찬의 말은 잘한 일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나보다 상대를 더 존중하고 높이는 마음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그리고 사과의 말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과 뉘우침을 표현하는 말이다. 따라서 칭찬이나 사과의 말은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의사소통의 문제이다.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지도와 함께 배려하는 마음과 성찰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에도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성취 기준은 5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과하는 글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에 따른 칭찬이나 사과의 말

칭찬이나 사과의 말은 친구, 교사, 형제자매, 친지, 부모 등 일상생활에서 형성된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공식적 상황은 학급에서 하는 발표나 방송 등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하거나 사려 깊지 못하게 행동한 일을 사과하는 경우이고, 비공식적 상황은 개인적 대화에서 칭찬이나 사과의 말을 하는 경우이다. 칭찬이나 사과의 말은 문학 작품 속 인물과의 대화나 역할극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

【5-말-(4)】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재로 하여 촌극을 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촌극의 내용을 선정하고 대본 작성하기
-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역할 분담하기
- 관객을 고려하여 명료하고 실감나게 표현하기
- 비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미 전달하기

이 성취 기준은 촌극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언어적·비언어적 수단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촌극은 일상생활의 소재를 극적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과정에서 협동심, 창의력, 표현력 등을 길러 주는 활동이다. 학습자들이 학교 안팎의 일을 소재로 하여 촌극을 직접 해 보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촌극은 짧은 길이의 희극이거나 소극(笑劇) 또는 팬터마임이다. 연극이 희곡 작품을 대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데 비해 촌극은 일상생활 경험이나 시사적 소재를 바탕으로 즉석에서 줄거리를 구성하고 배역을 나누어 하는 간단한 형태의 연극이라 할 수 있다. 촌극과 관련한 내용 요소는 대본 구성, 연습, 실연 등 촌극의 준비와 실행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습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촌극의 소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대본은 완결된 문장으로 작성하기보다는 인물을 설정한 후 대강의 줄거리만 꾸미게 하며, 연습 과정 및 실연을 통하여 표현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특히, 촌극에서는 관객을 상대로 한 표현과 전달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언어적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팬터마임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이 성취 기준은 5학년 문법 영역의 ‘(4)말하는이, 듣는이, 상황, 매체 등에 따라 언어 사용 방식이 달라짐을 안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일상생활 경험이나 시사적 소재를 바탕으로 한 촌극

학교 안팎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시사적 소재를 바탕으로 줄거리를 구성하게 하되 대개 6~10명 정도로 구성된 모둠 활동이 적절하다. 줄거리의 구성과 연습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촌극의 소재나 형식, 역할 등에 대하여 예시 자료를 제공하고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읽 기 -

【5-읽-(1)】 사건을 기록한 글을 읽고 인과 관계에 유의하면서 사건의 흐름을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사건을 기록한 글의 특성 이해하기
- 각 부분의 인과 관계 파악하기
- 사건의 전개 과정 정리하기
- 역사적 배경, 맥락 등에 비추어 글의 의미를 해석하기

이 성취 기준은 비문학적인 서사문을 성공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형식적으로는 시간을 축으로 하여 전개되는 사건이 중심이 되고 내용적으로는 실제

있었던 일을 다루는 서사는 현실에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이들 글을 효과적으로 읽어 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고, 사실들 간의 합리적인 연관관계를 인식하게 하는 등 사실적인 서사의 읽기 방법을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건을 기록한 글은 실제 있었던 일을 서사의 형식으로 기록한 글이다. 일어난 일이 서사의 방식으로 짜여져, 사건과 사건이 필연 또는 개연의 인과 관계로 연결되며 한 편의 글을 이룬다. 사건 기록의 글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건과 사건 사이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잘한 행위들을 분류하여 중요하고 굵직한 사건으로 구성하고, 이들 사건이 각각 어떠한 관계로 연결되는지를 파악하거나 추리하게 한다. 그리고 각 사건이 발단, 전개, 결말 등 글 전체의 전개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추리하여 글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게 한다. 때로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기보다 시간상 역전되거나 재배치되어 진술되는 등 독특한 구성의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구성이 갖는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기술된 사건과 관련한 상황적,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 등을 알고 이들 맥락과 관련하여 사건이 당대와 오늘날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또한 사건은 언어로 기록되면서 일어난 그대로의 모습을 갖기 어렵고 기록자의 관점이나 시각에 따라 해석된 바가 부가되게 마련이므로, 실제 사건과 사건에 대한 해석을 구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사건 기록의 의의를 생각하고 시사점을 발견하게 할 수 있다. 관심 있는 문제나 시기에 대한 다양한 사건의 기록을 찾아 읽게 하고, 사건의 의미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5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해 보도하는 기사를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사건의 전개 과정과 인과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서사문, 역사서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서사글을 대상으로 한다. 사건을 보도하는 기사문, 일상사를 기록한 생활문, 관찰이나 조사를 통해 사건을 기록한 보고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을 담은 각종 역사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구성한 글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한 글을 고루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5-읽-(2)】 광고에 나타난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내용 요소의 예】

- 광고의 표현 특성 이해하기
- 광고를 보고 내용과 의도 파악하기
- 광고들을 비교하여 내용의 신뢰성 평가하기
- 광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기르기

이 성취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접하는 광고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광고는 일상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광고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여 광고를 적절하고 성공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 광고의 정보적 속성과 설득적 속성을 알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광고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광고는 본래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을 뜻한 것으로, 권장하고 싶은 상품이나 생각 따위에 대하여 알리는 장르를 말한다. ‘알린다’는 기본 속성에 따라, 광고는 알리는 바에 대한 정보와 알리는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설득의 두 가지 요건을 필수로 갖는다. 이들 정보적 요소와 설득적 요소를 광고에서 정확하고 섬세하게 파악하게 함으로써 광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정보적 요소는 대상의 대표적인 특징이나 쓰임새, 대상의 장점이나 새로운 점, 이용자가 궁금해 하거나 필요로 할 만한 사항 등에 대하여 소개하거나 설명한 사항들이다. 설득적 요소는 이성적, 감성적, 도덕적 설득 방식이나 사고 의존적, 느낌 의존적 설득 방식 등으로써 대상에 주목하거나 대상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의도한 사항들이다. 광고의 정보성 측면에서 정보 분석력을 기르고, 설득성 측면에서 설득의 기법과 의도를 인식하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상품 광고의 경우 광고 대상에 대한 정보와 설득 요소를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의 정리와 추가 수집, 다른 대상과의 비교, 생략된 정보의 추리, 단점의 발견 등으로 정보 요소의 신뢰성과 풍부성 및 균형성 등을 평가하게 하여 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공익 광고와 기업 광고 등에 대하여 광고에 전제되거나 내포된 사실을 추리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하게 하거나 광고의 효과를 음미하게 한다. 이로써 광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이끈다.

【글의 수준과 범위】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에 나오는 광고

다양한 매체에서 실현되는 다양한 양식의 광고를 폭넓게 다룬다.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반영하고, 상품 광고와 공익 광고, 기업 광고 등 여러 유형을 포함한다. 정보의 성격과 설득의 기법을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특징의 광고를 고루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읽-(3)】 다양한 서평을 읽고 서평의 특성과 기능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서평의 특성 이해하기
- 서평의 기능과 효과 이해하기

- 하나의 책에 대한 여러 서평을 비교하기
- 서평을 활용하여 좋은 책을 골라 읽는 태도 기르기

이 성취 기준은 독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서평을 활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독자는 개인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독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활발하게 서로 소통하고 협동한다. 대중 매체가 발달한 요즘 서평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독자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대표적인 소통 매체가 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서평을 통해 책을 먼저 경험한 다른 독자들의 견해를 접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독서 여부를 판단하거나 독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책에 대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서평의 특징과 유용성에 대하여 알게 하고, 서평을 활용하여 책을 고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서평이란 대상 책에 대해 평가적 견해를 밝힌 글이다. 대상 책에 대하여 해설하거나, 쟁점을 도출하여 동의 또는 반박하거나, 책의 의의나 가치에 대해 판단하거나, 책을 읽은 소감을 밝히는 등으로 대상 책에 대한 평가를 담는다. 서평은 대상 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기도 하며 동시에 가치 평가를 적극적으로 내리기도 한다는 점에서 책에 대한 소개나 안내, 광고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서평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서평에 소개된 대상 책에 대한 정보와 해설, 평가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한다. 그리고 서평에 진술된 내용을 기반으로 책의 내용과 가치를 짐작하게 하고 나아가 책의 독서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의 책에 대한 여러 개의 서평 자료를 찾아 비교하며 읽음으로써 더욱 폭넓은 안목을 가지고 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책이 좋은 책일 가능성이 높지만, 좋은 책인지의 여부는 책 자체의 자질만이 아니라 독자 자신의 독서 목적과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이나 능력 등을 적극 고려하여 읽을 책을 결정하도록 이끈다. 그리고 유용한 서평이 게재되는 주요 매체를 알고 이를 통해 책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며, 서평으로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서평을 활용하여 좋은 책을 골라 읽는 태도를 기르도록 유도한다.

【글의 수준과 범위】 책에 대한 정보와 평가가 담긴 글

책에 대한 정보와 평가가 담긴 각종 서평을 대상으로 한다. 비평, 논평, 평론 등으로 지칭되는 책에 대한 평가의 글들을 포함할 수 있고, 평가보다 감상의 성격이 강한 독서 감상문은 제외한다. 서평 논문이나 서평란에 실리는 전형적인 서평 양식의 글을 다루고, 상업성이나 편향된 시각이 강한 광고나 홍보게시물용 서평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 서평의 대상이 되는 책은 실용 교양서적과 문학 서적 등을 고루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읽-(4)】 전기문을 읽고 인물의 가치관, 신념, 삶의 모습을 평가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전기문의 특성 이해하기
- 인물의 생애와 역사적 현실 파악하기
- 인물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해 평가하기
- 전기문의 인물과 비교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기

이 성취 기준은 삶에 대한 성찰과 전망을 가지게 해 주는 글인 전기문을 즐겨 읽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전기는 인물의 위대성과 함께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그린 글로서, 허구적인 글과는 달리 실존했던 인물의 삶이라는 점에서 감동과 여운이 더 클 수 있다. 인생에 대한 꿈을 키워야 할 시기에 전기문의 가치를 알고 즐겨 읽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세우게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배울 점이 무엇인지, 나에게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하며 전기문을 읽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전기문은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한 글이다. 전기문에는 인물이 살았던 당대의 현실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과 인물의 생애 및 그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다. 따라서 전기문을 읽으며 인물의 한 일이나 겪은 일, 주요 사건과 업적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게 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당대의 시대적 상황과 사회 문화적 분위기나 여건 등에 대하여 파악하게 한다. 그리고 당대의 현실에 대해 인물이 취했던 태도나 신념, 행동 등에 비추어 인물의 가치관과 됃됨이를 판단하고, 오늘의 관점에서 인물의 이런 면모에 대하여 평가하게 한다. 전기문은 인물의 위대함에 대해 외경의 느낌을 갖게 하는 면이 있지만, 위대함의 이면에 꿈꾸면서도 갈등하고 의연하면서도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적인 면모가 있음에 주목하게 한다. 이러한 이해 및 평가와 함께 인물의 삶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고 삶에 대한 원대한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끈다.

【글의 수준과 범위】 가치관, 신념,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난 전기문

인물의 삶을 기록한 전기문이나 평전을 대상으로 한다. 역사적으로 평가받은 인물과 칭송받는 현존 인물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기록한 글을 모두 다룰 수 있다. 다만, 평가가 신뢰할 만하여 평가의 결과가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 글을 다루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쓴 회고록과 자서전 등은 제외한다. 자료적 전기와, 재구성 전기, 비평적 전기 등을 포함하되, 허구나 과장을 포함할 수 있는 전기 소설이나 허구적 전기는 제외한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오류가 없어야 하고, 인물의 위대성보다 인간적인 면에 주목하여 기술된 것이 바람직하다.

- 쓰 기 -

【5-쓰-(1)】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해 보도하는 기사문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기사문의 특성 이해하기
- 중요한 사건을 선정하여 조사하기
- 조사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쓰기
- 읽는 이를 고려하여 그림, 사진, 도표 등을 활용하기

이 성취 기준은 기사문 작성을 통해 학습자들이 정보를 알리는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기사문의 특성을 이해하고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보도하는 기사문을 작성하도록 하되, 사회적으로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건을 선정하여 정확한 내용을 보도하는 글을 쓰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사문은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소식 중 보도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글로서 신문에 실리는 다양한 유형의 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기사문은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씌어진다. 그러나 사회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 중에서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건을 선택하고, 선택한 사건을 정해진 분량의 글을 통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기사문을 작성하는 이들의 관점이 반영되게 된다. 학습자들이 직접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중 중요한 사건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게 되었는지 밝히는 육하원칙에 따라 쓰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지도한다. 이 과정에서 기사문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기사문의 특성을 이해하기’와 관련하여 5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사건을 기록한 글을 읽고 인과 관계에 유의하면서 사건의 흐름을 파악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학교, 지역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 기사문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일어난 일 중 학습자들이 직접 겪었거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사문을 작성하도록 하되, 어떤 사건이 보도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건인지 선택하는 과정과 이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글을 작성하는 과정을 모두 중시하여 기사문을 작성하도록 한다.

【5-쓰-(2)】 다른 사람의 입장과 관점에 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다른 사람의 입장과 관점 파악하기

- 다른 사람의 입장과 관점에 대하여 의견 제시하기
- 찬성, 반대를 하는 이유나 근거를 정리하여 쓰기
-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안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다른 사람의 입장과 관점에 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쓰게 함으로써 비판적, 논리적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고, 쓰기를 통하여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개인은 공동체의 규범, 질서, 신념 등에 영향을 받는다. 한편, 공동체의 규범, 질서, 신념 등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지지와 동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공동체는 개인을 구성하고, 개인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상호 구성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각 개인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함으로써 공동체의 형성에 참여하게 된다. 학습자에게 글쓰기가 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수단이며 계기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다른 사람의 입장과 관점에 근거하여 쓸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여러 가지 입장과 관점 중에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과 관점을 정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나 근거를 정리하여 글을 쓰도록 지도한다. 이유나 근거는 가능하면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에서 이끌어 내도록 지도한다.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해결 방안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기’는 맥락 관련 내용 요소인데, 이 내용 요소를 지도할 때는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안이 왜 다른지를 개인의 성장 배경, 개인과 집단의 이해 관계 등에 근거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개인과 집단에 따른 이러한 인식의 차이, 해결 방안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자신의 입장과 관점을 정리하기’, ‘모둠별 토론을 통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나 근거를 찾기’와 관련하여 5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토론에서 상대의 주장과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학교, 지역 사회에서 제기되는 쟁점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글 다루는 주제는 이성 친구 사귀기, 용돈 사용 등과 같이 학교, 지역 사회에서 제기되는 쟁점으로 하며 독자는 친구, 부모, 지역 인사 등으로 할 수 있다.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글과 관련하여 신문 사설, 편지, 투고문, 건의문 등과 같은 글을 쓸 수 있다.

【5-쓰-(3)】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과하는 글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사과하는 글의 특성 이해하기
- 가까운 사람에게 미안했던 일 떠올리기

- 있었던 일과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내용 정리하기
- 내용과 표현의 진실성을 유지하면서 사과하는 글 쓰기

이 성취 기준은 가까운 사람에게 사과하는 글을 쓰게 함으로써 쓰기를 통해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쓰기를 통해 개인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숙한 필자를 기르고자 설정하였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달래는 일은 쉽지 않다.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다양한 맥락을 되살려 길게 설명해야 하며, 자신은 현재 어떤 마음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이러한 긴 설명과 구체적인 마음의 표현은 말보다는 글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과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글쓴이 역시 정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것이 글쓰기의 힘이다. 사과하는 글을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에 맞는 내용을 생성, 조직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과하는 글의 특성을 지도할 때는 글의 형식보다는 내용상의 특성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미안했던 일은 가능하면 가까운 과거에 실제 있었던 일,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 일, 아직도 미안함을 표현하지 못한 일 등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쓸 내용은 있었던 일,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사과하는 글에서는 내용과 표현의 진실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한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글로 표현하기에 앞서, 상대의 마음이 어떠할지, 그러한 마음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상대는 어떤 부분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바라는지를 충분히 헤아리는 것이 중요함을 알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사과하는 글을 상대방에게 보내기’, ‘친구와 쓴 글 함께 읽기’와 관련하여 5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공식적·비공식적 상황에 적절한 칭찬이나 사과의 말을 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일을 사과하는 글

글의 소재는 빌린 물건을 늦게 돌려준 일, 오해에 근거해서 화를 낸 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일로 한다. 독자는 친구, 부모님, 선생님과 같이 실재하는 구체적인 독자로 한다. 사과하는 글은 대체로 편지 형식의 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 형식이나 반성문 등 다양한 형식을 다룰 수 있다.

【5-쓰-(4) 상상한 것을 바탕으로 사건 사이의 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이야기를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실제와 상상한 것의 차이 이해하기

- 읽는 이의 고정 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재미있는 생각을 떠올리기
- 사건 사이의 관계가 잘 드러나게 이야기 구성하기
- 친구들과 함께 쓰기

이 성취 기준은 상상한 것을 바탕으로 사건 사이의 관계가 잘 드러나는 이야기를 쓰게 함으로써 이야기를 쓸 때 사건 사이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상상하기의 즐거움과 이야기 쓰기의 즐거움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상상한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사건 사이의 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전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상상은 실재에 바탕을 두되, 실재에서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기 힘든 일도 꿈꿀 수 있는 개인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다. 실재의 일을 다룬 이야기와 상상의 일을 다룬 이야기를 읽었던 경험을 비교해 보고 실재와 상상의 차이를 인식하도록 한다.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쓰게 되면 상상하여 이야기를 쓰는 일의 보람과 기쁨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내용을 떠올려 이야기를 쓰도록 한다. 이야기 속의 사건들은 단순히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사건 사이의 관계에는 시간적 선후 관계, 인과 관계, 병렬 관계 등이 있다.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 고쳐 쓰기의 과정에서 동료 학습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이야기를 쓰는 데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더 나아가서 협동 작문의 형태로 공동 이야기 쓰기를 할 수도 있다. 이야기 쓰기에서 사건 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사건들의 형식적 배열만 중시하는 무의미한 글쓰기 연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건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되 사건들과 주제와의 관련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사건과 주제 중 어느 것을 먼저 정하느냐는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주제를 먼저 정한 다음 다양한 사건들을 떠올리고 관련성 있는 것을 추려서 이야기를 쓰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자유롭게 떠올린 여러 개의 사건들 사이에 시간적 선후 관계, 인과 관계 등을 설정하면서 주제를 발견할 수도 있다. 이 성취 기준은 ‘사건 사이의 관계가 잘 드러나게 이야기 구성하기’와 관련하여 5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3) 시간 표현 방식을 이해한다.’,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2) 사건 전개와 인물의 관계를 파악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재미있는 사건을 상상하여 쓴 이야기

상상하여 쓸 수 있는 이야기에 일정한 범위를 둘 필요는 없다. 읽는 이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재미있는 사건들을 다루는 이야기를 쓰도록 한다. 내용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쓸 이야기의 형식도 줄글로 쓴 이야기, 줄글과 대화가 함께 나타나는 이야기, 그림과 곁들인 이야기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다.

- 문 법 -

【5-문법-(1)】 반언어적 표현의 특성을 알고 의사소통에서의 역할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반언어적 표현의 개념 이해하기
- 반언어적 표현이 의사소통에서 하는 역할 이해하기
- 반언어적 표현을 의사소통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이 성취 기준은 반언어적 표현을 의사소통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 반언어적 표현과 관련한 국어 의식을 강화시키고 국어 생활 문화를 이해하여, 효과적으로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반언어적 표현의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의사소통에서 반언어적 표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인식하고 의사소통에서 반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반언어적 표현은 어조, 음색, 고저, 장단, 강약 등을 일컫는 말로, 이런 것들은 비언어적 표현과 함께 표현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비언어적 표현은 얼굴 표정이나 몸 동작, 손 동작, 의상 등과 같은 것을 일컫는 말로,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는 언어와 관련을 맺고 있지 않지만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분명히 어떤 의미를 드러내 준다. 따라서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의 효과가 잘 드러난 다양한 언어 자료를 관찰하고 분석하며,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이 의사소통에서 하는 역할을 정리하여 이를 설명할 수 있게 지도하도록 한다. 그리고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비교, 대조하고 의사소통의 특성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한국의 국어 생활 문화에서는 어떤 반언어적 표현이 표현의 효과를 증대시키는지 생각해 보도록 지도하여 반언어적 표현을 의사소통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반언어적 표현과 관련한 국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이 성취 기준은 특히 말하기나 듣기 활동과 병행하여 지도할 수 있다. 특히 5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경험담을 듣고 비언어적 표현의 전달 효과를 파악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반언어적 표현이 효과적으로 사용된 언어 자료

반언어적 표현의 효과가 잘 드러나는 만화 영화나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의 한 부분 등을 언어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과, 감사, 칭찬 등 감정이 드러나는 대화의 한 부분이나 실감나는 이야기의 한 부분을 언어 자료로 삼을 수 있다.

【5-문법-(2)】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구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 구별하기
- 문장이나 글에서 단어의 의미 해석하기
-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이 성취 기준은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가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궁극적으로는 단어 의미와 관련한 국어 의식을 강화시키고 어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의사소통에서 단어를 사용하는 양상을 이해하여 단어의 쓰임을 이해할 수 있게 지도하되,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하나의 단어가 갖는 의미는 사실상 유동적이다. 단어들은 실제 국어 생활에서 각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각 단어의 의미는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맥에 의해 고정되고 결정된다. 따라서 문장이나 글에 사용된 단어 중 중요한 단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확정하는 활동을 통해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가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구별하고 정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단어가 살아가는 방식, 혹은 단어의 사용 양상과 단어의 개념 정의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이를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하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4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사전에 읽는 방법을 익힌다.’, ‘(2) 글을 읽고 어휘 사용의 적절성을 평가한다.’와 3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1) 국어사에서 낱말 찾는 방법을 안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 학습 내용 요소를 복습, 정리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반복적으로 심화하고 확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의 확인이 필요한 언어 자료

의사소통 상황을 고려하여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언어 자료, 학습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교육적 효과가 있는 단어(예컨대 살려 쓸 필요가 있는 고유어 등)가 사전적 의미로 사용된 언어 자료, 한 단어가 하나의 글에서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는 언어 자료 등을 이용한다.

【5-문법-(3)】 시간 표현 방식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시간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이해하기

-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표현하는 방식 이해하기
- 시간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이 성취 기준은 한국어의 시간 표현을 이해함으로써 국어 생활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시간 표현에 관한 국어 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국어 생활 문화와 국어 시간 표현 방식의 관계를 이해하고 국어 시간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어의 시간 표현 방식이 잘 드러난 언어 자료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 국어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간 인식과 외국 사람들의 시간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국어 생활 문화와 국어의 시간 표현 방식의 특징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국어 생활 문화와 시간 표현과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시간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5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사건을 기록한 글을 읽고 인과 관계에 유의하면서 사건의 흐름을 파악한다.’, 5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해 보도하는 기사문을 쓴다.’와 연계하여 글에 시간 표현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분석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 표현 방식이 단지 시간을 드러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독특한 표현의 효과를 드러낼 수 있음을 이해시키는 활동도 병행할 수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여러 가지 시간 표현이 들어 있는 언어 자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짧은 이야기나 그날 그날의 사건을 다룬 보도 기사문 등을 언어 자료로 삼을 수 있다.

【5-문법-(4)】 말하는이, 듣는이, 상황, 매체 등에 따라 언어 사용 방식이 달라짐을 안다.

【내용 요소의 예】

- 의사소통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 알기
- 말하는이, 듣는이, 상황, 매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 이해하기
- 의사소통 상황과 언어 사용 방식의 관계 파악하기

이 성취 기준은 의사소통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요소에 말하는이, 듣는이, 상황, 매체 등이 있음을 알고, 이에 따라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해야 함을 알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언어 사용 방식은 말하는이와 듣는이의 성, 연령, 사회적 지위, 친밀한 정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비공식적 상황인가 공식적 상황인가, 혹은 개인적 상황인가 사회적 상황인가에 의해 달라지

며,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상황인가, 아니면 글을 통하거나 다른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상황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의사소통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와 언어 사용 방식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매체 변화에 따른 의사소통의 특성과 관련하여 5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온라인 대화를 일상 대화와 비교하여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고, 공식적·비공식적 상황에 따른 적절한 말하기와 관련하여 5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공식적·비공식적 상황에서 적절한 칭찬이나 사과의 말을 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의사소통 상황의 구성 요소를 고려한 여러 가지 언어 자료

말하는이와 듣는이가 직접 만나 대화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글, 라디오 매체, 영상 매체,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자료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되, 화자와 청자 혹은 필자와 독자의 성, 연령, 사회적 지위, 친밀한 정도, 공식적·비공식적 상황 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여 볼 수 있는 언어 자료를 제시하도록 한다. 음성 자료나 영상 자료는 그 자체로 직접 제시할 수도 있지만, 글로 전사하여 제시할 수도 있다.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말하기나 글쓰기를 학습자들이 직접 해 보도록 할 수도 있다.

- 문 학 -

【5-문학-(1)】 문학 작품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고 그 까닭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작품에서 인상적이거나 재미있게 표현한 부분 찾기
- 인상적인 표현을 넣어 짧은 글 지어 보기
- 재미있게 표현한 부분이나 느낌을 잘 살려 표현한 부분을 음미하고 다른 표현과 비교하기

이 성취 기준은 작품의 표현 효과를 이해하고 그에 대해 비평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문학 수용과 생산의 능력을 증진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작품에서 인상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아보고, 그 표현이 왜 인상적인가를 따져 보는 데 지도의 중점을 둔다.

작품에서 효과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나 느낌을 잘 살려 표현한 부분 등을 찾아보고, 이것을 다른 부분과 비교하여 이해하도록 하고, 아울러 작품에서 효과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아보며, 그 표현 효과, 곧 어떤 표현이 왜 인상적인가를 따져 보고, 그것을 말해 보거나 써 보는 활동은 중요하다. 표현 효과를 이해하려면 사용된 표현 형식을 발견·추출해 보는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표현 형식을 그것이 아닌 다른 것과 비교해 보는 활동도 필요하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그 표현 효과의 본질과 구체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표현 형식을 자신이 만든 다른 맥락의 문장을 통하여 직접 자신이 활용해 보며, 아울러 다른 표현 형식과 비교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성취 기준은 자신이 활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표현 형식과 관련하여 4학년 말하기 영역의 ‘(4) 문학 작품에서 받은 감동을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고, 표현의 특성이나 효과와 관련해서 5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1) 반언어적 표현의 특성을 알고 의사소통에서의 역할을 이해한다.’나 5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발표를 듣고 매체 활용의 효과를 판단한다.’ 5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대상의 특성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여 발표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인물이나 배경의 묘사가 구체적인 작품

다양한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표현 효과가 두드러지게 드러난 작품들, 시의 경우 묘사의 표현이 생동적이거나 운율의 효과가 두드러진 작품을, 소설의 경우 인물이나 배경 혹은 상황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인상적으로 표현된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5-문학-(2)】 사건 전개와 인물의 관계를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사건 전개와 인물이 연관이 있음을 이해하기
- 인물의 특성 파악하기
- 인물의 특성을 중심으로 사건 전개 파악하기

이 성취 기준은 작품에서 사건의 전개 과정과 인물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사건의 원인과 결과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작품에서 사건의 시작 부분이나 전개 과정이 달라진다면 인물의 말과 행동은 어떻게 될지, 반대로 인물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사건의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될지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해된 전체 사건 내용을 배열·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건의 전개를 인물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이 배경의 특성과 관련해서 사건의 전개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인물의 특성과 관련해서 사건의 전개를 이해하는 것은 더 초보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건 전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물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물의 특성 파악하기는 사건의 전개 과정 파악하기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분명해질 것이고, 이 두 관계가 분명해진 연후에 인물의 성격과 사건의 전개 과정과의 관계 파악하기, 나아가 인물의 성격이 바뀌면 사건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하기 등의 활동을 배치할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은 인물의 모습과 관련해서 4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3) 문학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삶의 모습을 이해한다.’와 관련해서 지도할 수 있고, 5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사건을 기록한 글을 읽고 인과 관계에 유의하면서 사건의 흐름을 파악한다.’와 관련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 사건의 전개가 분명한 작품
- 인물이나 배경의 묘사가 구체적인 작품
-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품

여러 가지 제재의 다양한 작품들이 고루 사용될 수 있으나, 특히 사건 전개 과정에서 인물과의 관련이 강조된 작품을 사용하여 감상할 수 있다.

【5-문학-(3)】 문학 작품은 읽는 이에 따라 다르게 수용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표현하기
- 작품에 대한 해석이 읽는 이의 생각이나 느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동일한 작품이라도 읽는 이가 가진 생각이나 느낌 등에 따라 다르게 수용될 수 있음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동일한 작품에 대한 느낌을 짝과 둘이서 혹은 조별로 혹은 반 전체와 더불어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과 어떤 점이 같으며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하면서, 자신의 작품 수용에 대한 약간의 성찰을 하게 하고 다른 이의 작품 수용 양상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이 모든 읽는 이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작품을 읽기 이전이나 작품을 읽는 도중에 생겨나는 생각이나 느낌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같은 작품에 대한 독서의 방식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는 다른 모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학습자가 자신의 감상문과 다른 친구들의 독서 감상문을 바꾸어 읽고,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수용 양상을 알아봄으로써 같은 작품이라도 읽는 이에 따라 다르게 수용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면, 타인의 문학적 수용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자기 자신의 문학적 수용의 특성을 객관화하는 기회를 늘릴 수 있고, 그 바탕에서 문학적 소통 능력 발달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은 문학 작품의 감상과 관련하여 4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4) 문학 작품을 읽고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을 바탕으로 감상문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품
- 인물이나 배경의 묘사가 구체적인 작품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작품이 두루 사용될 수 있지만, 특히 활동의 폭을 보다 넓히기 위하여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난 작품이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5-문학-(4)】 문학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을 바꾸어 쓰고, 그 의도와 효과를 설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기
- 작품의 의미상 중요한 부분 찾고 의도 파악하기
- 원래의 작품 일부를 바꾸어 쓰고 그 효과 말하기

이 성취 기준은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품의 일부를 자신의 표현 의도에 맞게 바꾸어 쓰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이 활동은 동시나 동화나 극, 수필 등의 작품을 읽고, 그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고,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반영하여 작품의 일부분을 바꾸어 쓰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글쓴이가 글을 통하여 쓰고자 하는 바는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표현 의도라 하겠지만, 독자의 입장이나 글 자체에 주목하면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란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라 생각할 수 있다. 독자는 어떤 작품을 읽어 가면서 “나라면 ‘저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생각을 실행에 옮겨 쓰는 것이 바꾸어 쓰기이다. 바꾸어 쓰기가 효과를 거두려면 표현 의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표현의 효과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한다. 어떤 표현에서 표현 의도나 효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자신의 표현 효과나 의도에 대한 객관적 이해 수준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활동은 문학적 수용과 생산 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은 표현 의도와 표현 효과의 연관에 관해서 5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1) 문학 작품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고 그 까닭을 이해한다.’와 연계해서 지도할 수 있으며, 표현의 특성과 표현 대상과의 관련해서는 5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대상의 특성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여 발표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 사건의 전개가 분명한 작품
- 인물이나 배경의 묘사가 구체적인 작품
-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품

다양한 제재의 작품이 활용될 수 있겠지만 표현 의도와 표현 효과와의 관련을 쉽게 탐색하기 위해 표현 의도가 지나치게 모호하지 않은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또한, 문학적 장치가 다양하게 활용된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6 학년>

- 듣 기 -

【6-듣-(1)】 뉴스를 듣고 정보에 관점이 반영됨을 안다.

【내용 요소의 예】

- 뉴스의 담화 구조 이해하기
- 사건의 개요 파악하기
- 서로 다른 시각이 반영된 뉴스 비교하기
- 뉴스의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뉴스가 전달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뉴스가 전달하는 정보에는 객관적 사실뿐 아니라 전달하는 이의 관점도 함께 반영됨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뉴스는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소식 중 보도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음성 언어를 통해 전달하는 담화로서, 신문·라디오·텔레비전·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전달된다. 뉴스를 보도하는 이는 주요 사건, 행위자,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유지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회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 중에서 보도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건을 선택하고, 선택된 사건을 짧은 시간을 통해 전달해야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뉴스를 만드는 이들의 관점이 반영되게 된다. 사건을 보도하는 뉴스의 담화 구조는 앵커의 도입과 취재기자의 보도로 구성된다. 취재기자의 보도에는 관련 인물의 면담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뉴스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한편,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다양한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관점을 드러낸다. ‘뉴스의 담화 구조 이해하기’, ‘서로 다른 시각이 반영된 뉴스 비교하기’ 등을 통해 뉴스가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동시에 정보에 대한 관점을 드러낸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이러한 뉴스의 관점 반영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해하게 한다. 이 성취 기준은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6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한다.’와 연계해 지도할 수 있다. 내용 요소 중 ‘사건의 개요 파악하기’는 6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다양한 매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하는 글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서 보도하는 뉴스

뉴스의 내용은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나 학습자들의 사회·문화적 관심사를 반영

한 것을 다루도록 하며,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뉴스의 내용과 관점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방송사의 어린이 뉴스나 학습자들이 직접 제작한 뉴스를 찾아, 같은 사건을 다룬 성인들의 시각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6-듣-(2) 선거 유세를 듣고 주장하는 말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선거 유세의 특성 이해하기
- 주장과 근거의 적절성 판단하기
- 여러 후보의 주장을 비교하며 듣기
- 말의 사회적 책임 인식하기

이 성취 기준은 청중의 입장에서 선거 후보들의 유세를 듣고 그 주장들의 적절성을 비교하여 판단하게 함으로써 비판적 이해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이해를 토대로 공동체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위한 의사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갖게 할 수 있다. 선거 유세 상황을 경험하도록 교수·학습 활동을 제시하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후보들의 주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선거 유세는 일반적인 연설이나 웅변과는 다르다. 우선 주제의 다양성에서 차이가 난다. 선거 유세는 특정 주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여 청중을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선거 유세는 평가자가 다수라는 특징이 있다. 선거 유세에는 다양한 성향을 지닌 청중이 있고 이들이 곧 심판관이 되는 것이다. 선거 유세에는 청중에게 호감을 얻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다양한 설득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학습자는 이러한 선거 유세의 특성을 이해하고 후보들이 주장하는 말의 근거의 적절성을 비판적 안목으로 평가해 보아야 한다. 주장이 신뢰성, 타당성, 가치성, 실천 가능성이 있는지 살피고, 논리적인 이성보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자극을 하지는 않는지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같은 논제에 대한 후보들의 주장을 비교하고 그 근거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한다. 그리고 선거 유세가 지니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심판관의 입장에서 책임을 가지고 주장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주장과 근거의 적절성 판단하기’는 6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논설문을 읽고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평가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여러 후보의 주장을 비교하며 듣기’는 6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해결 방안이 잘 드러나게 연설문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학급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거 유세

학급 임원이나 학교 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청중의 입장에서 투표권을 갖고 후보들의 선거 유세를 듣는 상황을 다룬다. 후보들이 개별적으로 각각의 주장을 청중 앞에서 펼치는 상황이나, 논제를 정하여 후보들 간의 토론 형식으로 의견과 주장을 교환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선거 유세 상황을 경험하도록 할 수도 있다.

【6-듣-(3)】 인사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한다.**【내용 요소의 예】**

- 인사말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 이해하기
- 사회적 상황에 따른 인사말 알기
- 대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인사 나누기

이 성취 기준은 인사말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주요하게 관여함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다양한 상황의 인사말을 두루 경험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하되, 특히 인사말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고 또한 이에 맞추어 반응을 달리 해야 함을 이해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인사말은 의사소통의 시작 국면에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의사소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이해하게 한다. 인사말은 주고받는 사람의 친밀도나 신분, 의식의 격식성 등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인사말이 공식적, 비공식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쓰이고 관습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언어 사용의 양상을 나타내므로,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인사말을 주고받는 활동을 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가 대상과 상황에 따라 관례적으로 쓰이는 인사말과 적절히 변용되는 인사말을 함께 살필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대인 관계와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대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인사 나누기’는 6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공식적·비공식적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사말을 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공식적·비공식적 상황에서 하는 인사말

친구 간 인사말이나 웃어른에 대한 인사말 등 학습자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사적인 대화 상황의 간단한 인사말은 물론, 연설, 발표, 각종 의식(儀式) 등의 공식적인 상황의 인사말까지 고루 다룬다. 인사말을 다룰 때는 언어 공동체의 사회 문화적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관습적 표현부터 특정 상황과 대상을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독창적인 표현까지 다룰 수 있다.

【6-듣-(4)】 드라마를 보거나 듣고 이어질 내용을 예측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드라마의 특성 이해하기
- 사건의 전개 과정 파악하기
- 앞부분을 토대로 뒷부분 내용 예측하기

이 성취 기준은 대중매체에서 방송되는 드라마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드라마를 주의 깊게 보거나 들어서 사건의 전개 과정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뒷부분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특히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는 드라마를 주의 깊게 보거나 듣고, 사건의 전개 과정을 토대로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사건의 전개는 등장인물들 간의 직접 대화나 독백,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영상이나 소리, 음악 등의 다른 장치를 통해 드라마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나 대상의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텔레비전 드라마의 경우에는 소설, 영화, 연극 등과 비교해 볼 때, 플롯 자체의 해결보다는 등장인물들의 감정, 성격, 관계 등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드라마를 보거나 듣고 이어질 내용을 예측할 때에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물의 대사와 행동뿐 아니라 영상, 소리, 음악 등 다양한 장치의 의미를 고려하도록 지도한다. 드라마에서는 이후에 이어질 사건을 예고하는 복선이 많으므로, 이에 주의해서 뒷부분의 내용을 예측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드라마는 여러 회에 걸쳐 방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회마다 갈등이 심화되거나 새로운 갈등이 제시된다는 점에 주의해서 뒷부분의 내용을 예측하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인물 간의 갈등에 의한 사건 전개와 관련하여, 6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4)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인물 간의 갈등을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내용 요소 중 ‘드라마의 특성 이해하기’는 6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연극에서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의 특성을 살려 실감나게 연기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 생활을 소재로 한 텔레비전 드라마

학습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 생활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되, 교육적으로 의미 있으면서 이어질 내용을 추측할 만한 단서가 충분히 들어 있는 드라마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 말 하 기 -

【6-말-(1)】 면담의 절차와 방법을 알고 효과적으로 면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면담의 특성 이해하기
- 면담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 면담의 목적에 따라 질문 준비하기
- 면담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기

이 성취 기준은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면담의 의의를 중시하여 설정하였다. 면담을 할 때에는 면담의 목적, 대상, 주제, 장소, 시간 등의 제약을 고려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면담을 위해서 면담자가 알아야 할 면담의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면담은 특정 인물이나 주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면담자와 피면담자가 주고받는 대화이다. 면담을 학습하기 위한 내용 요소는 면담의 준비, 진행, 정리의 단계별로 선정할 수 있다. 면담의 준비 단계에서는 면담의 목적, 대상, 주제 등을 설정하고 면담 주제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 면담 대상의 섭외, 질문의 준비, 면담에 필요한 녹음기나 기록용 노트 등 준비물의 점검 등과 관련한 내용을 학습한다. 면담 진행 단계에서는 피면담자와의 대면, 면담의 시작, 진행, 마무리 등의 과정에 따라 준비한 질문을 중심으로 면담하고 후속 질문을 하는 방법 등을 학습할 수 있다. 면담 결과의 정리는 녹음하거나 녹화한 내용을 면담의 목적을 고려하여 정리하고 이를 발표하거나 글로 써서 보고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면담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는 6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다양한 매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하는 글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학교 안팎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다루는 면담

이웃 돕기, 운동회, 졸업 여행 등 학교 행사에 대하여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면담이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지역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현황이나 문제 해결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을 모둠별로 할 수 있다.

【6-말-(2)】 학습 상황이나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토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내용 요소의 예】

- 토의의 절차와 방법 알기
- 면담이나 자료 조사를 통하여 내용 생성하기
- 의견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해결 방안 도출하기

이 성취 기준은 학습 상황이나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토의를 통한 협력적 상호 작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토의는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토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토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둘 이상의 사람이 참여하여 검토하고 협의하는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이다. 토의 교육의 내용은 토의의 본질, 절차, 방법, 유형 등을 이해하고 다양한 주제로 토의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토의는 일반적으로 문제 확인, 의견 제안, 의견 검토, 합의 도출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를 문제의 해결 과정으로 보면 문제 확인, 해결책 제안, 해결책 검토, 최선택 도출로 재구성할 수 있다. 토의의 기능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으므로 토의의 논제는 의문문의 형태로 진술하는 것이 적절하며 토의의 과정은 이 논제로 표현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논제의 성격에 따라서는 의견을 제안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토의에서 제안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의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사전 조사나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토론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자나 검토자도 사전에 제안 내용을 검토하고 토의 과정에서 이를 명료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회자는 토의를 통하여 창의적인 의견들이 제안되고 합리적인 토의 과정을 거쳐 이러한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토자는 제안된 의견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이를 또 다른 제안과 비교·대조하여 최선택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의견의 제안과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의 성격이 어떠하며 그에 대한 해결책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가 무엇이고 그것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따져 보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면담이나 자료 조사를 통하여 내용 생성하기’는 6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면담의 절차와 방법을 알고 효과적으로 면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고, ‘의견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해결 방안 도출하기’는 4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토의에서 자신의 의견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학습 상황이나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토의

토의의 유형이나 논제에 따른 토의 내용 구성에 관한 학습은 9학년에서 하게 되므로 여기에서는 토의의 일반적 절차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이나 학습 상황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탐구 과제의 해결을 위한 소집단 토의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6-말-(3)】 공식적·비공식적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사말을 한다.

【내용 요소의 예】

- 공식적·비공식적 상황의 차이 이해하기
-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내용 생성하기
- 대상에 맞는 공손한 표현 사용하기
- 인사말을 통하여 원만한 대인 관계 유지하기

이 성취 기준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인사말의 필요성을 알고 인사 방법을 익힘으로써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인사말은 인사를 나누는 상황이나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상황과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알맞은 인사말을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인사말은 사람을 만날 때 안부를 묻거나 환영하는 말, 헤어질 때 아쉬워하거나 안녕을 기원하는 말, 받은 도움이나 혜택 따위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 다른 사람의 좋은 일에 대하여 축하하는 말 등을 일컫는다. 인사말을 할 때에는 시간, 장소, 대상, 목적 등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여 알맞은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식적 상황은 공식성을 띠는 각종 행사에서 다수의 청중을 상대로 인사를 하는 상황이나 업무 관계로 다른 사람을 대면하여 인사하는 상황이며, 비공식적 상황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계에서 인사를 하는 상황이다. 사회적 관계는 지위, 연령, 직무, 친소 정도 등에 따라 형성되는 관계로서, 이에 따라 인사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선생님이나 웃어른께 인사말을 하는 경우와 친구나 손아랫사람에게 인사말을 하는 경우 인사말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웃어른께 인사를 할 때에는 특히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여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적절한 인사말이 대인 관계의 형성, 유지, 발전에 기여함을 알고 상황에 맞는 인사말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6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인사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고, 내용 요소 중 ‘대상에 맞는 공손한 표현 사용하기’는 4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2) 국어 높임법을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공식적·비공식적 상황에서 하는 인사말

6학년 수준에서 공식적 상황은 학급이나 학교 안팎의 행사나 모임에서 다수의 청중을 상대로 인사말을 해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고, 비공식적 상황은 공식적 상황 이외에 친지나 교우 등과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계에서 인사말을 해야 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인사말의 유형으로는 만나거나 헤어질 때 주고받는 일상적인 인사말, 다수의 청중을 상대로 한 환영사나 송별사, 감사의 말이나 축사 등을 들 수 있다.

【6-말-(4) 연극에서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의 특성을 살려 실감나게 연기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의 유형과 기능 이해하기
- 인물의 성격에 맞는 표현 탐색하기
- 감정을 이입하여 실감나게 표현하기
- 무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말하고 행동하기

이 성취 기준은 연극에서 인물의 역할 수행을 통하여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의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언어적 표현을 보완하거나 독자적으로 의미를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연극에서는 관객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므로 연극을 통하여 이를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연극에서 인물의 역할을 정하여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살려 실감나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연극은 배우가 무대 장치와 조명·음악 등의 도움을 받아 극본에 따라 연기하여 관객에게 보이는 종합 행위 예술이다. 여기에서는 연극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인물의 대사와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음성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서 화자는 낱말, 어구, 문장과 같은 언어 표현뿐만 아니라 발음, 조음, 고저, 어조, 속도, 크기 등 반언어적 표현을 통해서도 화자의 목적과 정서 등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자세, 손동작이나 몸 동작, 얼굴 표정, 눈 맞춤 등 언어 표현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도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연극에서 배우가 인물의 성격과 작가의 의도를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학습자들이 인물의 성격에 맞는 표현을 탐색하고 감정을 이입하여 실감나게 표현해 봄으로써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배우의 말과 행동은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연기하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의 유형과 기능 이해하기’는 6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드라마를 보거나 듣고 이어질 내용을 예측한다.’, 6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4)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인물 간의 갈등을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학교생활 경험이나 시사적 소재를 바탕으로 한 즉흥극

이 성취 기준은 연극의 요소를 전반적으로 학습하기보다는 연극을 활용하여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학습하는 데 중점이 있기 때문에 연극의 작품정보보다는 연극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생활 경험이나 시사적 소재를 활용하여 연극을 즉흥적으로 꾸며보게 하거나 희곡 작품의 일부를 상황에 맞게 즉흥적으로 변형하여 연기해 보도록 한다.

- 읽 기 -

【6-읽-(1)】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 찾기

- 글쓴이의 관점 파악하기
-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 파악하기
- 글을 쓸 때의 상황 맥락을 파악하여 글쓴이의 관점 평가하기

이 성취 기준은 정보 전달의 글에서 글쓴이의 의도나 대상에 대한 태도 등 글에 명시되지 않거나 부각되지 않은 내용을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글을 읽는 데에는 중심 내용이나 세부 내용과 같이 글에 명시된 내용을 아는 것을 넘어, 글에 암시되거나 함의된 것을 아는 차원의 이해가 필요하다.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글은 전달하려는 내용이 글의 전면에 나타나지만 내용을 다루는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글의 세부적인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글에 반영된 글쓴이의 특정한 관점이나 편향된 시각 등을 인식하고 글쓴이의 의도를 추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보 전달의 글은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다루며, 이것을 다루는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도 정보를 전달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러나 정보를 기록하고 구성하는 데에는 해당 정보를 대하는 글쓴이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성향, 입장, 태도, 감정 등이 반영되고 개입되기 마련이어서, 전달되는 내용에는 글쓴이의 관점들이 함의되어 있게 된다. 또한 이런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순수한 정보 전달만이 아니라 그 정보로써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기능을 수반할 수 있어서, 전달하려는 내용을 통해 특정한 방향으로 판단을 기울게 하거나 특정한 의사의 결정에 이르게 하는 등의 의도가 담길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글쓴이가 간단하게나마 직접적인 언급을 한 대목이나, 내용 선정의 편향성, 가치 평가적 표현, 내포된 설득의 구조 등을 발견하게 하고, 이로써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게 한다. 글쓴이가 글을 쓸 때의 상황이나 여건, 사회·문화적 분위기 등의 맥락과 관련하여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관점과 의도에 대하여 읽는 이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6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뉴스를 듣고 정보에 관점이 반영됨을 안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관점이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글

정보 전달의 기능이 두드러지면서도 필자의 의도나 주관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글을 대상으로 한다. 신문의 보도 기사나 각종 잡지의 기획 기사 등을 대표적으로 다룰 수 있다. 역사적인 기록이나 학술적인 글, 분석적인 글 등 정보·지식적인 성격이 강한 글도 해당 매체의 성향이나 필자의 특성, 맥락의 특성 등으로 하여 교육성이나 홍보성, 상업성 등의 의도가 비교적 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인 경우에 포함할 수 있다.

【6-읽-(2)】 논설문을 읽고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평가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의 특성 이해하기
- 주장과 근거 파악하기
- 논리 전개와 타당성과 적절성 평가하기
- 논증이 요구되는 상황 맥락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글에 대한 읽는 이의 비판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주장을 펴는 글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논리나 설득법이 사용되어 독자들은 대개 그 논리나 설득에 이끌려서 다른 생각이나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주장을 펴는 글을 읽을 때에는 글의 주장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글의 주장과 근거를 분석하고 주장과 근거를 엄밀하게 평가하는 적극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논설문은 어떤 문제에 대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독자를 설득하는 글이다. 논설문은 논리적인 설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장과 이에 대한 근거가 글의 핵심이 된다. 논설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주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게 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한다. 주장은 논제와 이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나 입장을 말한 것이고, 근거는 이런 견해와 입장을 갖게 된 이유를 말한 것이다. 논설문에 대한 비판은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한다. 주장에 대해서는 논제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나 입장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타당성 측면과 그 견해나 입장이 논제를 해결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를 판단하는 적절성 측면에서 평가를 하게 한다. 근거에 대해서도 근거로 제시한 사항들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가, 옳은 생각인가 등 정확성이나 타당성을 판단하게 하고, 이들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적절성 평가를 하게 한다. 이러한 평가의 과정에서 글에 나타나 있지 않는 반대 주장이나 반대 근거 등을 찾아봄으로써 더욱 적극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논리적인 근거로써 주장하고 이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논의의 과정임을 깨닫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6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선거 유세를 듣고 주장하는 말의 적절성을 판단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분명한 주장과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글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 논설문을 대상으로 한다. 에세이, 논술, 논평, 평론 등 주장에 대한 근거의 비중이 비교적 큰 글을 포함하고, 논리적인 근거가 약한 선언이나 성명과 같이 것들은 제외한다. 학습자들이 관심을 갖고 고민할 수 있는 논제를 다룬 글이 바람직하다.

【6-읽-(3)】 참여를 요구하는 글을 읽고 글쓴이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참여를 요구하는 글의 특성 이해하기
- 글쓴이의 참여 요구 사항과 입장 파악하기
- 호소력 있는 표현의 효과 평가하기
- 글쓴이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이 성취 기준은 참여를 요구하는 호소의 글을 읽고 독자가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참여를 요구하는 글은 주의를 환기하는 표어부터 협조를 구하는 호소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독자에게 무엇인가를 실천할 것을 설득한다. 이렇게 생활 곳곳에서 당면하게 되는 참여를 요구하는 글을 읽고, 호소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호소의 방법을 분석하여 적절히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참여를 요구하는 글은 어떠한 행동이나 선택을 하도록 호소할 목적으로 쓰인 글이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요구나 입장이 핵심이 되는 글로서, 그 형식은 다양해서 고정된 틀은 없지만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 고도의 표현법을 구사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참여를 요구하는 글을 읽으면서 글의 핵심 내용인 글쓴이가 호소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한다. 또한 그러한 호소나 요구, 부탁 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글쓴이의 입장이나 처지, 상황, 가치관 등을 추리하여 호소의 배경을 이해하게 한다. 그리고 글쓴이의 호소에 대하여 읽는 이의 입장, 처지, 상황, 가치관 등을 생각하여 비교하게 하고, 글쓴이가 호소하고 요구, 부탁하는 바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적절히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호소의 내용은 매우 호소력 있는 표현의 장치 속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독자의 관심을 끌고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논리적 이치에 기대거나, 정서적 감동을 일으키거나, 도덕적 품성을 각성하게 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한다. 이러한 호소의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드러내는 표현법의 효과를 알고 평가하며 또한 표현의 묘미를 음미하게 한다. 이로써 참여를 요구하는 글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고, 참여를 요구하는 글의 표현을 음미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

【글의 수준과 범위】 호소력 있는 표현을 활용하여 공동 참여를 요구하는 글

공동 참여를 요구하는 호소의 글을 대상으로 한다.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호소문, 권유의 글, 안내의 글 등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개인에게 요구하는 건의문은 제외한다. 지면에 쓰인 전형적인 글로서의 호소문뿐만 아니라, 현수막이나 안내판 등에 쓰인 표어나 캠페인성 글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가능한 한 호소력이 강한 글을 선정하고, 논리, 정서, 도덕에 호소하는 글을 고루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읽-(4)】 웃음을 유발하는 글을 읽고 표현의 익살스러움과 재미를 느낀다.

【내용 요소의 예】

- 웃음을 유발하는 글의 표현상의 특성 이해하기
-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의 효과 평가하기
- 웃음을 유발하는 글의 소통 맥락 이해하기
- 웃음의 효과를 알고 즐기는 태도 기르기

이 성취 기준은 웃음을 유발하는 글의 표현과 내용에서 유발되는 묘미를 알고, 그 재미를 느끼며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글을 읽는 가치는 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유쾌함 등과 같은 정서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데에서도 생긴다. 웃음을 유발하는 글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를 발견하고 유쾌함이나 재미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웃음을 유발하는 글은 다른 사람에게 웃음이나 즐거움을 주기 위해 쓰인 글이다. 익살이나 농담, 재담, 쿵트, 우스개 이야기 등과 같이 해학, 기지, 유머(humor), 아이러니(irony) 등의 기법으로 유쾌한 웃음을 자아낸다. 이들 글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내용과 표현을 발견하고, 그 표현의 효과를 이해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웃음 속에 담긴 주제나 의도 등을 파악하고, 웃음의 효과로서 주제나 의도가 전달의 상황에 주는 긴장 완화나 강조, 공감 등의 효과를 알게 한다. 웃음 유발의 글은 필자와 독자의 관계, 소통 상황, 분위기, 주제의 성격 등 맥락에 따라 그 쓰임이나 효과가 제한될 수도 있고 극대화될 수도 있다. 글의 재미나 웃음이 살아날 수 있는 상황 조건 또는 맥락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이런 환경을 조성하여 글의 재미를 충분히 느끼며 읽을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웃음의 정서적 카타르시스의 효과를 경험하고, 삶에서 이를 즐기며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

【글의 수준과 범위】 웃음을 유발하는 글

웃음 유발 자체가 글의 장르적 속성이 되며 유쾌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글을 대상으로 한다. 익살, 농담, 재담, 쿵트, 유머, 만담 등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를 비중 있게 포함하고 있는 글을 다룬다. 그러나 이들 요소를 갖더라도 비난이나 공격의 성격이 있고 비관적인 관점을 갖는 풍자물과 블랙 유머 등은 제외한다. 긴 글뿐만 아니라 짧은 문장 단위의 글 등 다양한 종류와 형식의 글을 포함할 수 있고, 영상이나 음향의 특성이 복합되어 있는 다양한 매체의 것을 포함할 수 있다.

- 쓰 기 -

【6-쓰-(1)】 다양한 매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하는 글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분류의 개념 이해하기
- 주제나 대상을 정하고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 조사하기
- 분류 기준을 정하고 조사한 내용을 분류하여 쓰기
-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각적 자료 사용하기

이 성취 기준은 분류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글을 쓸 수 있는 학습자가 효과적이고 논리 정연하게 글을 쓸 수 있다는 점과 주제에 맞은 내용을 다양한 매체에서 선정, 요약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주제와 관련된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글쓰기 능력이 되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확보한 정보를 어떻게 요령 있게 분류하여 주제에 맞게 구성하느냐이다. 요약하는 글을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으로 하되,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분류의 방법으로 조직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성취 기준은 두 가지 학습을 의도하고 있다. 하나는 내용 생성과 관련해서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는 학습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 조직과 관련해서 분류의 방법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학습 활동이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먼저 주제나 대상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양한 매체에서 조사하도록 한다. 문자, 음성, 영상 매체 등 다양한 매체에 필요한 정보가 산재해 있음을 알게 하고 이들 매체에서 관련 내용을 찾는 방법을 알게 한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분류의 개념 알기, 분류를 적용한 내용 조직 방법 알기, 분류의 유용성 알기,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쓰기 등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다양한 매체에서 쓸 내용 조사하기’와 관련하여 6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뉴스를 듣고 정보에 관점이 반영됨을 안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다양한 매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하는 글

컴퓨터, 텔레비전이나 책에서 보거나 직접 들은 내용을 요약하되,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리하여 글로 표현한다. 어려운 낱말이나 이해하기 힘든 내용은 다시 자료를 찾아 쉽게 풀어서 정리한다. 분류를 하거나 정리할 때에는 표나 그림 자료 등을 활용하여 내용을 시각화한다.

【6-쓰-(2)】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해결 방안이 잘 드러나게 연설문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연설문의 특성 이해하기
- 문제와 해결의 짜임으로 내용 정리하기
- 청중을 고려하여 쓰기
- 연설문을 바탕으로 연설하기

이 성취 기준은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고,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을 쓰게 함으로써, 논리적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고, 쓰기를 통하여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하는 상황을 자주 맞는다. 이러한 공식적인 상황에서의 말하기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실천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공식적인 상황에서의 말하기 주제는 대개 해당 공동체의 주요 쟁점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은 문제와 해결의 짜임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학습자가 당당하고 책임감 있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면, 문제와 해결의 짜임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데 익숙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연설문을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문제와 해결의 짜임으로 쓸 내용을 조직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연설문은 여러 청중 앞에서 연설할 내용을 담은 글이다. 쓴 내용을 글로 발표하면 독자가 눈으로 읽을 글이지만, 그보다 먼저 청중을 상대로 하여 낭독함으로써 귀로 듣게 하는 글이라는 점에서 특이한 종류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연설문은 자기 견해를 밝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를 의도한다는 점에서 설득하는 글이 갖추어야 할 조건과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예컨대, 다른 설득하는 글과 마찬가지로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연설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정 중심으로 연설문 쓰기를 학습하도록 한다. 특히 연설문은 그 성격상 문제와 해결의 짜임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쓸 내용을 문제와 해결의 짜임으로 조직하도록 한다. 문제와 해결의 개념 알기, 문제와 해결의 상호 관련성 알기, 문제와 해결의 짜임을 이용한 내용 조직 방법 알기, 문제와 해결의 짜임이 잘 드러나게 연설문 쓰기 등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연설문의 특성 이해하기’와 관련하여 6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선거 유세를 듣고 주장하는 말의 적절성을 판단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문제와 해결의 짜임으로 쓴 연설문

반장이나 회장, 혹은 부장 등 학급이나 학교 임원으로서 학급이나 학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나 문제점 등을 주제로 하여,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거나 건의, 제안, 혹은 의견 등을 제시한 글을 쓸 수 있다.

【6-쓰-(3)】 읽는 이의 마음을 고려하면서 축하하는 글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축하하는 글의 특성 이해하기
- 축하할 일을 중심으로 쓸 내용 정리하기
- 읽는 이의 마음을 고려하여 쓰기

○ 내용과 표현의 진실성을 고려하여 고쳐 쓰기

이 성취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 축하하는 글을 쓰게 함으로써, 글쓰기를 통하여 인간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일의 의의를 인식하게 하고, 이러한 글쓰기를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축하하는 글을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읽는 이의 마음을 고려하면서 쓸 내용을 생성, 조직하는 데 중점을 둔다.

축하하는 글을 쓰게 되는 상황, 축하하는 글에 포함되는 내용, 축하하는 글의 형식을 이해하도록 한다. 축하하는 글의 내용은 축하할 일을 중심으로 정리하되, 특히 읽는 이의 마음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표현하도록 한다. 즉 축하하는 마음의 진실성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내용과 표현에 있어서 지나침이 없는지 살피도록 한다. 축하하는 글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축하하는 글은 대체로 편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편지의 형식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은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내용 생성하기’, ‘상대에 맞는 표현 사용하기’와 관련하여 6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공식적·비공식적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사말을 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축하하는 글

졸업이나 입학, 합격, 각종 대회에서 상을 탄 일이나 생일, 어른(할머니, 할아버지) 생신 등 축하할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글쓴이도 함께 기뻐한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글을 쓸 수 있다. 각종 축하 카드나 생일 카드를 함께 만들어 글을 써 본다.

【6-쓰-(4)】 여정,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나게 기행문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기행문의 특성 이해하기
- 여행을 한 경험 떠올리기
- 여정, 견문, 감상을 중심으로 내용 정리하여 표현하기
- 읽는 이의 경험, 관심, 흥미 고려하기

이 성취 기준은 여행에서 보고 들은 것, 느낀 바를 정리하여 글로 쓰는 것이 자신의 체험을 확대, 심화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공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기행문을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여정,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나게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자기가 직접 여행을 하면서 겪은 체험을 제재로 쓴 글을 기행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행문은

대체로 여행의 과정, 새로운 견문, 감흥과 감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기행문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건의 전개 과정을 기록한 글이어서 서사문의 성격을 띤다. 즉 언제 어디를 어떻게 여행하였는지 하는 여정을 밝히는 것이 기행문의 기본 구조이며, 여기에 필자가 보고 들은 것, 이에 대한 감상 등을 적게 마련이다. 이러한 기행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정 중심으로 한 편의 기행문을 쓰도록 한다. 먼저 여행을 한 경험을 떠올리고, 간 곳과 보고 들은 것을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자신의 감흥과 생각을 기술하도록 한다. 기행문 역시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글이므로 읽는 이의 경험, 관심, 흥미를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정리한 내용 중에서 일부는 삭제되거나, 더 구체화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글의 수준과 범위】 여정,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나는 기행문

기행문은 기록 외에도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곳에 함께 가지 못한 친구나 동생에게, 혹은 다른 곳에 계신 부모나 친지들에게 경험하고, 느낀 것을 기행문 형식으로 써 보도록 한다.

- 문 법 -

【6-문법-(1)】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의 개념을 알고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의 개념과 차이 이해하기
- 국어 어휘의 특징 이해하기
- 고유어를 살려 쓰는 태도 기르기

이 성취 기준은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국어 생활 문화사의 일면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 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하되, 특히 국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의 개념과 차이를 국어 생활 문화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여 국어 어휘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국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학습자들이 서로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자들 스스로 국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 고유어를 살려 쓰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고유어를 살려 쓰는 태도를 기르되, 한자어나 외래어를 배척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따라 한자어나 외래어가 국어에서 갖는 가치에 대해 토의하는 활동도 병행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매체에 사용된

국어사용 방식을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외래어나 외국어, 한자어를 남용하는 사례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가 들어 있는 언어 자료

고유어를 살려 표현의 효과를 드러낸 표지판이나 안내판, 상표, 간판, 상품명 등과 외래어, 외국어, 한자어를 남용한 각종 매체 자료 등을 언어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6-문법-(2)】 문장의 연결 관계를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방법 알기
-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의 종류 알기
-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을 알맞게 사용하기

이 성취 기준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을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자신의 표현 의도에 맞게 문장을 정확하게 생산하고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방법 중 특히 접속 부사 등으로 문장을 연결한 경우에 초점을 두어, 접속 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그렇지만, 또한’ 등 다양한 접속 부사가 사용된 용례를 관찰 및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 이들 접속 부사들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방법을 정리 및 일반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접속 부사가 많이 사용된 글을 읽으면서 접속 부사를 생략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의미 파악이나 표현의 효과면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하는 활동도 병행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접속 부사 사용의 장단점을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접속 부사를 많이 쓰면 의미가 명료해지는 장점이 있어 논리적인 글에서는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서적인 글에서는 접속 부사를 많이 쓰는 경우 표현의 묘미가 떨어질 수도 있다. 접속 부사가 들어 있는 글을 읽으면서 접속 부사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는 활동을 하거나 접속 부사를 넣어 문장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게 하여 접속 부사의 쓰임을 실제 국어 생활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9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3) 문장의 짜임새를 설명한다.’의 기초 학습 내용이 되므로 학년 간 위계를 고려하여 지도한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접속 부사 등으로 연결된 문장이 들어 있는 언어 자료

접속 부사를 다수 사용한 글로서 논리적이거나 설명적인 글, 접속 부사 사용을 극히 자제한 글로서 논리적이거나 설명적인 글을 주된 언어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6-문법-(3)】 문장에 쓰인 호응 관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적절한 호응 관계의 중요성과 필요성 이해하기
- 문장의 호응 관계를 알고 바르게 표현하기
- 각종 매체에 나타난 언어 표현에서 호응 관계에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기

이 성취 기준은 문장에 쓰인 호응 관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신장시킴으로써 정확하고 효과적인 문장을 생산 및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문장의 호응 관계를 알고 바르게 표현·이해할 수 있게 지도하되, 특히 현재 각종 매체 등에서 호응 관계가 부적절한 문장이 널리 쓰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의 국어 생활 문화 환경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니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호응이란 앞에 오는 어떤 말에 응하는 말이 뒤따라오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결코’ 뒤에는 반드시 부정어가 와서 ‘결코 ~할 리가 없다’ 등과 같이 사용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호응 관계에 대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언어 자료에 나타난 문장의 호응 관계를 관찰하고 분석하여 적절한 호응 관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바른 문장 표현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지도한다. 각종 매체에 나타난 언어 표현에서 호응 관계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는 활동을 하여 현재의 국어 생활 문화 환경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정확한 언어 표현의 중요성을 체감하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4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3)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을 분석한다.’에서 다룬 내용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계획을 설계한다. 국어사용 태도와 외국어 사용 태도를 비교하고, 외국인이 자국어에 관심을 갖고 자국어 사랑을 실천한 사례를 조사하는 활동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호응 관계를 보여주는 문장이 들어 있는 언어 자료

호응 관계를 잘 지켜서 글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글뿐만 아니라 호응 관계를 잘 지키지 않아 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글도 이용 가능하다. 특히 각종 매체에 사용된 부자연스러운 문장 등도 좋은 언어 자료이다.

【6-문법-(4)】 한글의 가치와 의의를 알고 우수성을 설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한글의 가치와 의의 이해하기
- 한글의 우수성을 다른 문자 체계와 비교하여 말하기
-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고 가꾸려는 태도 가지기

이 성취 기준은 한글 창제의 원리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알고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고 가꾸려는 태도를 길러 주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한글 창제의 원리에 관한 지식의 전모를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한글이 왜 우수한지를 개략적으로 이해하고 한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관련된 각종 일화, 오늘날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알려져 있는지와 관련된 각종 자료, 한글이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를 소개한 자료 등을 학습자들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한글 창제의 원리를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한글이 다른 문자 체계와 비교할 때 왜 우수한지를 토의 및 발표할 수 있게 지도한다. 궁극적으로는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고 가꾸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이 성취 기준은 10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5) 한글 창제의 원리와 한글의 독창성을 안다.’의 기초 학습 내용이 되므로 학년 사이의 위계를 고려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어 사랑의 태도’라는 측면에서 6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3) 문장에 쓰인 호응 관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정확한 언어 표현의 중요성과 의의를 인식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한글의 우수성을 알려 주는 언어 자료

한글의 우수성을 알려 주는 각종 설명문과 언론 보도 자료,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관련된 각종 일화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문 학 -

【6-문학-(1)】 자신이 좋아하는 문학 작품을 들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의 특징 파악하기
- 자신이 그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 읽는 이에 따라 좋아하는 작품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토의하기

이 성취 기준은 자발적으로 문학 작품을 찾아 읽고,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에 대하여 성찰적인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문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학습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의 특징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그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런 활동을 기초로 하여 타인과의 문학적 소통 훈련이 가능하도록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의 특징을 파악하는 활동은 작품 수용을 자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이다. 그러한 활동이 전제가 되어 작품에 대한 선호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의 작품에 대한 선호 이유를 이해한다면, 자신의 선호 이유를 보다 더 객관화할 수 있으며, 양자의 비교는 선순환적 상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서 감상문 돌려 읽기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독서 감상문 돌려 읽기는 타인의 비밀을 엿보는 문제가 아니라 취미의 소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자신이 어떤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를 두고 토론하는 활동이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다. 한 편의 문학 작품을 읽은 느낌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느낌에 대한 소통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심화할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은 문학적 수용의 특성을 자각하는 것과 관련하여 5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3) 문학 작품은 읽는 이에 따라 다르게 수용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 문화와 전통의 차이가 드러나는 여러 작품
-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품
- 다양한 비유가 사용된 작품
- 인물 간의 갈등이 잘 드러나는 작품

작품의 문학적 수용 방식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지나치게 어려운 작품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와 전통의 차이가 드러나는 여러 작품도 감상하도록 한다. 아울러 학습자의 선호와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당대에 널리 읽히는 작품도 고려할 수 있다.

【6-문학-(2)】 문학 작품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의 특성과 효과를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을 찾기
- 비유적 표현의 발상과 특징 파악하기
- 비유적 표현의 효과 평가하기
- 문학 작품에 나오는 비유적 표현 음미하기

이 성취 기준은 비유적 표현 방식을 접하게 함으로써 언어 생활에서 다채로운 표현 방법을 익히고 스스로 활용하는 한편, 문학 작품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 설정하였다. 비유적 표현의 생생한 힘과 효과를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하되, 비유적 표현에 대한 단순한 언급이나 분류법 자체보다 발상법과 특징에 대한 이해를 표현

의도의 실현 여부와 관련시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비유적 표현 방법은 문학 작품에서 다양하게 원용되지만, 일상 언어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그러므로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일상 언어 생활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비유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적 표현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표현의 발상법을 파악하며, 그 효과를 평가하고, 또 실제의 문학 작품이나 일상적인 말이나 글에 나타나는 표현법을 이해하게 하는 활동을 지도할 수 있다. 나아가 그 이해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작품 창작 활동에 다시 송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비유적 표현법의 이해는 비유적 표현의 효과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이다. 이 성취 기준은 작품의 표현 효과와 관련하여 5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4) 문학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을 바꾸어 쓰고, 그 의도와 효과를 설명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다양한 비유가 사용된 작품

다양한 비유가 사용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되, 비유를 위한 비유가 사용된다거나 작품의 질 자체가 의문시되는 작품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로 시가 유용하겠지만 이야기나 수필 등에서도 제재의 활용이 가능하다.

【6-문학-(3)】 문학 작품을 다른 문학 갈래로 바꾸어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문학 작품의 갈래별 특성 이해하기
- 문학 갈래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짐을 이해하기
- 다른 문학 갈래로 문학 작품 바꾸어 쓰기

이 성취 기준은 문학 갈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다른 문학 갈래로 바꾸어 써 보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문학 갈래에 따른 표현 방식을 이해하는 한편 문학 갈래에 따른 창작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문학 갈래별 특성의 이해에 근거하여 갈래에 따른 표현 방식의 차이를 숙지하고 이를 구체적인 작품 창작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어떤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물의 분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문학 작품도 다양한 종류(갈래)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 각각의 종류(갈래)가 지닌 특성에 대한 이해는 어떤 개별적인 작품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문학 작품의 갈래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하여, 한 편의 문학 작품을 다른 문학 갈래로 바꾸어 쓰는 활동을 할 수 있다. 학습자는 실제로 써 보는 활동을 통하여 비로소 책에 나온 지식이나 교사의 말씀이 자기 것이 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미진한 지식은 학습자의 활동 수준에 맞게 보충·수정되어야 한

다. 이 성취 기준은 바꾸어 쓰기와 관련하여 5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4) 문학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을 바꾸어 쓰고, 그 의도와 효과를 설명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 인물 간의 갈등이 잘 드러나는 작품
-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품
- 문화와 전통의 차이가 드러나는 여러 작품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난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갈래별 차이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도, 내용이 풍부하여 시와 극 혹은 극과 이야기 혹은 시와 이야기 등 두 갈래의 특성을 보여 주는 작품이 있다면 바꾸어 쓰기 활동의 여지가 커질 수 있다. 시를 수필로, 수필을 시로 변환시키는 활동은 학습자가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약간의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6-문학-(4)】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인물 간의 갈등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갈등의 개념 이해하기
- 인물의 성격과 처지 파악하기
- 인물 간의 갈등 파악하기

이 성취 기준은 서사(이야기) 작품을 비롯하여 많은 극(연극, 영화, 드라마) 갈래가 갈등을 기초로 하여 전개됨에 착안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사건 전개의 배경이나 원인을 인물과 관련하여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정하였다. 갈등의 개념을 익히고 인물의 특성과 인물이 처한 처지를 이해하여 인물의 성격이나 입장에서 비롯한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며, 입장의 차이에 따른 행위의 원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문학 작품에 나타난 갈등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그 갈등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각 인물의 성격이나 그 인물이 처한 객관적 입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말하자면 갈등에는 성격과 같은 보다 주관적인 성격이 강한 원인과 객관적인 처지와 같은 보다 객관적인 성격이 강한 원인이 존재함을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후자에는 이해 관계와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전제되어야 함을 이해해야 한다. 요컨대 작품에 나타난 인물 간의 대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두 인물 혹은 한 인물 속 두 가지의 대처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체적인 갈등 내용과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이 성취 기준은 사건 전개와 인물 간의 밀접한 관계와 관련하여 4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3) 문학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삶의 모습을 이해한다.’ 및 5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2) 사건 전개와 인물의 관계를 파악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 문화와 전통의 차이가 드러나는 여러 작품
- 인물 간의 갈등이 잘 드러나는 작품

갈등의 원인과 경과를 분명히 보여 줄 수 있는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이렇게 어느 정도 명확한 갈등의 전개 구도를 보여 주는 작품이 선택될 때 갈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4. 교수·학습 방법

가. 교수·학습 계획

- (1)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습자가 의미 있는 국어 학습 경험을 하여 창조적인 국어 능력이 향상되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가) 학습 목표는 교육과정의 '3. 내용'에 제시되어 있는 학년별, 영역별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관되도록 한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에서 10학년까지 학년별로 각 영역에서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와 성취해야 할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를 제시하였다. 교수·학습 상황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 학습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학습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영역별로 3~5개 정도 제시되어 있는 성취 기준은 학습량의 적정화를 위해 대단원 목표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수업 상황에서는 수업 자료와 목표, 학습자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학습 목표를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에는 여섯 영역이 분리되어 있지만,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이 여섯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 (나) 학습 내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각 영역별 특성을 살려 학습 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선정하되, 특히 영역별 내용 간의 관련성, 학년별 내용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학습 내용은 각 영역별 특성을 살려 학습 목표 달성에 맞게 선정하되, 영역별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 요소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은 실제 언어 상황에서의 국어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국어 능력이 향상되게 한다. '문법' 학습은 언어 현상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탐구 활동을 통하여 학습한 지식을 실제 국어 활동에 적용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문학' 학습은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며, 문학 작품을 생산하는 학습 활동을 통하여 작품에 나타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 상상력이 발달되도록 한다. 특히 영역별, 학년별로 학습 내용이 일정한 연계성을 지니도록 선정해야 한다. 영역별, 학년별 연계성은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반복, 심화되는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으며 학습 자료의 심화, 학습 활동의 심화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 국어 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이러한 학습 경험을 통해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 ① 학습자가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과 실제적인 국어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킨다.

학습자가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과 실제적인 국어 활동을 연결하도록 하였다. 즉,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 선정 범주로 지식, 기능, 맥락을 규정하고, 이를 통어하는 범주로 ‘실제’ 범주를 설정함으로써 지식, 기능, 맥락을 통합하여 지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담화의 생산·수용 과정에서 지식, 기능, 맥락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 작용, 정서 표현을 1차 조직자로, 담화의 생산·수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내용인 지식, 기능, 맥락을 2차 조직자로 설정함으로써 지식, 기능, 맥락이 담화의 생산·수용 과정에서 상호 교류되고 협력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다양한 지식, 기능, 맥락이 통합, 교섭되는 경험을 하도록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이 터득한 지식을 실제 국어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동적인 언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② 학습 과제의 성격, 과제 해결을 위한 기본 절차와 방법, 사전 지식의 활용, 학습 활동, 피드백 등을 세부적으로 계획한다.

실제 수업 장면에서 교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매 수업마다 작동하는 변인의 성격이 다르고 수업의 조건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학습 과제의 성격은 무엇인지, 그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절차와 주된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적용할 수 있는 사전 지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어떠한 학습 활동이 필요한지, 이러한 학습 활동을 통해 교사가 피드백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교수·학습 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되어야만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 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수업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③ 교육과정의 ‘3. 내용’에 제시된 학년별, 영역별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 ‘성취 기준’을 참고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한다.

교수·학습 자료는 학년별, 영역별 성취 기준을 지도하기에 알맞은 것이어야 하며, ‘담화의 수준과 범위’를 활용하여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도록 한다.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때에는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조하여야 한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와 ‘성취 기준’은 해당 학년의 해당 영역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을 일정한 체계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여 해당 학습에서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 학습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 교수·학습 상의 용이성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④ 학습자가 담화 또는 글의 특성, 수용 및 생산 과정 등과 관련된 요소를 구체적으로 학습하여 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교사 개인과 학습자 집단 간의 상호 작용이라는 실제 수업의 특성상 학습자가 교수·학습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교육 자료, 수업 활동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수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습자가 담화의 특성에 대해 세부적인 요소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교수·학습 자료의 수용이나 생산 과정에서 명확한 학습 요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추상적인 차원에서의 국어 능력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의 국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만 한다.

- ⑤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학습 경험은 난이도와 통합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교수·학습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학습자이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준이나 흥미, 관심 등과 학습자의 이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나치게 어렵거나 지나치게 쉬운 학습 경험이 아니라 재미있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습 경험은 누적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학습 상황과의 통합성, 기존 학습 경험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야만 한다.

- ㉮ 학습자가 교수·학습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담화 또는 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활동과 자신의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국어 능력은 담화 또는 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목적에 맞게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학습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언

어 자료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만 한다. 즉, 교사가 일방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창의적으로 수용·생산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해야 한다. 국어 수업은 해당 차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학습자가 실제 생활하는 국면에서 수용하고 생산하는 언어 자료로 그 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는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교사는 열린 마음으로 열린 학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변화하는 언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바) 국어 능력이 일상생활이나 다른 교과 학습에도 중요함을 강조하여, 학습자가 국어 교수·학습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① 교수·학습 과정에서 성취한 국어 능력을 학습자 스스로 일상생활이나 다른 교과의 학습에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일상생활에서 국어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며, 수업 시간 역시 다양한 국어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의사소통 상황이다. 그러므로 국어 능력은 국어과 학습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다른 교과의 학습에도 필수적인 능력이다. 이는 국어 교육의 도구적 성격을 통해 일찍이 강조된 바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그러한 성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일상생활이나 다른 교과의 학습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총체적인 국어 능력의 신장으로 이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격려하고 고무시킬 필요가 있다.

② 의사소통을 통한 대인 관계의 형성,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읽기의 필요성, 쓰기를 통한 자기 표현의 중요성, 정확하고 효율적인 국어 생활, 문학 작품을 통한 심미적·총체적 경험의 확충 등과 관련하여, 창조적인 국어 능력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국어 능력의 신장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토대가 된다. 즉, 올바른 말하기와 듣기 등의 의사소통을 통한 원만한 대인 관계 형성하기, 언어 자료를 적극적으로 바르게 읽기, 자기의 생각을 목적에 맞게 표현하기, 정확하고 효율적인 국어 생활하기, 문학 작품을 통한 심미적·총체적 경험 확충하기 등은 개인의 삶의 질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은 국어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인 관계의 성공 여부나 개인의 능력 정도도 국어 활동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창조적인 국어 능력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학습자가 이를 인지하고 국어 능력의 신장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바)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① 교수·학습 자료는 학습 목표와 학습 과정을 중시하여 개발한다.

교수·학습 자료는 학습자가 학습 목표에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며, 최종적인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수·학습 자료가 지나치게 학습자의 흥미나 취향에 초점을 기울여 제작된다 보면 수업 자체가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쉽다. 그러므로 학습 목표와 학습 과정에 초점을 두어 개발하면서 학습자의 수준이나 흥미, 교실 여건, 사회·문화적 요소 등을 적절히 고려해야만 한다.

- ② 교수·학습 자료는 다양하고 풍부한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경험을 확대하고, 국어 현상 및 국어 활동 양상에 대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국어과 교수·학습 자료는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학습 수준, 필요와 요구, 지역 사회의 사회적·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한다. 특히 학습자의 경험을 확충시키고,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매체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국어 활동 양상에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2) 학습자의 학습 준비도나 '성취 기준' 도달 정도를 파악하고, 개인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계획한다.

(가) 개인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학교의 실정, 학습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수업 시간이나 방과 후 교육 활동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교육이란 원래 집단 중심의 활동이 아닌 개인 중심의 활동이며, 교육의 결과는 개별 학습자의 주체적인 정신 작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공교육 제도가 확립되고 학교 교육이 보편화함에 따라 집단 수업을 통해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한 내용, 동일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 교육은 특정 이념이나 체제 등을 일시에 전파하는 경제적인 효율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개별 교육에 비해 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약점을 지닌다.

국어과 수업에서는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전통적인 획일적 교육을 지양하고, 학습자의 개별 학습 준비도나 성취 기준 도달의 정도를 파악하여, 학습자의 개인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계획한다. 중요한 것은 수업의 전 과정을 통해 교사가 학습자의 특성을 배려하며 수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와 태도이다.

교실 학습에 적용될 수 있는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을 설계하고 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개인차와 학습, 그리고 수업의 관계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학급 학습자 모두에게 효과적인 단 하나의 수업 방법은 있을 수 없다. 수업 처치의 효과는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학습을 촉진할 수도 있고 저해할 수도 있다. 효율적인 학습, 즉 학습자의 학습 결과를 극대화하는 학습은 개별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수업을 제공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수업은 해당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방과 후의 다양한 교육 활동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나) 학습 과제는 개인차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되, 학습자의 학습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① 학습 목표와 학습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학습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다.

학습 과제는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나 학습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다. 다인수 교실 상황에서 학습 목표와 학습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학습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는 학습 능력의 개인차이다. 국어과 학습 능력은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능력(언어 능력, 추리력, 표현 능력 등)과 선행 지식, 국어 능력의 성취 정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전통적으로 이러한 특성들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핵심적 변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둘째는 정의적 요인의 개인차이다. 국어과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 변인으로 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 학습 동기, 태도, 불안, 각성 수준, 자아 개념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는 인지·학습 양식의 개인차로 학습자의 학습 방식의 선호도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지 또는 학습 양식은 국어과 학습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 획득 방법과 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적성을 의미한다.

② 개인차에 따른 학습 과제를 제공하는 시기는 학습자와 수업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한다.

학습 과제를 제공하는 시기는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학습자는 국어 학습 능력, 선행 학습이나 배경 지식 정도뿐만 아니라 학습하는 속도에서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학습 과제의 제공 시기를 정할 때에는 학습자가 지닌 현재 학습 준비도, 수준, 학습 속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학습 과제를 일괄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개인차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학습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어느 정도 배정할 것인지에 따라, 예를 들어 대단원이나 소

단원이 끝난 시점, 또는 매 차시 혹은 특정 주제나 개념 단위가 학습되는 시점으로 나누어서 학습 과제의 제공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한다.

- ① 학습자의 관심, 흥미, 선행 학습 경험, 학습 준비도, 학업 성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료를 개발한다.

국어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수·학습 자료는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한다. 학습자의 개인차에 따른 학습 내용의 차별화는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사실, 동일한 정보를 배워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될 때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학습 내용의 차별화는 동일한 내용을 배우되 개념이나 원리 중심으로 학습하거나, 여러 다양한 학습 내용 중에 선택 학습이 가능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학습자의 흥미나 관심, 선행 학습 경험 정도, 학습 준비도, 학업 성취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학습 과제가 제공될 때 학습 내용의 차별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전래 동화 중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이며 자신의 수준에 적합하게 진술된 것을 선택하여 이야기를 읽거나 이야기에 대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즉 자신의 취향에 맞는 동화 감상법을 학습할 때 학습자의 흥미에 따른 학습 내용의 차별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이나 학습 단계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 자료를 개발한다.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에 있어서 평가의 주된 목적은 학습자를 한 줄로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목표 도달도를 진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는 학습한 기본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능력을 점검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에 맞게 평가 자료를 개발한다.

평가 방식은 통상적인 지필 검사보다는 자기 평가, 학습자 간 상호 평가, 교사에 의한 관찰 평가를 중심으로 한다. 활동의 성격에 따라 소단원 학습 활동에서 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그 체크리스트 활용 방안을 함께 설명할 수 있다.

- ③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높이고,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자료를 개별화한다.

교수·학습 자료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개발해 학습자가 자신의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학습 매체 사용에 있어서도 개인차가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학습자는 OHP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어떤 학습자는 칠판에 교사가 판서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다. 또한 어떤 학습자는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어떤 학습자는 혼자 책을 읽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무조건 최신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학습 목적에 맞게 그리고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물론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학습자의 매체 환경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학습자의 매체 환경을 면밀히 살펴 보면서 적절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적절한 시점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 (3)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고려하여 영역 간, 영역 내의 학습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계획한다.
- (가) 각 영역에서 해당 영역의 고유성이 반영되어 있는 학습 요소와 통합이 가능한 학습 요소를 구분하여 지도하되,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① 국어 표현과 이해의 원리와 과정을 고려하여, 말하기와 쓰기를 통합하고, 듣기와 읽기를 통합한다.

국어 활동은 독자적인 영역의 내용 요소로만 이루어지기보다는 영역 간, 영역 내의 내용 요소가 통합하여 이루어지므로 통합 지도를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계획하도록 한다. 특히 말하기와 쓰기는 국어의 표현 측면에서, 듣기와 읽기는 국어의 이해 측면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각 영역의 독자적 성격을 잘 살리면서 통합할 수 있는 학습 요소는 교수·학습 방안 설계 단계에서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 국어 활동이 총체적 언어 양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바, 해당 영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타 영역과의 통합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표현과 이해의 원리와 과정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 ② 국어 활동에서 사용되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를 통합한다.

국어 활동은 언어의 양상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음성 언어인 듣기와 말하기, 문자 언어인 읽기와 쓰기는 언어 매체 면에서 상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각 언어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에 알맞은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는 활동의 성격상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국어 활동에서 이들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통합할 수 있는 학습 요소는 통합하고 독자적으로 강조해야 할 학습 요소는 분리하여 교수·학습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한편 매체의 변화에 따라 영상 언어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와 유사한 성격은 무엇이며 독특한 성격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세부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③ 문법이나 문학과 관련된 담화 또는 글과 문학 작품을 읽거나 듣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문법 및 문학 영역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을 통합한다.

문법이나 문학의 교수·학습에서도 글이나 문학 작품을 읽거나 듣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과 통합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흔히 문법이나 문학 영역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내용 중심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문법이나 문학 영역의 자료 또한 국어를 매체로 하여 구성되어 있고, 그에 대한 이해와 감상은 국어 활동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므로 이들 영역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 동일 영역의 내용 요소 중,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합한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 한다.

영역 간의 통합뿐만 아니라 영역 내의 내용 요소 중에서도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학습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한다. 예를 들어 4학년 문학의 ‘(3) 문학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삶의 모습을 이해한다.’를 지도할 때는 ‘(2) 구성 요소에 주목하여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의 내용 요소 ‘작품의 구성 요소 이해하기’,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이야기 이해하기’와 통합하여 지도하면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할 수 있다.

(다) 매체 관련 내용 요소를 지도할 때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과의 통합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매체와 관련된 내용 요소를 지도할 때에는 해당 영역뿐만 아니라 학습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른 영역과 연계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5학년 듣기 영역의 ‘(1) 발표를 듣고 매체 활용의 효과를 판단한다.’의 내용 요소 ‘매체의 특성과 기능 이해하기’, ‘매체 활용의 효율성 판단하기’는 말하기 영역의 ‘(1) 대상의 특성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여 발표한다.’의 내용 요소 ‘시청각 보조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와 통합하여 지도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라) 여러 영역을 통합하여 지도하기 위해 자료를 개발할 때에는 교육 내용과 학습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①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조직한다.

여러 영역을 통합하여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때에는 내용 요소와 학습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하도록 한다. 계절이나 시기, 중심 되는 가치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② 다양한 상황을 중심으로 관련되는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조직한다.

토의·토론하기, 편지 쓰기 등의 여러 가지 언어 활동 상황을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특히 토의·토론하기와 같은 활동은 듣기와 말하기 영역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온전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되는 내용 요소를 세밀하게 점검하여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③ 종합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조직한다.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논설문 쓰기라는 문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조직하고 자신의 관점을 명료하게 설정하고 글을 써 나가면서 퇴고하는 작업까지 다양한 활동이 동반된다. 그 과정에는 논리적, 비판적 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고가 요구되며 여러 내용 요소가 통합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적절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④ 다양한 담화 또는 글을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조직한다.

시의 세계, 소설의 이해, 대화하기, 설명문 쓰기, 논설문 읽기 등의 다양한 담화나 글을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국어 교과와 교수·학습에는 다양한 담화나 글이 동원된다. 그러한 다양한 담화나 글들을 결합하여 학습하기 위해서는 내용 요소의 통합이 필수적이다. 내용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을 통해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를 통합하여 운용한다면 학습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교수·학습 운용

- (1) 교육과정의 ‘3. 내용’의 학년별, 영역별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를 고려하여 교수·학습을 전개하도록 한다.
- (가) 학년별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수·학습을 전개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교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안내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과제를 제시하여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학습자의 학업 성취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제시할 때에는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교수·학습은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와 학습자의 수행으로 진행되기보다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교사, 동료 학습자와의 활발한 상호 작용을 통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는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고, 교수·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과제의 수준을 조정하며, 학습자가 과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② 내용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예시, 질문, 학습자의 연습, 자기 점검과 평가 과정을 유기적으로 관련지어 지도한다.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과정에서 다루어야 내용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즉, 교수·학습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학습 과제의 성격은 무엇인지, 그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절차와 주된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적용할 수 있는 사전 지식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떠한 학습 활동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통해 피드백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학습자의 연습, 자기 점검, 평가의 과정을 세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에 대한 분석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학습자가 국어 활동의 양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담화를 단순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 자신의 사상이나 정서, 사고

등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강조하여 국어 활동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어 활동이 단편적,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 총체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학습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국어 활동에 대한 자기 점검 기회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국어 수행 방식과 과정에 대해 자기 점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학습자의 국어 능력의 신장은 교사의 평가나 학습자들 간의 상호 평가뿐 아니라 자기 평가의 기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어 능력의 신장이나 국어 활동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함양은 교사의 평가나 학습자들 간의 상호 평가뿐 아니라 학습자의 자기 평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따라서 학습자가 자신의 국어 수행 방식과 과정에 대해 자기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이러한 자기 점검 기회는 자신의 국어 활동에 대한 상위 인지적 조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학습자에게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 영역별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교수·학습을 전개 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듣기 지도에서는 들은 내용의 정확성, 타당성, 효용성을 평가하고, 화자의 관점과 의도를 파악하는 활동, 화자의 의견을 비판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듣기 지도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집중해서 듣고 들은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타당하며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능력, 말하는이의 관점과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말하는이의 의견을 비판하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듣기 지도는 여러 가지 소리 듣기, 대화 듣기, 연설 듣기, 토의 듣기, 토론 듣기,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한 듣기 등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듣기 활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활동들을 앞서 언급한 능력과 관련된 교수·학습 내용 요소와 관련지어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교사의 말 듣기, 학습자 상호 간의 말 듣기,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듣기 등 가능한 한 다양한 듣기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② 말하기 지도에서는 말하기의 목적, 맥락, 청자 등을 고려하며 다양한 말하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과 협력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말하기 지도는 과정 중심 또는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표현 과정과 표현 방식을 중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 말을 하는 목적, 말하는 상황이나 맥락, 듣는이 등을 고려하여 말할 내용을 선정하고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학습자 간의 토의나 토론 수업에서는 되도록 많은 수의 학습자들이 골고루 발언 기회를 가지고, 상대방의 발언을 존중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협력적인 태도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를 들어 특정 학습자의 발언 기회를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기 전에 새로 말을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

- ③ 읽기 지도에서는 글쓴이의 목적, 글의 형식과 특성, 독자의 관점 등에 유의하여 능동적으로 의미를 형성하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특히 읽은 글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는 토의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읽기 지도에서는 학습자에게 읽기가 글에 제시된 글자 하나하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각자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이해시켜야 한다. 따라서 읽기를 지도할 때에는 글쓴이의 목적, 글의 형식과 특성, 독자의 관점 등을 고려하여 읽으면서 의미를 형성하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글을 읽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다른 학습자와 이야기를 하고 사고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도록 소집단 협력 학습을 이용한 토의나 토론 학습도 자주 가질 필요가 있다.

- ④ 쓰기 지도에서는 글쓰기의 목적과 독자를 고려하여 실제로 글을 쓰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특히 쓰기 상황과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글을 쓰게 하고, 쓴 글에 대한 자기 평가와 상호 평가 활동을 강조한다.

쓰기 지도에서는 글자 쓰기, 어휘 쓰기 차원을 넘어 실제로 한편의 글을 쓰는 학습 활동을 강조해야 한다. 쓰기 과제를 제시할 때에는 글쓰기의 목적과 예상 독자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쓰기 상황과 조건을 분명히 하도록 한다. 예컨대, 학교 신문에 휴지를 버리지 말자는 내용의 글을 쓰거나, 부모님께 용돈을 올려 달라고 설득하는 글을 쓰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글을 쓴 다음에는 학습자 자신이 다시 한 번 읽어 보고 고쳐 쓰거나, 쓴 글을 다른 학습자들과 서로 돌려 읽으면서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나 부적절한 표현을 고쳐 써 보도록 한다.

- ⑤ 문법 지도에서는 국어 현상을 탐구하여 문법 지식을 생성하는 경험을 강조하되, 학습한 내용이 바람직한 국어 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문법 지식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할 때에 국어를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문법 지도에서는 문법 지식과 국어 활동의 관련성, 일상적인 국어 생활에서 문법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문법 지도에서는 문법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언어 자료를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 규칙을 발견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탐구 학습의 형태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 ⑥ 문학 지도에서는 개별 작품을 학습자의 삶과 관련지어 봄으로써 심미적 상상력과 건전한 심성을 계발하고 바람직한 인생관과 세계관 형성을 돕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아울러 개작, 모작, 생활 정서의 표현 등 작품의 심층적 감상을 돕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활동은 개별 작품에 대한 이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항상 학습자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감상함으로써, 학습자의 주체적인 감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심미적 상상력과 건전한 심성을 계발하고 바람직한 인생관의 형성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작품 창작 활동은 문학 작품의 수용자였던 학습자에게 주체적인 생산자로서의 경험을 제공한다. 문학 창작 활동에는 수준 높은 작품 창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품에 대한 개작이나 모작, 학습자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나라 정서를 문학적인 표현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는 것, 문학에 관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 (다) 학습 목표와 내용을 고려하여 직접 교수법, 문제 해결 학습법, 창의성 계발 학습법, 반응 중심 학습법, 탐구 학습법, 현장 학습법, 개별화 학습법, ICT 활용 학습법, 가치탐구 학습법, 토의·토론식 교수법, 협동 학습법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①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강조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교사의 일방적인 전달에 의한 교수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학습보다는 교사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고안한다. 어떤 질문이나 학습 과제에 대한 답, 즉 결과만을 중시하기보다는 학습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그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교사와 학습자 모두 자신의 관점을 갖고 각각은 서로의 관점을 존중한다. 서로의 견해가 얼마나 합리적인지에 따라 어떤 때는 교사가 옳고 또 어떤 때는 학습자가 옳을 수 있으며, 때로는 서로 대립되는 두 견해 모두 옳을 수도 있고 모두 잘못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교사는 예전처럼 권위를 가지고 지식을 전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자기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렇다고 강의식 교수법을 무조건 배척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떤

학습 내용의 경우, 강의식 교수법이 효과적이라면 선택적으로 그러한 교수·학습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학습자의 창의적인 국어 활동을 권장하고, 학습자의 다양한 반응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하나의 학습 활동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반응은 결코 한 가지만일 수는 없다. 국어 활동의 성격에 따라 학습자는 그동안의 경험이나 학습 정도에 따라, 혹은 학습자의 정서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교수·학습의 과정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반응을 적극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반응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숙지하고 그것을 토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간 형태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다른 사람의 의견을 성실하게 듣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토의나 토론 학습의 경우 학습자가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을 중요시하여 일방적으로 자신만의 주장을 펴는 것은 지양하도록 지도한다. 말하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듣는 활동도 중요하다는 것을 숙지시켜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성실하게 듣고, 그것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④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기존의 강의식, 강독식 수업에서는 교사의 설명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대로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국어 교육은 수동적인 학습자보다는 학습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학습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자체에 학습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또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⑤ 학습자가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여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교수·학습 과정과 결과에서 학습자 스스로 자기 자신의 학업 성취도를 점검하여 부족한 점을 깨닫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은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학습 방법을 터득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점검하는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

(2)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학습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수업 시간 중에 학습자의 반응에 따른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능력에 따른 학습 활동의 차별화는 학습자가 자신의 국어 능력 수준에 적합한 학습 활동의 수행을 통해 배운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와 연결된다. 국어 학습 능력에 따라 수업 시간 중의 학습자의 반응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학습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되었는가에 따라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야만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개인차를 고려하여 학습자가 공통적인 학습 과제 이외에 자신에게 적합한 과제를 선택하도록 한다.

학습자의 학습 능력 수준, 학습 과제의 친숙도 및 흥미 등에 따른 개인차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학습 과제를 부과해 주어야 한다. 이른바 학습자들의 수준에 적합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다인수 학급에서는 보통 공통 과제를 통해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학습자별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고 보충 또는 심화할 수 있는 학습 과제를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한다.

기본 학습 내용을 학습하고 난 후,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보충 학습과 심화 학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제를 제시한다.

학습 내용과 목표에 대하여 학습자의 학습 능력 수준, 학습 과제의 친숙도 및 흥미 등과 관련하여 학업 성취 수준과 학습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학습 속도와 성취 수준 면에서 앞서는 학습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적절한 심화 학습 과제를 부과해 주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학습자들에게는 ‘학습 내용과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보충 학습 과제를 제시하여 교육적 처치를 해 주어야 한다. 이른바 학습자들의 수준에 적합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만 학습 효과를 증

대시킬 수 있다.

(태) 차시 수업의 학습 목표와 관련된 학습 과제를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선수 학습 정도에 따른 개인차를 줄여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차시 수업의 학습 목표와 관련된 학습 과제를 적절하게 제시한다. 학습 목표에 적합한 학습 과제의 성격은 무엇인지, 그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절차와 주된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적용할 수 있는 선수 학습은 무엇이며, 어떠한 학습 활동이 필요한지, 또 어떤 학습 자료를 통해 피드백할 것인지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 성취에 적절한 학습 과제를 선택하여 수업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는 일정하지 않다. 교수·학습 장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학습 과제를 부과하였을 경우에는 학습자의 지속적인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선수 학습 여부에 상관없이 의미 있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수·학습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마)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인차를 고려한 소집단을 구성하여 교수·학습을 전개하도록 한다.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수준이나 능력 등의 개인차를 고려한 소집단을 구성하여 소집단 학습, 협력 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수·학습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소집단 학습이란 4~8명 내외의 학습자를 학습의 단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개인차를 고려하여 학습자들을 소집단으로 편성하여 지도할 경우, 한 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교사의 세밀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 교실에서 소집단 학습과 개별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협력 학습의 경우 수업에 대한 평가 역시 집단별로 해야 한다. 집단별로 평가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경쟁보다는 그 집단에 속한 학습자들끼리 서로 협력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소집단을 구성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학습 방법을 강조하는 까닭은 개별적인 학습 활동도 중요하지만,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협력 학습에서는 집단 구성원이 학습할 과제를 공유하며, 상호 의존하여 학습하고, 모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개인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개개인의 성취에 따라 집단 보상이 주어진다. 소집단 수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 방법에 적합한 다양한 교재와 풍부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야 하며 평가 방법 또한 적절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3) 영역 간, 영역 내의 학습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둘 이상의 영역을 통합하여 지도할 때에는 학습자의 학습 활동이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국어과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영역 간, 영역 내의 학습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할 때는 학습 활동이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영역 간, 영역 내의 통합 지도는 언어 기능 간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하며 총체적 언어 교육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즉, 말하기와 듣기 영역의 통합, 말하기와 쓰기 영역의 통합, 말하기와 읽기 영역의 통합, 읽기와 쓰기 영역의 통합, 문학과 읽기 영역의 통합, 읽기와 문학 영역의 통합, 문법과 말하기, 듣기 영역의 통합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또한 영역 내의 통합도 모색할 수 있다.

(나) 영역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통합적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위적으로 분절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교육 접근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국어의 전체(의미)를 상호 관련시키고자 하는 교수 전략을 구사한다. 영역 간 통합 지도는 영역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교수·학습 자료를 구성하여 활용한다.

(다) 학습자가 한 영역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른 영역에 적용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영역 간의 통합 지도를 할 때에는 한 영역에서 학습한 내용 요소를 다른 영역의 내용 요소에 접목하여 적용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학습하도록 한다. 학습자의 학습 활동은 분절적이지 않다. 읽기 영역에서 학습한 내용이 쓰기 영역의 학습에 동원될 수 있으며, 말하기 영역에서 학습한 내용이 문학 영역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한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 성취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라) 학습 요소의 통합 취지에 알맞은 방법으로 교수·학습을 전개한다.

영역 간, 영역 내의 학습 요소는 명목상의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수·학습 내용상의 통합이 이루어져야만 그 취지에 적절한 교수·학습이 전개될 수 있다. 국어 활동의 통합은 단순한 영역 간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학습 활동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이다. 이러한 취지를 잘 살려 학습 요소를 통합해야만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5. 평 가

가. 평가 계획

- (1) 영역별 평가 목표와 내용에 적합한 평가 방법으로 학습자의 국어 능력을 타당하고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국어과의 여섯 영역은 영역별로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국어 능력의 신장과 발달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영역별 평가 목표와 내용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학습자들의 국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조건으로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요구된다.

- (2) 학습자의 표현 능력과 이해 능력,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가 균형 있게 평가되도록 계획한다.

지금까지 국어과 교육은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담화나 글을 생산하고 수용하는 활동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능, 맥락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습자의 표현 능력과 이해 능력이 균형 있게 평가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국어과 교육은 지식, 사고력, 기능, 전략 등 인지적 요소를 국어과 교육의 중심 교육 내용으로 표방해 왔다. 국어과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의 인지적 측면의 성장·발달을 도와야 하지만, 정의적 영역의 성장·발달도 도와야 한다. 이러한 균형적 성장·발달이 학교 교육이 추구하는 전인의 모습에 잘 부합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의적 행동 특성이 인지적 행동 특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언어활동에 대한 태도, 문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제재의 내용과 주제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의 내면화 등 정의적 요소에 대한 평가도 인지적 요소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3) 평가 목적, 평가 시기, 평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형식 평가와 비형식 평가, 간접 평가와 직접 평가, 선택형 평가와 수행 평가 등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국어과 평가의 목적은 분류 및 선발, 교육 목표 도달도 파악, 학습자의 발달 정도 판단,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의 효과 및 장단점 파악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교수·학습이 시작되기 전, 교수·학습이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교수·학습이 끝난 후에 평가를 할 수 있다. 또

한 평가 내용에 따라 평가 상황도 매우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 목적, 평가 시기, 평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형식 평가와 비형식 평가, 간접 평가와 직접 평가, 선택형 평가와 수행 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4)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시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이제까지의 국어과 평가는 학습의 결과를 중시하였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였다. 결과 중심의 학습 평가는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학습 결과가 중요하고 학습의 과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였으며, 교수·학습의 개선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결과 중심의 평가는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학습자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도 평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과정 평가는 교수·학습이 진행되는 동안에 학습자의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개선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내어 최선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평가이다. 즉, 과정 평가는 설정해 놓은 목표에 어떤 과정을 통해 도달하는가를 알아보고, 성취하지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개선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이루어지는 평가이다. 과정 평가를 위해 학습자의 자기 평가와 상호 평가, 연구 보고서법, 자료철(포트폴리오), 관찰법, 면접법 등의 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 (나) 교수·학습 과정과 평가를 연계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을 별개로 인식하거나, 평가는 일정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진 후에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평가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진 후에 사후적인 것으로 진행되기보다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수·학습 과정과 평가의 연계는 교수·학습과 평가의 통합을 의미한다. 국어과 교수·학습 시기와 평가 시기를 통합하여 가르치면서 평가하고, 평가하면서 가르치도록 한다. 또한 교수·학습의 내용과 평가의 내용을 통합하여 평가의 타당도를 높이는 것도 방안이다. 예를 들면, 쓰기 관찰 평가에서 교사는 쓰기를 지도하면서 동시에 학습자의 쓰기 과정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교수·학습과 평가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연간 또는 학기 간 교수·평가 계획서는 물론, 차시별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교수·학습 과정과 평가의 연계는 교수·학습 활동을 개선하는 자료로서 평가 결과를 활용함을 의미한다. 평가는 학습자들의 학습 결과만을 측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결과에 기초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수·학습 방법 및 교수·학습 자료 개선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평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ㄷ) 국어 사용의 실제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평가 상황을 설정하고, 영역을 통합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국어과 평가는 학습자의 실질적인 국어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의 언어생활이나 학습자의 언어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 상황을 설정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즉, 작위적이고 통제가 심하며 탈맥락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평가하기보다는 실제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연관된 상황을 설정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이라는 여섯 영역으로 나누어 교육 내용을 선정했으나, 실제 언어활동은 통합되어 진행된다. 즉, 언어활동은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언어 자료나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어과 평가에서는 영역을 통합해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학 작품을 읽고 토론하거나(문학/읽기/말하기/듣기의 통합), 문학 작품을 읽고 글을 쓰는 경우(문학/읽기/쓰기의 통합), 혹은 읽기 제재를 읽고 토론하거나(읽기/말하기/듣기의 통합), 읽기 제재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는(읽기/쓰기의 통합) 활동 등을 평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평가 목적과 평가 상황에 따라 영역 통합적인 평가 방법을 활용하면 여러 영역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수행 평가를 할 경우에 영역 통합적인 평가 방법을 활용하면 하나의 평가 장면에서 여러 요소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

(ㄹ) 평가 상황, 평가 방법, 평가 기준을 학습자에게 미리 알려 주어 평가가 국어 학습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한다.

평가를 할 때에는 평가의 상황, 평가의 방법, 평가의 기준을 학습자에게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좋다. 즉, 평가의 상황, 평가의 방법, 평가의 기준 하나하나에 대해 학습자에게 설명하면서 학습자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과 기준에 의해 평가받는지 명확하게 알게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평가의 상황, 평가의 방법, 평가의 기준을 미리 아는 것은 국어 학습의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목표로 학습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것에 따라 스스로 노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평가의 기준은 교사가 미리

제시해 주는 방법도 있고, 학습자와 함께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마) 학습자의 능력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평가 도구 등에 대해서도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는 학습자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가 학습 목표에 적절했는지, 그리고 적절한 평가 도구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까지 학습자의 학습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평가 도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체적으로 교수·학습과 평가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나. 평가 목표와 내용

(1) 평가 목표는 교육과정의 ‘3. 가. 내용 체계’와 ‘3. 나. 학년별 내용’에 제시되어 있는 ‘성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되, 영역별로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듣기 영역의 평가 목표는 사실적·추론적·비판적 듣기, 듣기 태도 변화에 중점을 두어 설정한다.

듣기는 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 등의 층위를 가지는 언어활동으로서, 들리는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언어활동이 아니라 능동적인 의미 구성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듣기 평가는 정보를 확인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들은 내용에서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내고, 듣거나 추론한 내용을 비판·평가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판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듣기 학습을 통한 듣기 태도와 그 변화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체계에서 ‘태도’의 범주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는 태도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학년별, 영역별 교육 내용으로 제시함으로써 언어활동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가 특정 학년, 영역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즉, 언어활동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의 형성은 모든 학년,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듣기 태도가 어떠한지, 듣기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나) 말하기 영역의 평가 목표는 말할 내용의 생성 및 조직,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과 전달에 중점을 두어 설정한다.

말하기 영역에서 어휘, 문법, 표현의 유창성, 발음 등 언어 표현의 표면적 자질에 해당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러한 평가보다 음성을 통한 의사소통의 효율성, 말하는 내용의 생성과 조직 등 더욱 본질적인 요인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하기 영역의 평가 목표는 목적, 상황, 대상을 고려하면서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정확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말하는 능력에 중점을 두어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듣기 영역과 마찬가지로 말하기 영역에서도 말하기 태도와 그 변화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말하기 태도와 그 변화는 그 자체로 평가되기보다는 말하기를 실제로 수행하는 가운데에서 발견될 수 있는 특성이다. 학습자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리고 말하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함으로써 말하기 태도가 어떠한지, 말하기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㉔) 읽기 영역의 평가 목표는 추론적·비판적·창의적 읽기에 중점을 두어 설정한다.

읽기 활동은 주어진 글을 수동적으로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읽기 과정은 개별 문장의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과정, 언어 자료의 절과 절,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선택적으로 통합하는 과정, 글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의미 또는 아이디어를 추론하여 글의 세부 내용을 더욱 정교하게 이해하는 과정, 글의 의미나 내용을 구조화하거나 요약하는 과정 등으로 하위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읽기 과정 중에서 필요한 경우에 따라 특정 부분을 선택하거나 통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읽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㉕) 쓰기 영역의 평가 목표는 쓸 내용의 생성 및 조직,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에 중점을 두어 설정한다.

쓰기 능력은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문자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 글로 쓸 내용을 창안하고 선정하는 능력 및 자기 조정 능력, 작문에 관한 일반적이고도 문화적인 관습에 대한 이해 능력, 읽을 이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글을 쓸 수 있는 사회 인지적 능력, 우수한 글에 대한 감상력과 비판력, 통합적 사고력 및 통찰력 등을 필요로 하는 매우 복잡한 능력이다. 이러한 의미의 쓰기 능력은 쓰기의 과정 및 쓰기에 대하여 아는 것만으로는 구체화되기 어렵다. 쓰기의 과정 및 쓰기에 대한 지식의 학습 결과는 지식의 습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며, 실제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쓰기 능력 평가는 쓰기에 대하여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보다는 그러한 지식을 쓰기 상황에서 얼마만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즉, 학습자가 쓰기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면서 쓸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며,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한다.

쓰기 학습을 통한 쓰기 태도와 그 변화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쓰기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쓰기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습자가 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관찰하고, 쓰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함으로써 쓰기 태도와 그 변화를 평가할 수 있다.

(마) 문법 영역의 평가 목표는 문법 지식의 이해와 탐구 및 적용 능력에 중점을 두어 설정한다.

국어과 교육에서 문법 영역을 설정하여 가르치는 이유는 문법 자체의 교육적 가치에서 찾을 수도 있고, 문법을 학습하여 실제의 국어 생활에 활용하도록 하는 실용적 목적에서 찾을 수도 있다. 국어과 교육에서 문법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여 가르치는 이유는 그 자체의 교육적 가치와 실용적 목적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문법 지식을 이해하고 있는지, 탐구 과정을 통해 일상 언어활동이나 자료로부터 문법적 원리를 도출해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언어 상황에 문법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평가할 필요가 있다.

(바) 문학 영역의 평가 목표는 문학 지식에 대한 이해,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능력에 중점을 두어 설정한다.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원리와 관련된 교육 내용의 범주명으로 ‘문학 수용과 생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문학 작품을 단지 수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의미에서 ‘생산’하는 활동으로까지 확장시킨 것이다. 참고로, ‘문학 수용과 생산’에서 ‘생산’은 문예 창작보다 개별 문학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문학적 반응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활동에 강조점이 있다. 따라서 문학 영역의 평가 목표도 이제까지의 방식에서처럼 ‘수용’의 측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측면까지 확장하여 설정해야 한다. 또, 문학 작품에 대한 수용과 생산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평가해야 하며, 또한 평소에 문학 작품을 스스로 찾아서 읽는 ‘태도’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2) 평가 내용은 교육과정의 ‘3. 나. 학년별 내용’의 ‘성취 기준’을 근거로 선정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평가 내용은 각 영역의 학습 내용에서 균형 있게 선정하되, 학년별 수준과 범위를 고려한다.

국어과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영역의 학습 내용에서 평가 내용을 균형 있게 선정하는 것이 좋다. 특정 영역에 치우친 평가를 지양하고,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섯 영역의 교육적 성취를 고루 평가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년별 수준과 범위를 고려하여 평가 내용을 선정하도록 한다.

(나) 평가 내용은 국어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과 이 요인이 통합적으로 실현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선정한다.

국어를 사용하는 과정은 언어로 표현하고 언어로 표현된 의미를 이해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하위 요인들은 각기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국어과 평가는 국어 능력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내용을 적절하게 선정한다.

(다) 평가 내용은 성취 기준을 지식, 기능, 맥락의 측면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내용 요소와 담화나 글을 결합하여 선정한다.

성취 기준은 학습자가 학습을 통해 결과적으로 드러내야 할 내적·외적 특성으로서 평가 상황에서 평가 내용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평가 장면에서 직접적인 평가 내용으로 활용하기에는 포괄적이다. 따라서 평가 내용을 선정할 때에는 성취 기준을 구체화한 내용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용 요소는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학습자가 세부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할 세부 내용을 지식, 기능, 맥락 범주에서 추출·선정한 것이다. 따라서 평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데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다.

내용 요소를 평가 내용으로 활용할 때에는 이를 독립적으로 다루기보다 성취 기준이 포함하고 있는 담화 또는 글의 유형을 결합하도록 한다. 즉, 내용 요소만으로 평가 내용을 선정하기보다는 내용 요소와 담화나 글을 결합시켜 구체적인 평가 내용을 선정하도록 한다.

(라) 평가 내용은 해당 학년별 내용에 제시된 담화나 글을 위주로 하되, 이와 관련된 것도 다룬다.

해당 학년별 내용에 제시된 담화나 글은 학습자가 성취 기준에 도달한 결과 수용·생산할 수 있는 담화나 글, 또는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학습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담화나 글을 의미한다. 평가 내용에 포함될 담화나 글은 해당 학년별 내용에 제시된 것을 위주로 한다. 다만, 평가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있는 담화나 글도 다루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해당 학년별 내용에 제시된 담화나 글과 언어 사용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담화나 글 중에서 내용, 형식 등을 감안하여 평가 내용에 포함될 담화나 글을 선정하도록 한다. 요컨대, 평가 내용에 포함될 담화나 글은 해당 학년별 내용에 것을 위주로 하되, 평가의 목적, 학습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이 있는 다양한 담화나 글을 활용할 수 있다.

다. 평가 방법

(1) 평가 목적, 평가 목표와 내용에 적합하게 다양한 평가 방법과 평가 도구를 활용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효율적인 평가 방법과 평가 도구란 없다. 평가 목적이 무엇인지, 평가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평가 내용은 무엇인지에 따라 가장 적합한 평가 방법과 평가 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말하고 듣는 활동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고 실제 상황을 관찰하면서 평가하는 방법이 적절하며, 글을 쓰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실제로 글을 쓰게 하고 그 과정이나 쓴 글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교사의 학생 평가 외에 학생의 자기 평가,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실제 평가 상황에서는 대부분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평가 내용이나 평가 상황에 따라 학생의 자기 평가,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이 자신의 국어 능력이나 동료의 국어 능력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면서 평가할 때 좀 더 의미 있는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혹은 학생 수가 많아 교사 혼자 힘으로 모든 학생들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울 경우 활용할 수도 있다.

자기 평가는 학습자 자신의 언어활동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면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기 평가의 결과물은 구두로 진술하거나 보고서로 작성하여 교사에게 제출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물을 교사가 다시 평가할 수도 있다. 자기 평가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준비도, 학습 동기, 성실성, 만족도, 다른 학습자와의 관계, 성취 수준 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 평가는 동료 학생들이 특정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상대방을 서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학생의 자기 평가,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 평가와 더불어 교사의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필 평가(선택형, 서답형), 연구 보고서법, 자료철(포트폴리오), 면접법, 구술 평가, 토론법, 관찰법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국어과 평가에서는 고정된 한 가지 방법을 활용하기보다는 국어과 여섯 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면서도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평가 방법은 평가 목표, 평가 내용, 평가 상황 등에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필평가란 학생들에게 문제지를 나누어 주고 연필이나 펜으로 답을 쓰게 하는 평가 방식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선택형과 서답형을 들 수 있다. 선택형 평가란 주어진 몇 개의 선택지 중에서 물음이나 지시가 요구하는 답을 선택하도록 하는 문항을 의미하며, 진위형(眞僞型), 배합형(配合型), 선다형(選多型) 등이 이에 속한다. 이 방법의 장점은 간편하면서도, 많은 학생들을 짧은 시간에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문항 구성이 어렵고, 학습자의 답이 맞았거나 틀렸을 경우에 왜 맞았는지 또는 왜 틀렸는지 진단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학생들의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반응을 평가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

서답형이란 주어진 물음이나 지시에 따라서 학생이 스스로 답안을 만들어서 서술하고 기록하는 문항 형식의 통칭으로 단답형, 완성형, 서술형, 논술형 등이 이에 속한다. 일상용어로는 주관식 문항이라고 불리며, 선택형 문항 형식과 대비된다. 서술형은 주어진 주제나 요구에 따라 학생이 스스로 서술하여 답하는 문항을 의미한다. 서술하는 방식이나 형식에 대한 사항은 각 문항에서 제시하는 것이 좋다. 문항에 따라 글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분량, 시간 등을 제한하여 명시하기도 한다. 논술형 평가는 주어진 논제에 대해 논리적이고 주체적으로 사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쓰도록 한 후 평가하는 방식이다. 논술형 문항의 경우, 학생들이 논해야 할 주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해야 하며, 학습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논거를 통해 논변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논술형 문항도 일종의 서술형 문항이기는 하지만, 학생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을 창의적이고 논리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하나의 완결된 구조로 조직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서술형과 구별할 수 있다.

연구 보고서법이란 특정 주제에 대하여 학습자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종합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 연구는 그 주제나 범위에 따라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소집단별로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 보고서법을 흔히 프로젝트(project)법이라고도 한다. 학생들은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하는 방법,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하는 방법, 보고서 작성법 등을 익히게 될 것이며, 연구 보고서 발표회나 학생들 간 연구 보고서의 상호 교환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자료철(포트폴리오)이란 개별 학습자가 직접 쓰거나 만든 작품을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모아 둔 작품집 또는 서류철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학습자가 자신의 변화 발

전 과정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평가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면접법이란 평가자와 학생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즉, 교사가 학생과 직접 대면한 상황에서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이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지필 평가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항들을 평가할 수 있다. 면접법의 장점으로는 과정이나 원인 등 좀 더 심도 깊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정보나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진행상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구술 평가는 학생이 특정 교육 내용이나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여 준비도, 이해력, 표현력,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직접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다.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발표 준비를 하도록 한 다음, 개별적으로 약 5분간 발표하도록 하여 평가할 수 있다. 구술 평가는 주제나 질문을 사전에 미리 알려주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지만, 평가 영역만 알려 준 후 구술 평가 상황에서 교사가 평가 영역과 관련된 주제나 질문을 제시하고 학생이 답변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토론법이란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 활동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평가 방법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찬·반 토론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찬·반 토론법이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 주제를 설정하고, 개인별로 혹은 소집단별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한 다음, 찬성과 반대 의견을 토론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자료의 다양성이나 충실성, 그리고 토론 내용의 충실성과 논리성,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이해 능력, 적절하고 효과적인 담화로 구성하여 전달하는 능력, 반대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 토론 진행 방법에 대한 지식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관찰법은 학생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서, 학생들의 일상 생활이나 특정 언어활동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면서 평가하는 방법이다. 개별 학생이나 집단 단위로 관찰하며, 주로 인위적인 상황보다는 자연적인 상황에서 관찰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관찰 대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일화기록법이나, 체크리스트(check list)나 평정 척도 등을 이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디오(video) 녹화를 한 후 분석하기도 한다.

(4) 국어 능력의 평가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되, 가급적 질적 평가, 비형식 평가, 직접 평가, 수행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국어 능력의 평가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국어과 교육에서 널리 사용하던 선택형 평가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선택형 평가는 학습자의 창의적인 사고와 학습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방법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 왔다. 선택형 평가로는 학습자의 인지 구조의

변화나 이해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며, 학습의 과정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선택형 평가 자체가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제한된 조건 속에서 선택형 평가를 택할 수도 있다. 다만, 학생들의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해서는 가급적 질적 평가, 비형식 평가, 직접 평가, 수행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질적 평가란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수·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습자 개개인의 교육적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적으로 가치 판단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방식이다. 질적 평가에서는 학습자의 점수나 석차보다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이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을 더 중시하며, 아울러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및 가르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지식의 수준 등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시한다. 이에 비해 학습자의 선발이나 배치, 서열화를 목적으로 학습자의 학습 결과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평가 방식을 양적 평가라 한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를 ‘형식(formal) 평가’와 ‘비형식(informal) 평가’로 구분하기도 한다. ‘비형식 평가’는 제도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식적으로 결과를 남기지는 않지만, 학습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이루어지는 평가이다. ‘비형식 평가’는 자료 수집 계획을 사전에 세우지 않거나 당장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관찰 계획만 구상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학습 효과의 향상을 위해 치르는 쪽지 시험이나 받아쓰기, 수업 담화 관찰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형식 평가’란, 제도적인 평가의 과정을 거치고 난 후 평가의 결과를 남겨 이후의 교수·학습 과정에 참고로 하기 위한 평가이다.

직접 평가란 언어활동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언어활동을 대상으로 언어 능력의 특성 및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활동을 직접 수행하게 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실제로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활동을 하게 하여 그 수행 과정이나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 능력의 특성과 수준을 판단한다. 언어활동이라는 직접적인 자료로 그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직접평가라 한다. 이에 비해 간접 평가는 언어활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거나 기타 간접적인 방법으로 언어 능력을 알아보는 방법이다. 말하기나 쓰기 등의 평가에서 선다형이나 진위형, 완성형 등의 방식으로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활동의 방법 또는 전략에 관한 지식은 성공적인 언어활동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이러한 지식이 있다면 언어 사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언어 활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함으로써 언어 능력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직접 평가는 간접 평가보다 언어 능력을 타당하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언어 능력에 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지식이 수행 과정에 활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식과 실체는 다를 수 있고, 실제적인 수행을 통해서라야만 언어 능력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수행 평가란 학생 스스로 자신이 알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답을 작성(구성)하거나, 발표하거나,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요구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행동’이란 단순히 신체를 움직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거나, 듣거나, 쓰거나, 그리거나, 만들거나, 더 나아가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포함한다. ‘수행(performance)’

이란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동을 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의미하며, 수행 평가는 어떤 지식이나 절차를 아는 차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이나 절차를 바탕으로 실질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언어활동을 어떻게 구현하는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수행 평가를 실시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방법으로는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 관찰법, 토론법, 구술 평가, 면접법, 연구 보고서법, 자료철(포트폴리오) 등을 들 수 있다.

(5) 평가 목표와 내용, 평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방법을 통합하여 활용 한다.

평가 목표와 내용, 평가 상황에 따라 일반적으로 하나의 평가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평가 방법을 통합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토론하는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하여 평가하면서 학생의 자기 평가와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 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토론을 하기 전에 특정 쟁점에 대해 논술문을 쓰게 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하도록 하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하나의 평가 방법으로 얻기 어려운 국어 능력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라. 평가 결과의 활용

(1) 평가 결과는 학습자의 성취 수준, 국어 능력의 발달 정도를 판단하고,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자료, 평가 도구를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자의 성취 수준, 국어 능력의 발달 정도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교수·학습에 필요한 자료나 평가 도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좀 더 질 높은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평가 결과는 학습자의 성취 수준이 어떠한지, 국어 능력의 발달 정도는 어떠한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교사에게는 학습자가 성취한 목표와 성취하지 못한 목표가 무엇인지, 성취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평가 결과는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자료, 평가 도구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적절한 교수·학습 자료를 선정할 수도 있고, 다른 평가 도구를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 평가 결과를 통해 학습자의 성취 수준 이외에 교수·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분석하여 학습자, 교사, 학부모, 교육 관련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하되, 평가 결과 보고 체계를 구체화·다양화한다.

평가 결과를 통해 학습자의 성취 수준 이외에 교수·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학습자, 교사, 학부모, 교육 관련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각자의 위치에서 학습자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 보고 체계를 구체화·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평가 결과를 통한 정보 제공은 여러 교육 주체들이 그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여러 교육 주체들이 그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는 형식이어야 하며, 또한 그 체계가 구체적이고 다양해야 한다. 각 평가 영역별로 학습자의 성취 수준이 어떠한지 등급화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며, 성취 수준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전 평가 결과의 누적된 프로파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도 학습자의 성취 수준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습자, 교사, 학부모 모두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의 내용은 점수나 등급 등 양적 정보와 장단점이나 원인 등 질적 정보를 관련지어 구성하는 것이 좋다.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도 동시에 제공하여 평가 결과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국어과 교육의 특성에 익숙하지 않은 교육 수요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막대그래프 형의 프로파일만이 아니라 학생의 종합적인 성취 수준을 서술식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도 좋다. 프로파일이나 등급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성취 정도를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의 국어 능력이 어떠한지, 어느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교육 행정가나 교육 정책 입안자 등 교육 관련자들에게는 학습자 집단 전체의 특성을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양적인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도 좋다.

V. 국어과 신·구 교육과정 비교

구 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 고
성 격	<p>국어과는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정보화 사회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며,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 교과이다.</p> <p>국어과에서는 국어가 사용되는 맥락과 목적과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국어 사용 양상과 내용을 정확하고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사상과 정서를 효과적이고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언어와 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언어 현상을 탐구하고 국어 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그리고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면서 인간의 다양한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심미적인 정서를 기른다. 이를 통해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태도를 길러 성숙한 문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한다.</p>	<p>국어 교과는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미래 지향의 민족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게 하며,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 교과이다.</p> <p>국어 교과에서 학습자는 국어 활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담화 또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국어 현상을 탐구하여 국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국어에 대한 의식을 높인다. 그리고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거나 생산하면서 인간의 다양한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심미적 정서를 함양한다. 이를 통해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 성숙한 문화 시민의 소양을 기를 수 있다.</p>	<p>· 국어 교육에 대한 평가와 요구 반영</p> <p>· 내용 체계 변화 반영</p>

구 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 고
성 격	<p>국민 공통 기본 교과인 국어과의 교육 내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구성한다.</p> <p>국어 학습은 국어 생활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하며,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의 계승, 발전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기르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과 태도가 유기적으로 통합되게 운용한다. 특히, 국어과 학습은 학습자가 국어 사용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활동을 강조하여 국어의 가치를 체험 할 수 있게 한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학습은 실제적인 목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언어 활동을 강조하여 창조적 국어 사용 능력이 향상되게 한다. ‘국어 지식’ 영역의 학습은 언어 현상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탐구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하되, 학습한 지식을 국어 사용 상황에 적용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문학’ 영역의 학습은 문학 작품을 스스로 찾아 읽고 토론하는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작품에 나타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 상상력이 향상되도록 한다.</p> <p>국어과 학습은 학습 능력과 성취 수준을 고려하여, 정확하고, 해석적이며,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수준으로 국어를 사용하는 경험이 확대되도록 하는 학습 활동에 중점을 둔다.</p>	<p>국어 교과와 교수·학습은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활동, 국어의 발전, 그리고 국어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기르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이 유기적으로 통합되게 운용한다. 특히 국어 교과와 학습은 학습자가 국어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어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게 운용한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은 실제 상황에서의 주체적인 국어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국어 능력이 향상되게 한다. ‘문법’ 학습은 언어 현상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탐구 활동을 강조하고, 학습한 지식을 국어 사용 실제에 적용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문학’ 학습은 문학 작품을 찾아 읽고 해석하며, 문학 작품을 생산하는 학습 활동을 함으로써 작품에 나타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 상상력이 향상되도록 한다.</p> <p>초등학교에서는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국어 활동을 통한 사고력과 상상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국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어 활동을 즐기고 국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중등학교에서는 국어를 정확하고, 비판적이며,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국어 활동을 통한 고등 사고력과 심미적 안목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국어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강조한다.</p>	<p>· 학습 지향점 제시</p> <p>· 학교급별 지도 중점 제시</p>

구 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 고
목표	<p>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p> <p>가.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p> <p>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p> <p>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p>	<p>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p> <p>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 활용하면서 자신의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한다.</p> <p>나.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p> <p>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미래 지향의 국어 문화를 창조한다.</p>	<p>· 전문과 세부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p> <p>· 목표를 학습자 중심으로 제시</p> <p>· 인지적·정리적 특성 반영</p>

구 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 고																			
내 용	내용 체계	가. 내용 체계 · 6영역의 ‘내용’을 ‘본질/원리/태도/실제로 범주화하여 체계표 제시	가. 내용 체계 · 6영역의 ‘내용’을 ‘실제/지식/기능/맥락’으로 범주화하여 체계표 제시	· 내용 요소 범주의 용어 개념 · 지식:담화/글 수용 · 생산 활동에서 요구되는 형식적, 본질적, 명제적 지식 · 기능:담화/글 수용 · 생산 활동에 관여하는 사고의 절차나 과정 · 맥락:담화/글 수용 · 생산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문화적 배경																			
	학년별 내용	나. 학년별 내용 · 학년별 내용을 6영역으로 나누어 제시 · 영역별로 ‘내용’과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를 【기본】과 【심화】로 구분하여 제시 (예) - 듣기 - <table border="1"><thead><tr><th>내용</th><th>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th></tr></thead><tbody><tr><td>(1)---</td><td>【기본】 ○</td></tr><tr><td></td><td>【심화】 ○</td></tr></tbody></table>	내용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	(1)---	【기본】 ○		【심화】 ○	나. 학년별 내용 · 학년별 내용을 6영역으로 나누어 제시 · 성취 기준별로 ‘담화/글의 수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익혀야 할 ‘내용 요소의 예’ 제시 (예) - 듣기 - <table border="1"><tr><td colspan="2"><담화/글의 수준과 범위></td></tr><tr><td>-</td><td></td></tr><tr><td>-</td><td></td></tr></table> <table border="1"><thead><tr><th>성취 기준</th><th>내용 요소의 예</th></tr></thead><tbody><tr><td>(1)---</td><td></td></tr><tr><td></td><td>○</td></tr><tr><td></td><td>○</td></tr></tbody></table>	<담화/글의 수준과 범위>		-		-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1)---			○		○
내용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																						
(1)---	【기본】 ○																						
	【심화】 ○																						
<담화/글의 수준과 범위>																							
-																							
-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1)---																							
	○																						
	○																						

구 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 고
교수 · 학습 방법	가. 교수·학습 계획 나. 교수·학습 방법 다. 교수·학습 자료	가. 교수·학습 계획 나. 교수·학습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성과 유용성 제고 · 수준별 수업에 대한 사항 제시 · 영역 간 교육 내용 통합 지도 방안 제시
평가	가. 평가 계획 나. 평가 목표와 내용 다. 평가 방법 라. 평가 결과의 활용	가. 평가 계획 나. 평가 목표와 내용 다. 평가 방법 라. 평가 결과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계획 수립 시 유의점 제시 · 내용 체계의 변화 반영 · 평가 내용의 통합 강조 · 교사의 학생 평가 이외에 학생의 자기 평가·상호 평가 강조 · 영역별 평가 방법 제시 지양, 국어과 평가 방법 제시 후 영역의 특성에 맞는 방법 선택 강조 · 평가 결과 보고 체계의 다양화 강조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용어 해설】

● 가치 탐구 학습법

주어진 가치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분석,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가치를 ‘재구성’해 보게 하는 데 초점을 둔 교수·학습 방법이다. 어떤 문제 상황 속에 여러 가지 가치가 공존한다는 것을 알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게 하거나 주어진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여 수용하도록 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 개별화 학습법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학습자에게 최적의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며, 수업의 모든 요소를 학습자의 특성에 알맞게 조정하는 변별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이나 능력별 학습 집단 편성 방법, 학습자의 개인차와 학업 적성에 맞는 학습 환경을 구성해 주는 방법이 있다. 보충·심화형에 적용한다.

● 공식적·비공식적 상황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상황을 내용과 형식의 공공성이나 격식성 정도에 따라 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식적 상황은 의사소통 참여자 간의 공적 관계를 전제로 직무의 수행과 관련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비공식적 상황은 의사소통 참여자 간의 사적 관계를 전제로 직무의 수행보다는 친교적 목적을 가지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관찰법

학생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서, 학생들의 일상생활이나 특정 언어활동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면서 평가하는 방법이다. 개별 학생이나 집단 단위로 관찰하며, 주로 인위적인 상황보다는 자연적인 상황에서 관찰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관찰 대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일화기록법이나, 체크리스트나 평정 척도 등을 이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디오 녹화를 한 후 분석하기도 한다.

● 광고

물건을 팔거나 소비자의 반응을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 혹은 일반인들의 인식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설득적 담화로서, 잡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된다.

● 구두 작문(oral composition)

글을 쓰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글을 쓰기 전에 자신이 쓸 내용을 먼저 말로 해 보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구술 평가

학생이 특정 교육 내용이나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여 준비도, 이해력, 표현력,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직접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다.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발표 준비를 하도록 한 다음, 개별적으로 약 5분간 발표하도록 하여 평가할 수 있다. 구술 평가는 주제나 질문을 사전에 미리 알려주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지만, 평가 영역만 알려 준 후 구술 평가 상황에서 교사가 평가 영역과 관련된 주제나 질문을 제시하고 학생이 답변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 국어 생활 문화사

국어 생활을 통해 형성된 언어 문화사. 말하기·듣기 생활 문화사, 읽기 생활 문화사, 쓰기 생활 문화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것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음운, 어휘, 통사, 담화나 글 등에 드러난 국어 생활 일반의 공통된 특성을 통시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국어 생활 문화사의 중요한 내용이다.

● 국어 의식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국어에 대한 지식과 태도. 학습자의 국어 의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국어에 대한 지식을 강화하고 국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높이고자 하는 문법 교육은 의미를 갖는다. 문법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국어 의식 자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들의 국어 의식의 집합체를 상정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어 의식이 약하다’처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그림책

글과 그림을 통해 뜻을 전달하는 책의 일종으로, 글을 위주로 내용이 전달되는 일반적인 책이나 그림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삽화가 있는 책’과는 달리 글과 그림이 서로를 보완하여 뜻하는 바를 전달하는 책을 가리킨다.

● 글, 텍스트, 책

글과 텍스트와 책은 모두 읽기(독해, 독서)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이 중 글은 문자 언어로 된 것을 뜻했으나, 최근에는 문자만이 아니라 영상이나 음향 등의 다매체적 요소가 함께 사용

되므로 영상이나 음향 등의 다매체적인 요소를 보조적으로 포함한 자료도 글이라 한다. 텍스트도 국어 교육에서는 글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글과 달리 문자 언어가 지배적이지 않아도 텍스트라 할 수 있고 또 일상적이기보다 학문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글이나 텍스트가 구체물이 아니라 추상적인 어떤 속성을 품고 있는 용어라면, 책은 문자를 종이에 인쇄한 묶음 등과 같이 명백한 구체물을 뜻한다.

● 논술형 평가

주어진 문제에 대해 논리적이고 주체적으로 사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쓰도록 한 후 평가하는 방식이다. 논술형 문항의 경우, 학생들이 논해야 할 주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해야 하며, 학습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논거를 통해 논변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논술형 문항도 일종의 서술형 문항이기는 하지만, 학생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을 창의적이고 논리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하나의 완결된 구조로 조직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서술형과 구별할 수 있다.

● 논제

토의나 토론에서 의논해야 할 문제를 가리킨다. 토의에서는 협의 또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의문문의 형태로 나타내며, 토론에서는 논란이 되는 핵심 쟁점에 대한 찬성 측의 주장을 긍정형의 평서문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논제는 내용에 따라 사실에 관한 것, 가치에 관한 것, 정책에 관한 것으로 구분된다.

● 드라마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기본 수단으로 하여 표현하는 예술 작품을 일컫는 것으로, 무대에서 상연하는 연극이나 라디오·텔레비전을 통해 방송하는 방송극, 전통 민속놀이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마당극 등을 포함한다.

● 만화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심미적 반응을 일으키기 위하여 의도된 순서로 병렬된 글과 그림 및 기타 형상들을 가리킨다.

● 매체(media)

‘중재하는 수단, 도구 혹은 매개체’라는 뜻으로, 의미를 담은 텍스트가 운반되거나 전달되는 물질 혹은 경로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 간접적으로 생각과 느낌,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의사소통에서 활용되는 수단을 뜻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매체의 종류에는 책, 신문, 잡지, 라디오, 사진, 영화, 텔레비전, 인터넷, 휴대전화 등이 있다.

● 면접법

평가자와 학생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즉, 교사가 학생과 직접 대면한 상황에서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이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지필 평가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항들을 평가할 수 있다.

면접법의 장점으로서는 좀 더 심도 깊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정보나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진행상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문제 해결 학습법

결과보다는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강조한 방법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화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과학 교과와 같은 엄격한 가설 검증과 일반화 절차보다는 문제 해결 과정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주로 지식이나 개념을 가르치는 데 적용하며, 기능이나 전략을 가르치거나 탐구 활동을 강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반어(아이러니 irony)

어떤 단어가 표면적인 뜻과 반대의 뜻으로 쓰일 경우 이를 ‘반어(아이러니)’라 한다. 한편, 아이러니는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를 가리킬 때를 가리키기도 한다. 보통 아이러니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전자를 언어적 아이러니라 하고, 후자를 극적 아이러니(혹은 상황적 아이러니)라 한다.

아이러니는 비꼬는 의도를 함축하는 경우가 많으며 흔히 웃음을 유발하는데, 특히 문학 작품에서 매우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특히 후자의 경우 흔히 깨닫지 못했던 인생의 깊은 진실을 보여 주는 방법으로 종종 사용된다.

●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

반언어적(semiverbal) 표현은 언어 표현에 직접적으로 매개되어 의미 작용을 하는 발음, 조음, 고저, 어조, 속도, 크기 등을 가리키며, 비언어적(nonverbal) 표현은 언어 표현과는 독립적으로 의미 작용을 할 수 있는 자세, 손동작, 몸동작, 얼굴 표정, 눈 맞춤 등을 가리킨다.

● 반응 중심 학습법

수용 이론이나 반응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문학 작품을 가르칠 때 학습자 각자의 반응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이다. 단, 각자의 반응을 존중하되, 동료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신의 반응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한다. 문학적인 텍스트, 특히 시나 이야기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유형에 적용한다.

• 서답형

주어진 물음이나 지시에 따라서 학생이 스스로 답안을 만들어서 서술하고 기록하는 문항 형식의 통칭으로 단답형, 완성형, 서술형, 논술형 등이 이에 속한다. 일상용어로는 주관식 문항이라고 불리며, 선택형 문항 형식과 대비된다.

• 서술형

주어진 주제나 요구에 따라 학생이 스스로 서술하여 답하는 문항을 의미한다. 서술하는 방식이나 형식에 대한 사항은 각 문항에서 제시하는 것이 좋다. 문항에 따라 글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분량, 시간 등을 제한하여 명시하기도 한다.

• 선택형 평가

주어진 몇 개의 선택지 중에서 물음이나 지시가 요구하는 답을 선택하도록 하는 문항을 의미하며 진위형(眞僞型), 배합형(配合型), 선다형(選多型) 등이 이에 속한다. 이 방법의 장점은 간편하면서도, 많은 학생들을 짧은 시간에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택형 평가는 학생을 선발, 분류, 배치하기 위한 양적 평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면서 많이 활용되었다. 반면에 문항 구성이 어렵고, 학습자의 답이 맞았거나 틀렸을 경우에 왜 맞았는지 또는 왜 틀렸는지 진단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학생들의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반응을 평가하기 힘들고, 교수·학습을 개선하고 학생을 지도·조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 수업 대화

수업 대화는 수업 시간에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가운데 특히 구두 의사소통을 가리킨다. 수업 대화는 보통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의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진다. 수업 대화는 교사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거나 지시하는 일방향성 의사소통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혹은 학생과 학생이 서로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이다.

• 수행 평가(performance assessment)

수행 평가란 학생 스스로 자신이 알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답을 작성(구성)하거나, 발표하거나,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요구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행동’이란 단순히 신체를 움직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거나, 듣거나, 쓰거나, 그리거나, 만들거나, 더 나아가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포함한다. ‘수행(performance)’이란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동을 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의미하며, 수행 평가는 어떤 지식이나 절차를 아는 차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이나 절차를 바탕으로 실질적이면서도 구

체적인 언어활동을 어떻게 구현하는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수행 평가 방법으로는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 관찰법, 토론법, 구술 평가, 면접법, 연구 보고서법, 자료철(포트폴리오) 등을 들 수 있다.

● 신뢰도(信賴度, reliability)

타당도가 무엇을 측정하고 있느냐, 측정하려고 하는 속성을 어느 정도 충실히 측정하고 있느냐의 문제임에 반해, 신뢰도는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오차 없이’ 측정하고 있느냐는 개념이다. 즉, 측정하고 있는 정도에 일관성이 있느냐, 측정의 오차가 얼마나 적으냐 하는 질문을 하는 셈이 된다.

● 심층 보도

뉴스와 다큐멘터리의 중간에 위치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뉴스에 비해 하나의 사안에 대한 방송 시간이 길고, 내용상 사회적 무게감이 있는 사건이나 사회 변화의 흐름과 관련된 현상을 깊이 있게 다룬다.

● 애니메이션

움직임이 없는 연속된 그림이나 사진을 이어 붙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동영상을 가리킨다.

● 어휘 능력

어휘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 단어 및 어휘에 대한 지식과, 하나의 단어를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가 어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 단어 및 어휘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하는 양적 측면과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느냐 하는 질적 측면으로 나뉘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연구 보고서법

특정 주제에 대하여 학습자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종합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때 연구는 그 주제나 범위에 따라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소집단별로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 보고서법을 흔히 프로젝트(project)법이라고도 하며, 학생들은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하는 방법,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하는 방법, 보고서 작성법 등을 익히게 될 것이며, 연구 보고서 발표회나 학생들 간 연구 보고서의 상호 교환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 영상 언어

매체 언어의 일종으로, 텔레비전, 비디오, 영화, 인터넷 동영상과 같은 다양한 영상 매체에서 의미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일체의 언어와 기호를 뜻한다. 영상 언어는 시각 이미지, 소리, 음악, 등장인물의 말, 자막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구성된다.

• 영역 통합적 평가

국어과 교육과정상의 여섯 영역별로 따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문학 작품을 읽고 토론하거나(문학/읽기/말하기/듣기의 통합), 문학 작품을 읽고 글을 쓰는 경우(문학/읽기/쓰기의 통합), 혹은 읽기 제재를 읽고 토론하거나(읽기/말하기/듣기의 통합), 읽기 제재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을 쓰는(읽기/쓰기의 통합) 활동 등을 평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평가 목적과 평가 상황에 따라 영역 통합적인 평가 방법을 활용하면 여러 영역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수행 평가를 할 경우 영역 통합적인 평가 방법을 활용하면 하나의 평가 장면에서 여러 요소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

• 온라인 대화

화자와 청자가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마주보는 상황에서 음성 언어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상 대화와는 달리, 온라인 대화에서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해 시간적으로 혹은 시간의 거리를 두고 화자와 청자가 문자 언어를 통해 의사를 주고받는다. 온라인 대화는 음성이 아니라 문자를 이용하지만 글보다는 말에 가깝고, 화자와 청자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는 일상 대화와는 달리 얼굴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어조, 음색, 높낮이, 장단, 강약 등과 같은 반언어적 표현이나 표정, 몸짓, 의상 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와 청자의 감정과 분위기를 전달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 의미 구성 행위

독자는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한다. 의미 구성 행위란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모든 사고 작용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글 속에는 글쓴이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고, 그 의도가 글의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만이 글의 의미라고 한정할 경우에는 글의 의미를 구성하여 실현하는 독자의 사고 작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같은 글에 대해서도 독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글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독자마다 다양한 사고 작용을 수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명백한 오독은 제외하고, 글의 해석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다양한 의미 구성의 결과들을 비교하면서 읽을 때, 독자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한 성찰적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 응집성(cohesion)/통일성(coherence)

응집성은 담화 또는 글의 표면적 연결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대표적인 응집성 장치로는 대용어와 접속 부사를 들 수 있다. 대용어에는 ‘인칭 대명사(이이, 이분, 그이, 그분, 저이, 저분)와 지시 대명사(이것, 그것, 저것), 수사(하나, 둘……(기수), 첫째, 둘째……(서수)), 동사(이리하다, 그리하다, 저리하다), 형용사(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관형사(이런, 그런, 저런), 부사(이리, 그리, 저리)’ 등이 있고 접속 부사에는 ‘그리고,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나’ 등이 있다. 예컨대 ‘내가 원하던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와 ‘나는 환호성을 질렀다’라는 두 개의 문장 사이에 ‘그래서’를 넣게 되면 독립된 두 문장이 응집성 있는 하나의 글이 된다. 이처럼 응집성은 담화 또는 글의 언어적 결속 장치이다.

그런데 ‘목이 말랐다. 그래서 물을 안 마셨다’와 같은 경우에는 위의 예처럼 ‘그래서’가 두 문장 사이에 들어 있지만 매우 어색하다. 두 문장이 의미상 잘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를 통해 한 편의 글이 ‘글다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용어나 접속 부사 등의 사용과 상관없이 의미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통일성은 담화 또는 글의 심층적 연결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주제적 일관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응집성이 담화나 글을 ‘담화답게’ 또는 ‘글답게’ 만드는 형식적 조건이라면, 통일성은 의미적, 내용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상호보완적이다. ‘선생님’이라는 말이 음성(형식)과 의미(내용)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한 편의 글은 응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글다워진다. 이 둘의 밀접한 관련성에 주목하여 응집성과 통일성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존재한다.

• 인형극

인형극이란 극화 활동의 한 형태로서 무대에 사람이 아닌 인형이 등장하여 연기하는 극예술이다. 인형극은 인형으로 대신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 읽기, 독해, 독서

읽기와 독해와 독서는 모두 기호를 해독하여 의미를 만들고 수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중 읽기는 국어 교육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글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매체로 된 자료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독해는 읽기의 한 양상으로서 의미를 깊이 분석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내용확인, 추론, 평가·감상’ 등과 같이 의미를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독서는 책을 읽는다는 일상적인 의미를 그대로 갖는 것으로서, 의미의 깊이를 추구하는 독해와 달리, 무엇인가를 읽는다는 활동에 중점이 있으며, 책과 같은 구체물을 대상으로 한다.

● 자기 평가(self-evaluation) /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 평가

자기 평가는 학습자 자신의 언어활동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면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기 평가의 결과물은 구두로 진술하거나 보고서로 작성하여 교사에게 제출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물을 교사가 다시 평가할 수도 있다. 자기 평가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준비도, 학습 동기, 성실성, 만족도, 다른 학습자와의 관계, 성취 수준 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 평가는 동료 학생들이 특정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상대방을 서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 자료철(포트폴리오, portfolio)

개별 학습자가 직접 쓰거나 만든 작품을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모아 둔作品集 또는 서류철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학습자가 자신의 변화 발전 과정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평가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재담

재담은 웃음을 유발하는 말이다. 웃음을 일으키는 형태적 요소는 소리에서부터 단어, 어구, 하나의 큰 서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완전한 이야기 형태를 이루지 못한다하더라도 재치 있게 사람의 웃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재미있는 말이라면 재담이라 할 수 있다.

● 지필 평가

학생들에게 문제지를 나누어 주고 연필이나 펜으로 답을 쓰게 하는 평가 방식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선택형과 서답형을 들 수 있다.

● 직접 교수법

고도로 복잡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우주 항공기나 잠수함을 조종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다. 전체를 부분으로 나눈 후, 이 부분들을 순서대로 익히면 전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교육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면 효과적이다.

● 직접 평가/간접 평가

직접 평가란 언어활동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언어활동을 대상으로 언어 능력의 특성 및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활동을 직접 수행하게 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실제로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활동을 하게 하여 그 수행 과정이나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 능력의 특성과 수준을 판단한다. 언어활동이라는 직접적인 자료로 그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직접평가라 한다. 이에

비해 간접 평가는 언어활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언어 능력을 알아보는 방법이다. 말하기나 쓰기 등의 평가에서 선다형이나 진위형, 완성형 등의 방식으로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활동의 방법 또는 전략에 관한 지식은 성공적인 언어활동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이러한 지식이 있다면 언어 사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언어활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함으로써 언어 능력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직접 평가는 간접 평가보다 언어 능력을 타당하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언어 능력에 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지식이 수행 과정에 활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식과 실체는 다를 수 있고, 실제적인 수행을 통해서라야만 언어 능력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질적 평가/ 양적 평가

질적 평가란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수·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습자 개개인의 교육적 성장을 돕기 위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적으로 가치 판단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방식이다. 질적 평가에서는 학습자의 점수나 석차보다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이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을 더 중시하며, 아울러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및 가르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지식의 수준 등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시한다. 이에 비해 학습자의 선발이나 배치, 서열화를 목적으로 학습자의 학습 결과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평가 방식을 양적 평가라 한다.

● 창의성 계발 학습법

처음부터 정답을 요구하기보다는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보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색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방법이다. 문학적인 글을 읽고 주인공이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와 같은 활동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동료들 간의 토의 학습을 강조하며, 말하기·듣기나 쓰기 활동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해야 할 경우에 효과적이다.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에게는 다소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 타당도(妥當度, validity)

한 검사 혹은 평가 도구가 ‘측정하려고 의도하는 것’을 어느 정도 충실히 측정하고 있느냐의 정도. ‘이 검사가 진짜 무엇을 재고 있느냐?’, ‘어떤 상태 혹은 어떤 조건 아래에서 이러한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는 말인가?’, ‘이 검사가 잦다고 하는 이 능력, 이 특성을 어느 정도로 충실히 재고 있느냐?’라는 것은 모두 타당도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타당도란 ‘무엇을 재고 있느냐’는 개념이다.

● 탐구 학습법

연구형 수업 방식(research-like method)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 주제의

자발적 학습을 위해 교사가 학생들의 능동적인 탐구 행위를 자극하는 수업 형태이다. 이는 이념적인 것이며 교육과정 구성이나 교수·학습 과정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지식 관련 내용에 적용한다.

● 토론법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 활동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평가 방법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찬·반 토론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찬·반 토론법이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 주제를 설정하고, 개인별로 혹은 소집단별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한 다음, 찬성과 반대 의견을 토론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자료의 다양성이나 충실성, 그리고 토론 내용의 충실성과 논리성, 반대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 토론 진행 방법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 토의·토론식 교수법

공통 주제를 논의하거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교사와 학생, 혹은 학생들끼리 일정한 규칙과 단계에 따라 대화를 나누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교사의 역할보다는 학생의 참여와 역할이 강조되며 모든 교과와 모든 학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간단한 정보나 지식의 습득보다는 고차적인 인지 능력의 함양에 적합하며, 특정 문제 상황에 따른 해결책을 탐색하거나 태도 변화를 기하는 데 적합하다.

● 풍자(satire)

인간이나 세계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조소적(嘲笑的)인 표현을 가리키는 말로, 풍자(諷刺)에는 ‘찌르다’는 ‘자(刺)’자가 들어 있다. 그 점에서 악의 없는 웃음을 선사하는 해학과 구분된다. 이러한 표현은 확장되어서 그림이나 영화 등에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박지원이나 채만식 등의 작품에서 풍자의 진면목을 볼 수 있거니와, 대상을 풍자하는 눈(목소리)을 통해서 사물을 그린다든가 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풍자물

개인 또는 사회의 악덕, 모순, 어리석음 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적하고 비판하며 때로는 개선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예술 형식을 가리킨다.

● 현장 학습법

학습 장소를 학습 자료가 있는 현장으로 옮김으로써 학습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방법으로, 주제에 따른 지역 사회의 현장 방문을 통해 학습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유발시켜 학습을

심화시키고 사회 전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폭넓게 재구성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방언 조사, 설화 수집, 독서 기행 등의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

• 협동 학습법

학급 내에 존재하는 집단 역동성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전통적 교실에서처럼 경쟁적, 개별적으로 학습하기보다는 집단의 목표나 집단 과제의 해결을 위해 다 함께 학습하는 방법이다. ‘직소(jigsaw) 학습’을 원용한 제7차 교육과정 하의 ‘전문가 협력 학습’도 이 방법에 포함시킬 수 있다.

• 형식 평가/비형식 평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를 ‘형식(formal) 평가’와 ‘비형식(informal) 평가’로 구분하기도 한다. ‘비형식 평가’는 제도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식적으로 결과를 남기지는 않지만, 학습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이루어지는 평가이다. ‘비형식 평가’는 자료 수집 계획을 사전에 세우지 않거나 당장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관찰 계획만 구상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학습 효과의 향상을 위해 치르는 쪽지 시험이나 받아쓰기, 수업 담화 관찰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형식 평가’란, 제도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고 난 후 평가 결과를 남겨 이후의 교수·학습 과정에 참고하기 위한 평가이다.

• 훈화

훈화는 교훈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우화나 일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하기도 한다. 또한 일반적 윤리를 강조하는 훈화나 특정한 사건이나 시기와 관련된 훈화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훈화의 시기, 장소, 목적 등에 따라 말하는이의 뜻을 헤아려 보게 한다. 훈화는 일방적으로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인격적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한 교육 활동의 한 수단으로서 스승과 제자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 ICT 활용 학습법

교수·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 통신 기술을 교육과정에 통합시키는 방법이다. 즉, 문제 해결에 교육적 매체(instructional media)로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교육용 CD-ROM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교수·학습을 하는 형태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정보 기술은 대체적으로 의사소통 통로로서의 기능, 거대한 자료원(Data-Base)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학습 지원 도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참고 문헌

- 교육부(1997).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 :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 교육부(1998). 초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Ⅲ) : 국어, 도덕, 사회.
- 교육부(1998).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Ⅱ) : 국어, 도덕, 사회.
- 교육부(1999). 고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Ⅱ) : 국어, 도덕, 사회.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
- 김대행(1998). 매체언어교육론 서설, 국어교육 제97호.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김대행(2003).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의 문제와 개선 방향. 한국교육 과정학회 학술세미나.
- 김동환(2000). 매체언어와 국어 교육 : 매체언어의 소통원리와 교육적 대상화의 방법.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학술세미나.
- 김상욱(2003). 문학교육의 길 찾기. 서울 : 나라말.
- 김재봉(2000).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한국초등국어 교육 제16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김재춘(2003). 국가 교육 과정 개정 담론의 비교 분석(Ⅰ) : 제4차에서 제7차에 걸친 ‘교육 내용 적정화’ 담론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 연구 23(2), pp. 105~122.
- 김정자(2003).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과 작문 교과서 내용 분석 연구 : 전자 작문을 중심으로, 국어 교육학연구 제16집. 국어교육학회.
- 김주환(2000). 7차 교육 과정과 국정 교과서, 함께 여는 국어 교육 45. 전국국어교사모임.
- 김창원·김혜영·유영희 외(2003). 문학영역 및 과목의 교육 과정 개선 방안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원대학교 교과교육공동연구소.
- 박도순(2000). 문항작성방법론. 서울 : 교육과학사.
- 박인기 외(1999). 국어과 수행평가. 서울 : 삼지원.
- 박인기(2000).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의 목표에 대한 검토, 한국초등국어교육 16.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백순근·최미숙·유동엽(2000).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국어 기초 학력 평가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송현정·이양락·박순경·정영근(2004). 국어과 교육 내용 적정성 분석 및 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심영택(2003). 국어 교육 목표에 대한 재조명,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149회 학술 대회 자료집.
- 우리말교육연구소 엮음(2003). 외국의 국어 교육 과정1 : 영국·프랑스·중국의 교육과정. 서울 : 나라말.

- 우리말교육연구소 엮음(2003). 외국의 국어 교육 과정2 : 캐나다·미국·호주의 교육과정. 서울 : 나라말.
- 우한용·박인기·박삼서·정구향·김중신·김창원·김상욱·정재찬(1997). 문학교육과정론. 서울 : 삼지원.
- 원진숙(2000).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의 평가, 한국초등국어 교육제16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윤여탁 외(2007). 매체언어 교육의 본질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19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이대규(1998). 국어 교육의 이론. 서울 : 교육과학사.
- 이도영(1999). 국어과 평가 연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어교육학회 1999 여름 학술 발표 대회. 국어교육학회.
- 이도영(2000). 국어과 정의적 영역의 평가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제11집. 국어교육학회.
- 이삼형·김중신·김창원·이성영·정재찬·서혁·심영택·박수자(2000). 국어교육학. 서울 : 소명출판.
- 이성영(2003). 실용 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방안.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149회 학술 대회 자료집.
- 이용주(1995). 국어 교육의 반성과 개혁.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인제·박영목 외(2004). 국어과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신장 모형과 기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인제 외(1997). 창의력 신장을 돕는 중학교 국어과 학습 평가 방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인제 외(2002). 초등 학교 국어과 교과용 도서 개발 연구-종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인제·정구향·송현정·유영희·문영진·조용기·이재기·민병곤(2004). 국어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인제·정구향·송현정·이재기·문영진·조용기·김정우·민병곤·유영희·정현선(2005).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재기(2006). 국어과 국민 공통 교육과정 개정안,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안 토론회 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
- 이재기·이인제·정구향·송현정·문영진·조용기·김정우·신명선·노은희·민병곤·정현선·김명순(2006).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구향·이재기·민병곤·정민주(2003). 2002년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연구(Ⅱ) -국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구향 외(2004). 2003년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연구 : 국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현선(2007). 기호와 소통으로서의 언어관에 따른 매체언어교육의 목표에 관한 고찰, 국어교육연구 제19집. 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
- 정혜승(2002). 국어과 교육 과정 실행 연구. 서울 : 박이정.

- 조용기·성경희·김평국·신진아(2004). 제7차 교육 과정의 현장 운영 실태 분석(Ⅱ) : 중등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천경록(2001). 국어과 수행평가와 포트폴리오. 서울 : 교육과학사.
- 천경록(2005). 국어과 교사의 읽기 영역 평가 전문성 기준과 모형, 국어교육 117호. 한국어교육학회.
- 최병우·이채연·최지현(2000). 매체언어와 국어 교육 : 매체언어와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학술세미나.
- 최미숙 외(1999). 고등학교 국어 평가 방법 개선 방안: 논술형 및 서술형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미숙(2006). 국어과 평가의 반성과 탐색, 국어교육 121호. 한국어교육학회.
- 최영환(2003). 국어 교육학의 지향. 서울 : 삼지원.
-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2002). 제7차 교육 과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교과교육공동연구 학술세미나 자료집.
- 허경철(2003). 국가 수준 교육 과정 개정 방식의 개선 방안 탐색, 교육과정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교육과정학회.
- 황규호(2003). 교과교육 과정 구성에서의 폭과 깊이 문제, 교육 과정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교육과정학회.

도 덕

권기원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조난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윤현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명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황인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국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손동현 (성 균 관 대 학 교)
유병열 (서 울 교 육 대 학 교)
차우규 (한 국 교 원 대 학 교)
조일수 (충 북 대 학 교)

- I.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 II. 도덕과 교육과정의 변천
- III.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 IV. 도덕과 교육과정 해설
- V. 도덕과 신·구 교육과정 비교

I.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1. 제7차 교육과정의 편제 유지와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실화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전면 개정이 아니라, 부분 수시 개정이라는 점이다. 부분 수시 개정의 실질적인 의미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편제 유지 곧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구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국민공통기본 교과와 편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도덕과는 국민공통기본 10개 교과 중 한 교과의 위상을 유지한 채, 초등학교 3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고교 11~12학년의 선택과목 체제 내에서 도덕과 교육의 개선과 질 제고를 목표로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이처럼 기본적인 편제가 정해진 틀 위에서 교육과정 개정이 진행됨으로써 종래의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경험하였던 편제 싸움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었다. 도덕과 편제의 변화를 가져왔던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이나 교육과정 개정의 폭이 컸던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교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보다는 총론 개정 연구에 무게 중심이 있었다. 그런 만큼 교과 교육 관계자들도 차분하게 교과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이전에 자기 교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데 몰입했고, 이로 말미암아 연구 에너지가 교과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온전하게 투입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는 ‘기본 편제의 유지’라는 대원칙이 세워짐으로써 거의 모든 교과들이 편제 문제에 치중하기보다는 각 교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와 논의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번 교과 교육과정 개정의 이러한 과정은 우리 교육과정 역사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 수시 개정의 틀에서 이루어진 이번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그 어느 교육과정기보다도 교과로서의 도덕과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려는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구에 기반을 둔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이번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정은 충실한 기초연구와 관련 연구들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국가 수준의 CDC(Curriculum Development Center) 기능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수시·상시 교육과정 개정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교육과정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교육과정 연구·개발을 수년 간 계속연구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즉, 한국교

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02년부터 현행 교육과정의 실태 분석과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를 총론과 도덕과를 비롯한 10개의 국민공통기본교과 중심으로 꾸준히 수행해 왔다.

도덕과의 경우에는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주로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도덕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각종 쟁점과 문제점을 명료하게 분석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도덕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조난심 외, 2005)는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구성하기 위한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쟁점 분석: 선행연구 분석 등을 통해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교육 내용 선정 및 조직의 문제
 - 학교급 간/학년 간 계열의 문제
 -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문제 등
-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설정: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극복과 도덕과 교육의 개선을 위해 요구되는 변화의 방향을 수용하여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 현행 도덕과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
 -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가치 규범의 수용
 - 도덕교육 관련 학문적 동향을 반영한 개정의 방향 검토 등
- 국민공통기본 도덕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제시 등

3.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도덕과 교육 과정의 개정

이번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기존의 도덕과 교육이 ‘환골탈태’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주장이 많았다. 그것은 도덕과 교육이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도 여전히 적합성을 가진 의미 있는 교과가 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로 거론되었다. 이는 도덕과 교육은 우리의 유구한 가치문화와 교육의 전통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교과의 성립이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정권과 연결되어 있었고, 과거의 지도 내용이 정치 사회화나 이념적인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도덕과 교육의 사회적 적합성이 떨어

진다는 문제제기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이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적절하게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특히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도덕성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도덕과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예컨대, 종래의 정치 사회화나 국가주의적인 관점보다는 세계시민으로서 지구촌의 도덕적 문제를 다룰 줄 아는 인간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또한, 도덕과를 통해 길러주어야 할 능력으로서 기존의 가치 수용적이고 피동적인 도덕적 사회화의 관점이 아니라, 도덕적 주체로서 학생들이 스스로 도덕적 문제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자율성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이러한 방향에서 그 내용과 방법이 구성되었다.

4. 현장 교사의 의견 수렴에 중점을 둔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정

다음으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그 어떤 집단보다도 학교 교실에서 도덕과 수업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주로 수렴하고자 하였다. 교사들이 제기하는 문제나 어려움을 완화하여 도덕과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도덕과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지를 논의하였고, 구체적인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국의 학교에서 표집된 초등교사와 중등 도덕·윤리교사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개정 시안 구성에 반영하였다(조난심 외, 2005). 그 뿐만 아니라,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를 개방하여 원하는 교사들은 누구든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하였다. 또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최초로 마련한 2006년 상반기의 교육과정 현장 검토 과정에서 더욱 광범위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도덕과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5. ‘도덕과 교육과정 연구 공동체’ 구성을 통한 참여식 교육과정 개발

이번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은 소수의 연구진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도덕과 교육 관련 집단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곧 도덕과 교육 관련 7개 학회·단체들—전교조 도덕교사모임, 한국교총 도덕교사모임,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한국윤리교육학회, 한국철학윤리교육연구회, 한국윤리학회,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이 도덕과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연구 공동체를 구성하여 각 집단의 견해를 밝히고, 도덕과 교육의 성격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따라서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구성은 이러한 제안들을 참고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도덕과 교육과정 연구 공동체들은 세 차례에 걸친 워크숍에서 ‘도덕과의 성

격과 목표’, ‘도덕과의 내용과 방법’ 및 ‘도덕과 교과서 개발과 심의의 방향’에 대해 각 단체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수시로 연구진들에게 도덕과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여론 수렴 과정은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에도 공청회나 현장 검토 및 심의회 등을 통해서 계속되었다. 이 과정은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적절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개정의 과정이 곧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적용시킬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마땅히 요구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의 또 하나의 절차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II. 도덕과 교육과정의 변천

오늘날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도덕’이라는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덕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독특한 정신문화와 윤리교육적 역사 및 전통에 그 뿌리를 둔 것이라고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민족은 인의도덕(仁義道德)을 숭상해 온 문화민족으로서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칭송되었는가 하면, 공자까지도 우리를 어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고 칭하면서 그런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고까지 한 바가 있다.

이러한 도덕적 문화민족으로서의 전통은 그 후 줄기차게 이어져 내려와 가까운 조선 시대만 해도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정신문화가 꽃피었다. 그리고 이는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에서부터 중등 교육기관인 사학, 향교, 서원은 물론 초등 수준의 서당에 이르기까지, 사서삼경 등에서부터 소학, 근사록, 명심보감, 격몽요결, 동몽선습, 천자문 등에 이르기까지 도덕 관련 교과목들을 가르쳐 온 노력의 결과였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구한말 근대 국가로 발전해 가던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는데, 우리 역사상 갑오개혁 후 근대적 교육제도가 최초로 수립될 때 1895년 고종은 「교육 조서」를 선포하여 덕양, 체양, 지양(德養, 體養, 智養)이라는 3대 강령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도덕성 함양이 학교교육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이어 이 조서에 따라 1895년 소학교령이 반포되었는데 여기에는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체조(修身, 讀書, 作文, 習字, 算術, 體操) 등이 설정되어, 이미 이때부터 도덕을 교과목으로 가르쳤음은 물론 수신을 가장 상위 교과로 함으로써 도덕교육을 매우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학교 도덕과 교육은 공식적으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고 하겠다.

이렇듯 구한말 근대적 학교교육이 시작되면서 학교교육에서 정식 교과목으로 설정되었던 도덕 교과는 이후 일제강점기에 그 본질적 의미가 끊겼다. 그러나 윤리와 도덕교육을 중시하는 우리의 문화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졌으니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과 김구 선생 같은 건국의 아버지들 사상이 이를 말해 준다. 즉,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민족정기와 국민도덕을 바로 세우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도덕과 문화가 바로 서고 꽃피워지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후, 도덕교육을 중시하는 이러한 정신과 전통은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가 광복이 되자 당연히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미군정이 시행되었던 관계로 교수요목기라 불리는 당시에는 잠시 여타 교과교육 속에 담겨 있어야 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우리의 도덕교육적 전통과 역사 정신은 학교교육에서 도덕교육을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움직임을 일어나게 하였고, 이에 따른 치열한 논의와 노력의 과정 속에서 6.25전쟁을 거치는 등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끝내 ‘도의교육’을 학교교육의 한 영역으로 설정하고 실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 제3차 교육과정기에 와서는 도의교육을 정식 교과교육을 통해 실행하기로 하고 도덕 과목을 설정하여 가르치게 됨으로써 오늘의 도덕과 교육에 이른 것이다.

1. 교수요목기(1945년~1954년)

1945년 광복을 맞이하였으나 우리나라에는 미군정이 시행되었으니, 이에 따라 모든 학교교육 또한 미군정하에서 수립된 정책과 방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교육과정 변천사에서는 이 시기를 보통 교수요목기라고 부르는데 당시 미군정이 공포한 ‘교수요목’과 교과목 편제 중 첫머리에 제시된 공민과에 바로 도덕과 교육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공민과는 새로 건설되는 새 나라의 민주시민을 기르는 데 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서, 당시 전 학년에 걸쳐 매주 2시간씩 가르쳤다. 이 때 교과서는 국정으로 하였고 저·중·고학년용으로 만들어져 보급되었다.

그 후 1946년 9월 미군정 학무국에서는 초등학교의 새로운 교과 편제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공민과는 역사, 지리와 함께 사회생활과로 통합되게 되었다. 이 사회생활과는 가르치는 내용에서 지식 중심보다는 생활 중심의 접근을 취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로써 도덕과 교육은 사회생활과와 통합되어 민주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도덕적 자질과 품성을 기르는 데 직접적인 관심을 두고 가르쳐지게 되었다.

미군정이 끝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정부는 교육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교육과정과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을 준비하였다. 당시 교육법상 초등학교 교과목은 8개였는데, 도덕과 교육은 그 중 사회생활과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곧 6·25전쟁이 일어나 교육다운 교육은 중단되고 말았다. 하지만, 정부는 전쟁의 폐해와 혼란 속에서도 도덕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니, 1951년 2월 ‘전시하 교육의 특별 요강’을 발표하면서 1952학년도 교육 방침으로서 지식교육, 기술 교육, 국제교육과 함께 도의교육에 역점을 둘 것을 천명하였던 것이다. 이때 도의교육이란 민주국가에서 갖추어야 할 인격 존중, 권리 존중, 의무 수행 등을 알고 실천하며 대한민국의 인생관을 배우고 민주국가 국민의 자격을 갖도록 지도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었다.

그 후 1954년 9월에는 문교부령 제35호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을 공포하면서, 종래 사회생활과 속에 포함되어 시행됐던 초·중학교의 도의교육을 연간 35시간 이상 별도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당시 6·25전쟁을 겪으면서 학생 도의의 문란이 많이 증가하여 도덕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크게 제기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도의교육 시간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는데, 그 후 많은 논란 끝에 1954년 3월 중앙교육위원회 심의회에서 특설하기로 하고 문교부령 제35호로 도의교육 실행을 공표하게 되었다.

2. 제1차 교육과정기(1954년~1963년)

제1차 교육과정기에 도덕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전개되었다. 즉, 1955년 10월 도의교육위원회를 조직하여 장관의 자문기관으로 두고 활동하게 하는 한편, 1956년 말경에는 ‘도의교육요향’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도의교육의 목표와 도의 교육과정 구성의 원칙이 제시되었는데, 목표로서는 관후고결(寬厚高潔)한 인간성의 육성, 통일성 있는 생활 태도의 형성, 창조적인 문제해결력의 배양, 근로역행의 태도 육성, 정신하고 명량한 사회생활 능력의 배양, 애국애족정신의 고취 등이 설정되었다.

그리고 도의 교육과정의 구성에서는 도덕 생활의 영역을 자기실현의 도덕, 인간관계(가정, 학교 등 자기 주변의 사회)의 도덕, 경제·직업(생산, 소비 등)의 도덕, 공민으로서의 도덕, 반공·방일의 정신 등 다섯 가지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반공·방일 정신의 영역을 별도로 설정한 것은 도의교육과 반공교육의 일원화를 도모하려 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후 문교부는 이러한 도의교육요향에 따라 1957년 3월까지 ‘초등도의’라는 1~6학년 도덕 교과서를 편찬·발행하고, 또 종래 인정 교과서였던 것을 국정 교과서로 바꿨다. 그리고 다음해 1958년에는 초등학교 도의교육 교사용 지도서와 도의생활 지도 요령을 출판하였다. 이후 4·19 혁명에 의한 제2공화국을 거쳐 제3공화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공교육을 강화하고 민족 도의를 진작시키며 국민 경제를 부흥케 함으로써 민주국가의 기반을 굳건히 한다는 명분에 따라 1962년 초등학교 전 학년의 도덕 교과서 내용이 개편되었다.

3. 제2차 교육과정기(1963년~1973년)

제3공화국 정부 하에서 1963년 2월 문교부령 제119호로 공포된 제2차 교육과정기에 도덕과 교육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반공·도덕 생활이 교육과정상의 한 영역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이 시기에 반공·도덕 생활 교육 영역을 별도로 설정한 것은 이러한 교육이 교과교육과 특별활동 중 어느 영역에도 포함할 수 없는 특별한 영역임을 강조하면서, 다른 교과나 학교 활동 전반에서 얻어지는 성과를 종합하고 체계화하여 실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제2차 교육과정에서의 도덕교육은 반공·도덕 생활 영역의 특설로 더욱 강화되었는데, 학년별로 도달해야 할 목표나 가르쳐야 할 지도 내용을 세분해서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때의 반공·도덕 생활의 목표와 내용 기준은 크게 예절생활, 개인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국가생활의 4영역으로 구분, 제시되었다.

한편, 이때 반공·도덕 생활을 학교에서 지도할 때에는, 덕목의 관념적 주입을 피하고 도덕적 발달을 조장하여 실천력이 풍부하도록 지도하는 일, 학교 교육의 모든 영역에 걸쳐 계획성 있

게 실시하는 일, 교과교육은 물론 교과 외 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일, 일상생활 속에서 도덕적 품성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일, 그리고 아동 발달 수준을 고려하면서 바람직한 생활 습관과 예절을 습득하도록 하는 일 등이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강조되었다. 이후 1968년 12월 5일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되고 1969년 9월 제2차 교육과정(이)이 부분적으로 수정되면서 반공·도덕 생활은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4. 제3차 교육과정기(1973년~1981년)

1973년 2월 문교부령 제310호로 공포된 제3차 교육과정에서의 중대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종래에 반공·도덕 생활 영역으로 되어 있던 도덕교육이 정식 교과 교육의 하나로 설정되면서 그 명칭도 ‘도덕’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반공·도덕 생활 교육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덕교육의 성과를 제대로 구현해야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즉, 도덕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정규 도덕 과목을 설치하여 교과 교육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제3차 교육과정기에 교과교육의 하나로 실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당시 제3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과 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종래의 반공·도덕 생활이 교과 교육의 하나인 ‘도덕과’로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교과가 9개로 증대되었다. 둘째,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과 관련된 가치 덕목을 계통성 있게 전개하고 도덕과의 학문성을 확립하여 체계 있는 도덕교육을 시도하였다. 셋째, 예절 생활, 개인 생활, 사회생활, 국가생활 이외에 반공 생활을 신설하여 5개 생활 영역으로 하였다. 넷째, 종래에는 전 학년을 통해 지도 내용을 제시하였던 것을 저학년(1, 2학년), 중학년(3, 4학년), 고학년(5, 6학년)으로 분류하여 42개 덕목을 해당 학년별로 실정에 맞게 배열하였다.

그리고 이렇듯 생활영역별 목표와 덕목별 지도 내용을 제시하면서 그 운영 지침에서 “도덕교육은 도덕과를 골대(軸)로 하되 각 교과활동과 특별활동, 기타 학교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제시하였다. 지도상의 유의점으로서 도덕교육의 내용을 체계화하고 그 성과를 올리도록 모든 학교교육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 학교교육 이외에도 가정 및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를 이루어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도덕교육을 통하여 도덕적 판단력을 기르도록 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5. 제4차 교육과정기(1981년~1987년)

1981년 12월 문교부 고시 제442호로 공포된 제4차 교육과정기의 도덕과 교육의 특징 중 두드

러진 하나는 도덕과 교육에 있어 인지적 접근을 표방하였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즉, 그 이전까지의 도덕과 교육이 덕목주의에 따른 행동적 접근 중심이었다면, 제4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부터는 도덕적 행동이나 덕목의 맹목적인 추종보다는 도덕규범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그 규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한 당시 제4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특징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행동적 접근이 모색되고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점차 인지적 접근에 비중을 두었다. 둘째, 초등학교에서는 덕목을 중심으로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생활영역이나 문제 또는 주제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셋째, 제3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기본 체제를 토대로 하여 발전적으로 개편하였다. 넷째, 학생들의 사고와 이해를 중시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도덕적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였다. 다섯째, 생활 영역을 4개 영역, 즉 개인생활, 사회생활, 국가생활, 평화통일로 재조정하였다. 여섯째, 국가와 반공생활 영역을 50~60%로 늘려서 국민정신교육의 내용을 강화하였다. 일곱째, 도덕과의 학년 목표는 저·중·고학년으로 구분하였으나 지도 내용은 학년별로 구분 제시하였다.

제4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학년 목표는 저·중·고학년에 따라 도덕성 발달의 차이를 고려하여 제시하였으며, 지도 내용은 개인생활, 사회생활, 국가생활, 반공생활의 4개 영역에 걸쳐 총 21개의 주요 지도요소(덕목)들을 설정하였다. 또한, 지도상의 유의점에서는, 아동들이 경험한 구체적인 사태와 관련지어 지도할 것, 실천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할 것, 교사의 일상적인 언행과 태도에 유의할 것, 수업 환경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할 것, 분산적으로 다루어지는 반공교육을 도덕과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도할 것, 그리고 실제 도덕 수업을 할 때 합리적 논의의 과정을 중시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평가상의 유의점을 별도로 독립하여 제시하고자 한 것도 이 시기의 한 특징이다.

6. 제5차 교육과정기(1987년~1992년)

1987년 6월 문교부 고시 제87~9호로 제정된 제5차 교육과정기의 도덕과 교육과정이 취한 개정의 방향과 중점은 인지적 접근을 더 적절히 추구하는 일, 사회 윤리적 관점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반공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일, 도덕적 탐구와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일, 종래의 4개 생활영역을 조정하여 5개로 하는 일, 도덕 교과서 개발을 위해 제재 구성상의 유의점을 신설하는 일, 주 교과서인 ‘도덕’ 외에 보조교과서로서 ‘생활의 길잡이’를 개발, 보급하는 일 등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제5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특징은 크게 보아 학년별 목표를 학년마다 제시하고자 한 점, 내용 선정에서 기본 생활 습관의 형성 및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고 공동체 의식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 내용 등을 강조하고자 한 점, 내용 조직을 생활 장면 확대, 추상화, 개념화 등의 원리에 따라 교육내용 결정의 자율성을 교사 수준에까지 확대하고자 한 점, 교육 내용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화가 가능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리고 교과 목표와 그 아래 5개 생활영역별 하위 목표 및 학년별 목표를 제시한 후, 그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지도요소(덕목)들을 설정하고 내용의 선정과 조직을 도모하였다. 예컨대, 명랑, 성실, 생명 존중, 예절, 가정애, 관용, 준법, 타인 존중, 협동, 국가애, 국가발전 협력, 남북 분단 인식, 통일 등과 같은 것이 그 예가 된다.

나아가 제5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지도 및 평가 상의 유의점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도덕규범의 의미 파악과 내면화에 중점을 두도록 할 것, 고학년의 도덕 수업은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사고가 촉진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 생활 속의 가치 관련 문제들을 도덕과 수업과 적절히 관련시킴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적 실천에 도움이 되게 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평가와 관련해서는 도덕적 판단의 수준, 실천 동기, 태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할 것, 도덕과 평가는 주로 학생 개개인의 도덕적 성장과 도덕과 교수·학습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7. 제6차 교육과정기(1992년~1997년)

1992년 9월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로 제6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이 시기의 초등 교육과정은 학교 도덕교육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되었다. 문제는 6차에 들어와 도덕과 교육 시간이 주당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교과 교육과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도덕교육을 실행하는 가운데, 도덕과 교육에서는 그러한 교육의 결과를 통합하고 보완함으로써 학교 도덕교육을 더 실질적으로 확보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제6차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중점으로서 제5차 때의 인지적 접근과 사회윤리 문제 강화 등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는 일, 우리 사회의 중핵적인 도덕적 가치 규범을 중심으로 도덕과의 교육 내용을 통합하고 정련시키는 일, 종래의 통일·안보 교육을 통일 교육으로 전환하는 일, 민주시민 공동체 의식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 및 협동심을 기르는 일, 그리고 비판적·창조적 사고력 및 토의 능력과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일 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한편, 제6차 도덕과 교육과정은 바른생활과와 마찬가지로 교과 목표만 설정하고 학년별 생활영역별 목표는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영역 구성은 제5차 때의 5개영역에서 하나를 줄여 개인생활, 가정·이웃·학교생활, 사회생활, 국가·민족생활의 4개영역으로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선정과 조직을 위해 먼저 주요 지도요소를 설정하고 이를 축으로 하여 학년별 지도 내용을 배열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때 선정된 주요 지도요소는 생명 존중, 자주, 성실, 가정과 학교에서의 예절, 향토애, 관용, 경애, 공공질서, 협동, 공익, 국가애, 통일, 국제 우호 등 총 20개의 가치 규범으로 구성하였다.

제6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또한 지도 방법과 평가란을 별도로 설치하여 이에 대한 안내를 도모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도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학생들의 도덕적 사고의 촉진과 토론에 의한 지도, 도덕과 일반 수업모형의 활용, 적절한 학습 자료의 투입, 가정 및 사회생활과 연계한 지도, 교사의 모범 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평가 부분에서는 도덕성의 제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다양한 평가 방식의 적용, 평가 결과의 적절한 활용 등에 유의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8. 제7차 교육과정기(1997년~2007년)

1997년 12월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제정된 제7차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은 지식 정보화와 세계화가 더욱 심화되던 시점에서 도덕적 문제를 개선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방향을 추구하였다. 즉, 더욱 발전된 도덕 공동체로서의 한국 사회를 형성하고, 자라나는 세대들로 하여금 건전한 인성을 지닌 유덕한 인격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려면, 더 실효성 있고 강화된 학교 도덕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그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추구하였다. 첫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생활습관과 예절 및 기본적인 도덕규범을 가르쳐 건전한 도덕성, 유덕한 인격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자 하였다. 둘째, 도덕과 교육의 사회적 적절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셋째, 교육내용의 적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넷째, 초등학교 단계의 도덕과 교육의 특성과 중점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전체에 걸쳐 연계성과 계열성을 고려하여 구성을 도모하였다. 다섯째, 실천과 활동, 적극적인 참여와 체험 위주의 교육방법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종래의 인지적 접근을 넘어 통합적 인격교육(덕교육적) 접근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향을 추구한 제7차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은 교과 전체 목표는 제시하였으나 초등학교 급별 목표를 따로 설정하지는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그리고 내용은 개인생활, 가정·이웃·학교생활, 사회생활, 국가·민족 생활의 4개 영역에 걸쳐 생명존중, 성실, 절제, 경애, 효도, 예절, 배려, 정의, 준법, 국가애, 평화통일, 인류애 등 총 20개의 주요 가치·덕목들 설정하고 관련 지도요소들을 설정한 후, 이를 다시 한 단계 상세화하여 성취기준형 방식으로 학년별 교육내용요소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때 선정과 조직의 방식으로는 주요 가치·덕목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개인의 도덕적 발달과 인격 형성에 필수적인 규범들, 우리의 전통적 규범과 가치 및 서구 민주 사회의 가치와 덕목 중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 현실에 적절한 내용들, 학생들의 생활

경험과 관련되고 실천 가능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크게 두드러지는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숙고하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총 40개의 지도요소를 선정하였다.

한편,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지도방법과 평가에 관한 원리들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도방법으로는 도덕성의 세 측면을 통합적으로 지도할 방법, 도덕 판단력과 가치 선택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탐구식 토의 방법, 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도덕 문제들을 교과서 내용과 관련지어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하는 방법, 지역의 특성이나 시사성을 고려한 재구성과 다양한 학습 자료 개발과 공유 활용, 교사의 도덕적 모범, 학생들의 지적·도덕적 발달 수준 및 학년 그리고 목표와 내용에 걸맞은 방법, 도덕실(예절실)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평가와 관련해서도 도덕성의 세 측면에 따른 적절한 평가 요소 및 기준의 설정과 통합적 평가의 추구, 평가 방법의 다양화, 학생들의 지속적인 도덕적 성장과 도덕과 수업 및 교사의 자기장학을 위한 평가 결과 활용, 그리고 등급과 서열화가 아닌 학생들의 도덕적 성장과 개선을 지향하는 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Ⅲ.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1.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가. 도덕과 교육의 정체성 확립

이번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과정에서는 정규 교과와 하나로 가르쳐지는 도덕과 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새 교육과정을 구성하자는 데에 관계자들의 의견이 모였다. 곧 도덕과가 교과로서의 독자성과 차별성을 갖도록 내용과 방법을 구성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도덕과’답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도덕과 교육과정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그동안 도덕과 교육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로 논의되었던 정치사회화교육이나 통일교육의 문제 등을 도덕과 교육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깊이 있게 논의하여 방향을 설정하였다. 우리 도덕과 교육이 현실적인 생활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늘날 우리 삶의 중요한 한 측면을 이루는 국가윤리나 통일의 문제를 다루되, 어디까지나 도덕·윤리적인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도덕과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과 연속선상에서 인접 교과(사회, 가정 등)와 차별성을 갖는 도덕과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도덕과 교육은 민주시민교육 등 범교과적인 영역과도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 교육이, 여타 교과들과는 달리, 도덕적 덕목과 규범 및 가치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도덕적 사유와 실천을 연계하는 윤리학적 접근 방법을 방법론적인 축으로 명시하였다. 다시 말하여,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도덕과 교육은 어떤 정치적 이념을 전달하는 교과가 아니라, 도덕적 주체로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덕적 사고, 판단, 정서, 실천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길러주고자 하는 데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설문지 응답 결과(조난심 외, 2005)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현장 교사들이 합의하는 개정의 방향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여, 이번 개정을 통해 도덕과 교육이 본래의 모습을 좀 더 명료하게 갖추어줌으로써 다른 교과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물론 교과로서의 위상을 좀 더 확고하게 해 나가자는 것이다.

나.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도덕적 가치와 쟁점 강조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 도덕과의 내용을 정련화, 적정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도덕과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덕적 문제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각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와 쟁점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번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세계화와 윤리문제, 생명윤리, 정보윤리, 인권교육, 환경윤리 등을 강조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오늘날 세계화는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세계화 추세에서 발생하는 제반 윤리적 문제들을 학생들이 올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도덕과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연구(차우규 외, 2002)에 따르면, 최근 생명공학의 발달과 함께 제기되는 수많은 윤리적 문제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사회의 진전은 이제 도덕적 사고와 행동의 장(場)을 단지 실제 세계만이 아니라 사이버 세계에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 세계에서의 윤리적 기준과 행동 양식의 미정립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새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네티켓뿐만 아니라, 사이버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고와 태도를 기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점증하는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반영하고 인간 존엄성에 기반을 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의 내용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차우규 외, 2003). 특히,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적인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념, 가치 지향, 실천 성향 등 인권친화적인 가치관과 생활 태도를 기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 지구인 문제로 대두되는 환경의 문제를 윤리·도덕적인 시각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전한 판단 능력과 실천 성향을 길러줄 수 있도록 환경 윤리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지구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덕과의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 도덕적 탐구의 강화

새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도덕적 가치와 문제들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도덕적 탐구를 강조하였다. 여기서 도덕적 탐구란 도덕 문제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사고하고, 조사하고, 검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중등학교 단계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인식 능력과 공감 능력을 기르고 올바른 도덕적 판단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내용 진술에서 탐구 부분을 부각시켜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도덕적 탐구 능력을 기름으로써 학생들이 도덕적 가치를 자발적으로 내면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의 방향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였던 ‘행동 실천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서울대학교 도덕과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1997: 4)와는 다른 방향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

구하였던 인성교육의 강화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교과교육으로서의 도덕과 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는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 인성교육을 범교과 영역으로서 다양한 교과와 교육 영역을 통해 지도하도록 하거나 도덕과의 특별한 실천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게 하고, 교과의 내용에서는 그러한 요소나 활동들을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교사들의 반응에서도 잘 나타난다. 곧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도덕과에서 도덕적 사고와 판단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데에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2002년도의 조사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도 ‘앞으로 도덕 수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목표’로 ‘다양한 도덕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갖추는 일’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바 있다(차우규 외, 2002: 69, 78). 따라서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도덕적 탐구가 가능하도록 내용과 방법을 구성하였다.

라. 도덕과 교육의 학교급별 특성 부각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3~10학년 도덕과의 성격과 목표를 총괄적으로 제시하면서 학교급 간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제7차 교육과정의 구조는 교과 교육의 체계성 확립이라는 점에서는 이바지했지만, 학교급별 교육의 차이를 드러내는 데에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감안하여 학교급별 도덕과 교육의 목표를 차별화하여 제시하였다.

학교에서의 도덕과 교육은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 특성에 따라 학교급별, 학년별 중점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이 측면은 교육목표의 설정 및 내용 체계의 정립을 위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즉,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에 부합되는 도덕과 교육의 학교급별, 학년별 교육목표의 설정과 계열적인 면에서 도덕과 교육의 종적 내용체계 정립은 함께 얹혀 있다.

하지만, 제7차 도덕과 목표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 체제에 따라 10학년까지의 도덕과 교육 후 기대되는 성과를 중심으로 교과의 목표를 진술하였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학교급별 목표나 학년별 목표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유병열, 1998). 물론 학교급별, 학년별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대신에 학년별, 생활영역별 지도 내용 부분에서 성취 수준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그러한 성취 수준 아래 지도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또한, 제6차 도덕과 교육과정 하에서의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상세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교사들로 하여금 지도의 방향과 수준을 가늠하게 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점은 그 이전의 도덕과 목표 진술보다 독특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교과의 체계성이나 합리성 측면에서 흠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동안 도덕과의 교과 목표와 학교급별 목표 그리고 학년별 목표 사이에 단계별 특성화와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한 문제도 심각한 난점이 될 수 있다(김재복 외, 1996).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급별 목표를 설정하였다. 교사들의 의견 조사(조난심 외, 2005)에서도 도덕과의 성격과 목표 면에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사들의 지향이 다를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이러한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급별 도덕과 교육의 특성을 부각시킬 것이 요구된다. 곧 초등학교 교사는 중등학교 교사와 달리 도덕적 규범의 실천과 습관화를 강조하는 반면에, 고교 교사 중에는 10학년의 목표를 중학교와는 차별하여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급별 특성의 부각은 단지 목표 설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내용의 구성이나 교수·학습 방법의 제시에서도 요구되었다. 곧 초등학교는 기본적인 덕목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에, 중등학교에서는 도덕적 주제나 쟁점을 다루기를 원하고, 학생들에게 도덕적 탐구나 윤리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강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2. 국민공통기본 도덕과 교육과정의 영역별 개정 내용

가. 성격

(1) 한국적인 맥락에 근거한 보편윤리의 추구

학생들은 오늘날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도덕 문제를 논하면서 이러한 상황적 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도덕적 문제들이 이러한 한국적 상황과 연관시켜 다루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도덕과 교육에서는 또한 도덕의 본질과 세계화된 오늘날의 우리 삶의 조건을 고려하여 보편윤리를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초·중·고 교사들 모두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좀 더 강조해야 할 것으로 대다수(응답자의 61.6%)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보편윤리’라고 응답을 하고 있다(조난심 외, 2005).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 교육이 한국적인 맥락에 근거하되, 궁극적으로는 보편윤리를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2) 도덕과 교육의 핵심 내용으로서의 도덕적 덕목과 규범 재천명

도덕과 교육과정은 도덕과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구성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도덕과의 본질적인 영역인 도덕적 덕목과 규범이 다시금 내용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도덕”은 새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가장 강조되는 있는 인성 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시되고 있는 통일대비 교육과 국가안보 교육을 핵심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 핵심 교과이다.”라는 도덕과의 ‘핵심 영역’ 규정에 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도덕과에서는 다른 교과에 비해 인성교육, 통일교육, 국가안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분단 체제 하에 있는 한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덕과의 본질적이고 중핵적인 영역은 말 그대로 ‘도덕적 덕목과 규범’이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재천명함으로써 도덕과 교육의 본질 회복과 정체성을 강화하였다.

(3)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연관된 여러 학문의 접근 방법 활용

도덕과 교육의 성격을 드러내는데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접근 방법의 문제이다. 독립적인 교과는 다른 교과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내용과 방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도덕과 교육의 주된 방법으로서 윤리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진다(박병기, 2005). 이러한 당연한 사실의 재천명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도덕과 교육의 접근 방법으로서 “도덕은 바람직한 삶을 위한 도덕규범과 가치문제를 다루는 규범 과학적 관점과, 사회 질서 유지 및 국가·민족의 발전을 위한 국민의식 형성 문제를 탐구하는 사회과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학제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라고 함으로써 인접 교과와의 정체성 혼란을 가져오게 된 점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이는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 공동체에서 논의된 사항이면서, 또한 현장 교사들의 합의된 의견이기도 하다. 초·중·고교 현장교사들의 다수(응답자의 69.9%)가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좀 더 강조해야 할 사항으로 ‘윤리학적 접근’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조난심 외, 2005). 따라서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축으로 하되, 일반 철학, 교육학, 사회과학의 학문적 성과 등 관련 학문의 다양한 접근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나. 목표

(1) 도덕적 문제에 대한 반성적 성찰 강조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개정의 방향으로서 인성교육의 강화를 표방하면서 도덕성의 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이는 유덕한 인격체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균형 있고 통합적으로 다루려는 시도로서 도덕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향과 일관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 설정이 도덕과 교육과 범교과적인 인성교육과의 구분을 흐려놓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 도덕과의 중등학교 교육에서는 일차적으로 도덕적 문제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강조하는 인지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강조는 특히, 중등학교 단계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앞

의 ‘성격’에 관한 논의에서 보았듯이 교사나 학생, 학부모 모두 도덕과 교육을 통해 도덕적 판단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에서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목표가 진술되었다.

(2) 학교급별 목표의 위계성 부각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급별 도덕과 교육의 특성화와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학교급별로 목표를 진술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기본적인 덕목과 규범의 내면화를 중심으로 하는 도덕적 실천 성향의 함양은 다음 단계의 자율적 도덕성의 함양에 핵심적인 기초가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학교급별 도덕과 교육 목표를 차별화하여 진술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개선한 것은 제7차 교육과정의 목표에서 “도덕과 교육을 통해서 길러야 할 성향이나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교사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성한 것이다.

다. 내용

(1) 가치 관계 확장을 중심으로 한 내용 영역 설정

도덕과 교육과정 논의에서 내용 영역의 설정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쟁점 중의 하나였다(차우규 외, 2002, 조난심, 2004).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 조직은 도덕과가 정규 교과로 자리 잡은 제3차 교육과정 이래로 ‘생활 영역’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곧 개인 생활, 사회 생활 등 도덕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場)이 점차 공간적으로 확대되는 틀을 중심으로 대 영역을 설정하고, 영역별로 해당하는 가치와 규범들을 다루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 같은 생활 영역에 의한 도덕과 교육 내용의 조직 체계는 지속적으로 도덕적 ‘주제’ 중심의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도전을 받아왔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틀은 유지되었다.

도덕과 교육 내용을 조직함에 있어서 이러한 틀이 생겨나고 유지된 데에는 유교적인 관점이 작용해왔다고 본다. 곧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한 구절에 압축적으로 표현된 도덕적 도야(陶冶)의 전개 방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자기 몸을 닦는다는 수신(修身)이 기본이 되어 국가 윤리에까지 확대되어 가는 전개 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과 교육과정의 생활영역 확대의 원리는 학생의 생활 반경의 확대라는 사회생활과(Social Studies)의 구성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다. 이러한 해석이 부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도덕과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유교 윤리에서의 인격 도야의 순서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영역별 내용 조직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다.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주제 중심 접근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생활 영역 확대법은 실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성인의 가공 논리에서 나온 것이며 생활 영역 확대에 따라 학습하는

아동들은 상위 및 하위 수준의 다른 공동체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전통적으로 고수해 온 생활 영역 확대 방식의 한계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하고 대안적인 교육과정 편성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외에도 생활 영역별 내용 조직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첫째, 내용의 중복 문제를 들 수 있다. 매 학년 생활 영역별 내용 구성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내용이 중복해서 제시되고, 이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도덕과 학습에 흥미를 잃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 사회에서 쟁점으로 등장하는 도덕적 문제들을 교육 내용에 포함해 다루기에 적절한 틀이 못된다. 따라서 생활 영역별 내용 조직은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내용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도덕과 교육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중요한 도덕적인 주제들에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문제들이 동시에 개입되어 있다. 그러나 생활 영역별 접근을 하게 되면 도덕적 쟁점에 대해 이러한 다면적인 접근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생활 영역별 접근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도덕과 교육과정 연구 공동체에서는 대안적인 내용 조직 방식을 논의하였다. 곧 기존의 생활공간 확대가 갖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덕적 주체인 ‘나’를 중심으로 가치관계가 확장되는 내용의 틀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내용 영역 설정의 틀: 도덕적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 관계의 확장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도덕적 주체인 ‘나’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치 관계를 포섭하는 4개의 내용 영역을 설정하였다. 도덕적 주체인 ‘나’를 중심으로 점차 확장되고, 고양되는 가치 관계를 포섭하는 4개 내용 영역의 명칭과 영역별 내용 구성의 방향은 다음 표와 같다.

[도덕과 내용 영역의 명칭과 구성 방향]

영역의 명칭	영역별 내용 구성의 방향
I.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도덕적 가치의 주체적 기반으로서 도덕적 자아가 확립되는 영역
II.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도덕적 자아와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에서 간인격적(間人格的, inter-personal) 가치가 추구되는 영역
III.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도덕적 자아와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역사적, 사회적 정의의 가치가 추구되는 영역
IV. 자연·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	도덕적 자아와 자연·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에서 도덕적 가치의 고양ی 추구되는 영역

- 영역Ⅰ은 도덕과 교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율적 인격을 가진 도덕적 주체의 형성이라고 보고, 이를 위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영역을 설정하였다. 곧 도덕적 주체인 ‘나’를 중심으로 도덕의 개념, 삶의 목적, 도덕적 자율성 등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개인의 도덕적 성장의 출발점이자 기반이 되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영역Ⅱ는 도덕적 주체와 가깝고 먼 타인, ‘우리’라는 가까운 공동체, 그리고 시민사회의 제반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도덕적 문제들과 거기서 실현되는 도덕적 가치를 다루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가까운 인간관계의 문제와 사회 전반의 보편적인 인간관계의 문제를 연장선상에서 검토해볼 수 있도록 영역을 설정하였다. 이는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가정·이웃·학교생활’ 영역과 ‘사회생활’ 영역을 통합하여 구성함으로써 두 영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 영역Ⅲ은 국가·민족·지구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도덕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설정된 것이다. 도덕적 가치로서 역사적,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맥락을 도덕적 주체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국가·민족·지구공동체를 위한 바람직한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 영역은 도덕적 주체와의 ‘관계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보면 영역Ⅱ와 중첩될 수도 있으나 우리 사회의 독특한 상황을 감안하여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남북분단과 통일의 문제, 세계화와 국가, 민족의 정체성 문제 등 현실적인 요구와 도덕과 교육의 변천 및 역사적 편린을 고려하여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국가·민족의 문제를 한반도라는 제한된 시공간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된 사회의 지구공동체라는 좀 더 넓은 맥락에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에서 다룰 수 있도록 도덕과 내용의 범위를 확장하도록 하였다.
- 영역Ⅳ는 도덕적 주체와 자연 및 초월적 존재와의 가치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설정된 영역이다.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자연·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라는 영역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도덕과 교육에서 인간관계적 도덕의 한계를 넘어 자연·종교 등과 같은 가치 차원의 주제들도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도덕과 교육 내용의 심화와 주제의 확장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영역 간의 연계와 중첩

이렇게 설정된 영역들은 서로 구분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영역의 구분은 느슨하고, 중첩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영역 간의 구분은 필요하면 넘나들 수 있다. 그리고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영역 간 내용의 비중이나 분량을 획일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도덕과 교육 내용 구성의 방향

학교급별 내용 요소 선정의 중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많이 논의되는 쟁점 중의 하나는 바로 도덕과의 내용을 ‘덕목’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도덕적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는 ‘덕목 중심’의 구성, 중등학교는 ‘주제 중심’의 구성이라는 큰 방향을 설정하고, 학교급별/학년별 내용을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교육 내용의 적정화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의 내용 요소의 수를 적정화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3~6학년 모두 10개의 지도요소를 설정하였는데,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4학년에서는 지도 요소를 8개씩 설정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3~4학년의 도덕과 수업에 좀 더 도덕성의 내면화를 기할 수 있도록 여유 있는 수업 시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였다.

(3) 성취기준형 내용 진술

2007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성취기준형(achievement standards) 진술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사실, 성취기준형 내용 진술은 이번 개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에서 이미 시도되었던 진술의 형태였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했고, 특히, 도덕적 탐구의 방식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가능하면 요소별로 성취기준형으로 진술하여 교육과정 내용이 교사와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에 실질적인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공통기본 교과인 도덕과의 국가 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자는 물론이고 학교의 교사, 학부모, 도덕교육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진술되어야 한다. 곧 내용의 구체성과 명료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진술되어야 한다. 특히, 중등학교는 도덕과 교과서가 검정화됨으로써 교과서 집필자들에게 교육과정이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덕과를 지도하는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진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덕과의 내용은 단순히 도덕적 규범이나 지식의 제시에 머무르지 않는다. 도덕과에서 추구하는 내용은 도덕적 규범이나 지식이 학생들의 도덕적 인식, 사고, 상상력, 정서, 의사소통, 실천능력 등으로 내면화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에서는 이러한 도덕적 능력(ability)이나 기술(skills)들도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진술되어야 한다. 이는 교육과정의 내용 진술이 단순히 내용 항목의 나열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인 학습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

되고 학생들의 행동으로 나타날 것(learning outcome)인지를 명료화하는 작업임을 뜻한다.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는 것은 내용을 상세화하거나 많은 내용을 제시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도덕과의 성취기준형 내용은 최소기준의 성격을 갖는다. 도덕과 교육과정의 주제들은 각 학년에서 학습해야 할 최소 필수요소(minimum essentials)이다. 이는 학교나 교사에 따라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그것을 초과하여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는 것은 많은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필수 요소들의 구체적인 의미를 서술한다는 것이다.

라. 교수·학습 방법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제7차 교육과정과 큰 변화 없이 제시하였다. 곧 도덕과 수업에서는 인지, 정의, 행동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학년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시사자료 등을 알맞게 활용하되 편향되지 않는 객관적 입장에서 자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사들이 도덕적 모범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교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도덕교육적 활동과 도덕과 수업을 관련시켜 지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효과적인 도덕과 수업을 위해 학교에 예절실이나 교과 교실 설치를 제안하였다.

마. 평가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 교육 평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선, 학교급이나 학년에 따라 구체화한 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도덕과 평가의 상호주관성을 확보하고자 도덕과의 평가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성취기준형으로 진술된 도덕과의 교육 내용 자체가 평가를 위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덕과 평가가 단지 학생의 학업 성취 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도덕과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 자체에 대한 평가도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명시하여 학교에서 실제로 교육과정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학년도의 도덕과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도덕과 수업 장학 자료로 활용하도록 제안하였다.

IV. 도덕과 교육과정 해설

1. 성격

도덕과의 성격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도덕과는 지금까지 다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되는 학문 분야와 전공에 따라 도덕과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개인적 신념이나 종교, 가치관이나 교육관 등에 따라서도 도덕과의 성격에 대해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마련하면서도 도덕과 교육과 관련된 여러 단체와 학자 및 교사들 사이에 도덕과의 성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 수준에서의 도덕과 교육과정을 제시하면서 그 성격을 다양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안에서 도덕과의 성격에 대해 도덕과 교육과 관련된 여러 단체와 학자 및 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모아, 그 합의점을 도출하려 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수렴하여 구성한 2007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는 도덕과의 의의와 목적, 도덕과의 필요성과 과제, 도덕과의 내용적 특성과 방법적 특성, 도덕과의 범위 및 계열 등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 도덕과의 의의와 목적

도덕 교과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고,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와 관련된 도덕 문제를 주체적으로 성찰하고 실천하도록 하여 자신의 삶을 바람직하게 영위하도록 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와 세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도덕규범과 예절을 실천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둔다.

도덕과는 학생들에게 인간의 일상적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도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우리는 일상적 삶에서 수많은 도덕적 판단과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침에 등교할 때 차가 거의 없는 횡단보도의 교통 신호를 준수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식사 때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덕적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된다. 물론 우리의 모든 행동이 도덕적 선택과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행동에는 도덕적 선택과 판단이 작용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도덕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의 능력이 필요하다. 첫째

는 기존하는 사회의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며, 두 번째는 도덕 문제를 주체적으로 성찰하고 도덕적 판단을 내려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회를 형성하여 다른 사람과 상호의존하며 삶을 영위하게 된다.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도덕규범과 예절이다. 도덕규범과 예절은 다른 사람과의 협력과 상호의존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도덕과는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원만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고 실천하도록 하는데 진력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일상적 삶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가 기존의 도덕규범과 예절을 통해서 모두 해결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기존의 도덕규범과 예절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도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도덕규범과 예절에 순응하여 사는 삶이 반드시 도덕적인 삶이 되리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기존의 도덕규범과 예절의 도덕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영위하려면 새롭게 발생하는 도덕 문제나 기존의 도덕규범과 예절에 대해 반성적 사고를 해 보아야 한다. 달리 말하여, 우리가 도덕적 인간이 되려면 기존의 도덕규범과 예절을 습득하는 것과 아울러, 도덕 문제를 주체적으로 사고하여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또한 필요하다.

그러므로 도덕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고, 개인과 사회의 도덕 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성찰하고 실천하도록 하여, 바람직한 개인적 삶을 영위하는 것과 아울러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발전,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덕 교육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는 도덕사회화의 관점이다. 즉 도덕 교육은 사회의 기존하는 도덕규범이나 예절, 그 사회의 이상(理想)에 일치하도록 개인을 도덕적으로 사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는 도덕발달론의 관점이다. 즉 도덕 교육은 개인이 가진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 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각 개인이 자율적인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덕과는 도덕 교육의 두 방향 모두를 지향하여 도덕적 인간을 양성하려 한다. 즉 도덕과는 학생들이 성숙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과 아울러, 개인과 사회의 도덕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사고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자율적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한편, 도덕과의 목적은 학생들의 발달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급별로 그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초등학교 도덕과는 도덕적 덕목의 내면화가 강조될 수 있으며, 중학교 도덕과는 도덕적 사고력의 함양이 강조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급별로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도덕과는 도덕 사회화의 관점과 아울러 도덕 발달론의 관점 양자 모두를 그 교육 방향으로 삼는다. 즉 초·중학교 도덕과는 도덕규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과 아울러, 현대 사회의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한 도덕적 사고

력과 판단력 및 실천 의지를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도덕과의 필요성과 중심 과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질적 발전과 급속한 사회 변화에 상응하는 도덕적·정신적 발전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 사회의 급격한 다원화와 정보화 추세에 따라 이념갈등·가치갈등·세대갈등 등의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개인들의 가치관 혼란 및 사회 분열 양상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도덕과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인의 가치관 확립과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도덕적 가치 기반의 공고화를 그 중심 과제로 삼는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에 급속한 산업화를 통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정보화를 진행하여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사회가 되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보화는 우리 사회를 크게 변모시키며, 우리의 물질적 생활을 비교적 풍요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물질적 발전에 상응하는 도덕적·정신적 발전이 지체되어, 물질만능주의, 비인간화와 인간 소외 현상 등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다원화, 정보화되는 사회 추세에 상응하는 가치관을 발전시키지 못하여, 이념 갈등, 가치 갈등, 세대 갈등, 민족 갈등 등이 사회의 도처에서 노정되고 있다. 그리하여 개인은 다양한 가치관의 혼재 속에 혼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 속에 분열 양상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덕과는 개인의 가치관 통합과 사회의 공통적인 도덕적 가치 기반의 공고화에 기여해야 한다. 우선 개인의 가치관 통합과 관련하여 도덕과는 학생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는 다양한 규범과 지식, 가치·태도 등을 통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은 학교의 여러 교과 학습을 통해 다양한 규범과 지식, 가치·태도를 습득한다. 또한 학생은 가정과 사회생활을 통해서도 다양한 규범과 지식, 가치·태도를 접하게 된다.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는 상이한 규범과 지식, 가치·태도 등은 학생들로 하여금 가치관의 혼란과 일관되지 못한 행위 양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도덕과는 학생들이 접하게 되는 다양한 가치관을 개인의 내면에서 통합하여 가치관 혼란을 극복하고 일관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과가 학생들에게 하나의 특정한 가치관을 획일적으로 전수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학생 자신의 가치관을 전적으로 학생 자신이 형성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주관주의나 상대주의, 그리고 유아론(唯我論)적인 입장에 매몰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덕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한편, 그것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상호 주관적인 합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는 학생으로 하여금 통합된 가치관을 형성하여 일관되게 바람직한 일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다원화됨에 따라 사회 공통의 도덕적 가치 기반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본질적으로 철학적, 종교적, 이념적, 도덕적 등의 측면에서 다원적이다. 다원적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존재한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극심한 갈등과 분열은 때에 따라서 사회를 점점 원자화, 파편화하여 결국 해체의 길로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도덕과는 사회의 분열과 해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 공통의 도덕적 가치 기반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도덕과는 우선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성이나 유대감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도덕과는 이미 존재하는 합의된 가치와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는 가치를 공고히 하여 사회 공통의 도덕적 가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한 집단이나 계층의 도덕적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포괄적인 종교, 철학 및 정치적 신념을 지니고 있건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도덕적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공통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사회는 다원화된 가운데에서도 통합을 유지하며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도덕과의 내용적 특성

이를 위해 도덕과는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덕 문제 즉,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와 관련된 도덕 문제,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 등을 직접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룬다.

도덕과는 학생들의 도덕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간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도덕 문제를 다룬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덕 문제를 ‘생활영역 확대에 따른 통합’의 기준을 적용하여 4개의 생활 영역에서 추출하였다. 그러나 생활영역 확대에 따른 통합의 기준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실제 학생들의 도덕적 생활과의 연결 가능성이 미약하다는 점이었다. 그리하여 개정안은 인간의 도덕적 삶에서 불가피하게 전개되어 나아가는 도덕적 가치 공간을 토대로 다양한 도덕 문제를 다루었다. 즉 도덕적 가치 공간을 나와 도덕적 주체인 자기 자신과의 관계, 나와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나와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나와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로 분류하여 이 관계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도덕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우선 도덕적 주체로서 나와 관련된 도덕 문제에서는 주로 자신의 도덕적 가치 판단 기준 형성, 자신의 삶에서 일과 배움의 의미, 자아 정체성과 삶의 목적 등에 대한 탐구를 통해 자기 자

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신에 대한 긍지를 지닌 인간의 양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두 번째로 나와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에서는 주로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예절과 도덕, 청소년기의 주요 도덕 문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등에 대한 탐구를 통해 타자와의 관계에서 친절하고 정중한 인간, 공정성과 약자를 배려하는 인간의 양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세 번째로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에서는 주로 올바른 도덕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바람직한 국가·민족·지구공동체의 모습,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 등을 탐구하여 국가·민족·지구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간의 양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에서는 주로 환경·문화·종교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 등을 탐구하여 자연 및 초월적 존재와 교감하는 인간의 양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한편, 도덕과의 내용은 사실과 지식보다는 규범과 가치 판단의 관점에서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인접 교과와 차별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일과 배움에 관해서는 기술·가정 과목에서도 다루고 있으나, 도덕과에서는 일과 배움이 우리의 도덕적 삶에 어떤 의미와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교수·학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인권이나 국가·민족에 관해서는 사회과 과목에서도 다루고 있으나, 도덕과에서는 인권이나 국가·민족과 관련된 사실적 지식보다는 그것들이 우리의 도덕적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의 도덕적 삶을 위해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지를 가치 평가적 측면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환경에 관해서는 사회과나 과학과 과목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환경과 관련된 과학적 혹은 사회 정책적 지식보다는 환경이 인간의 도덕적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도덕과는 규범적 및 가치 평가적 측면에서 그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 도덕과의 방법적 특성

이와 같은 도덕 문제는 인간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도덕과에서는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되, 연관된 여러 학문의 접근 방법을 활용한다. 또한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의 향상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적 실천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도덕과 수업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등 다양한 학교 활동들과 연계 지도한다. 따라서 도덕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한 성찰과 탐구를 통해 바람직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각자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덕적 판단과 선택은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늘 발생한다. 또한, 도덕 문제는 정치·경제적 활동, 문화·예술적 활동, 종교적 활동, 가정 활동, 학교 및 직장 활동 등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발생한다. 따라서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덕규범과 가치문제를 핵심으로 다루는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학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 인간의 삶과 관련된 도덕규범과 가치문제를 다루는 학문이 윤리학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치학,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등과 같은 사회과학도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도덕규범과 가치문제를 다룬다. 그런데 사회과학과 윤리학은 도덕규범과 가치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즉 사회과학에서는 특정한 집단 혹은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도덕규범과 가치는 무엇이며, 왜 그것이 특정한 집단이나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지 혹은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후속 세대에 전달할 것인지 등 사실적인 문제를 탐구한다. 반면에, 윤리학에서는 특정한 집단이나 사회에서 통용되는 도덕규범과 가치가 정말 도덕적으로 정당한 근거를 갖는 것인지 혹은 특정 집단 혹은 사회에서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도덕규범과 가치는 무엇인지, 즉 당위의 문제를 탐구한다. 달리 말하여 사회과학에서는 특정한 집단이나 사회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사실과 그 사실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 하는 반면에,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사실들에 대한 가치 판단과 도덕규범과 가치에 대한 정당화를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리학적 탐구뿐만 아니라, 도덕규범과 가치에 대한 사회과학적 탐구 성과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부딪히는 도덕 문제는 통용되는 도덕규범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으며, 기존의 도덕규범과 가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즉 도덕규범과 가치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윤리학적 탐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덕과는 당위의 문제를 다루는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되, 연관된 여러 학문의 접근 방법과 탐구 성과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도덕과 교육이 윤리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 성과를 활용함으로써 더욱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덕과 내용 구성과 조직에서는 윤리학, 철학, 사회과학 등의 참여가 불가피한 것이지만, 도덕과 교육의 실천에서는 교육학, 심리학의 도움도 받아야 할 것이다.

한편, 도덕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도덕적 행위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 방식에 초점을 둔다. 도덕과에 대한 사회과학적 탐구든 혹은 윤리학적 탐구든 간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적 행위를 실천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도덕적 추론 능력이나 도덕적 근거 제시 능력 혹은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은 도덕적 실천과 결부될 때,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도덕과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도덕적 행위의 실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려면 예를 들어, 도덕과 교육은 도덕과 수업을 중심으로 하되, 인성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학교 활동이나 가정교육과 연계하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도덕과 교육은 학생들의 발달 상황을 고려하여 접근 방법의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기본적인 규범의 내면화를 지향하여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도덕과는 학생들의 일상생활과의 연계지도를 통해 배운 규범들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도덕과의 계열

3~10학년의 ‘도덕’은 초등학교의 통합 교과인 1~2학년의 ‘바른생활’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심화하여 지도하고,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 11~12학년의 ‘현대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를 학습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한다. 즉, 초등학교 3~6학년 ‘도덕’에서는 1~2학년의 ‘바른생활’에서 이루어진 기본생활습관을 내면화하고 도덕규범의 이해 및 기본적인 도덕적 판단력의 육성과 도덕적 실천 능력의 형성에 강조점을 둔다. 그리고 중등학교 7~10학년 ‘도덕’에서는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을 좀 더 심화하여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도덕 원리에 입각한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의 육성 및 자율적 도덕성의 형성에 강조점을 둔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 교육 내용의 계열(sequence)을 학교급별 차원, 교육과정 성격별(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차원에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도 ‘도덕’과와 초등학교 1, 2학년 통합교과인 ‘바른생활’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3~10학년 도덕과 내용은 ‘바른생활’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심화하여 지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 ‘도덕’에서는 1~2학년의 ‘바른생활’에서 이루어진 기본생활습관을 내면화하고 도덕규범의 이해 및 기본적인 도덕적 판단력의 육성과 도덕적 실천 능력의 형성에 강조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 도덕에서는 기본생활습관의 내면화, 도덕규범의 이해 및 기본적인 도덕적 판단력의 육성, 도덕적 실천 능력의 형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행동적 측면이 크게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도덕은 초등학교 도덕과 고등학교 도덕 및 도덕 선택과목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한다. 초등학교 도덕과에서는 도덕 사회화의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기본생활습관의 내면화, 도덕규범의 이해, 기본적인 도덕적 판단력 및 실천 능력의 육성에 강조점을 둔다. 한편, 고등학교 도덕과에서는 도덕 발달론의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반성적 사고력을 함양하여 자율적 도덕성을 형성하는 데 강조점을 둔다. 중학교 도덕과는 초등학교에서 습득한 도덕 가치·규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도덕 원리에 입각한 도덕적 사고력 및 판단력을 육성하여 고등학교에서의 자율적 도덕성 형성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강조점이 있다.

2. 목 표

도덕과의 목표는 학교 도덕과 교육을 통해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자 하는지 그 궁극적인 지향점을 밝혀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동시에 이러한 목표는 도덕과 교육의 본질과 특성을 나타내

주는 한편, 이 교과와 내용과 방법, 평가 및 기타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까지 방향을 지워주고 준거가 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7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을 추구하였다. 먼저, 도덕성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을 중시하는 한편, 학습자 중심의 행동 목표이면서 성취기준형 방식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음, 초등은 물론 중등 단계에서부터는 도덕적 탐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 말하자면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에서 기본적으로 추구되지만 특히 중등 이상의 단계에서는 도덕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성적 성찰과 도덕 판단력의 증진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나아가, 기존 교육과정과 달리 학교급별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지적·도덕적 발달 수준과 경험 범위를 고려하여 그에 걸맞은 도덕과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이번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등학교별로 각각의 목표를 차별화, 특성화시키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계열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방향에서 설정된 이번 도덕과 교육과정상의 목표는 ‘교과 목표’와 ‘학교급별 목표’의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가. 교과 목표

교과 목표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과목으로서 초등 3학년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도덕’ 교과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총괄 목표를 말하는 것이다. 도덕과 교육과정상에 나타난 이러한 교과 목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신과 타인·사회, 국가·민족 및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며, 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도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실천 동기 및 능력을 함양하여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한다.

- (1) 도덕적 주체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 (2) 자신과 가정, 학교, 사회생활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 (3) 자신과 국가·민족 공동체 그리고 지구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통일 및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 (4) 자신과 자연 및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이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우선, 위 교과 목표를 전체적으로 보면, 자신과 타인·사회, 국가·민족 및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며, 여러 가지 도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도덕적 사고·판단력과 바른 삶을 추구하는 도덕적 심성을 기르는 한편, 이를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육성하고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교과 목표는 도덕과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도덕성 또는 인격의 세 측면과 길러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우리는 도덕성 내지 인격이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측면의 통합으로 이루어지고, 각 측면에 따라 길러져야 할 도덕교육적 요소들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위 교과 목표에서 가르치고 길러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위 교과 목표를 보면 인지적 측면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로서는 자신과 타인·사회, 국가·민족 및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도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의 함양 등을 설정하고 있다.

정의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실천 동기의 함양을 명시하고 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영역별 목표와 학교급별 목표 및 성취기준형으로 제시된 학년별 내용 부분 등을 보면, 도덕적 민감성과 열정성 등 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실현하고자 의욕하는 도덕적 감정·정서와 의지 및 태도 그리고 그 외 공감 등 여러 가지 정의적 요소들에 대한 학습을 또한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행동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실천 능력의 함양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의 실천 능력이라 함은 도덕과 교육을 통해 배워 알게 된 도덕적 지식 및 가치 규범과 관련한 실천을 포함하는 것이다. 동시에 도덕적 실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위기능과 능력을 기르는 일은 물론, 생활 속에서의 지속적인 반복 실천을 통해 올바른 도덕적 습관을 형성해 가는 일 또한 그 속에 담고 있다.

끝으로, 위 교과 목표는 도덕과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 즉 종국적 목표로서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율적이라 함은 타율적 도덕성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옳고 바른 일을 합리적인 판단과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스스로 실천해 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통합적이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정·행 측면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을 고르고 조화롭게 갖추면서 성숙시켜 가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인격이라 함은 이러한 도덕과 학습의 과정에서의 노력과 수련을 통해 바람직한 도덕적 자질과 품성, 덕성 등을 형성하여 지니게 된 사람으로서의 됨됨이를 말한다. 도덕과 교육은 바로 이러한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유덕한 인격을 기르고자 하는 것을 그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위의 교과 목표 아래에 영역별 목표를 또한 제시하고 있다. 영역별 목표란 도덕과 교육과정에 설정한 4대 영역, 즉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나라·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영역에 따라 성취하고 도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관해 제시한 것을 말한다고 하겠다. 도덕과 교육과정상에 제시된 영역별 목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위 목표를 보면, 우선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영역에서는 자신을 도덕적 존재로 바로 세우는 일과 관련한 모종의 능력과 자질을 기르고자 하고 있다. 말하자면,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도덕적으로 영위해 갈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영역에서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적 삶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몸담은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세를 기르고자 하고 있다. 즉, 자신과 가정·학교·사회 공동체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바람직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기르려고 하는 것이다.

한편, 나라·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에서는 더욱 확대된 국가 및 세계 공동체에서의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는 도덕적 자질을 기르고자 하고 있다. 즉, 자신이 국가·민족 공동체 및 세계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발전과 민족 통일 및 세계 인류 공동체의 번영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려고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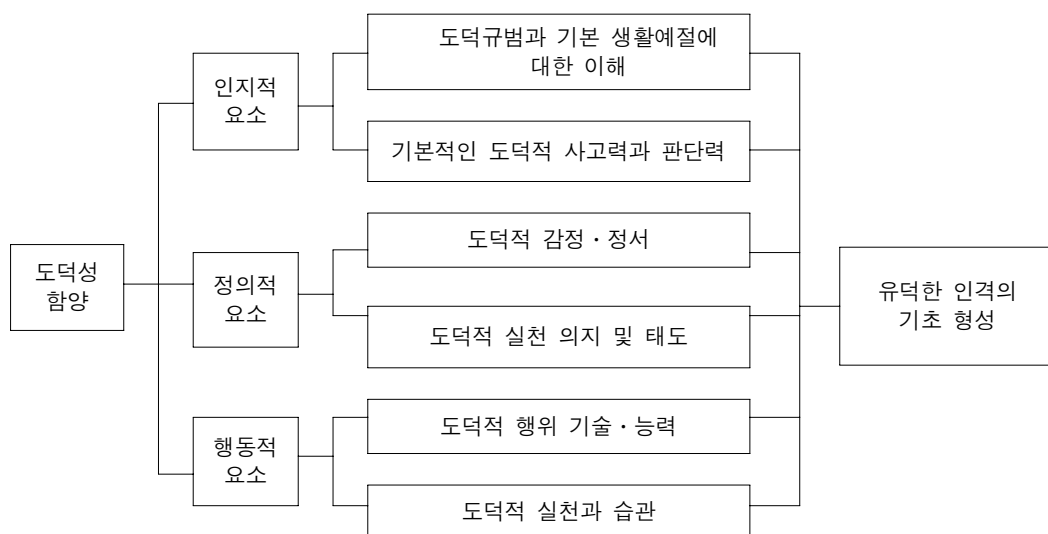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영역에서는 인격적 타자와의 관계 범위 너머에 있는 존재 즉 자연이나 초월적 존재와 관련하여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기르고자 하고 있다. 말하자면, 자신이 자연이나 숭고하고 성스러운 존재 또는 초월적 존재 등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자 하는 것이다.

나. 초등학교 목표

도덕과 교육과정에는 이상 살펴본 교과 목표와 영역별 목표 외에 학교급별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 학교급별 목표란 초·중·고등학교 단계별로 도덕과 교육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교육과정상에 설정된 초등학교 도덕과 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기본 생활 예절을 습득하고 기본적인 도덕적 판단력과 실천 능력을 함양하여,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위 목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치규범과 예절을 배우고 기본적인 도덕적 사고·판단력을 기르며, 바른 삶을 추구하려는 의지와 태도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해 감으로써,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조화롭고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덕적 자질과 품성을 기르고자 한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러한 초등 도덕과의 목표를 구조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초등 도덕과의 목표를 좀 더 분석적으로 보기로 한다. 우선, 교과 목표와 마찬가지로 초등 도덕과의 목표도 성취기준형 방식으로 진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목표를 형식 면에서 지식+행동의 방식으로 진술해 나타냄으로써 성취기준형 제시 방식을 취하는 한편, 이를 통해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고 형성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고 그것들이 어떤 범위와 깊이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성취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 도덕성이나 인격을 구성하는 제 측면에 따라 배우고 익혀야 할 도덕적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덕과 교육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의 기초를 놓고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우선 인지적 측면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기본 생활 예절을 배우고 익히는 일 그리고 기본적인 도덕적 판단력을 기르는 일을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도덕적 앎 즉 지식·이해와 관련해서는 도덕규범과 생활 예절로, 그리고 바르게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의 육성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도덕적 판단력으로 함축해서 나타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때 여기서 ‘기본적’이라 함은 중등 이상의

도덕과에서부터 추구되는 본격적인 도덕 판단력 육성의 기초가 되는 수준의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르고자 함을 의미한다.

한편, 위 초등 도덕과 목표에서는 정의적 측면과 관련하여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태도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적 요소들이 이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위 목표 상에 나타나 있는 ‘실천 능력’을 지니려면 그에 필요한 심정적 요소들을 길러야 하는바 따라서 실천 동기와 의지를 기르는 일 또한 위 목표에서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앞의 교과 목표에서 본 바와 같이 선과 옳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실현하려는 도덕적 감정·정서와 열정·의지 및 그 외에 공감과 연민 등 여러 가지 정의적 요소들에 대한 학습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 목표에서 행동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실천 능력의 함양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실천 능력은, 앞의 교과 목표 부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길러져야 할 중요한 최소한의 몇 가지를 내포하는 것이다. 즉,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기본 생활예절을 실천하는 것, 도덕적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위기능과 능력을 익히고 실천하면서 습관을 형성해 가는 것,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등이 그 예가 된다.

결국,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정리해 보면, 초등 도덕과 목표에서는 도덕성의 세 측면에 따라 중요한 도덕적 요소들의 함양을 추구하는 가운데 유덕한 인격인으로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즉, 초등 도덕과에서는 도덕규범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내면화,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의 육성, 실천 의지와 건전한 삶의 태도 등의 도덕적 심정의 형성, 그리고 도덕적 행위 기능과 실천 능력의 육성 등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학습은 궁극적으로 도덕과 교육을 통해 필요한 지적·도덕적 덕들을 길러 유덕한 인격인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이번 도덕과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즉, 이번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개정의 기본 방향과 중점 중의 하나로서 도덕과 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도덕적 덕목과 규범을 재천명하고 있고, 교과의 목표를 궁극적으로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의 형성에 두는 한편, 초등 도덕과의 내용 구성에서 주요 가치·덕목들을 설정하고 이를 기르고자 노력하고 있다. 초등 도덕과의 목표는 바로 이러한 정신들을 충실히 구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초등 도덕과의 목표는 그 이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도덕과의 목표와 차별화되면서도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초등학교의 도덕과 목표는 초등 1·2학년 시기의 바른생활과 교육을 더욱 심화시키는 가운데, 유덕한 인격을 기르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는바, 이후 중등 도덕과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 심화·발전된 도덕과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도덕과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의 습득과 기본적인 도덕 판단력 및 실천 능력의 함양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의 육성을 지향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학

교 단계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덕규범에 대한 더 심화된 이해와 좀더 높은 수준의 가치 판단 능력 및 실천 성향의 함양 그리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도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윤리학의 기초에 대한 학습과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반성적 사고력의 함양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도덕적 판단력과 실천 능력의 육성을 추구하고 있다.

3. 내 용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과 관련하여 이전과 달리 중요하게 변화된 점 중의 하나는 내용체계 구성에서 영역 설정을 달리하고자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동안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생활영역확대법에 의해 개인 생활, 가정·이웃·학교 생활, 사회 생활, 국가·민족 생활이라는 4개영역을 설정하고 내용 구성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치관계 확대법에 따라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영역,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영역, 나라·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영역, 그리고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영역이라는 4개 영역을 설정하고 교육내용의 체계화를 도모하게 된 것이다.

또한,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학교 도덕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주요 가치·덕목들을 설정하고 이를 기르는 데 관련되는 지도내용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전의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총 20개의 주요 가치·덕목들을 설정했던 데 비해, 이번에는 좀더 정련하여 총 18개의 주요 가치·덕목들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주요 지도요소들 및 학년별 내용요소들을 선정하여 교육에 임하도록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내용의 적정화와 정련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즉, 가르칠 내용의 양을 적절히 하는 한편 더 양질의 적실성 있는 내용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주요 지도요소들의 수를 줄이고 내용의 양을 적절히 함으로써 가르칠 내용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선행 연구들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조사 그리고 교육과정 연구공동체를 통한 논의 등을 거쳐 적절한 교육내용들을 선정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나아가, 교육과정상 내용 제시에서 이전에 비해 더욱 발전한 모습의 성취기준형(achievement standards) 방식을 취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성취기준형 내용 진술이란 도덕과 교육을 통해 추구해야 할 도덕적 능력과 성향상의 여러 요소들을 성취기준형 방식으로 제시하여 교육과정상 교육 내용이 교사와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에 실질적인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은 교육과정상의 지도내용이 구체적인 학습의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적용되며, 학생들의 어떠한 능력과 성향과 행동 등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제시해주는 장점이 있다 하겠다.

가. 내용 체계

[초등학교 도덕과 내용 체계표]

주요 가치·덕목	내용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영역					
정직 자주 성실 절제 책임 용기 효도 예절 협동 민주적 대화 준법 정의 배려 애국·애족 평화·통일 생명존중 자연애 사랑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 도덕 공부는 이렇게 해요 · 소중한 나의 삶	· 정직한 삶 ·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삶	· 최선을 다하는 생활 · 감정의 올바른 관리 · 반성하는 삶	· 자긍심과 자기계발 ·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감 · 용기 있는 행동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 가족 사랑과 예절 ·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 · 친구 간 우정과 예절	· 약속을 지키는 삶 · 공중도덕 · 인터넷 예절	· 이웃 간의 도리와 예절 · 서로 돕는 생활 · 대화와 갈등해결 · 게임중독의 예방	· 준법과 규칙 준수 · 공정한 행동 ·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삶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 나라의 상징과 나라 사랑 · 분단의 배경과 민족의 아픔	· 우리나라·민족에 대한 긍지 ·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의 통일노력	· 북한 동포 및 새터민의 삶 이해 ·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	· 편견 극복과 관용 ·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 평화로운 세상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 생명의 소중함	· 올바른 자연관과 환경보호	· 참된 아름다움	· 사랑과 자비	

(1) 내용 체계 구성의 기본 방향

위 표에서 보듯이 내용체계는 18개의 주요 가치·덕목들과 4개의 영역들 그리고 이에 따른 36개의 학년별 주요 지도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체계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들이 추구되었다.

- 선행 연구 등을 토대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핵심적인 도덕적 덕목을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한다.
- 인접 교과와 중복되는 내용을 조정한다. 가능하면 인접 교과와 중복을 피하고, 필수적인 내용은 각 교과의 특성을 부각시켜 다룰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 상황과 관련된 덕목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 3, 4학년은 단일 덕목 중심의 내용 요소를 선정하고, 5, 6학년은 좀 더 추상적이고 수준이 높은 다양한 적용의 문제와 연관된 요소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 3학년의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영역에 도덕과 학습을 안내하는 ‘메타 도덕’¹⁾의 내용을 제시하여 도덕과 학습에 대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학년별 지도 요소의 수를 제7차 때의 학년별 10개에서 좀 더 줄여 내용 적정화를 도모한다.

(2) 주요 가치·덕목

위 내용 체계표에서 보듯이 도덕과 교육과정에는 가장 앞부분에 18개의 주요 가치·덕목들을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직, 자주, 성실, 절제, 책임, 용기, 효도, 예절, 협동, 민주적 대화, 준법, 정의, 배려, 애국·애족, 평화·통일, 생명존중, 자연애, 사랑 등의 가치·덕목들이 그것이다. 그리고 위 내용체계표상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주요 가치·덕목들과 필연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옳고 좋은 삶이 무엇인지 잘 알고 바르게 사고·판단하는 일을 도모하는 실천적 지혜(practical wisdom) 또는 도덕적 지혜의 덕을 기르는 일 또한 전 지도요소에서 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가치·덕목들은 학교 도덕과 교육을 통해 학생들 속에 기르고자 하는 바람직한 자질, 성향, 품성 등을 표상하는 것인바, 따라서 이러한 덕들을 함양함으로써 도덕적 인간으로서의 바람직한 인격을 함양해 갈 수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설정된 주요 가치·덕목들을 지도하기 위해 중요하고도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지도요소들을 학년별로 선정하여 내용체계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설정된 주요 가치·덕목들은 초등 도덕과의 내용 선정과 조직에서 기본 요소 또는 근간들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가치·덕목들은 폭넓은 의견 조사와 논의 및 검토 과정을 거쳐 설정된 것이다. 즉, 초등 도덕과의 주요 가치·덕목 및 교육내용에 대한 학술 연구와 교사, 학부모, 도덕교육 전문가와 그 외 여러 관련 인사들에 대한 의견조사, 기존 도덕과 교육과정과 선행 연구들 그리고 현재 및 미래의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들에 대한 검토, 교육과정 개정 연구공동체와 공청회 및 도덕교육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한 수차례에 걸친 논의 등 다양한 원천과 노력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설정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7차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상에서 설정되었던 20개의 주요 가치·덕목들 중 경애, 애교·애향, 공동체 의식, 안보 의식, 인류애 등의 가치·덕목들은 삭제되거나 다른 가치·덕목들에 포함 또는 관련되게 된 한편 새로이 책임, 용기, 민주적 대화, 사랑 등의 가치·덕목들이 설정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영역별로 주요 가치·덕목들을 설정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이번에는 가치·덕목들을 영역 구분보다 앞에 놓아 설정된 가치·덕목들이 영역과 관계없이 적용됨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즉, 절제의 가치·덕목을 예로 들 경우 이는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영역은 물론 그 외의 영역과도 관련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나아가 여기에 설정된 주요 가치·덕목들은 최소한의 중핵적인 것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즉,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상에 설정된 주요 가치·

- 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각 학교급의 첫 단원을 ‘메타 도덕’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도덕과 교수·학습을 할 때에 안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메타(meta)’ 도덕이라 함은 도덕 자체 곧 덕목이나 윤리학적 지식 자체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도덕에 ‘관해서’ 다루는 내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도덕의 본질이 무엇인지, 도덕과의 학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이 그것에 해당된다.

덕목들은 국민적 합의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길러져야 할 최소한의 가치·덕목이요, 또한, 그러한 점에서 중핵적이고 필수적이며 대표적인 것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하겠다.

(3) 내용 영역의 설정

한편, 위의 표에서 보듯이 내용 체계화에서 영역 설정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영역Ⅰ에서는 도덕적 주체인 ‘나’를 중심으로 도덕의 개념, 삶의 목적, 도덕적 자율성 등을 다루는 가운데 개인의 도덕적 성장의 출발을 적절히 하고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영역Ⅱ에서는 가깝거나 먼 타인, ‘우리’라는 공동체, 그리고 시민사회의 제반 인간관계와 도덕의 문제들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가까운 인간관계는 물론 그 연장선상에서 사회 전반의 보편적인 인간관계의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영역은 제7차 도덕과에서의 ‘가정·이웃·학교생활’ 영역과 ‘사회생활’ 영역이 통합된 것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영역Ⅲ에서는 남북분단과 통일의 문제, 세계화와 국가, 민족의 정체성 문제 등 현실적인 요구를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지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국가·민족의 문제라 하더라도 이를 한반도라는 제한된 시·공간적 차원에만 국한하여 보는 관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와 지구공동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그리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에서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영역Ⅳ는 ‘자연·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에 관해 지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새 도덕과 교육과정에 처음 등장한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인간관계 수준의 도덕을 넘어 자연, 종교 등과 같은 초월적인 차원의 도덕들도 다루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덕과 교육 내용의 질적 심화와 범위의 확장을 가져오는 데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한편, 도덕과 내용체계상에 설정된 영역과 관련하여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영역들이 인식과 개념상으로는 구분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구분은 느슨하고 중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역 간의 구분은 필요하면 넘나들 수 있는 것이며, 내용 구성함에서도 영역에 따른 내용의 비중이나 분량은 확실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지도 요소와 학년별 내용 제시 방식

또한, 위의 내용 체계표에는 학년별로 주요 지도요소들이 설정되어 있다. 예컨대, 3학년의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영역에 설정된 ‘소중한 나의 삶’과 같은 것이 그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도요소들의 수를 보면 3·4학년에서는 학년별로 8개씩 그리고 5·6학년에서는 각각 10개씩 총

36개가 설정되었다. 내용 적정화를 위해 3·4학년의 경우는 제7차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기보다 2개의 지도요소를 줄인 것이다.

이 같은 지도요소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도덕적 삶의 중요한 측면들과 관련하여 그리고 학생들의 바람직한 덕성들을 기르기 위해 각 영역별로 해당 학년에서 가르쳐야 할 적실하고도 핵심적인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를 표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5학년의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영역에 설정된 ‘게임 중독의 예방’이라는 지도요소는 급속히 정보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에서 적절하고도 바른 삶의 자세를 기르고자 하는 일환에서 설정된 것으로서, 정보윤리적 삶과 관련한 도덕적 지혜를 기르고 정보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삶에 필요한 절제와 책임, 생명존중 등의 도덕적 덕성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이러한 지도요소들은 다시 한 단계 더 구체화되어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상 학년별 내용요소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취기준형 방식으로 진술되어 있다. 이는 이렇게 함으로써 기르고자 하는 도덕적 능력과 성향들이 분명하고도 고르게 추구되도록 하는 한편, 도덕과를 통해 배우는 도덕규범이나 지식들이 학생들의 도덕적 인식, 사고, 상상력, 정서, 의사소통, 실천 능력 등으로 내면화되고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를 6학년의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영역에 설정된 주요 지도요소 ‘공정한 행동’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 공정한 행동

㉠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줄이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태도를 지닌다.

㉡ 이를 위해 불공정하다고 느낀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여 공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자신이 공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을 찾아본다.

㉢ ①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의 느낌

② 불공정한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

③ 공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

위 성취기준형으로 제시된 도덕과 교육과정상의 내용요소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성취기준형 내용 제시 방식에서는 학년 수준에 비추어 해당 주제를 학습해야 할 내용의 폭(다루어야 할 내용의 범위)과 깊이(다루어야 할 내용의 수준)를 설정하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공정한 삶의 문제는 초등 3학년에서 다룰 수도 있고, 대학에서도 다룰 수 있는데, 초등의 어떤 학년에서 가르치고자 할 경우 그 수준에 적절한 내용의 폭과 깊이는 어떤 것인가를 명료하게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교육과정의 내용 진술은 단지 도덕적 규범이나 가치의 나열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학습의 과정까지도 염두에 두고 진술된 것이다.

다음, 성취기준형 내용 진술 방식은 ‘지식+행동’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덕과에서는 ‘도덕적 지식, 가치, 규범+도덕적 기능, 능력, 정서, 태도, 성향’의 형태로 진술하고자 하였다. 말하자면 도덕과의 경우 교육과정상의 내용 요소 제시에서 도덕적 성향과 태도, 정서와 의지, 도덕적 사고와 판단 및 탐구 기능·능력, 그리고 도덕적 지식과 가치, 규범들을 담도록 구성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위의 성취기준형 내용진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 부분은 내용체계표상에 설정되어 있는 지도요소이고 ㉡ ~ ㉣은 이를 한 단계 상세화하여 제시한 내용 요소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 ~ ㉣은 성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 부분은 길러져야 할 도덕적 능력과 태도, 성향 등을 그리고 ㉢ 부분은 도덕적 사고, 정서와 실천 기술(skills) 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 부분은 위와 같은 자질과 능력 등을 기르기 위해 다루어야 할 규범, 가치, 지식 등을 진술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덕과 인격을 기르기 위한 지·정·행 측면의 제 요소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5) 영역별 내용의 체계

①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영역의 내용 체계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상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영역에서는 도덕적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고 성숙시켜 가는 일과 관련한 유덕한 자질과 품성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이를 위해 총 10개의 지도요소를 설정하고 있는데, 3학년은 인격을 갈고 닦는 일과 관련하여 출발점인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도덕 공부법과 자신을 소중히 하는 자세를 기르고자 하고 있고, 4학년에서는 한 단계 발전시켜 정직하고 자주적인 삶의 태도를 함양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고학년에서는 자기 자신의 내면적 도덕성은 물론 외적 생활의 충실성을 더욱 성숙시키고자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5학년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기르는 가운데, 내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바르게 다스리고 늘 반성하면서 스스로 인격적 성숙을 도모해 가는 능력과 품성을 기르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6학년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를 바탕으로 자신을 꾸준히 계발해 가는 품성을 기르는 한편, 자기의 일에 책임을 다하고 옳고 선한 일을 용기 있게 실천해 가는 자세를 또한 기르고자 하고 있다.

②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영역의 내용 체계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상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영역에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돕고 질서와 조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바람직한 공동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세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총 13개의 지도요소를 설정하고 있는데, 우선 3학년에서는 가정과 자기 주변을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사랑하고 예절을 지키는 한편, 자신에게

고마움을 주신 분들에게 대해 감사할 줄 알고, 친구와 우애 있고 예절 바르게 지낼 수 있는 도덕적 자질과 품성을 기르고자 하고 있다. 이어 4학년에서는 좀 더 넓은 사회관계에서의 도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고자 하고 있다. 즉, 개인적·사회적 약속을 잘 지키는 자세를 형성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사회적 삶의 질서와 규율의 기초가 되는 공중도덕 준수의 태도를 기르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적 삶의 자세를 기르기 위해 인터넷 예절에 대한 지도를 도모하고 있다. 이어, 5학년에서는 더욱 확대된 사회적 가치관계에서 삶에 필요한 도덕적 자질과 품성을 기르고자 하고 있다. 우선, 5학년에서는 바람직한 이웃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도리와 예절을 익히고, 서로 뜻을 모아 협동하면서 공동선을 추구해 가는 자세를 형성하고자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한편, 정보사회의 장단점과 정보윤리적 삶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가운데 게임중독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6학년에서는 초등 도덕과교육의 마지막 단계로서 사회공동체에서 상호 존중하고 규율을 지키는 한편 정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서로 돕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자질과 품성을 기르고자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잘 실천하고자 하는 태도, 사회적 삶의 구성과 운영에서 핵심적 덕목이 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삶의 자세, 그리고 준법과 정의와 함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삶의 품성 등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다.

③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의 내용 체계

이 영역은 국가 및 민족 정체성 문제, 남북분단 및 통일 문제, 세계화와 국가·민족의 문제를 한반도라는 제한된 시·공간의 차원에서만 다루지 않고 세계화가 심화되는 지구공동체의 맥락에서 좀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에서 다루기 위해 설정되었다. 특히, 국가·민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루어 온 핵심 교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교과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들의 도덕적 성격, 관점, 접근에 초점을 두어 윤리학적 접근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규범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도덕적 행위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년별 지도 내용이 선정되었다.

3학년에서는 나라의 상징과 나라 사랑, 분단의 배경과 민족의 아픔이 지도 내용으로 애국·애족이 주요 가치·덕목으로서 제시되어 있다. 4학년에서는 우리나라·민족에 대한 긍지 갖기,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의 통일 노력이 지도 내용으로 애국·애족, 통일의지가 주요 가치·덕목으로서 제시되어 있다. 5학년에서는 북한동포 및 새터민의 삶 이해,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이 지도 내용으로 통일의지가 주요 가치·덕목으로서 제시되어 있다. 6학년에서는 편견 극복과 관용,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평화로운 세상이 지도 내용으로, 관용, 평화, 인류애가 주요 가

치·덕목으로서 제시되어 있다.

④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영역의 내용 체계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영역은 도덕적 주체로서의 인간이 다른 인간과의 관계 및 다양한 공동체와의 관계를 넘어서 자연과의 관계, 나아가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에 바람직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학년별로 총 4개의 지도 요소를 설정하였다. 3, 4학년에서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였고 5, 6학년에서는 좀더 추상적인 가치를 다루고 있다. 3학년에서는 학생들과 가장 밀접한 가치로서 인간을 비롯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도록 하고, 4학년에서는 자연에 대한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도록 ‘올바른 자연관과 환경 보호’를 설정하였다. 5학년에서는 ‘참된 아름다움’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만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알도록 하고, 6학년에서는 종교와 관련된 ‘사랑과 자비’를 주요 가치·덕목으로 선정하였다.

이 영역은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한 영역으로 도덕과 교육의 내용을 심화하고 주제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도록 설정한 영역이다. 즉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도덕과 교육 내용은 인간관계의 도덕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는데, 그 한계를 넘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및 아름다움, 종교 등과 같은 초월적 차원의 도덕 문제를 다루고자 한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과 비교하면 사회생활 영역의 환경윤리에 아름다움의 가치, 종교적 가치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초등학교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년별로 한 개의 가치·덕목을 설정하였다.

나. 학년별 내용

(1) 3학년

①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가) 도덕 공부는 이렇게 해요

초등 ‘도덕’ 교과와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학습 방법을 이해하고, 배운 바를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도덕 교과를 통해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한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의 도덕적 실천 생활을 점검한다.

- ① 도덕적 가치나 덕목의 예
- ② 도덕 생활을 실천한 모범적 사례
- ③ 도덕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결과

이 ‘도덕공부는 이렇게 해요’라는 지도요소는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상 설정된 성실을 중심 가치·덕목으로 하면서 여기에 자주, 책임을 관련 가치·덕목으로 하는 것으로서, 도덕과 교육에

처음 입문하는 학생들이 도덕과의 기초적이고도 일반적인 공부법을 깨우치고, 바람직한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지도요소에서는 도덕공부를 하는 이유와 목적, 도덕공부의 원리와 내용, 방법 등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배운 바를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꾸준히 자신의 도덕적 성장을 도모해 가는 바람직한 자세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이 지도요소를 다루는 데에 도덕공부를 할 때 무엇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가르치는 일과 관련해서는 덕과 인격을 구성하는 지·정·행의 세 측면에 따라 배우고 익히며 노력해야 할 점들이 있음을 알리고 이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3학년만을 염두에 두거나 저학년과 고학년 사이에 구별을 두어 도덕공부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저학년에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도덕공부의 목적과 방향, 원리, 내용과 방법들을 깨우치고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소중한 나의 삶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자신의 생명, 건강, 명예 등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행동의 예를 찾아본다.

- ① 소중한 나의 탄생
- ②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 ③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의 문제점

이 ‘소중한 나의 삶’이라는 지도요소는 어려서부터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기르고자 하는 것으로서, 교육과정상 배려와 생명존중 및 사랑의 가치·덕목들과 관련된다. 이 지도요소는 이후 6학년의 ‘자긍심과 자기 계발’이라는 지도요소와 연계되는 것이기도 한데,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장점과 특징을 알아 자긍심과 긍정적 자아개념을 갖도록 하는 한편, 자신을 소중히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지도요소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다루되 이를 바탕으로 타인 및 타 존재에 대한 존중과 책임에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자기의 몸을 돌보고 정신을 바로 세우며, 자기 주변의 사물들을 잘 다루는 것은 물론 자기가 하는 일까지도 정성을 들여 충실히 하는 것임을 알고 이를 추구하려는 자세를 기르는 것 등이 그 예가 된다.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중의 하나로서 특히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알고 이를 추구하려는 자세를 기르는 일도 중요하다. 나아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자신의 생명, 건강, 명예, 일의 충실 등),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② 우리 · 타인 · 사회와의 관계

(가) 가족 사랑과 예절

화목한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자매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 간에 지켜야 할 바람직한 예절을 조사·발표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 ① 부모의 자애와 자녀의 효도
- ② 형제자매 간의 우애
- ③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 ‘가족 사랑과 예절’이라는 지도요소는 효도와 사랑, 예절 등의 가치·덕목들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화목한 가정생활을 위해 효도와 우애를 실천하고 가족 간에 예절을 잘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기르는 데 주안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가정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실제적인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깊이 깨닫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르는 일이 필요하다. 아울러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공경을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는 관점에서 다름은 물론 저학년임을 고려하여 부모의 노고와 희생, 자녀를 위한 노력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감사와 보은의 관점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도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자애와 효도 관계를 확대할 때 가장 가까운 대상이 형제자매임을 깨달아 서로 우애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한다.

동시에 이 지도요소에서는 화목한 가정을 위해 가족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이 있고, 각자가 책임을 다하며 서로 배려하고 협동해야 함을 알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임을 감안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자매간에 우애하는 실제적인 모습이나 방법 또는 행동양식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이를 실천하도록 이끄는 일도 필요하다. 나아가 특히 이 지도요소를 가르칠 때에 편부 편모 가정, 재혼 가정이나 친부모 또는 친형제가 아닌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여러 형태의 가정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바람직한 가정생활의 자세가 길러지도록 하는 일도 유의해야 한다.

(나)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

자신에게 그동안 도움을 주거나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를 적절히 표현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경험 사례를 발표하고, 자신의 생활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 ①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의 고마운 점
- ②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과 그 결과
- ③ 상황과 상대에 알맞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은 도움이나 은혜를 받은 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

라는 점을 알고, 감사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깨우쳐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자세를 기르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서 배려, 효도, 예절 등의 가치·덕목들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 지도요소를 가르칠 때에는 우선 자신이 어떤 도움이나 고마움 또는 은혜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감사해야 할 일을 적절히 인식하는 도덕적 민감성을 기르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어 자신에게 도움이나 은혜를 베풀어 준 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는 점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좋고 나쁜 결과를 통해 감사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깊이 깨우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자신에게 도움이나 은혜를 베풀어 준 또는 주고 있는 분들을 구체적으로 깊이 보면서 어떤 점에서 고마운지를 깊이 깨닫고 그 감사함에 보답하고자 하는 태도를 기르는 방법 등을 적용해 볼 만하다. 나아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적절한 방법들 및 상황과 상대에 맞게 감사드리는 방법들을 알고 이를 실제로 실천해 가는 자세를 기르는 일 또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㉞ 친구 간의 우정과 예절

친구 간의 우정과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친구 간에 서로 믿고 아껴주는 생활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친구들에게 잘한 일과 잘못된 일을 반성하고, 친구 간에 사이 좋게 지내기 위해 지켜야 할 일들을 찾아본다.

- ① 친구 간의 진정한 믿음과 우정
- ② 친구 간에 지켜야 할 예절(훈혈아, 입양아, 새터민 친구 등과 친하게 지내기)
- ③ 친구 간의 다툼과 갈등(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등)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법

‘친구 간의 우정과 예절’은 1학년에서 배운 ‘친구와 사이 좋게 지내기’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서, 친구 사이의 우정과 신의 있는 사람됨의 중요성을 알고 어린 시절부터 친구와 사이 좋게 지내는 자세를 기르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으며, 사랑과 예절, 배려 등의 가치·덕목들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 지도요소를 가르칠 때에는 우선 우리의 삶에서 친구란 무엇이며 얼마나 소중한지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올바른 친구 관계를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예절을 지키고 서로 돕는 태도를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친구 간에 사이 좋게 지내기 위해 해야 할 일들과 예절들 및 그 실천 방법, 다툼이나 갈등의 예방(친구의 처지가 되어 보기, 일단 참고 살펴보기,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기 등) 또는 그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깊이 보면서 깨우치고 또 실천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훈혈아나 외국인 입양아, 다문화 가정의 친구, 새터민 친구 등이 학급에 있을 때 교사는 특히 유념하여 이러한 친구들과 어떤 관점과 자세로 어떻게 지내는 것이 바람직한지 적절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과정상 예시된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등과 같은 것들은 3학년 학생들의 생활이나 교우관계의 특성에서 볼 때 다소 정도를 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또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오히려 충격이 되거나 친구들이나 학교에 대해 두려움이나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 등과 같은 문제를 5학년의 ‘대화와 갈등해결’, 6학년의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삶’ 등의 지도요소와 관련지어 다루어 보는 등 깊은 숙고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교육적 실행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③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 나라의 상징과 나라 사랑

우리나라의 상징인 국기, 국가, 국화에 대해 바르게 알고, 이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나라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나라 사랑을 실천한 위인들의 예화를 읽고 친구들과 토론한다.

- ①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등 우리나라 상징들의 올바른 이해
- ② 다양한 사례를 통한 나라의 중요성 이해
- ③ 나라 사랑에 관한 예화 읽기

이 ‘나라의 상징과 나라 사랑’이라는 지도요소는 애국애족을 중심 가치 덕목으로 하면서 자주와 책임이 관련되는 것이다. 3학년의 지도 내용은 국가와 민족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한 실천을 강조하도록 한다. 자기 나라의 여러 가지 상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알아야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다. 상징은 어떤 문화를 공유한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말, 동작, 그림, 대상 등을 말한다. 상징은 영웅, 의식, 가치 등과 함께 문화의 차이를 드러나게 한다. 따라서 국기, 국가, 국화를 올바로 아는 것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합리적 애국심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나라 상징에 대한 이해를 통한 나라 사랑의 마음 갖기와 함께 세계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구공동체의 맥락에서 민족공동체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민족 분단의 역사적 배경, 남북 분단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분단 극복을 위해 필요한 자세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등을 강조하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중점적으로 가르쳐져야 한다. 첫째, 자국의 국기, 국가, 국화를 소중히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점이다. 둘째, 세계화된 지구공동체에서 다문화가 증가한 현실을 고려하여 타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의 국기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 다른 나라 국민들의 자긍심을 손상시키므로 다른 나라의 상징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셋째, 국기를 계양하고 보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넷째, 자기 나라 및 국민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 때로는 다른 나라 및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 분단의 배경과 민족의 아픔

남북 분단의 배경과 분단의 고통을 여러 측면에서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지닌다. 이를 위해 남북 분단의 배경을 국내·외적인 차원에서 찾아보고, 남북한 분단의 어려움이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 ① 남북 분단의 국내·외적인 배경
- ② 이산가족의 아픔 등 민족 분단으로 인한 어려움
- ③ 남북 분단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이 지도요소는 평화·통일을 중심 가치로 하면서 애국·애족 및 협동과 관련되는 요소이다. 민족분단의 역사적 배경을 가르칠 때는 민족공동체의 역사에 대해 인식시킴으로써 민족정체성을 갖고 민족공동체의 현실과 미래,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이 기여할 바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민족분단의 배경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들을 기초로 분단의 배경을 가르치되 역사적 사실의 이해보다는 분단 배경에 대한 도덕·윤리적 성찰을 해보는 데 중점을 둔다. 둘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국가들의 사례를 활용하여 분단의 원인과 과정, 분단 극복의 필요성, 통일의 방법 등의 이해에 중점을 둔다. 셋째, 민족분단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고통 등을 알고 분단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이산가족, 인권침해 등 국내 사례뿐 아니라 분단을 경험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활용한다.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첫째, 위인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 사랑의 일화나 사례, 문학작품, 영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인전을 포함하여 다문화화된 사회에서의 국가와 민족공동체 문제를 내용으로 다루는 작품을 선정하여 수업에 활용해야 한다. 둘째,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소규모 집단 토론을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직소우(jigsaw) 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단의 배경, 통일을 위한 노력, 분단 극복을 위한 자세 등에 대한 협동학습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가) 생명의 소중함**

생명 탄생의 신비와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생명 존중의 태도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이를 위해 인간의 생명은 물론, 동식물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생명 존중을 실천한 사례를 찾아 발표한다.

- ① 인간 생명의 소중함
- ② 생명 존중의 실천·실천의 다양한 사례(인공임신중절 사례 등)
- ③ 동식물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

위의 지도 요소 ‘생명의 소중함’은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주요 가치·덕목 중 생명존중을 중심으로 하면서 자연애와 사랑이 관련 가치·덕목으로 설정되었다. 최근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우리 사회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인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해하도록 하고, 나아가 동물과 식물의 생명도 역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느끼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명 존중의 인식과 태도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도 요소를 다룰 때에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이나 경험에 적합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결식이나 기아로 고통받는 우리나라의 친구들과 외국 친구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노력들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4학년

①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가) 정직한 삶

정직의 중요성을 알고, 항상 자신과 남을 속이지 않는 태도를 길러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는 자세를 지닌다. 이를 위해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느꼈던 점과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였을 때에 생기는 문제점을 발표하고, 믿음을 주는 사람의 행동 특징을 찾아 본다.

- ① 정직한 사람의 특성
- ② 정직하게 행동했을 때의 좋은 점
- ③ 거짓말과 속임수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나쁜 영향

먼저, 위의 지도요소 ‘정직한 삶’에서는 정직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자각을 바탕으로 어려서부터 신뢰성 있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서 정직을 핵심 가치·덕목으로 하면서 여기에 성실, 용기 등이 관련된다. 이 지도요소를 가르칠 때에는 우선 정직에 대한 언어적 분석이나 실제 사례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정직이 거짓 없는 진실됨을 뜻하고 이것이 내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외적으로는 자기 이외의 대상에 대한 진정성으로 나타남을 이해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어 개인과 사회에서 정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검토해 보고, 정직하게 행동했을 때의 좋은 점과 정직하지 못했을 때의 문제점, 정직한 행동이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을지라도 정직하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 등을 알아 정직의 중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이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기르는 일이 필요하다.

동시에 정직은 다소 추상성이 높은 가치·덕목인 관계로 이를 단순히 언어적 교류를 통해 관념적으로 다루는 것은 제대로 된 이해와 실천의지를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직과

관련한 실제 또는 가상의 문제사태를 놓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바른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고 판단, 결정하는 연습을 통해 이해를 심화하고 도덕적 사고와 판단력을 기르는 등의 접근을 권장할 만하다. 또한, 정직한 생활로 개인과 사회에 크게 공헌한 사람들의 모범사례를 탐구하고 본받으며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세를 기르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직을 실천하거나 실천하지 못할 때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정직하려면 어떤 자세를 지니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천 의지를 기르도록 하는 일 등도 중요하다.

(4)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기

자신이 할 일을 스스로 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알고, 자기 일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를 지닌다. 이를 위해 자주적으로 행동했을 때의 좋은 점과 그렇지 못하였을 때의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나의 행동은 어느 정도로 자주적인지를 평가하여, 자주적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본다.

- ① 자주적인 행동과 남에게 의존하는 행동의 사례와 결과
- ② 자신의 장래에 대한 계획
- ③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삶’이라는 지도요소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책임 있게 해나가는 자세를 기르기 위한 취지에서 설정된 것으로서, 중심 가치·덕목은 자주이고 관련 가치·덕목은 책임, 성실 등이다. 이 지도요소는 1학년의 ‘스스로 준비하기’, 2학년의 ‘자기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기’와 관련되며, 이후 6학년의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감’으로 발전한다. 이 지도요소를 가르칠 때는 우선 자주적인 생활의 의미를 여러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태도를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 이때 의존하는 생활 태도가 좋지 못한 점, 모방이나 도움을 통한 자기 발전 등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독립성 있는 생활 자세, 창조적 생활 등이 지니는 의미 등을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검토함으로써 자주적 생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자주적인 삶의 생활 모습을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추구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자세, 자기 주도적 학습 자세, 창의적인 삶의 자세, 스스로 술선수범하여 실천하는 자세 등으로 나눠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자세를 기르는 것 등이 그 예가 된다. 또한, 이 지도요소를 지도할 때에는 자주적인 생활에 관한 학습이 단순한 관념 수준에서 끝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스스로 해야 할 자기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파악하여 설정한 후 계획을 세워 이를 꾸준히 자율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② 우리 · 타인 · 사회와의 관계

(가) 약속을 지키는 삶

약속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약속을 잘 지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약속을 잘 지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를 비교해 보고,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와 그 이유를 찾아본다.

- ① 약속을 지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과 비교
- ②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의 모범 사례
- ③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주된 이유

우리의 개인적 · 사회적 삶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제도화된 삶이요 일정한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는 기본적으로 약속을 준수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위의 ‘약속을 지키는 삶’이라는 지도요소는 바로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어려서부터 약속을 잘 실천하는 태도를 길러 신뢰와 책임성 있는 삶의 자세를 함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정된 것으로서 책임, 정직, 준법 등의 가치 · 덕목들과 관련된다. 이 지도요소를 가르칠 때에는 우선 약속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러한 약속이 자신과의 약속,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 집단이나 공동체 내에서의 약속 등 여러 가지가 있음을 파악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약속 지키기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자기 인격의 증진 및 책임성의 구현 등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한다.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과를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서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도록 이끄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가 하면, 약속과 관련된 도덕적 지혜를 기르기 위해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생각해 보고 판단, 결정하는 학습을 해보도록 하는 방법, 약속을 잘 지켜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크게 공헌한 사람들의 사례를 접해보면서 그 삶의 자세를 본받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모델링(modeling)의 방법 등을 적용해 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나아가 약속 지키기가 집단이나 사회 차원에서 행위를 규율하는 공통의 규범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때 법과 규칙 등으로 나타남을 알아 약속 준수의 태도를 준법 차원으로까지 연결하여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나) 공중도덕

여러 사람이 모여 생활하는 곳에서의 공중도덕의 필요성을 알고,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공중도덕을 실천하는 태도와 능력을 지닌다. 이를 위해 공중도덕이 잘 지켜지는 사례와 지켜지지 않는 사례를 발표하고, 사람들이 공중도덕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와 그 이유를 찾아본다.

- 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구체적인 행동 사례
- ② 우리들이 자주 가는 장소와 그 곳에서 필요한 공중도덕
- ③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이유

여럿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 삶이 안정과 조화 및 평화를 확보하려면 공동체 내에서의 기본적인 질서와 행위 규범이 준수되어야 하는바, ‘공중도덕’이라는 이 지도요소는 바로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규율정신을 기르도록 그 기본 토대를 다지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이 지도요소에는 준법이 중심 가치·덕목이 되며 여기에 정의와 협동 등이 관련 가치·덕목으로서 관계된다.

이 지도요소를 가르칠 때에는 공중도덕의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하는 한편, 여러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공중도덕 및 그 행위 방식들을 바르게 파악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의 공동체 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질서와 차례 지키기, 교통규칙 지키기,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기, 공공시설물 바르게 사용하기 등 여러 가지 공중도덕의 종류와 그 준수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한다.

아울러,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공중도덕을 잘 지킬 때와 그렇지 못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국내의 사례나 선진국과 후진국의 사례 등 여러 사례를 통해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등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잘 지키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도 추구해볼 만하다. 나아가 학급과 학교에서 지켜야 할 공중도덕들을 설정하고 이를 직접 실행해 보면서 그 행위 방식을 익히는 한편, 그 외에 여러 가지 공공장소와 그곳에서 지켜야 할 공중도덕 및 그 행동방식들에 대해 바르게 알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기르도록 하는 일도 필요하다.

(㉔) 인터넷 예절

현대 지식정보사회에서 대두되는 인터넷 활용상의 문제점과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람직한 인터넷 예절을 익히고 실천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겪은 불편한 경험을 통해 인터넷에서 도덕적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 이유를 발표하고, 자신이 지켜야 할 인터넷 예절 목록을 작성해본다.

- ① 인터넷에서 어린이들이 경험하는 도덕적 문제
- ② 인터넷 예절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 ③ 인터넷 예절의 내용과 실천 방법

정보통신기술과 그 장비와 시설 및 인터넷 사용 등에서 세계적으로 선두에 자리매김될 만큼 우리나라는 이미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윤리교육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인터넷 예절’이라는 지도요소는 바로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정보윤리를 잘 준수하는 도덕적 성향을 기르고자 설정된 것으로서 예절, 준법, 절제 등의 가치·덕목들이 관련된다. 따라서 이 지도요소를 가르칠 때에는 인터넷을 사용할 때나 가상공간에서도 따맏히 지켜야 할 도덕적 행위규범과 길러야 할 윤리적 품성이 있다는 점과 이를 잘 준수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장단점 등 그 타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가고자 하는 태도를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 지도요소에서는 우선 현대의 정보사회의 주요 특징과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한편, 컴퓨터와 인터넷에의 종속이 아니라 그 주인이 되어 바람직하게 활용해야 함을 깊이 인식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및 가상공간에서 지켜야 할 정보윤리와 그 실천방식을 깨우치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에서 아동들이 경험하는 도덕적 문제들을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바른 선택과 행위가 무엇인지 판단해 보도록 하는 일도 도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컴퓨터 및 그 활용과 관련한 올바른 자세, 정보통신 윤리 강령과 네티켓 분야 등에서 강조되는 인터넷 예절에 대해 그 의의 및 행위 방식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직접 실천하면서 익히는 한편, 자신의 인터넷 예절 실천과 관련하여 잘하는 점과 잘못 또는 부족한 점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개선, 발전시켜 갈 점을 찾아 이를 실천해 가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다.

③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가) 우리 나라·민족에 대한 긍지

나와 나라 및 민족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에 대해 긍지를 지닌다. 이를 위해 개인의 행복은 나라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의 역사적 전통 속에서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덕과 예절들을 찾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발표한다.

- ① 나의 행복과 나라·민족 발전과의 관계
- ② 도덕과 예절을 비롯한 우리 민족의 자랑거리
- ③ 오늘날 우리가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전통

이 지도요소는 애국·애족을 중심 가치 덕목으로 하고, 자주와 배려를 관련 가치덕목으로 하고 있다. 이 지도요소를 다룰 때에는 우리 민족의 문화를 다른 민족의 문화와 비교해볼 때 독특하고 고유한 도덕과 예절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민족 문화와 공유하는 보편적인 도덕과 예절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긍지를 가지도록 한다. 상호부조, 웃어른 공경, 자연 존중 등의 계승해야 할 우리의 예절과 도덕을 다룰 때는 이와 관련된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도 함께 다룸으로써 전통예절과 도덕의 의미와 현재 사회에서의 적실성을 학생들이 충분히 공감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념에 대한 교사의 설명과 함께 학생들이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 다양한 사례들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전통과 자신과 나라 및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다문화가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민족의 자랑거리를 국수주의나 자민족중심주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나)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의 통일 노력

분단 비용 및 통일의 기대효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 통일을 추구하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지닌다. 이를 위해 통일의 필요성과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발표하고, 바람직한 우리의 자세를 찾아본다.

- ① 분단 비용 및 통일의 기대효과 등 통일의 필요성 찾기
- ②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
- ③ 민족 통합을 위한 우리의 자세

이 지도요소는 평화통일을 중심 가치덕목으로 하고, 애국·애족, 민주적 대화를 관련 가치 덕목으로 하고 있다.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으며, 통일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더라도 실용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통일문제를 가르칠 때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인권, 생명, 환경, 복지, 평화 등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들이 통일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배타적인 민족 개념에 기초하여 민족 감정에 호소하거나 통일의 당위성을 주입하거나 교사의 일방적 가치에 근거하여 설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직소우(jigsaw) 수업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4~5명으로 이루어진 소집단의 구성원 각자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사회에서 도덕적 가치의 실현 방안 등 유기적 관련성을 가진 탐구 문제들 중 하나를 부여받고 해당 주제에 대한 지식을 조사·정리하여 동료들을 가르치고, 동료들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탐구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 지식을 가지게 되고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직소우 수업은 다른 동료들과의 협동학습을 통해 평화와 민족통합을 위한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데 유용한 방법의 하나이다.

④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가) 올바른 자연관과 환경 보호**

나와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환경 보호 활동을 생활화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나와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우리 주변의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일상생활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을 찾아본다.

- ① 자연과 나의 올바른 관계
- ② 우리 주변의 환경 문제
- ③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

이 지도요소는 자연애를 중심 가치 덕목으로 하고, 생명존중과 책임의 가치 덕목과도 관련된

다. 즉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일방적이 아닌 상호 의존 관계로 이해하도록 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우리 주변의 환경 문제가 야기되었음을 인식하여 환경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이를 위해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유익함과 자연 자체가 가진 권리 존중이라는 두 입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지도하도록 한다. 그리고 자연보호, 환경 보호 활동의 사례들을 보여 주며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찾아 실천하도록 지도한다.

(3) 5학년

①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가) 최선을 다하는 생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생활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태도와 의지를 지닌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의 느낌과 보람을 발표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들을 찾아본다.

- ① 성실한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비교
- ② 성실한 태도의 중요성
- ③ 성실한 사람들의 특징과 본받을 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성실은 그 자체로도 행위규범성을 가지는 동시에 다른 덕들과도 중요하게 관련을 맺고 그것들의 실현을 돕고 완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를 기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기’라는 이 지도요소는 성실을 중심 가치·덕목으로 하면서 책임, 자주 등의 가치·덕목들이 관련된다. 이 지도요소는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거짓됨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기르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정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지도요소를 가르칠 때에는 우선 성실이 바른 일의 추구, 정성과 최선을 다함, 충실한 자세 등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을 여러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가운데 그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물론 이때 성실에 대한 어의적 분석과 동서양의 윤리적 전거를 통한 의미 파악도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성실은 근면, 인내와 불굴성, 진실되고 일관되게 바른 도리를 추구하는 통합성, 정직한 삶의 자세 등과 관련됨을 알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성실한 생활의 가치로움과 그 구체적인 모습, 그러한 삶의 어려움과 그 극복 등을 구체적으로 자각함으로써 실제로 그러한 삶을 추구해 갈 수 있는 내적 힘을 기르도록 하는 한편, 성실한 삶을 살고자 무엇을 어떻

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해 가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4) 감정의 올바른 관리

분노, 좌절, 흥분 등 다양한 감정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고, 자신의 감정 표현이 가져오는 결과들을 합리적으로 예측해서, 때와 장소 및 상대에 적절한 바람직한 감정 표현 방식을 배운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했던 경험을 발표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린 사람들의 모범 사례를 통해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 ① 분노, 흥분, 좌절 등의 감정이 발생하는 원인
- ②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과 그것이 미치는 결과
- ③ 상황과 상대를 고려해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

‘감정의 올바른 관리’라는 지도요소는 절제, 책임, 성실 등의 가치·덕목들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자신의 감정, 흥분, 분노, 충동, 욕구 등을 민감하게 인식하면서 이를 잘 다스리고 적절히 발휘하는 힘을 기르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정된 것이다. 다만, 교육과정상에는 감정 등 정서적 요소들에 대한 다스림을 주로 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충동성이나 욕구 등에 대한 관리도 포함해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지도요소는 단순한 감정 관리 차원을 넘어 넓게는 절제라는 덕목과의 관련 속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단순한 감정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이는 하나의 생활 테크닉 또는 처세술의 차원으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넓게 자신을 적절히 다스리는 품성으로서의 절제라는 덕을 기른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감정이나 욕구 등의 관리가 절제의 일부라는 점, 그리고 절제는 알맞게 자르는 것이요 적절히 마르는 것이라는 점 등을 알고 이러한 절제의 관점에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 행동 등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음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이러한 학습을 토대로 하여 분노, 좌절, 흥분 등 다양한 감정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고 적절하게 다스리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한편, 감정이 중요하고 분노, 욕구 등이 분기할 때 이를 감수성 있게 파악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를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과 욕구 등을 소극적인 측면에서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측면에서 좋고 순화된 감정과 정서 및 바람직한 욕구 또는 의지를 배양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자기의 감정과 욕구는 물론 다른 사람의 그것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와 갈등을 적절히 해결하면서 타인과 조화롭게 지내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에 필요한 행위 기능과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이 단순한 지식이나 관념 차원에 머무르지 않도록 자신의 생활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절제하고 감정과 욕구 등을 바르게 다스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문제 사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해 보면서 관련 행위 기능과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방법도 활용해볼 만하다.

(㉔) 반성하는 삶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부끄럽거나 정의롭지 못한 사고나 행동을 찾아 반성하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개선해 나가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자신이 부끄럽거나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던 경험을 발표하고, 반성하는 삶을 실천한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본다.

- ① 반성하는 삶과 반성하지 않는 삶
- ② 반성하는 삶을 실천한 사람들의 사례
- ③ 하루의 생활을 평가하고 반성해보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도덕적 존재로의 성장은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노력과 수양을 통해 이루어진다. 바로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교육과정에서는 성실과 정직, 책임 등의 가치·덕목들을 내포하는 ‘반성하는 삶’이라는 지도요소를 설정하여, 이를 통해 자신을 늘 반성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바람직한 인격의 형성을 도모해 가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지도요소를 가르칠 때에는 우선 반성하는 삶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그것이 올바른 사람이 되고 자신을 성숙시켜 가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닫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반성하는 삶을 실제로 실천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 자신의 발전과 인격적 성숙은 물론 이웃과 사회에 크게 공헌한 모범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이를 본받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켜 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파악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자신의 생활 중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되고 잘못되었는지 평가하고 반성해 보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성을 바탕으로 실제로 개선과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실천하고 다시 점검하고 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도모해 가도록 하는 방안을 활용하도록 한다.

②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㉕) 이웃 간의 도리와 예절**

이웃 간 예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일상생활 장면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실천하며, 이웃들과 다정하고 화목하게 지내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이웃과의 관계에서 유쾌하거나 불쾌했던 사례를 발표하고, 생활 속의 여러 장면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찾아 실천하는 연습을 한다.

- ① 이웃 간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생활 예절
- ② 다양한 현대 생활 예법
- ③ 동양예절과 서양예절, 전통예절과 현대예절

먼저, 위의 ‘이웃 간의 도리와 예절’이라는 지도요소는 예절, 사랑, 배려 등의 가치·덕목들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가정 다음으로 가까이 만나게 되는 이웃 공동체에서 바른 도리를 실천하고 예절 바르게 행동함으로써 화목한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세를 기르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지도요소를 가르칠 때에는 우선 우리들의 삶에서 이웃이 왜 중요하며 이웃과 조화롭게 지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이웃 관계를 위해 해야 할 바른 도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태도를 기르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웃과 바람직하게 지내기 위한 일 중에서 특히 예절 바른 자세가 왜 중요하며 그러한 삶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좋을지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우선 예절 속에 담긴 근본정신과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일, 이웃 간에 지켜야 할 중요한 예절들과 관련한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위 방식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일, 그리고 그것들을 바르게 익히고 실제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가도록 하는 일 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웃간에 지켜야 할 바른 도리와 예절들을 몸가짐, 언어, 인사, 관심과 친교 및 상호작용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것들을 선정하여 그 의의를 바르게 알고 구체적인 실천 방식 등을 익히도록 하는 방법의 적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4) 서로 돕는 생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일을 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돕는 태도가 중요함을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협동하려는 자세를 지닌다.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동해서 일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결과를 발표하고 협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와 효과적인 협동 방법을 찾아본다.

- ① 협동의 의미와 중요성
- ② 협동하는 경우와 협동하지 못한 경우의 결과
- ③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고 타협하는 방법

위의 ‘서로 돕는 생활’이라는 지도요소는 협동을 중심 가치·덕목으로 하면서 배려, 책임 등이 관련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사회적 삶에서 상호 유대와 공익 추구 그리고 공동선 실현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협동적 삶의 태도를 기르려는 취지에서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지도요소를 가르칠 때에는 우선 협동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즉, 협동은 공동선을 창출하고 증진하기 위해 또는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과 뜻을 모아 노력하는 것으로서, 우리와 공동체가 발전하고 번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임을 여러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깊이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기르는 일이 도모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계적 협동, 기능적 협동, 사회적 협동 등 여러 가지 종류의 협동에 대해 그 의의와 특징 등을 이해하고 모두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협동

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를 기르는 일도 중요하다.

동시에 협동에 필요한 도덕적 품성과 행위 기능 등을 알고 이를 실제로 익혀 나가는 학습도 필요하다. 즉, 협동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존중과 배려, 성실, 책임 등 여러 도덕적 품성 조건들이 관련됨을 알고 이러한 자세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뜻을 모으고 협력하며 활동해 가는 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 행위 기능들을 파악하고 실제로 익혀 가는 일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학급 또는 소집단별로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설정하고 이를 계획 단계부터 종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협동을 통해 실행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협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관련 행위 기능과 능력 및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방법도 추구해볼 만하다.

(㉞) 대화와 갈등 해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덕적 갈등의 원인과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덕적 갈등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도덕적 갈등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평화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① 도덕적 갈등의 원인
- ②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갈등의 해결과 그렇지 않은 경우
- ③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의 구체적인 과정과 절차

인간 삶에서 대립과 갈등의 발생은 불가피한 것이며 때로는 자연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점인데 이에 따라 그것이 발전의 기반이 될 수도 있고 폐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화과 갈등 해결’이라는 지도요소는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간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대화와 합리적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가는 능력과 자세를 어린 시절부터 기르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정된 것이다. 이 지도요소는 교육과정상 새로이 설정된 민주적 대화를 중심 가치·덕목으로 하면서 여기에 협동, 정의 등이 관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상에 명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 중요하게 강조되는 인권윤리 측면을 이 지도요소와 관련지어 교육을 시도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

이 지도요소를 가르칠 때에는, 우선 갈등의 의미, 종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며, 그것의 긍정적·부정적 기능은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한다. 그리고 인간 삶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심리, 자원, 가치, 인권 등 여러 측면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발생한 갈등을 적절히 해결하는 일이 중요함을 깊이 이해하게 함으로써 평화적 갈등 해결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어 갈등 해결의 밑바탕이 되는 도덕적 가치와 품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일도 필요하다. 즉, 갈등 해결은 평화의 가치를 중시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비폭력과 관용, 정의와 박애 등의 정신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자세를 기르는 것이다. 동시에 갈등 해결의 정신이나 태도를 원론 수준에

서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 갈등 해결의 여러 가지 유형과 과정 및 방법 등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갈등 해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위 기능들을 알고 익히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리고 나아가 개인과 학급,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실제 문제와 갈등들과 관련하여 이를 실제로 합리적으로 해결해 보는 학습 경험을 갖게 함으로써 평화적 갈등해결의 실제적 능력과 태도를 증진시키는 일 등도 추구될 만하다.

㉮ 게임 중독의 예방

인터넷 게임 중독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터넷 게임을 바르게 이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인터넷 게임 이용 실태와 중독으로 인한 폐해사례를 찾아 발표하고, 바람직한 인터넷 게임 이용 방법을 찾아본다.

- ① 인터넷 게임 중독의 실태와 위험성 이해
- ② 자신의 인터넷 게임 이용 상황에 대한 반성
- ③ 바람직한 인터넷 게임 이용 방법

‘게임 중독의 예방’은 절제, 준법, 생명존중 등의 가치·덕목들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인터넷 게임 중독의 원인과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고 인터넷 게임을 바르게 하도록 하는 동시에 건전한 정보윤리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정된 지도요소다. 이 지도요소는 인터넷 게임 예방에 중점을 두고, 더 나아가 정보사회의 특징을 알고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생활의 빛과 어두움, 장점과 역기능 등에 대한 바른 이해를 먼저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정보윤리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적 안목과 기본자세 형성부터 구축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인간 삶에서 중독의 의미와 여러 가지 중독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해 바르게 아는 한편 그 원인과 증상 및 폐해를 명확히 인식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기른다.

동시에 인터넷 게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을 탐구하면서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인식을 깊이 하고 실제로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 방식들을 직접 해보면서 익히도록 하는 방안도 추구될 필요가 있다. 즉, 인터넷 게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 활용 사례들을 모아 분석하고 자신을 반성하며 인터넷 게임을 바르게 활용하고자 하는 자세를 기르는 방법과 같은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임 중독의 진단법을 알고 실제로 게임 중독을 진단해 봄으로써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그런가 하면 인터넷 게임 놀이를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건전한 게임 프로그램 활용, 일일 자기점검, 게임놀이 계명 실천 등)을 알고 이를 직접 해보면서 익히거나,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과 관련한 수칙을 만들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올바른 정보윤리 습성을 길러가도록 하는 방안도 추구해볼 만하다.

③ 국가·민족 지구공동체와의 관계

(가) 북한 동포 및 새터민의 삶 이해

우리 민족의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정서적 통합에 의해 완성될 수 있음을 알고, 북한 동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동포와 교류·협력해나가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북한 동포나 새터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나 편견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북한 동포와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루는 방법과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찾아본다.

- ① 북한 동포의 생활상 및 문화적 차이 알기
- ② 북한 동포와의 인간적 교류와 협력 방안
- ③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서 적응하도록 돕는 방법

이 지도요소는 평화·통일을 중심 가치·덕목으로 하고, 애국·애족과 배려를 관련 덕목으로 지도 할 수 있다. 북한 동포 및 새터민의 삶에 대한 이해라는 지도 내용을 수업에서 다룰 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북한 사람들과 새터민에 대해 자신이 가진 편견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이다. 이를 통해 북한 동포 및 새터민의 삶에 대한 무관심, 북한 동포 및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 심리적 거리, 편견 등이 확인된 후 북한 사람들의 생활상을 다룬 객관적이고 시사성이 있는 자료를 통해 남북한 생활상과 문화적 차이를 파악하는 단계로 이동해야 한다. 이 지도 내용에 대한 학습에서는 학생들이 북한 동포와 새터민들 역시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동반자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정보적 지지, 심리적 지지, 경제적 지지 방안 등을 이해하고 스스로 실천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남북한 문화이해지를 활용하여 북한 동포와 새터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학생 스스로 실천 방안을 세워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북한 사람들의 생활상이나 문화적 차이를 우열의 평가적 관점에서 다루는 학습 자료들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나)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

세계 여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와 우리가 하나의 민족 공동체임을 느끼며, 그들과의 교류와 협력 의지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운다. 이를 위해 세계 각지의 재외 동포들의 생활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적 특징이 보존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본다.

- ①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해외 동포들의 생활
- ② 재외 동포에 대한 관심과 배려
- ③ 재외 동포와의 교류와 협력 방법

이 지도요소는 애국애족을 중심 가치 덕목으로 하고, 배려와 사랑을 관련 덕목으로 지도할 수 있다. 민족 공동체는 국가 경계 내의 민족성원과 민족의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 경계 밖의 민족 구성원들을 포괄한다. 국가 경계 안과 밖의 민족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에게서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로운 민족 문화의 활로를 발견하기도 한다. 또한,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우선으로 도움의 손길을 제공한다. 국가 경계 안의 민족 구성원들이 재외동포에게 가진 관심보다 재외 동포들은 국가 내의 민족 구성원들을 민족 공동체의 모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모국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양한 도움을 자발적으로 제공한다.

국가 경계를 중심으로 한 민족 공동체의 구분은 자의적임에도 국가 경계 안 민족 구성원들의 경계 밖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은 경계를 넘어서면서 약해진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 경계 내의 민족 구성원들이 재외 동포들에 대해 합리적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관점 등에서 이해하고 재외 동포와 협력하려는 의지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의 발생 원인과 배경 및 문화적 뿌리 등을 알아본다. 그리고 최근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기 위해 재외 동포들의 군복무, 유학 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되는 다양한 사례들,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을 보는 관점을 소개함으로써 재외 동포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도 내용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재외 동포들과 관련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보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토대로 도덕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수업방법이나 역할놀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④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가) 참된 아름다움

참된 아름다움이란 외면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적 아름다움, 즉 착한 마음을 포함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각자가 아름다운 마음을 기르도록 노력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여준 사례를 찾아보고, 그것이 소중한 까닭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다.

- ① 일상생활, 동화, 예화 등에서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여준 사례
- ② 아름다운 마음씨가 사람들에게 주는 것
- ③ 아름다운 마음을 기르는 방법

위의 지도 요소 ‘참된 아름다움’은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주요 가치 덕목에 제시된 하나의 가치 덕목에 해당하기보다는 감사/배려, 친절, 타인 존중 등과 관련된다. 최근 얼짹, 몸짹 등의 신조어가 유행하듯이 외모의 아름다움에 대해 관심이 많은 우리 사회의 풍조에서 참된 아름다움은 외면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려고 설정되었다. 즉 아름다운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행동이 다른 사람, 이웃, 나아가 다른 국가와 민족을 배려하고 존

중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훈훈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음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서나 문학 작품에 나타난 아름다운 마음의 사례를 통해 아름다운 마음이 사람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는지 알게 하고, 학생들도 아름다운 마음을 기르려는 동기를 갖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4) 6학년

①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가) 자긍심과 자기 계발

자긍심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중요성을 알고, 자긍심을 갖고 자기 삶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자신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발표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 ①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
- ②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목표 설정
- ③ 목표를 달성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자긍심과 자기 계발’이라는 지도요소는 자주, 책임, 성실 등의 가치·덕목들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스스로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긍심을 가지는 한편 자기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서 자신을 계발해 가는 자세를 기르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먼저 자기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통한 긍정적 자아개념을 지니도록 하는 일이 도모될 필요가 있다. 즉, 자기의 몸(외모 지상주의 경계 등)과 인성 특성 및 장·단점, 자신이 소중히 하는 가치와 소질 및 능력이 무엇인지 등 자신에 관한 객관적 이해를 도모하고 스스로를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수용하는 한편 이러한 이해를 통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사랑하고 귀중히 하는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기존중의 자세를 발전시키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기 이해와 자긍심을 바탕으로 자신을 계발해 가는 일과 관련된 학습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 자신이 장차 어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해 가야 하는지를 탐구해 보고 꾸준히 추구해 가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바람직한 자기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질과 재능의 지속적인 개발, 인내와 불굴의 노력 등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일도 중요하다. 동시에 자신의 계발이 궁극적으로는 인격적인 존재로 성숙할 때 참 가치가 있음을 알고, 미래의 훌륭한 자기 모습으로서의 도덕적 이상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를 기르는 일도 추구해볼 만하다.

㉠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감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를 개인·사회 차원에서 찾아본다.

- ① 책임을 다했을 경우의 보람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점
- ② 학교나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
- ③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감’은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고 바람직한 공동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올바른 책임 이행의 자세를 기르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번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에 새로이 설정된 책임을 중심 가치·덕목으로 하면서 여기에 성실, 절제 등이 관련되는 지도요소이다. 이 지도요소를 가르칠 때에는 우선 책임의 의미를 역할이행, 행위 결과, 응답 의무 등 여러 측면에서 파악하고 개인의 자기 발전과 공동체의 복지 모두에 책임이 중요하게 관련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이를 잘 실천하고자 하는 자세를 기르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책임이 자신에 대한 책임과 대상에 대한 책임, 개인적 책임과 집단적 책임, 예상적 책임과 미래적 책임 등 여러 가지가 있음을 이해하고, 실제 사례에서 각각의 책임을 잘 이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과를 검토해 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책임을 바르게 이행하려는 자세를 기르는 일도 중요하다.

동시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 모범사례에 대한 탐구를 통해 그 훌륭한 점을 본받으며 자신을 반성하고 생활 속에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도 한 방법이 되며, 학급과 학교, 가정 등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설정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일을 직접 실행해 보는 가운데 책임 수행의 자세를 익혀가도록 하는 것도 추구해볼 만한 방안이 된다. 나아가, 6학년의 경우는 도덕적 사고와 판단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고 경험 범위도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적 책임 중 집단적·배분적 책임과 집단적·비배분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가운데, 왕따 문제, 학교 폭력 문제, 사치와 낭비 문화 문제, 정보윤리와 관련한 잘못된 풍토나 관행 문제 고치기 등의 실제 사례들을 검토하여 학급과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학습경험을 통해 책임이행의 능력과 태도를 길러 가도록 하는 것도 추구해볼 만하다.

㉠ 용기 있는 행동

용기 있는 행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꺼이 실천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다소의 불편과 희생에 감수하더라도 옳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찾아본다.

- ① 옳고 선한 일에 따른 일시적 불편함과 희생의 이해
- ② 옳고 선한 일에 대한 용기 있는 행동 알기
- ③ 용기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한 노력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지도요소는 교육과정상 용기, 자주, 정직이라는 가치·덕목들과 관련 되는 것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어려움에 부딪혀 쉽게 좌절하거나 굴복하기보다는 이를 이겨 내며 선한 일의 실현을 위해 끈기있게 노력해 가는 자세를 기르기 위한 취지에서 설정된 것이다. 사실 용기의 덕은 어려움과 난관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해 나가게 하는 한편 옳고 바람직한 일을 실행해 가도록 해주는 내적 강인함을 의미하며, 고대로부터 우리의 도덕적 삶에 매우 중요한 도덕적 자질로 여겨져 왔던 바 이번 교육과정에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새로이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우선 용기 있는 행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한편, 옳고 선한 일을 용기 있게 행했을 때 가끔 일시적인 불편이나 불이익 또는 희생 등이 따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매우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임을 깊이 인식하여 용기 있는 삶을 추구하려는 자세를 기르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아울러, 용기 있는 행동을 가로 막거나 어려움을 야기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용기 있는 결정과 실천을 하기 위해 어떤 점들에 대해 유의하고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이를 추구하는 자세를 기르는 일도 필요하다.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과 행동을 통해 바람직한 일을 실현하고 개인과 공동체에 크게 공헌한 모범인물들을 탐구하고 본받으며 그러한 삶의 자세를 추구하고자 하는 심정을 깊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용기 있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인 생활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실천해 가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다. 예컨대, 그릇된 일에 동조하기를 요구하는 동료집단의 압력에 맞서서 자기 소신을 지켜가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독립성과 주체성을 발휘하는 등 학생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주체성 있게 행동하는 학습경험을 통해 용기 있는 삶의 능력과 태도를 길러가도록 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된다.

②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가) 준법과 규칙 준수

질서 있고 안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이해하고, 이를 잘 지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법과 규칙을 잘 지켰을 때의 좋은 점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찾아본다.

- ① 우리가 지켜야 할 법과 규칙
- ② 사람들이 법과 규칙을 어기게 되는 이유
- ③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준법과 규칙 준수’는 인간과 사회의 삶에서 질서와 조화, 협동과 평화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법과 규칙 준수의 자세를 기르기 위한 취지에서 설정된 것으로서, 준법, 절제, 협동 등의 가치·덕목들과 관련되는 지도요소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우선 법과 규칙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고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시에 법과 규칙을 지켜야 할 당위성 및 그것들을 잘 지킬 때와 그렇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실제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법과 규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려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나아가, 준법을 우리 생활과 더 현실적으로 관련지으면서 그 이해를 심화하고 실천력을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법과 규칙을 어기게 되는 원인들(무지, 이기심,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자세 등)과 그 결과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를 생활 속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천의지를 높이는 방안 등이 그 예가 된다. 또한, 법과 규칙을 잘 준수하여 칭송받은 인물 또는 사례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 그 훌륭한 점을 본받고 자신을 반성하며 생활 속에서 준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도 하나의 좋은 교육 내용이며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학급·학교나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생활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법과 규칙들을 중심으로 그것의 준수 실태와 문제점, 원인 등을 파악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나) 공정한 행동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줄이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불공정하다고 느낀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여 공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자신이 공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을 찾아본다.

- ①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의 느낌
- ② 불공정한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
- ③ 공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

‘공정한 행동’은 교육과정상 정의라는 가치·덕목을 중심으로 하면서 여기에 성실, 용기 등이 관련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공동체 삶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조화와 평화를 이루어 가는데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공정한 삶의 자세를 기르기 위한 취지에서 설정된 것이다. 이 지도요소를 가르칠 때에는 우선 공정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의지를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의의 여러 의미를 이해하고 각자에게 합당한 대우와 몫을 배분하는 것으로서의 공정과 그 속에 담긴 기본정신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일,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정이 잘 준수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들에 어떤 결과들이 빚어졌는지를 파악하는 일 등을 통해 인식을 깊게 하고 공정한 삶의 자세를 기르는 접근이 요청된다. 특히,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공정하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를 깨우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공정한 삶과 관련한 사고와 판단 및 실천 능력을 실제로 기를 수 있는 노력 또한 기울여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내용으로 하는 실제 또는 가상의 문제사태에 대해 그 옳고 그름을 논의해 보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문제 해결의 학습활동을 하면서 올바

른 도덕 판단 및 합리적 의사결정의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일이 추구될 만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공정한 삶에 필요한 가역적 사고와 상호성 및 역할채택, 합리적 추론과 보편적 결과 검사, 존중과 배려 등의 능력과 품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일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정한 삶에 필요한 절차적 정의를 알고 이에 따라 의사결정과 실천을 실행해 보는 일, 학급·학교, 가정에서 공정한 생활 구현해 가기 위해 약속이나 규칙 또는 제도 등(학급 법정 운영하기 등)을 공동 논의를 통해 수립하고 이를 실제로 실천해 가는 일 등을 도모해 보면서 공정한 삶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실천 태도를 증진하는 내용과 방안도 추구해볼 만하다. 그리고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인권윤리에 대한 교육을 이 지도요소와 관련하여 도모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예)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삶

나와 함께 살아가는 주위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에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 배려하고 봉사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남에게 무시당하거나 소외당했을 때의 느낌을 발표하고, 배려의 필요성과 의미를 찾아본다.

- ① 타인을 배려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
- ②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봉사하는 공동체의 특징
- ③ 배려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실천해야 할 일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삶’은 교육과정상의 배려, 사랑, 협동 등의 가치·덕목들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바람직한 삶을 위해서는 정의와 권리의 도덕 외에 배려와 책임의 도덕 또한 중요하게 추구되어야 하는바, 이 지도요소는 바로 이와 관련된 도덕적 삶의 자세를 기르기 위한 취지에서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지도요소를 가르칠 때에는 우선 배려에 관한 우리의 역사와 전통 측면에서 그리고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측면에서 배려의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접근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의의 윤리에 비해 배려의 윤리가 지니는 근본정신과 윤리적 특징들 및 배려윤리 분야에서 발전시켜 온 배려의 개념, 종류, 대상(자기 자신과 타인 및 타 존재 등), 배려와 책임의 연결, 배려적 삶을 위해 요구되는 것 등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가운데 그러한 삶의 자세를 증진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뿐만 아니라 배려적 삶을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의 사안들과 관련지어 파악하도록 하여 그 이해와 실천의지를 심화하고 필요한 행위 기능을 익히는 한편, 실제로 배려를 실행하면서 그러한 도덕적 삶의 능력과 자세를 형성해 가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배려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게 하는 일, 배려와 봉사의 모범사례들을 탐구하여 그 가치관과 삶의 자세를 본받도록 하는 일 등을 추구하면서 배려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타인 또는 타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감하며 배려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기르도록 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된다. 그런가 하면, 배려와 봉사의 삶에

필요한 공감적 이해, 역할 채택, 관심과 친절의 행동 등 구체적인 행위 기능들을 직접 해보면서 익히는 일, 학급이나 가정에서 배려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집단따돌림, 학교 폭력 문제 등 포함) 공동 논의를 통해 정하고 이를 실제로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배려와 봉사의 자세를 길러가도록 하는 일 등도 추구해 볼 만한 좋은 교육 내용이며 방법이 될 것이다.

③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가) 편견 극복과 관용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도 존중하는 관용의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문화 차이 때문에 상대를 차별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찾아본다.

- ① 예절, 관습 등을 포함한 다른 문화에 대한 우리의 편견
- ②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례와 공존의 장점
- ③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이 지도요소는 사랑을 중심 가치 덕목으로 하고, 정의, 민주적 대화 등을 관련 가치 덕목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문화가 심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민족이나 국가를 배경으로 한 인구가 우리 국민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인적 교류 증가로 다른 문화 간의 습합이나 충돌이 증가함에 따라 이문화(異文化) 소통능력은 개인이 갖추어야 하는 핵심적인 역량들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문화 소통능력의 발달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각 문화는 각 민족이나 국가의 경험을 반영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산물로서 상대적인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다른 문화에 대해 자신이 가진 편견이 무엇인지 학생들 스스로 파악해볼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기초가 되는 도덕적 가치들을 충실히 이해하도록 하는 사례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넷째, 다양한 문화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부정적 기능과 긍정적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갈등 해소방안과 관련된 사례를 활용하는 것이다.

(나)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이 보편적이고 상생적이며 현실적인가를 살펴보고, 좀 더 보편적이고 상생적이며, 현실적인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설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우리 민족과 동북아 전체가 평화롭고 공동 번영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 극복 방안을 찾아본다.

- ①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평가
- ② 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
- ③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이 지도요소는 평화통일을 중심 가치 덕목으로 하고, 애국애족, 정의를 관련 가치 덕목으로 지도할 수 있다. 통일과 관련한 수업 주제를 가르칠 때 중시해야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발적 관심 유발, 통일문제에 대한 합리적 이해, 통일에 대한 상상력과 판단능력 증진 등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업에서는 통일 이후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와 긍정적인 결과들을 학생들이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나 미래 상만을 가르치는 것은 자칫 교화(敎化)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통일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적 관심을 유발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는 통일 한국의 다양한 미래상을 설정하고 그 결과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해보게 함으로써 통일 국가에 대한 상상력과 미래 통일 한국의 시민적 책임감을 가져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통일을 민족 내부적인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평화 체제의 구축을 통해 지역 평화, 그리고 지구공동체 평화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수업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소집단별 토론 및 발표, 패널 토론을 활용한 수업, 역할극을 활용한 수업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각자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평가에 대해서는 소집단별 토론 및 발표 수업, 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패널 토론, 역할극을 활용한 수업, 다른 문화의 이해와 존중에 대해서는 역할극을 활용한 수업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평화로운 세상

지구촌 시대에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세계 평화가 인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본다.

- ① 지구촌 시대에 세계 평화가 인류에 끼치는 영향
- ②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 ③ 세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과 자세

이 지도요소는 평화를 중심 가치 덕목으로 하고, 배려, 정의를 관련 덕목으로 지도할 수 있다.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지도 내용에서는 평화의 가치에 근거한 관점에서 다양한 국가와 민족, 문화들을 이해하고 평화가 일상에 실현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알고 실천하려는 태도를 발달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 평화가 개인, 사회, 국가 및 민족, 지구공동체의 문제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쟁의 부재라는 소극적 평화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폭력, 빈곤, 차별의 해소, 인권의 증진 등을 통한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본질적인 윤리적 의무라는 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상과 문학 작품을 활용한 수업이 효과적일 것이다.

④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가) 사랑과 자비

성인(聖人)들의 가르침의 의미와 근본정신을 알고, 그 핵심은 사랑과 인(仁) 및 자비의 실천에 있음을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를 잘 실천한 사람들을 본받으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성인(聖人)들의 가르침 속에서 올바른 종교생활의 의미를 제시하고, 그 핵심인 사랑과 인(仁) 및 자비의 실천 사례를 위인들의 삶 속에 찾아보며, 나의 생활을 반성해 본다.

- ① 성인(聖人)들의 가르침의 의미와 근본정신
- ② 사랑과 인(仁) 및 자비의 다양한 실천 사례
- ③ 사랑과 인(仁) 및 자비의 삶에 비추어 나의 생활 반성해보기

‘사랑과 자비’는 성스러움을 중심으로 하여 감사/배려, 관용 등의 가치 덕목과 관련된다. 인간에게는 현실적인 생활을 넘어선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도 필요하며 그를 통해 정신적인 고상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됨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즉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옛 성인들의 가르침인 사랑과 인, 자비의 실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그러나 특정 종교의 관점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성인의 가르침에 깃든 의미와 근본정신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종교가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지만 종교를 갖지 않더라도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음도 알고, 특히 자기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 대해 관용의 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교수·학습 방법

도덕 교사는 도덕과 교수·학습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교과 내용 지식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과 내용 지식은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교과 내용 요소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도덕과의 교수·학습방법은 도덕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구성된 교과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교사가 교수·학습과정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말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의 원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통합적 접근의 추구

가. 도덕과 교육에서는 도덕적 지식, 판단력과 같은 인지적 영역과 함께 도덕적 가치와 태도, 도덕적 습관이나 실천과 같은 정의적 및 행동적 영역을 통합적으로 다룬다. 특히, 도덕규범이나 예절에 대한 교육은 학생들이 지적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정서적 공감을 통하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교사가 확고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실천적 방법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도덕과 수업에서는 도덕과 교육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 도덕성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의 구성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통합적 접근이라는 말은 도덕성의 인지, 정의, 행동 영역 요소들의 단순한 ‘산술적 더하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도덕성의 세 가지 영역들이 동시에, 그리고 함께 통합되어지는 승법(乘法)적 통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통합적 접근이라는 말은 교사가 매 수업 시간마다 도덕성의 세 가지 영역들을 항상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교사가 매 수업 시간마다 인지, 정의, 행동적 영역들의 역동적인 관계에 유념하는 가운데 어느 한쪽에만 배타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인간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는 것은 도덕과의 기초적이고 본질적 영역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교사가 도덕규범과 예절을 학생들에게 지도할 때,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방식이 아닌 행위의 타당한 근거를 학생 자신의 실생활 속에서 탐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과거 도덕과 교육의 성격과 관련해 노예교육이라고 폄하한 일부의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도덕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박제화된 도덕적 훈화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고민거리가 녹아있는 생생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생각을 스스로 훈련시키고 도덕적 동기와 실천 성향을 함양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도덕과 교육에서 교사의 신념과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단순히 어떤 도덕적 지식 내용만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도덕 발달 과정에서 동일시와 모방의 대상이 된다. 일찍이 뒤르케임(E. Durkheim)이 주장한 바와 같이, 도덕을 가르치는 교사는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권위는 믿음과 열정의 상태를 수반해야 한다.

끝으로, 다양한 실천적 방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수업에 마치 왕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한 가지 수업 방법만을 고집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편견을 버리고 수업 목표와 내용에 따라 그에 알맞은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적절히 활용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같은 내용도 수업 상황, 학생 개개인의 성격과 학습양식, 선수학습 정도 등을 고려해 다양한 실천적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목표와 내용에 부합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

나. 도덕과 수업은 학생들의 지적·도덕적 발달 수준에 부합되는 교수·학습 방법을 학년별로 고려하고, 같은 학년에서도 목표와 내용에 알맞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한다. 도덕과 수업에서는 교육 내용에 알맞게 강의법, 문답법, 토의·토론법, 논술법, 시청각 매체 활용법, ICT 활용법, 협동학습 방법, 프로젝트 학습 방법, 역할놀이 방법, 실천·체험학습법 등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도록 한다.

도덕과 수업에서 활용할 교수·학습방법을 선택할 때 교사는 학습자의 발달수준, 목표와 내용 적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도덕성의 통합적 성격을 고려할 때 도덕과의 특정 단위 수업 시간에 어느 한 가지 방법만을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 또한 각각의 방법에 제시된 모든 단계를 어김없이 지키면서 적용할 수도 없다. 학습자 집단의 발달 특성이나 배경적 요인, 수업 상황, 물리적 환경, 멀티미디어 기기 구비, 학습자료, 영상자료 등의 구비와 같이 교수·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 목표와 학습 내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하나의 단위 수업 시간에 다양한 교수·학습방법들 중 하나만을 적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어떤 도덕적 가치 규범을 제시하고 이를 모방하거나 수용하도록 하는 가운데 칭찬, 승인, 보상 등과 같은 강화 기제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반복해서 실천해 보게 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대체적으로 강의법과 문답법, 시청각 매체 활용법, ICT 활용법, 실천·체험학습법 등과 같은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도덕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 한편,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도덕규범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도모하고 스스로 판단·선택하여 자발적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협동학습, 토의·토론법, 문제해결법, 프로젝트학습법, 논술법 등 여러 가지 자기 주도적인 방법들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도덕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우리 교육계에서 중요한 교육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논술지도는 그 내용과 방법 면에서 도덕·윤리과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등학교의 도덕·윤리과의 학습 주제나 탐구 방법들은 논술지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도덕 수업에서 논술법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논술은 어떤 주제에 대해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글로 표현한 것이다. 논술은 도덕적 문제의 인식 및 발견 능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도덕과 수업에서의 논술법은 도덕적 가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 및 적용 능력, 도덕적 탐구절차의 습관화, 논리적 추론 능력 등을 발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방법은 도덕적 가치나 덕목, 원리나 규범 등에 대한 지식, 도덕적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관점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그 정당화 근거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논술법은 특정한 주제나 문제 사태를 담은 글을 제시하기, 그 주제나 주제에 관하여 자유롭게 쓰기, 도덕적 딜레마에 초점을 두고 다시 쓰기, 소집단 동료 검토와 협력적 쓰기, 자신의 이야기기나 대안으로 마무리하기와 같은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

○ 학생경험중심적 접근

다. 도덕과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도덕적 판단력 및 가치 판단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도덕 문제를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지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게 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 수업에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도덕적 판단력 및 가치 판단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학생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도덕 문제를 다룰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도덕과 교육의 사회적 적절성을 제고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학생들의 생활이나 구체적인 경험과 유리된 관념 차원의 도덕규범이 다루어지면 그 내용이 학생에게 제대로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변화도 가져오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의 생활 장면과 경험 속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쟁점들과 관련지으면서 생생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지어 다룰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교사가 학생들의 생활 장면과 사회적 쟁점들을 다룰 경우, 흔히 교과서 내용과 무관하거나 교육과정 목표와 다르게 수업을 진행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생활 장면과 경험 속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쟁점들을 소재로 수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보충하고 심화시키며 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되도록 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교사의 관점이나 견해를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수업보다 도덕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더욱 발달시키고 삶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도덕적 안목을 더욱 효과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도덕 문제에 대한 자기 주도적 학습은 교사나 동료 학생들의 도움 없이 도덕 학습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도덕 학습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확인하고, 적절한 도덕 학습전략을 선택하고, 자신의 도덕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학생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학생들의 구체적인 생활 경험이나 사회적 문제들과 지도 내용을 관련지어 다룰 때, 도덕과 교육이 현실과 유리된 교과서 속의 도덕적 가치 규범을 피상적으로 가르치는 수준을 벗어나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그리고 그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도덕교육으로 구현됨으로써 도덕과 교육의 사회적 적절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 교수학습 자료의 다양성과 비편향성

라. 도덕과 수업에서는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작성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와 매체를 활용한다. 더 나아가 지역의 특성이나 시사성이 강한 내용은 그 지역이나 시기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지도하되, 편향되지 않은 객관적 입장에서 자료를 구성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에 교사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게 된다. 교사의 전문성, 교수·학습 방법의 적절성, 학습 환경, 평가의 관점과 방법, 교수·학습 자료와 매체 등 그야말로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요인들이 수업에 영향을 미친다. 그 어느 요인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업이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이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더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할수록 그들은 더 훌륭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말처럼, 유용한 자료의 적절한 활용은 수업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도덕과 수업 자료로는 감동형·사고형·행동형 자료, 당위적 설명형·문제 제기형 갈등 자료, 시각형·청각형·체험형 자료, 문서형·ICT형 자료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이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수업 목표와 내용, 학생의 개인차(발달수준, 학습양식, 성격, 선수학습 등)를 고려해서 단독 혹은 몇 개를 종합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도덕과 수업에서는 지역의 특성이나 시사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기자료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도덕과 수업이 다른 어느 교과보다도 가치·이념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어느 한 가치나 이념에 편향되어 객관성을 잃게 될 경우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고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도덕과 수업 자료는 특정 집단의 이념이나 종교적 지향 등에 편향되지 않은 객관적 입장에서 자료를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교사가 학생들의 유의미한 도덕 학습을 위해 필요한 학습 자료나 더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의 운영 실체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려면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도덕과 수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사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개발센터(KICE-TLC), 중앙 에듀넷(EduNet), 시·도 교수학습지원센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정보센터 교수·학습자료란 등에서 제공되는 교수·학습 자료들 중 유용한 자료들을 수업 목표에 맞게 활용하여야 한다.

○ 도덕적 모범으로서의 교사

마. 도덕과를 지도하는 교사들은 자신이 학생들의 동일시 대상임을 고려하여, 일상적인 언어, 사고 방식, 태도, 행동 등에 유의하여 도덕적 모범이 되도록 한다.

도덕교사는 학생들에게 도덕적 인격자의 역할 모델이어야 한다. 역할모델은 학생들이 우러러 보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그들의 삶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H. Kirschenbaum: 273). 도덕교사는 도덕적 가치의 전수자가 아니라 실제로 도덕적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시킴으로써 영향력 있는 도덕적 모범이자 스승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면, 도덕교사는 학생들을 도덕적으로 대함으로써 그들이 도덕성이 무엇인지를 실제적 인간관계를 통해 체득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여야 한다. 또 교실 안팎에서 도덕적 인성 또는 인격 특성을 보여주는 인격자이어야 한다. 또한, 학교생활과 사회생활 속에서 도덕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도덕 문제들에 대한 추론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다른 사람이나 학생 자신에게 해를 가했을 때 학급 토론, 이야기하기, 격려, 그리고 교정적 피드백 등을 통해 도덕적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도덕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료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격려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도덕적으로 사고하는 절차와 방법, 합리적인 대안 모색의 결과 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도덕적 문제를 판단하는 지식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을 학생들에게 확인시켜주고, 토론과 대화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습관화된 행동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때로는 이러한 도덕적 모범으로서의 역할이 과중하게 여길 수 있지만 교사가 학생들의 도덕학습에 미치는 결과라는 측면에서 도덕 교사의 본질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 도덕적 실천의지 강화를 위한 지도

바. 학생들의 건전한 도덕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덕과 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교육이나 타 교과에서 다루어지는 가치문제, 봉사활동, 체험학습, 교내 행사,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작용 등을 도덕과 수업에 적절히 관련시킴으로써, 학생들이 도덕규범을 내면화하고 도덕적 실천 의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도덕과 수업을 하는 교사는 학부모와 지역 사회 및 언론매체 등을 도덕교육의 동반자 혹은 협조자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기관들을 도덕교육의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학부모 및 자원 인사를 도덕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 가정

과 연계하여 지도하는 방법, 봉사학습을 통한 방법 등에 대해서도 매우 세밀하면서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도덕적 실천의지, 도덕적 행동의 습관화를 위해서는 도덕 교사는 타 교과와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도덕과 교육에서는 다양한 실천·체험학습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업 활동들이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도덕과 수업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특히 가정 윤리, 과학기술윤리, 환경윤리, 민주시민윤리 등의 주제에 대한 교수·학습은 가정과, 사회과, 과학과 등 관련 교과에서도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교과의 중점 목표를 달리하되 협력적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화, 세계화, 다문화 등 최근의 변화들과 관련되는 도덕 문제들에 대해서는 유사한 내용을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타 교과와 연계 학습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양성평등, 세대평등, 다문화 이해, 편견 해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민족간의 연대와 협력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과 통합적인 접근이 모색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 도덕과 수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도덕적 실천의지를 강화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 도덕실(예절실) 운영

사. 도덕과 수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의 적절한 교육 여건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형편이 허락하는 한 체험학습을 위한 도덕실(예절실)이나, 중등학교의 도덕과 수업을 위한 교과 교실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 우선은 교사, 교재 및 프로그램, 학생 등의 요소가 훌륭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교육 여건과 환경 등이 수업하기가 좋아야 한다. 도덕과 수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도덕적 사고와 느낌, 그리고 행동을 적절히 표현해 보는 것 등과 같이 다양한 학습 경험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도덕과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도덕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도덕실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도덕 학습을 지원해주는 학습 자료, 영상 자료, 읽기 자료 등을 갖추어야 한다. 토의·토론법, 논술법, 도덕 딜레마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 문학 작품, 영화나 영상 자료를 읽거나 시청하는 것, 역할극 등 도덕과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과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 도덕실 내부는 다양한 수업 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물리적인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모둠별 토론을 위해 이동이 가능한 책상과 의자, 영상물 시청이나 역할극 등을 위해 필요한 멀티미디어 기기나 음향기기, 조명 기구 등의 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5. 평 가

윤리학과 도덕 심리학은 모두 도덕성 및 도덕성 발달의 특성이 무엇이고, 도덕성은 어떻게 획득 가능한가에 대해 꾸준히 탐구해 온 학문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도덕성에 대한 연구와 최근 교육 측정 및 평가 영역에서의 학문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다면적이고 통합적인 특성을 지닌 도덕성을 과학적으로 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이유에서 일부 사람들은 도덕과 평가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학교에서 도덕과 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또 계속되어야 한다면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학교에서 교과교육으로 가르치고 배운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시키는 일은 교과 교육의 개선에 가장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이다(조난심, 1998: 282). 여기서는 도덕과 평가의 본질과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도덕과 평가에서 상호 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도덕과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도덕과 평가의 본질

가. 도덕과 평가는 학생의 도덕성 발달과 인격함양에 도움이 되는 평가가 되도록 한다. 그리하여 평가가 학업성취도 및 도덕적 판단 능력과 실천 의지를 판정하는 자료로써 의미뿐만 아니라, 도덕과 학습 진전 상황을 기록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도덕성 발달과 인격 함양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도덕과 평가의 본질은 결국 도덕과 교육을 통해 변화된 학생들의 도덕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측정하여 학생들의 도덕적 성장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 도덕과 수업이 제대로 운영되었는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해석하여 도덕과 교수·학습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데 두어져 있다. 즉 도덕과 교사는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학생의 인성 발달과 진보를 파악하여 학생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진로지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이유에서 도덕과에서 평가 결과는 기록, 보관하는 데 그치지 말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도덕적 성장을 촉진하고, 도덕과 수업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자료와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도덕과 수업 시간에 공정한 생활에 대해 지적으로 이해하고 실천 동기를 강화하는 데까지만 가르치고 직접 공정한 생활의 실천과 행동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도덕과 평가는 그 후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공정한 생활을 행동을 옮기면서 실천하는지 여부를 평가의 대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 도덕과 평가의 관점

나. 도덕과 평가에서는 도덕성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추구한다. 인지적 측면에서는 도덕적 가치·규범의 의미에 대한 이해,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가치 판단의 합리성 등을 평가한다. 정의적 측면에서는 도덕적 민감성과 열정성, 도덕적 가치·규범의 내면화 등을 평가한다. 행동적 측면에서는 도덕적 가치·규범의 실천과 습관화한 정도를 평가한다.

인지적·정의적·행동적으로 통합된 도덕적 인간 형성을 교육목표로 삼는 도덕과에서는 지적인 발달이나 성취 못지않게 학생들의 도덕적 민감성과 열정성, 도덕적 가치·규범의 내면화 등 정의적 특성의 개발과 도덕적 가치·규범의 실천 및 습관 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영역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통합적 도덕성은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영역이 잘 조화된 전체로서의 ‘인격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지, 도덕성을 구성하는 각 영역이 독립적 내지는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각각의 영역을 병렬적으로 합치면 된다는 식의 통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도덕성의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영역을 떼어놓고 각각의 영역을 별개의 평가방법과 준거에 의해 측정한 후 그 결과를 합산하는 식의 평가를 지향한다면, 통합된 전체로서의 도덕성이나 인격의 의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그 무엇을 평가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이와 같이 도덕과에서 환원주의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영역이 잘 조화된 전체로서 ‘통합적 도덕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수행평가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도덕과 평가의 기준

다. 도덕과 평가에서는 학교 급이나 학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저학년에서는 덕목 및 도덕규범의 이해, 도덕적 문제 해결, 도덕적 정서 및 도덕적 실천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중학교 고학년 및 고등학교의 경우, 특히 인지적 측면에서는 도덕적 개념 및 원리의 이해, 문제 파악 및 인식,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평가, 가치 판단 및 의사 결정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이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을 성취기준형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취지는 교육과정의 내용 진술이 단순히 내용 항목의 나열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인 학습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학생들의 행동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명료화한 것이다. 즉 도덕과 교육과정의 지도 요소들은 각 학년에서 학습해야 할 최소필수 요소로서 이 성취기준을 도덕과 평

가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인지적 요소로서 덕목 및 도덕규범의 이해, 도덕적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도록 한다. 주요 가치요소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초등학교 수준에서 주요 가치요소 혹은 덕목들을 그들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또한 주요 가치 요소 혹은 덕목들이 서로 상충할 경우 도덕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정의적 요소로서는 도덕적 정서를 대상으로 도덕적 인물에 대한 감동감화와 감정이입 여부 및 자신을 반성하는 의지들을 평가하도록 한다. 도덕적 실천에 관해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바른생활과와 연계하여 규범의 실천여부와 습관화 정도를 평가하도록 한다.

○ 도덕과 평가에서 상호 주관성 확보

라. 도덕과 평가에서 상호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취기준형으로 제시된 학년별 교육 내용을 도덕과 평가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도덕과 평가에 있어 타당도, 신뢰도, 그리고 객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 주체와 대상, 평가 주체들 간에 상호 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호 주관성이란 도덕과 평가의 주체와 대상, 평가 주체들 간에 평가 활동에 대한 진정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평가에 대한 공유된 관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성취기준형(achievement standards)으로 제시된 학년별 교육 내용을 도덕과 평가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해야 하고, 채점기준표(rubrics)를 활동 전에 미리 학생들에게 제시하되 가급적 학생들과 상호 협의를 통해 마련하도록 하며, 도덕과 특성 및 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원목적 분류표를 교사 간 협의를 통해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도덕과 수행평가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상호 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점기준표가 활동 전에 미리 공개되거나 교사와 학생 간의 합리적 소통을 거쳐 채점기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채점기준표(rubrics)란 ‘수행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행이나 산출물의 질을 구별해내기 위한 일련의 지침(Wiggins, 1995)’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채점기준표는 학생들의 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작품의 질을 판단하기 위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준거와 수행 기준을 제시한 준거 척도이다. 이처럼 채점기준표는 학습자에게 반응의 구체적인 방법과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평가지침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채점기준표 개발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평가 기준에 대해 동의하고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비추어 어느 수준에서 성취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다면, 과제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동기 유발이 충분히 일어나게 되고 평가와 교수·학습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 도덕과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마. 도덕과 평가는 도덕성의 세 측면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추구하고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도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선택형과 서술형을 포함한 지필 평가, 행동 관찰, 자기 보고, 구술·논술 평가, 포트폴리오(portfolio), 토론 및 발표에 대한 평가, 학생 상호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도덕성의 다양한 측면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한다. 특히, 도덕과의 논술형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도덕과 교사가 평가 주체가 되어 학생들의 능력이나 태도를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도덕과 평가의 일반적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하지만, 평가는 교과와 특성에 따라, 또한 특수한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되므로 이를 기본 틀로 하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김재춘 외, 2006: 231 참조).

① 평가의 목적 확인 ⇒ ② 평가영역과 내용의 선정 ⇒ ③ 평가방법의 결정 ⇒ ④ 평가도구의 선정과 개발 ⇒ ⑤ 평가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 ⇒ ⑥ 평가환경의 구축 ⇒ ⑦ 자료의 수집 ⇒ ⑧ 자료의 분석 ⇒ ⑨ 평가결과에 대한 해석 ⇒ ⑩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 ⇒ ⑪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

이처럼 도덕과 평가의 기본 절차에 해당하는 매 단계의 중요성을 일단 인정하더라도 학생들의 처지에서 보자면 ‘도덕 선생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도덕과 교사의 가장 심각한 고민 또한 당연히 ‘어떤 평가도구가 평가목적을 실현하는 데 가장 유용할 것인가?’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에 ‘도덕과 평가도구의 선정 및 개발’은 11단계 중에서도 실제로 가장 중요한 단계로 고려될 수 있다.

평가 도구를 선정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보다 도덕과 수업을 받은 사람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재려면 도덕성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 따라야 하고, 이와 같이 통합성을 추구하는 도덕과의 평가는 가능하면 하나의 평가도구를 통해서도 통합적 도덕성을 쫓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가도구는 각각 그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 중 특히 어느 하나의 요소를 평가하는 데 보다 유용할 수 있으므로, 개별 평가도구가 가진 특성을 잘 이해하고 고려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도덕적 가치 및 규범의 의미와 근거에 대한 이해 정도와 같은 인지적 영역의 평가를 위해서는 선택형(진위형, 배합형, 선다형)과 서답형(특히 단답형 및 완성형) 등이 주로 사용된다. 또한 도덕적 가치판단 능력 및 추론 능력과 같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사고력을 평가하려면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 문항이 사용될 수 있으며, 가치 및 태도의 내면화 정도 혹은 실천 성향 및 의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찰법, 면접법, 질문지법,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수행형 평가가 사용될 수 있다.

최근 도덕과 평가 방식의 혁신을 위한 방향으로 강조되는 수행평가는 일반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보고, 그 학생의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식’을 의미한다. 즉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답을 작성(서술 혹은 구성)하거나, 발표하거나,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요구하는 평가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백순근, 2000: 48).

도덕과에서 수행평가가 지니는 의의와 중요성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정창우, 2007년: 735-737). 첫째, 수행평가는 ‘전인교육’이라는 교육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존 평가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인지·정의·행동적 영역에서 인지적 영역의 일부 지적 요소만을 평가해 온 도덕과 평가의 현실을 개선하고, 환원주의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도덕성 및 인격의 발달이라는 도덕과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의 공조관계 형성이 중요한데, 수행평가는 도덕과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드높여 줄 수 있다. 셋째, 수행평가는 시험(test)인 동시에 활동(activities)이 될 수 있으므로 도덕과 교수·학습방법의 쇄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수행평가는 도덕과 평가 방식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

도덕과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행평가 방법으로는 서술형 검사 및 논술형 검사, 구술시험, 토론법, 면접법, 관찰법, 연구보고서법, 포트폴리오(portfolio)법 등이 있다. 이러한 평가 방법들은 수행평가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에 해당한다.

① 서술형 평가 혹은 논술형 평가란 영어의 에세이 테스트(essay test)를 번역한 것으로, 흔히 ‘주관식 평가’라고 하기도 한다. 도덕과에서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의 활용상 의의는 무엇보다 도덕적 추론 및 실천적 지혜와 같은 도덕적 사고 능력에 대한 평가, 입장채택 및 공감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민감성에 대한 평가, 확언과 다짐을 통한 도덕적 실천의지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하지만, 도덕과 교사가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문항을 제작하는 기술이 부족하거나 채점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혹은 도덕과에서 추구하는 교육적 본질에 대한 고려 없이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작문 능력만을 중요한 평가 관점으로 고려한다면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는 더는 도덕과 평가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다(정창우, 2007년: 739).

② 구술시험은 종이와 붓이 발명되기 전부터 시행되어 온 가장 오래된 수행평가의 한 형태로서, 학생으로 하여금 특정 교육내용이나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여 학생의 준비도, 이해력, 표현력,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직접 평가하려는 방법이다.

③ 토론법은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 활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평가 방법이다. 도덕과에서 다루는 주제나 개인적, 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충실성과 사고의 논리성, 다른 의견에 대한 태도 등을 여러 관점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개인별 찬·반 토론을 벌이거나 소집단으로 나누어 서로 의견을 교환하

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토론 내용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각 개인의 지도력, 수용력, 사회성, 논리력, 비판적 사고력 등 지적 능력과 정의적 태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 수가 많으면 개별 학생들이 충분히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④ 면접법이란 구술시험과 더불어 언어의 상호작용 속에서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특히 도덕과에서의 면접법은 학생과의 직접적인 대화와 의사소통을 통해 학생의 도덕발달에 관한 심층적인 내면의 소리를 듣고자 할 때, 그리고 지필 검사나 질문지에 의한 자기보고법 등을 통해 충분히 알기 어렵거나 그것들을 통해 얻은 정보가 의문이 있다든가 그것을 더욱 깊이 추구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유병열, 2003: 491).

⑤ 관찰법은 교사가 일정한 평가 목적을 가지고 학생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관찰한 사실의 구체적인 기록을 근거로 학생의 도덕적 성장과 변화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유병열, 2003: 511). 이 방법은 관찰한 바를 어떻게 기록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보통 자유기록, 체크리스트, 평정척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세구, 1988: 125).

⑥ 연구 보고서법이란 도덕 과목과 관련 있거나 범교과적인 연구 주제 중에서 학생의 능력이나 흥미에 적합한 주제를 선택하여,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종합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도덕과에서는 개인적 혹은 집단적 차원에서 도덕적 숙고 및 도덕적 의사결정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삶의 현장 및 공동체에 대한 직접적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도덕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수집 및 분석·종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정창우, 2007년: 751).

⑦ 포트폴리오(portfolio)법이란 보통 자신이 쓰거나 만든 작품을 누가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모아 둔 개인별 작품집 혹은 서류철을 이용한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다(백순근, 2000: 113). 특히 도덕성의 발달은 일회적인 경험이나 단기간의 훈련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의 ‘위대한 것에 대한 습관적인 대면’이나 ‘지속적인 자기점검 및 반성’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면, 도덕과 평가에서 포트폴리오는 다른 어떤 평가도구보다 도덕교육적 목적을 위해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정창우, 2007년: 753).

○ 도덕과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에 대한 평가

바. 도덕과 평가에서는 학생 평가만이 아니라, 도덕과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덕과 교육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평가 결과를 도덕과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더 나아가 도덕과 수업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여 도덕과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기 장학 자료가 되도록 한다.

교사가 학생평가에서 어떤 특성을 중시하고 어떤 평가방법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학

습활동의 내용과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의 기능을 이용하여 교사는 평가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교수·학습활동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교사가 어떤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실시하느냐는 교수·학습활동과 별개의 활동이 아니라 통합되어 있다.(김수동, 2005:18)

그러므로 도덕과 평가는 근본적으로 평가의 관점을 학생 개인의 도덕적·인격적 성장과 아울러 도덕과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수·학습의 개선에 두고 있다. 따라서 평가는 학생의 성취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도덕과 수업 전반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 예컨대 평가 결과가 성취 수준에 미달되었다면 학생들을 다시 지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주제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럴 경우 학생들보다는 교사의 교수 방법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즉 교사의 자기 장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V. 도덕과 신·구 교육과정 비교

구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고
과목 체계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3~10학년) 「도덕」과 고등학교(2,3학년) 선택 과정「시민윤리」(일반선택), 「윤리와 사상」·「전통윤리」(심화선택)로 구성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3~10학년) 「도덕」과 고등학교(2,3학년) 선택 과정「현대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전통윤리」로 구성	○ 선택과정의 구분을 없애고, 「시민 윤리」 대신「현대생활 과 윤리」추가
체 제	1. 성격 2. 목표 3. 내용 가. 내용 체제 나. 학년별 내용 4. 교수·학습 방법 5. 평가	1. 성격 2. 목표 3. 내용 가. 내용 체제 나. 학년별 내용 4. 교수·학습 방법 5. 평가	○ 기본체제 유지
성 격	○ 한국인,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과 ○ 인성 교육, 민주 시민 교육, 통일대비 교육과 국가 안보 교육의 강조 ○ 학제적 접근 시도	○ 자신의 바람직한 삶과 우리 사회와 세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교과 ○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형성 강조 ○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여러 학문적 접근 활용	○ 도덕과의 정체성 부각 ○ 보편윤리 강조 ○ 핵심 강조 영역 표시 하지 않음
목 표	○ 일반 목표와 생활 영역별 목표를 제시 ○ 목표를 학습자 위주로 진술 ○ 인지·정의·행동적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 중시	○ 교과목표(총괄 목표와 하위 영역별 목표)와 학교급별 목표로 구분 진술 ○ 목표를 학습자 위주로 진술 ○ 인지·정의·행동적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 중시	○ 학교급별 목표의 신설 ○ 내용 영역별 목표 제시
내용 영역	○ 생활영역 중심으로 설정	○ 도덕적 주제를 중심으로 가치관계의 확장에 따라 4개 영역으로 구분	○ 내용 영역 구분의 논리 신설

구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고
주요 지도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영역별로 각 5씩 총 20개의 주요 덕목/지도요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영역 구분을 두지 않고, 주요 덕목/지도요소를 18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덕목의 영역간 지도 모색 ○ 지도요소 적정화
내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적 덕목 중심의 구성 ○ 3~6학년별 지도요소의 수를 동일하게 10개씩 제시 ○ 소단원 내용 체계 진술에서 목표와 내용이 결합된 하나의 문장을 제시하고 제재를 차례로 제시하는 방식을 취함. ○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이념의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적 덕목 중심의 구성 유지하여 중등과의 연계만이 아니라 차별성 부각 ○ 3~4학년의 경우에 지도요소를 8개만 제시 ○ 5~6학년의 경우에 내용의 추상도를 높여 난이도 수준의 적정화를 기함. ○ 성취기준형 내용 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선정 원리 변경 ○ 3~4학년에서 도덕적 덕목의 내면화 지향 ○ 지도 내용의 정련화, 적정화
교수· 학습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제시됨. ○ 통합적 교수·학습 방법의 중요성 강조 ○ 도덕실 수업의 적극적 권장 ○ 타 교과 및 교과 외 활동, 가정교육 등과의 연계적 노력 강조 ○ 학생들의 지적·도덕적 발달 수준에 부합하는 지도 방법을 학년별로 고려함. ○ 같은 학년에서도 목표와 내용에 따라 특색 있는 지도 방법을 구사할 것을 권장 ○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강조 ○ 다양한 학습 자료의 개발과 교사 상호간의 공유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제시됨. ○ 통합적 교수·학습 방법의 중요성 및 다양한 실천적 방법 적용 강조 ○ 체험 학습실(도덕실) 및 교과교실 수업의 적극적 권장 ○ 타 교과 및 교과 외 활동, 가정교육 등과의 연계적 노력 강조 ○ 학생들의 지적·도덕적 발달 수준에 부합하는 지도 방법을 학년별로 고려함. ○ 같은 학년에서도 목표와 내용에 따라 특색 있는 지도 방법을 구사할 것을 권장 ○ 학생들의 자율적 도덕 판단 능력 및 가치판단 능력 함양을 위한 자기 주도적인 학습 강조 ○ 지역성과 시사성 있는 다양한 학습 자료(교과서 포함)의 개발과 교사 자신이 모델링이 되는 특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실과 더불어 교과교실 수업 적극적으로 권장 ○ 논술법 등 도덕적 판단 및 가치 판단 능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제시 ○ 지역성과 시사성 있는 교과 교재의 활용 강조

구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고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성의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측면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강조 ○ 인지적 영역의 평가로는 도덕적 가치·규범의 의미, 근거에 대한 이해 정도, 도덕적 사고력과 추론 능력, 가치 판단의 합리성 정도를 언급 ○ 정의적 영역의 평가로는 도덕적 민감성과 열정성,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한 내면화 정도를 언급 ○ 행동적 영역의 평가로는 도덕적 가치·규범을 실천하고 습관화한 정도 ○ 수행 평가 이론의 적극적 수용 ○ 목표에 맞게 다양한 평가 방법과 기법을 활용할 것을 강조 ○ 평가를 수업 개선과 학생 이해 및 학생의 도덕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 ○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모두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성의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측면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강조 ○ 영역별, 학교 급별(학년별) 평가의 준거를 제시 ○ 초등과 중등 저학년에서는 덕목 및 규범의 이해, 도덕적 정서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중등 고학년에서는 특히 인지적 측면의 경우 도덕적 개념 및 원리의 이해, 자료 분석 및 해석 등 행동 유형 분류를 고려하여 평가 ○ 성취기준형 내용 진술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 ○ 목표에 맞게 수행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 방법과 기법을 활용하되, 특히, 논술 및 서술식 평가를 적극적으로 권장 ○ 도덕과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에 대한 평가 실시 및 피드백 권장 ○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모두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급별 및 저학년과 고학년을 구별하여 평가의 강조점을 설정함 ○ 교육과정상의 성취기준형 내용 진술 활용을 권장 ○ 논술식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권장 ○ 교육과정 및 수업 평가 제시

사 회

곽 원 규 (교 육 과 학 기 술 부)
권 종 원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신 선 호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이 정 우 (교 육 과 학 기 술 부)
박 진 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은 지 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 은 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신 향 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오 정 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장 의 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민 윤 (상 일 초 등 학 교)
남 상 준 (한 국 교 원 대 학 교)
김 정 인 (춘 천 교 육 대 학 교)
이 혁 규 (청 주 교 육 대 학 교)

- I.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 II.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
- III.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 IV.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 1. 성격
 - 2. 목표
 - 3. 내용
 - 4. 교수·학습 방법
 - 5. 평가
- V. 사회과 신·구 교육과정 비교

I.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국가 교육과정은 바람직한 교과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며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까지 제시한 문서로서, 초·중등학교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자 학교 교육을 실천하는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교육과정을 적절한 시점에 개정하지 않게 되면 교육이 시대 흐름에 뒤떨어지게 되고, 너무 자주 개정하게 되면 교육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2007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근간으로 하되, 그동안 논의되었던 사회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려고 하였다.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은 사회 환경의 변화, 국가·사회적 요구, 사회과의 쟁점 및 문제점 해결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논할 수 있다.

1. 사회 환경의 변화

사회과 교육과정은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학교 교육에 반영하는 준거이므로,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도 당시의 사회적 상황뿐만 아니라 21세기 미래 사회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리고 2007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세계화의 진전, 지식 정보 사회의 가속화, 개방화 및 다원성의 추구 등 시대적 상황과 사회 환경의 변화 모습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변화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세계가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더욱 큰 정치·경제적 단위로 묶여 가면서 삶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정보와 통신 기술의 발달이 촉진됨에 따라 전 세계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그 범위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둘째, 지식과 정보의 부가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지식 정보 사회로의 진전 역시 가속화하고 있다. 지식 정보 사회로 진전되면서 우리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생활의 중요한 자원이 되고,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관련 산업이 경제의 주축이 되어 가고 있으며,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고 운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세계화 및 개방화 등과 같은 사회 변화 흐름에 따라 사회 내의 다양한 하위 집단들의 독특한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드러나면서 배타적인 동질성과 획일적인 보편성을 추구하던 시대로부터 이질적인 문화의 독특성과 다원성을 중시하는 사회로 급속하게 이행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이러한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 다원화 등과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과 목표, 학습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국가·사회적 요구

국가 수준의 사회과 교육과정은 공교육의 지침이므로 개정 교육과정에는 사회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국가·사회적 요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첫째, 세계화 및 지식 정보 사회를 대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 영토를 둘러싼 주변국의 역사 왜곡과 세계화 시대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사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세계화 및 개방화 현상 등이 가속화함에 따라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는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세계화 및 지식 정보 사회 대비, 저출산 및 고령화 대비, 역사 교육 강화, 다문화 교육 실시 등의 국가·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교과 목표, 학습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사회과의 쟁점 및 문제점 개선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은 사회 환경의 변화 및 국가·사회적 요구의 반영과 더불어 그동안 사회과가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쟁점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첫째, 기존의 사회과 교육과정은 역사, 지리, 일반 사회 등 세 영역의 기계적인 통합이 이루어졌던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각 영역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영역 간 통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심점이 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영역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아울러 학년별 사회과 교육 내용에 적합한 통합의 유형도 고려하고 있다.

둘째, 기존의 사회과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 구성 원리로 환경 확대법을 강조하여 적용하다

보니 학습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공간 규모를 고려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역을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공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환경 확대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셋째, 기존의 사회과 교육과정은 내용 및 활동이 중복되고 과다하여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즉 유사하거나 중복된 내용, 지나친 활동 중심의 내용 구성 등으로 말미암아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인 탐구 및 문제 해결 학습을 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 및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용의 양과 수준 측면에서의 적정화를 추구하고 있다.

넷째, 기존의 사회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진술 체제 측면에서 내용 진술의 수준이 지나치게 상세화되어 있어서, 교과서 개발 및 교실 수업 수준에서 기대되는 자율성과 전문성이 제한되고 각 수준에서 기대되는 창의성과 다양성이 제약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신에 주제명과 주제 안내 및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소주제명은 삭제함으로써 대강화하고 있다.

Ⅱ.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

1. 교수요목의 시기(1946~1954)

한국의 사회과는 1946년 미군정 하에서 미국 콜로라도 주의 Social Studies를 교수요목에 도입함으로써 성립되었다. Social Studies를 ‘사회생활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는 역사, 지리, 공민, 실업을 망라한 교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내용으로 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사회 기능을 중심으로 선정된 주제를 바탕으로 동심원 확대법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 학습을 지향하고 있어 생활 경험형 교육과정에 접근하고 있다.

2. 제1차 교육과정의 시기(1954~1963)

1954년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1955년의 교육과정 제정·공포에 따라 사회과의 시수, 목표, 내용이 정해졌다. 새로 제정된 사회과(사회생활과) 교육과정은 교수요목에 비하여 지적 체계를 존중하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을 뚜렷이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Social Studies가 표방하는 진보주의 교육관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제1차 교육과정은 교수요목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민주 시민 육성을 위한 민주주의 교육의 주된 교과로서의 역할과 광복 이후 국가의 재건과 부흥을 위한 여러 지식의 덕목을 사회과 교육 내용에 포함함으로써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보려는 교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초등학교에서는 사회 기능을 중심으로 범위(scope)를 결정하고, 동심원 확대법에 따라 계열화(sequence) 하였기 때문에 구성 논리는 교수요목과 동일했다. 교과 내용으로는 학년별 단위명과 제목을 제시하였는데, 동심원적 지역 확대 원칙에 의한 생활 경험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3. 제2차 교육과정의 시기(1963~1973)

1963년에 공포된 제2차 교육과정은 교과목으로 조직된 내용보다 학생들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의 개념을 받아들인 경험 중심 또는 생활 적응 교육과정으로서, 교육과정의 내용

면에서는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을 강조했고, 조직 면에서는 합리성을, 운영 면에서는 지역성을 강조했다. 편제 면에서 볼 때 우선 교과와 명칭이 ‘사회생활과’에서 ‘사회과’로 바뀌었고, 사회생활과 내의 반공·도덕 내용이 ‘반공·도덕 생활’ 영역으로 이전되었다. 그 결과 이수 시간도 이전 교육과정보다 축소되었다.

초등학교에서는 종래의 사회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 확대법을 따르는 내용 구성은 계속 유지되었고, 내용상으로는 사회생활을 이해시키고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하게 하며, 사회를 진보·향상시키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것을 목표로 하는 것 또한 계속 유지되었다. 그렇지만, 내용 조직 혹은 구성에서 4학년의 우리나라 관련 내용은 ‘나라 전체’→‘각 지방’→‘우리 지방’으로 지역 확대법을 취한 점이 특징이며, 내용 선정은 기초 학력의 충실을 기하고, 자주성, 생산성, 실용성을 고려하며, 타 교과와 지도 내용과의 중복을 피하고, 영역별로 재구성할 수 있는 융통성도 부여되었다.

4. 제3차 교육과정의 시기(1973~1980)

제3차 교육과정은 교육의 기본 방향 측면에서는 국적 있는 교육의 강화, 교육의 방법적 원리 측면에서는 학문적 접근 방식을 배경으로 하여 개정된 것으로,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국가적 요구와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중시하는 학문적 요구를 반영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요구와 학문적 요구의 조화라는 사회과 교육의 과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교육과정이 되었으며, 여러 면에서 한국화 된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기본 개념의 이해, 지식의 구조적 학습, 탐구 방법과 능력을 강조하는 사회과학으로서 사회과의 성격을 중시하여, 사회과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교육 내용 전체를 사회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화하려고 하였다.

사회과의 특징은 개편 취지에서 밝힌 교과 성격의 명확화, 한국인 상의 정립, 지식의 구조화를 위한 노력, 탐구 절차의 중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사회과는 제1차, 제2차 교육과정 때의 중핵 교과적 성격의 교과가 아니라, 국어, 자연 등과 동렬선상에 있는 하나의 교과가 되는 데, 도덕(초·중)·국민 윤리(고)와 국사(중·고)가 각각 하나의 교과로서 분리·독립됨으로써, 사회과는 ‘social studies’가 지녔던 통합 교과로서의 성격을 포괄하지 못하는 파행적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또한, 목표 면에서는 사회과가 가져야 하는 교육적 역할 또는 목적에 ‘국민 교육 현장’ 이념의 구현 방향에 따른 주체성, 발전 지향성, 협동 총화성, 효율성의 정신을 반영함으로써 목표의 일대 전환을 기하였다. 즉, 사회과의 궁극적 목표를 소망스런 한국인상에 두고, 사회과학이 추구하는 목표 및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일반 목표와 학년 목표가 제시되었다. 내용 면에서는 국사 교육이 체계화되고 보다 강화되었으며(5, 6학년에서 국사 내용을 50% 정

도로 확보하고, 지리·공민 영역과 분리 편성함), 전체 구성은 동심원적 지역 확대법과 시간 소급법에 따라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였다. 내용의 제시도 탐구를 중심으로 하는 학습 절차를 중시하고, 각 학년의 모든 학습 단위에 학습 절차, 방향 또는 수준을 제시한 후 그 아래에서 다룰 주요 개념 또는 제제를 제시하였다.

5. 제4차 교육과정의 시기(1981~1987)

제4차 교육과정은 경험 중심, 학문 중심과 같은 교육과정 관점 상의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다만, 인간 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지만, 어느 한 측면에 치우치지 않은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 적합성의 조화를 지향하고 있다. 사회과는 사회과 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청에 부응하여 국민정신 교육의 강화, 사회과에서 길러야 할 인간상의 확립, 전인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과 교육 내용의 선정, 초·중·고의 특성 및 계열성의 확립, 내용량과 기준의 적절성 고려, 체계적인 국사 교육을 위한 계속적 보완 등이 개정의 방향이었다. 내용 선정에는, 사회과학의 각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취급되는 내용 및 국가·사회적으로 요청되는 시대적인 문제와 가치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우리 사회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고자 구성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 요소와 사회 현상의 탐구에 필요한 과정으로서의 지식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였다. 내용의 조직에서 지역 확대법과 시간 소급법의 적용은 제3차 교육과정과 다름이 없었으나, 부분적인 보완이 시도되었다. 1, 2학년의 경우, 교과서 수준에서 국어, 도덕과와 통합 편찬되어 교과 간 통합이 시도되었다. 각 영역의 기본적 요소나 개념이 각 학년에 균형 있게 발전적으로 심화·확대되게 하면서 내용의 계열성이 확보되었고, 지리, 역사, 공민 분야의 내용이 학년별로 고르게 분산·조정되고,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되었다.

6. 제5차 교육과정의 시기(1987~1992)

제5차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제4차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적 요소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였다. 다양한 변화와 미래 사회에 대처하는 인간상을 반영하였고, 특정 사조나 이념을 표방하지 않고 사회 기능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사회 재건 및 미래 중심의 접근이 보다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과 교육에서 많이 논의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시도되어 온 탐구 활동의 중시, 의사 결정 능력의 신장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사회과 교육과정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제5차 사회과 교육과정은 제4차 교육과정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

을 보완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내용 수준의 조절(4학년 내용량의 축소 및 수준 조절), 과감한 통합에 의한 통합 단위 구성, 전통 문화와 관련되는 내용의 강화, 그동안 분리하여 지도하던 역사 내용을 사회과 속에 융합하여 편성한 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저학년에서 교과 간의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1, 2학년에서 사회과와 도덕과 내용을 주축으로 하고 기타 관련 내용을 통합한 ‘바른 생활’과가 탄생하였고, 3, 4학년에서는 우리 고장과 우리 시·도를 주제로 한 지역화가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7. 제6차 교육과정의 시기(1992~1997)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가 통합적 성격을 보다 강력하게 추구하였는데, 편제 면에서 국사 영역을 사회과로 복귀시켰으며 고등학교에서는 통합형 과목인 ‘공통 사회’가 나타났다. 내용 배열도 통합을 보다 강화하면서 계통적 학문 체계에서 탈피시켜 실생활 경험과 사회 문제 중심으로 내용의 선정 및 조직을 시도하였다. 교과의 총괄 목표에서는 사회 인식 교과, 시민·국민 양성 교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켰으며, 사회 인식면, 시민·국민 양성면의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고자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같은 기능면이 보강되었다. 영역별 목표를 보다 구체화, 상세화 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별 성격 차이를 더욱 뚜렷이 나타내었다. 동시에 모든 과정에 걸쳐 사고력과 학습 방법, 학습 과정이 강조되도록 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즉 편제상의 문제, 학문 계통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과 사회과를 통합 교과로서 정착시켜야 한다는 생각 간의 갈등, 지식 위주 학습 및 이로 말미암은 기능·능력, 가치·태도 학습에 대한 상대적 소홀, 내용량이 과다하고 그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데 따른 교수·학습 부담 가중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향을 개정 중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개정 중점으로 나타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즉, 제6차 사회과 교육과정은 민주 시민의 자질 육성(참여, 의사 결정의 강조, 문제 해결 방법 보완), 올바른 사회 인식 능력 제고(사고, 방법, 과정의 중시), 통합 사회과로서의 성격 강화, 교수·학습 부담의 경감(내용량의 축소, 수준의 하향화), 실생활과 관련 강조(경험의 교육과정화, 학습 적용력 강화), 사고력 신장 강조, 초등 사회과로서의 성격의 명확화, 사회 변화와 학문 발전 내용의 수용, 지역화의 강조 등을 개정 중점으로 하여 사회과의 본질 구현에 더욱 접근하고 있다.

목표 면에서는 종합 목표에서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이 과거의 ‘국민적 자질’에서 ‘시민적 자질’로 바뀌었고, 시민 양성의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고자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등의 기능면이 보강되었다. 또, 영역별 목표는 행동 영역의 지식 목표를 기본 개념의 이해와 적용, 사회 기능의 파악을 위한 목표로 진술하여 사회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실제 생활의 구체적 경험

및 실제 활용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내용 선정 면에서는 사회·문화적 관점, 학문·철학적 관점, 학습자의 관점을 두루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고, 내용 조직 면에서는 학년별 주제에 따라 내용의 범위와 핵심을 결정하였다. 또, 내용의 통합성을 강화하여, 학년 내 또는 단원 내에서 사회 기능 및 실생활 주제나 문제를 중심으로 시·공간적 내용, 방법적 지식 등을 통합하도록 하였으며, 공간 확대 원칙과 역사 학습 접근 방법도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회과 교육의 본질 구현에 도움이 되도록 보완하였다.

8. 제7차 교육과정의 시기(1997~2007)

제7차 교육과정은 종래의 교육과정과 차별화하여 교육과정 체제 및 편성·운영상의 큰 변화를 도모하였다. 21세기의 변화에 대비할 시민적 자질 육성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하여 학습 과정의 이원화, 수준별 교육과정, 재량 활동 신설이 가장 큰 특징이다. 먼저 학습 과정의 이원화는 10년간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2년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의 구분을 의미한다. 10학년인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학년제로, 11, 12학년인 고등학교 2, 3학년은 단위제로 운영됨으로써 학제 개편을 염두에 둔 학습 과정의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이다. 이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학습자의 흥미, 관심, 적성, 학습 능력과 학습 요구에 상응하는 차별화된 교육 내용, 방법,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사회과를 포함한 5개 교과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량권을 확대하고자 재량 활동이 초등학교에서 확대되고, 중등학교에서는 신설되었다.

한편, 사회과에서는 시민성 함양 교과로서 통합성과 내용 학문 간 계통성 조화를 추구하고 교육과정 지역화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목표 체계의 측면에서는 사회 현상 인식과 사고력 신장을 통한 민주 시민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것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내용 체계의 측면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및 수준별 교육과정을 강조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그리고 평가의 측면에서는 수행 평가를 강조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지리, 역사, 일반 사회의 세 영역을 인간과 공간, 인간과 시간, 인간과 사회라는 세 가지의 틀로 묶어 한 학년에 2개 이상의 영역을 융합하는 조직형태를 보여주었다.

Ⅲ.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1. 개정의 기본 방향

사회과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청되는 가치와 태도를 기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이다. 이번 2007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정하는 것이었다. 즉, 사회 변동과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사회과 교육 내용의 계열화를 도모하고 학습 내용 과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며 역사 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사회과 교육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려고 하였다.

개정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 체제를 유지하였다.

제 7차 사회과 교육과정은 정보화·세계화·개방화 시대의 사회 변화를 주도할 시민적 자질의 육성에 역점을 두었다. 이것이 성격, 목표, 방법, 평가에 반영되었으며,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기저를 유지하면서 체제를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 ① 성격, 목표, 방법, 평가의 원칙은 현행대로 유지
- ② 내용은 범주별로 유목화하여 각 항목으로 제시
- ③ 주제명과 주제 안내 및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소주제명은 삭제
- ④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과 내용을 범주화하여 체계적으로 제시

둘째, 내용상 사회 변동, 시대 상황, 국가·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였다. 국가·사회적 요구를 범주화하여 개발하고 이를 반영하였다. 사회과와 관련해서는 지식 정보 사회와 세계화의 진행에 대한 대비,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주변국의 역사 왜곡과 세계화 시대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사 교육 강화, 경제 발전이 가속화하여 가는 가운데 능동적으로 경제생활에 임할 수 있는 생활 경제 교육, 인권 보장과 사회 통합의 토대가 되는 법교육,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는 국제 이해 교육과 다문화 교육 등을 반영하였다. 특히 역사는 역사 교육의 강화를 위해 중등에서 과목으로 독립하였다.

셋째, 교과별 학습량 및 수준의 적정화, 학교급·학년·교과 간 내용의 연계성 강화 등을 고려하였다. 시민성 함양 교과로서의 통합성과 사회과학 교육의 계통성 간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 내용은 최소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적정화, 중복성, 연계성을 검토하는 기준을 마

련하였다.

넷째, 사회과 교육과정 운영의 내재적 문제의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과 내에서 역사가 과목으로 독립함에 따라 사회과가 지향하는 통합 교육의 조정이 필요해졌다. 사회 인식은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파악해야 하며 계통적인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통합 교육은 유지하였다. 통합을 유지하면서 통합의 형태는 조정하였다. 초등에서는 영역 간 통합을 지향하였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영역 내 통합을 지향하였다.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영역 내 분화 형태를 취하였다. 예를 들면, 역사 과목은 한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함으로써 내용적으로도 한국사와 세계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중학교는 동시대를 병렬적으로 구성하였다.

2. 개정의 중점

사회과 교육과정은 총론과 사회과의 개정 기본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개정되었다.

첫째, 현행의 사회과 통합 틀을 최대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단원을 조직하였다. 학년별로는 3학년에서 2학년 ‘즐거로운 생활’ 및 4학년 이후의 사회과를 고려하여 내용과 활동을 담은 통합적인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4학년은 1학기의 지역화 교과서를 고려하여 단원을 배정하였다. 5학년은 역사 교육의 강화 방침에 따라 역사 내용을 6학년에서 5학년으로 편제하고 기존의 한 학기 분량을 두 학기로 확대하여 구성하였다. 6학년은 지리 교육과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단원을 구성하였다.

둘째, 교육과정을 대강화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상세화되면 단위 학교의 권한을 침해하여 획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제와 성취 기준 중심으로 제시하여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추구하였다. 단위별로 대강화된 성취 기준만을 제시하고, 성취 기준에 도달하고자 학습자들이 수행하는 학습 활동에 사용할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현장 교사가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강화하였다.

셋째, 개정 교육과정은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다.

성격에서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사회 현상을 인식하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목표에서는 지리,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혀,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였다.

내용에서는 학년별 교육 내용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학습 분량을 적정화하고,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의 통합적인 사고를 지향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사회 현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넓히고, 인간 생활과 사회 현상의 원리를 발견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학습자 여건 및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위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강조하였다. 학생들의 사고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적절한 탐구 상황을 설정하고 다양한 발문 기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지도, 도표, 영화, 슬라이드, 통계, 연표, 연감, 신문, 방송, 사진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활용을 권장하였다.

평가에서는 내용의 대강화와 교수·학습 방법의 자율화에 맞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평가는 개개인의 학습 과정과 성취 수준을 이해하고 발달을 돕는 차원에서 실시해야 하므로 영역별로 볼 때 지식 영역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기능과 가치·태도 영역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Ⅳ.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1. 성격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과의 성격에서는 교과와 개념 및 목적, 사회과의 내용 선정 및 조직, 교수 학습 전략 및 강조점, 학교급별 특성 등을 서술하고 있다.

가. 사회과의 개념 및 목적

사회과의 성격에서는 사회과를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청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사회과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주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교과라는 점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태도 등을 고르게 습득함으로써 다양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견인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사회과의 목적은 민주 시민으로서 올바른 자질을 길러 주는 데 있다. 바람직한 민주 시민이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민주 시민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 나아가 개인·사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춘 사람이라는 점과 개인이 사회적으로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자아를 실현함과 동시에, 사회와 국가의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하며 궁극적으로는 세계 시민으로서 인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나. 사회과의 내용 선정 및 조직

사회과의 성격에서는 내용 선정과 조직의 원칙을 “지리,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개념과 원

리, 사회 제도와 기능, 사회 문제와 가치, 그리고 연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선정·조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과의 내용 선정 및 조직 대상인 학습 요소는 사회 과학을 비롯하여 인문 및 자연과학 등 광범위한 분야의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지식과 연구 방법 및 절차, 사회 문제 및 쟁점과 관련 가치·태도 등이다. 이들 학습 요소를 지식, 연구 방법과 절차, 가치·태도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과 관련된 학습 요소로는 역사, 지리 및 제 사회과학의 개념과 원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해해야 할 사회의 기능적 요소, 현대 사회의 문제와 쟁점에 대한 지식, 미래 사회에 대한 지식 등이다.

둘째, 연구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학습 요소는 설문 조사, 현장 답사, 참여 관찰, 사료 학습, 사례 학습 등 역사, 지리, 제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에 기초한 탐구 방법에 관한 요소를 비롯하여 사고 과정, 문제 해결 절차, 정보의 활용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가치·태도에 관한 요소에는 인권 존중, 자유, 평등, 사회 정의, 참여, 책임감, 의무, 협동심 등 사회생활 각 분야의 당위적 가치와 가치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관용, 타협, 연대 등의 태도가 포함된다.

또한, 사회과에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국토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통찰과 체계적인 역사 의식을 가지는 것과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가치·태도를 갖추는 것을 중요한 학습 요소로 여긴다.

이러한 학습 요소들은 교육과정상의 주제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사회과 교육 내용의 체계를 이룬다.

다. 교수·학습 전략 및 강조점

사회과 성격에서는 사고력과 의사 결정력의 신장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학습자는 다양한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스스로 탐구해 가는 학습 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사회과는 사회적 사실과 현상에 관한 지식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고와 판단을 강조하는 교과이다.

따라서 사회과에서 논리적 사고를 비롯하여 반성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조적 사고, 가치 판단, 의사 결정 등을 신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발견 학습, 탐구 학습, 문제 해결 학습, 가치 명료화 및 가치 분석 학습, 의사 결정 학습 등 각 영역의 내용을 학습하는 데 적합한 학습 방법을 모색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 현상에 대한 바른 인식과 다양한 사고력의 신장을 위하여 학습자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질적·양적 또는 주관적·객관적 관점이 고려된 다양한 탐구 방법을 적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사회 현상은 시간적·공간적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사회과 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시사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고, 학교와 지역 사회 실정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하여 다루어야 한다. 교재의 지역화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지역 사회 특성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 그 근본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

라. 초등학교 사회과의 특성

초등학교 사회과에서는 학생들이 주변의 사회적 사실과 현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끼며,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사회과의 특성에 이어 중·고등학교의 특성과 그 연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각 영역에서 중요시하는 지식을 과학적 절차에 의하여 발견·적용하고,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공동생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정신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고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습득한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 공동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의식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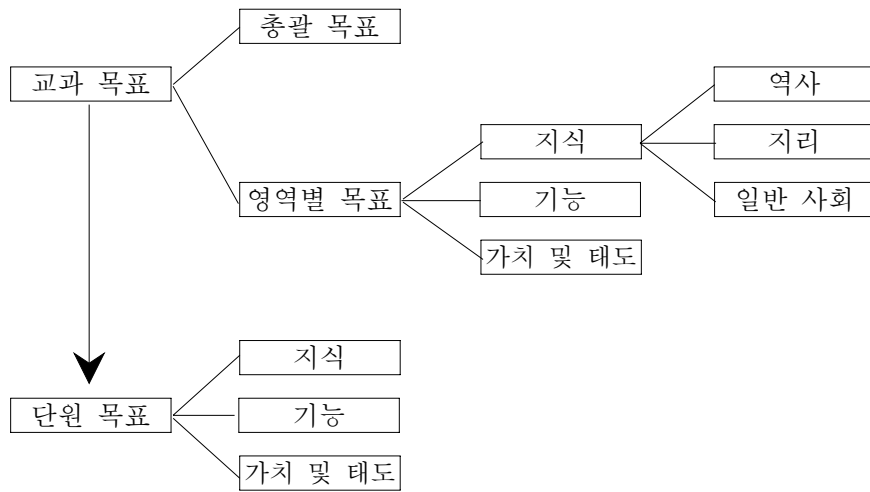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초등학교 사회과에서는 먼저 사회적 사실과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실과 개념을 배우고, 이를 자신의 주변 환경이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사고력을 지니도록 하며, 이러한 지식과 사고를 사회적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와 적극적인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 목 표

가. 목표 설정의 기본 방향

사회과를 포함한 모든 교과와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목표는 위계성이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제5차 교육과정까지는 교과 목표, 학교급별 목표, 학년 목표, 단위 목표가 존재했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학년 목표가 삭제되어 교과 목표, 학교급별 목표, 단위 목표로 단순화되었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급별 목표가 없어지고 원칙적으로 교과 목표와 단위 목표만이 제시되었다. 교과 목표는 다시 총괄 목표와 항목화된 영역별 목표로 제시되었으며, 단위 목표는

‘학년별 내용’에서 단원의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와 관련된 목표를 문단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교과 목표와 단원 목표만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교과 목표는 제7차 교육과정과 동일하지만, 단원 목표는 내용상의 변화에 따라 서술 형태가 달라졌다. 즉, ‘학년별 내용’에서 단원의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와 관련된 목표를 문단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교육과정 대강화에 따라 대단원 아래의 소주제가 삭제된 관계로 단원 목표가 보다 상세하게 진술된 것이 차이점이다.



<그림> 사회과의 목표 체계도

사회과의 교과 목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내재한 기본 정신에 비추어 사회과가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을 포괄적인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교과 목표의 형식상 특징은 총괄 목표와 영역별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한 점과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수준의 목표가 아니라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인 3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 목표로 설정된 점이다.

나. 총괄 목표 제시 및 설명

사회 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능력은 물론, 지리,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혀,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현대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생활에 스스로 참여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사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른다.

사회과 총괄 목표는 사회과의 다양한 목표 요소와 그에 대한 견해들을 종합하고 있으며,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 순차적, 또는 지속적으로 추구되는 목표 요소와 궁극적인 목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의 목표 요소로는 사회 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능력, 기본 개념과 원리의 탐구 능력,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에 대한 이해, 다양한 정보의 활용 능력,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 공동생활에서의 참여 능력이 제시되어 있으며, 후자의 목표 요소로는 개인의 발전 및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이 제시되고 있다.

총괄 목표에 나타난 핵심 요소들을 추출해 보면, ‘개인의 발전 및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 육성’, ‘사회 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능력’, ‘기본 개념과 원리의 탐구 능력’,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 이해’, ‘다양한 정보의 활용 능력’,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 ‘공동생활에서의 참여 능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핵심 요소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 순차적, 또는 지속적으로 추구되는 목표 요소와 궁극적인 목표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

<표> 총괄 목표에 나타난 목표 요소

1차적 목표 요소	2차적 목표 요소	궁극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적 지식과 능력 ◦ 기본 개념의 탐구 능력 ◦ 우리 사회의 제반 특징 이해 ◦ 다양한 정보 활용 능력 ◦ 공동생활의 참여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개념과 원리의 탐구 능력 ◦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현실 이해 ◦ 정보 활용과 문제 해결 능력 ◦ 사회 참여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발전 및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

사회과 교육에서 위와 같은 핵심 요소들이 강조하는 바를 고찰하면, ‘민주 시민 자질 육성’은 사회과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을 명시한 것으로, 오늘날 사회과 교육을 통해 기르려는 참된 민주 시민이란 개인의 자아 실현이나 행복 추구를 국가의 이상이나 목표와 조화시켜 나가는 시민인 동시에 인류의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세계 시민임을 강조한 것이다.

‘기초적 지식과 능력’ 및 ‘기본 개념과 원리의 탐구 능력’은 학년 수준에 따라 차례로 강조되어야 할 요소이다. ‘탐구 능력’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기본 개념의 탐구 능력을 기르고, 2차적으로는 이를 강화하여 기본 원리들의 탐구 능력까지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지식과 능력은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현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와 세계의 이해’ 요소도 1차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제반 특징을 이해하는 목표가 추구되고, 2차적으로는 세계의 여러 현실과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목표가 추구될 것이다.

‘다양한 정보의 활용 능력’과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우리 사회가 점차 복잡, 다양화되고 정보화됨에 따라 유능하고 합리적인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능력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소 간의 관계 역시 정보 활용 능력이 1차적인 목표 요소라면, 이를 강화시킨 문제 해결 능력은 2차적인 목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또,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며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공동생활의 참여 능력’ 혹은 ‘사회 참여 능력’이 차례로 추구되어야 한다.

이 표를 보면, 사회과 총괄 목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통적인 방식대로 ‘기초 지식과 기능’ 목표가 ‘시민적 자질의 육성’ 목표에 앞서 제시되어, 전자가 후자의 수단이 되면서 ‘시민적 자질의 육성’에 초점이 맞추도록 구조화되어 있지만, 극단적으로 규범적이고 이념적인 시민적 자질만이 강조되지 않도록, 사회 인식의 형성과 관련된 다양한 목표 요소들이 제시되고 있다.

둘째, 사회 인식의 형성을 위하여 기초적 지식과 능력,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탐구 능력, 다양한 정보의 활용 능력이 강조되어, 지식 및 탐구 방법의 이해가 사회 인식의 기본이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종래에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오던 ‘국민적·민족적 자각과 신념의 육성’이 배제되고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두드러진 ‘시민적 자질’이 계속 강조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개인과 사회가 균형적으로 고려되도록 개인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 하위 목표 제시 및 설명

- 가.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그 사회의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발전, 정치·경제·사회적 제도 등과 관련시켜 이해한다.
- 나.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장소에 따른 인간 생활의 다양성을 파악하며, 고장, 지방 및 국토 전체와 세계 여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 다. 각 시대의 특색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우리 문화와 민족사의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류 생활의 발달 과정과 각 시대의 문화적 특색을 파악한다.
- 라. 사회생활에 관한 기본적 지식과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현대 사회의 성격에 비추어 민주적 사회생활을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를 파악한다.
- 마. 사회 현상과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 조직,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며,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탐구 능력, 의사 결정 능력 및 사회 참여 능력을 기른다.
- 바. 개인과 사회생활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민족 문화 및 민주 국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영역별 하위 목표는 6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항은 역사, 지리, 사회과학의 상호관련 하에 통합적 관점을 강조한 목표이며, 이하의 항목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 특성상 분명하게 드러나는 행동 영역별 목표들이 제시되어 있다. 즉, 영역별 목표는 1개 항의 교과 특성과 관련된 목표와 5개 항의 행동 영역별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가’ 항은 사회과의 통합적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학습 내용인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발전, 정치·경제·사회적 제도 등과 관련하여’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 항은 ‘지리’ 영역과 관련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소와 삶의 터전 내지 생활 무대가 달라진 데 따른 ‘인간 생활의 다양성’을 파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여러 지역의 자연 환경적, 인문 환경적인 지리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시되며, 고장, 지역, 국토를 비롯하여 세계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규모에 따른 학습의 계열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 항은 ‘역사’ 영역과 관련되는 것으로 국사 영역과 세계사 영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구분되는 ‘각 시대의 특색’을 중점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수성’을 파악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전통과 문화의 특수성 파악은 ‘우리 문화와 민족의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사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사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인류 생활의 발달 과정과 각 시대의 문화적 특색’을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 항은 ‘일반 사회’ 영역과 관련되는 목표로서 제 사회 과학과 관련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기본 원리를 종합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정보화, 개방화, 다원화가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대 사회의 성격 및 여러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 항은 기능 영역의 목표로서, 지식 영역의 전 목표와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길러야 할 기능 또는 능력에 대한 것이다. ‘사회 현상과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 현상과 문제란 역사, 지리, 제 사회과학과 관련되는 문제들이며, 어느 지식 영역의 학습에서든 ‘지식과 정보를 획득, 조직,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의 ‘탐구 능력’, ‘의사 결정 능력’, ‘사회 참여 능력’ 등은 모든 지식 영역의 학습 과정에서 지식의 이해와 함께 추구되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길러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바’ 항은 가치·태도와 관련된 목표로서 사회과 교육에서 정의적 영역의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와 ‘민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는 역사, 지리 및 사회 과학의 모든 지식 영역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역별 목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목표 항목	영역	핵심 요소
가	지식(통합)	◦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의 통합적, 체계적 이해
나	지식(지리)	◦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 작용의 이해 ◦ 삶의 터전에 따른 인간 생활의 다양성 이해 ◦ 지역의 지리적 특성 이해
다	지식(역사)	◦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수성 파악 ◦ 우리 문화와 민족사의 발전상 이해 ◦ 인류 생활의 발달 과정과 각 시대의 문화적 특색 파악
라	지식(일반 사회)	◦ 사회생활에 관한 기본적 지식 이해 ◦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상의 기본적 원리의 이해 ◦ 현대 사회의 성격과 사회 문제들의 파악
마	기능	◦ 지식과 정보의 획득·조직·활용 능력 ◦ 탐구 능력, 의사 결정 능력, 사회참여 능력, 합리적 문제 해결 능력
바	가치·태도	◦ 민주적 생활 태도 ◦ 당면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 민족 문화 및 민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태도

3. 내용

가. 내용 선정의 기준

2007년 개정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앞에서 진술된 개정의 방향과 교과 목표를 실천하고자 학습자 측면, 학문·철학적 측면, 사회·국가적 요구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을 선정하였다.

(1) 학습자 측면에서의 내용 선정의 기준

첫째, 사회과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한다.

둘째, 학생의 경험·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사실과 문제 및 주제를 내용으로 선정한다.

셋째, 자기 주도적 학습, 탐구 지향적 학습, 학습자의 능동적 지식 형성 과정과 관련된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선정한다.

넷째, 학습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 현상 이해를 위한 핵심 내용을 선정한다.

(2) 학문·철학적 측면에서의 내용 선정의 기준

첫째, 민주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사회과 교육의 성격과 목표를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한다.

둘째, 널리 합의된 역사, 지리 및 제 사회 과학의 기본적 지식과 탐구 방법을 선정한다.

셋째, 사회 현상의 다면적, 다차원적 고찰을 위해 통합적인 관점이 드러나는 내용을 선정한다.

(3) 국가·사회적 측면에서 내용 선정의 기준

첫째, 정보화와 개방화, 세계화와 지역화 시대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관점과 요구를 반영한다.

둘째,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와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는 내용으로 선정한다.

셋째,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역사 교육의 내용을 선정한다.

넷째, 환경 교육, 경제 교육, 국제이해 교육, 진로 교육, 인권 교육, 통일 교육 등을 강조한다.

나. 내용 조직의 원리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었다.

첫째, 학습자의 인지 발달, 사회적 경험, 사회 기능을 고려하는 환경 확대법을 활용하여 배열하였다. 3~4학년은 고장, 5~6학년은 한국 및 세계로 공간적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3, 4학년에서의 생활 주변과 지역 사회 이해를 통한 문제 해결에서부터 5, 6학년의 각 지역, 국가, 세계의 사회 현상 파악 및 문제 해결 내용으로 확대되도록 구성하되, 학습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공간 규모를 고려하고 학년별로 세계적 관점을 반영하여 환경 확대법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역사 교육 내용의 시계열성을 고려하여 국사를 한 학년에 집중적으로 배열하여 일관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생활사, 문화사, 인물사 중심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하였다.

셋째, 사회 현상 이해에 관련된 기본 개념 및 원리를 구체적 사례와 문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에 따라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학습자의 시간

의식, 공간 의식, 사회 의식의 발달과 연계하여 배열하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의 내용 배열 원리를 적용하였다.

넷째, 내용에 따라 각 영역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영역 간 통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심점이 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다른 영역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주제 또는 문제를 중심으로 통합할 경우에는 탐구 또는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한 내용과 방법의 통합, 생활 경험과 지식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섯째, 학년별로 내용의 핵심과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학습 지도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열하였으며 영역 내 및 영역 간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교육과정에 학년별 주제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학년별 내용 주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3학년 : 고장의 생활 모습
- 4학년 : 지역 사회의 모습과 사회 생활
- 5학년 : 우리나라의 생활과 문화
- 6학년 : 국가 생활과 지구촌 시대의 우리

다. 초등학교 사회과의 내용 체계

	역사영역	지리영역	일반사회영역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살아가는 곳 ○ 사람들이 모이는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고장의 정체성 ○ 이동과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장의 생활 문화 ○ 다양한 삶의 모습들
4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지역의 자연 환경과 생활 모습 ○ 우리 지역과 관계 깊은 곳들 ○ 여러 지역의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자치와 지역 사회의 발전 ○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5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 된 겨레 ○ 다양한 문화가 발전한 고려 ○ 유교 전통이 자리 잡은 조선 ○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민족 운동 ○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우리 국토 ○ 환경을 생각하는 국토 가꾸기 ○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과제 ○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라. 학년별 내용

【3학년】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우리가 사는 고장의 위치와 자연 환경, 인문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들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해하고자 설정되었다. 다양한 종류의 지도를 활용하여 고장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고, 고장에 있는 다양한 공공 기관들과 우리 생활과의 관련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그림지도와 일반지도를 활용하여 지도의 방위, 기호, 축척 등 지도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고, 고장의 자연환경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파악한다. 고장의 장소를 조사하여 간단한 그림지도로 나타내고 고장 사람들이 고장의 자연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파악한다. 아울러 고장 사람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일과 고장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이 하는 일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 가족의 생활 및 고장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관련지어 이해하도록 한다.

본 단원에서는 3학년에서의 지역이 제7차 교육과정처럼 ‘고장=시·군·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고장=시·도’로 확대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위치 및 역사와 환경에 따라 각각 적절한 지역의 단위를 설정하여 지도학습이나 산업 및 공공 기관 등에 대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나) 교수·학습내용

① 지도는 방위, 기호, 축척 등 다양한 지도 요소로 구성되며, 지도는 고장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을 나타내고 있음을 이해한다.

지도는 방위, 기호, 축척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가 사는 땅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지도를 읽는 방법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도가 고장의 강, 산 등의 자연 환경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지도의 요소들을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지도에서 왜 방위·기호·축척 등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학생들이 생각해 보도록 한다.

② 그림지도와 일반지도를 활용하여 고장의 자연 환경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파악한다.

그림지도와 일반지도 읽기를 통해 고장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 요소에 대하여 파악하고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이해한다. 구체적으로 그림지도와 일반지도에 표현된 자연·인문 환경의 요소에 대하여 파악하고,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고장의 토지 이용과 직업 구성, 그리고 산업 활동과 관련지어 이해하도록 한다. 전체적인 모습을 담은 사진을 그림지도와 비교하는 활동, 다양한 안내도를 통해 장소들의 특색을 이해하는 활동 등이 유익하다.

③ 고장의 전형적인 장소와 경관을 견학, 조사하여 간단한 형태의 그림지도로 나타낸다.

학교 주변이나 고장의 전형적인 장소에 대하여 관찰, 견학, 조사한 결과를 간단한 형태의 그림지도로 표현한다. 견학에 앞서 견학 장소의 자연적·인문적 특성에 대한 지도와 함께 그림지도 그리는 순서와 기호 및 방위 등 그림지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학생들이 제작한 그림지도와 실제 지도 혹은 고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비교하는 활동 등이 효과적이다. 견학과 지도의 제작 과정에서 집단은 학급의 실정과 견학 장소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④ 고장 사람들은 자연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자연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해한다.

고장 사람들이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모습을 옛날과 오늘날의 모습, 계절에 따른 변화 모습, 고장 사람들의 직업별 인구 구성, 주요 산업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사람들이 자연에 적응하고 활용하면서 만든 구조물들과 산업 활동을 조사하고 옛날과 오늘날의 자연 환경 이용 모습의 차이를 이해한다. 나아가 오늘날 자연 환경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다.

⑤ 고장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의 특징을 파악한다.

고장의 산, 강, 평야, 산림 등의 자연 환경과 도로, 건물, 산업 시설, 유적 등의 인문 환경에 대한 사실, 현상, 특징 등에 대하여 이해한다. 나아가 고장의 지형과 기후 등 자연 환경의 특징이 고장의 산업과 의식주 생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변천의 과정을 이해한다. 예를 들어 고장의 인문·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 및 프로젝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⑥ 고장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일이 우리 가족의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고, 고장의 생활에 관심을 가진다.

고장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과 고장에 발달한 산

업은 우리 가족의 생활과 많은 관련이 있다. 고장 사람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일은 고장의 발전은 물론 우리 가족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장 사람들의 하는 일과 고장에 발달한 산업을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통계표나 도표로 만들어 볼 수 있다.

⑦ 고장을 대표하는 여러 공공 기관이 하는 일과 고장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관련지어 이해한다.

고장에는 국가나 공공 단체가 설립한 공공 기관들이 있으며, 공공 기관들은 고장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장에 있는 시청과 구청(군청), 동사무소(읍·면사무소) 등을 비롯해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등이 하는 일을 알아보고 고장 사람들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파악한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을 직접 견학하는 활동이나 공공 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터뷰, 혹은 인터넷 검색 활동 등을 통한 지도가 필요하다.

(2) 우리 고장의 정체성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우리 고장에는 다른 고장과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이것은 고장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알고자 설정되었다. 고장은 그 자체로 고유한 역사, 상징, 문화 그리고 행사 등을 간직하고 있다.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과의 관련 및 현재의 삶과 관련지어 고장의 정체성을 파악하며, 현재의 고장은 과거의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등 변화의 연속선상 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고장의 행사를 통해 고장의 자연, 인문적인 특성을 파악하며, 그 속에서 고장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고장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도한다. 더불어 고장을 상징하는 유적지나 건물, 관공서 등을 답사, 견학함으로써 자기 고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고장을 대표하는 것을 조사하고, 고장의 지명 유래와 전설을 조사한다. 아울러 고장의 인물과 이야기를 통하여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파악하고, 고장의 행사를 자연적·인문적 환경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또한, 고장을 대표하는 자연적·인문적 상징을 답사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며, 고장의 행사를 조사하고 고장의 일에 참여하려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끝으로 고장을 대표하는 문화재를 조사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생활에 끼친 영향을 이해한다.

주의할 것은 3학년 사회과에서 ‘지역’의 도입이 ‘지역’ 그 자체를 학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다는 점이며, 따라서 지역의 상세한 역사·지리적 사실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고장의 상징, 행사 혹은 문화재를 도입하면서 정치·종교와 관련된 것에 한정하지 않고 의식주 등의 생활 문화와 관련된 것도 포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고장의 상징 혹은 문화재를 다루면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의 상황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로 확장하여 상징 혹은 문화재를 도입할 수 있다.

(나) 교수·학습내용

①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지어 고장에 대하여 떠오르는 것을 표현한다.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고장에 대하여 떠오르는 자연·인문 경관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학생들이 생활하면서 알게 된 고장의 산과 강, 동식물을 비롯해, 공원과 유적지, 관공서 등, 고장을 대표하는 것들에 대하여 말하기나 쓰기, 혹은 꾸미기 등을 통해 표현한다. 고장을 대표하는 것들에 대해 학생들이 왜 그것이 고장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② 고장의 지명 유래와 전설을 조사하고, 이를 자연과 인간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한다.

고장의 지명과 관련된 유래와 이야기들을 조사하고, 이를 고장의 자연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한다. 고장 지명의 기원과 변천,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사하고, 등장하는 인물들의 활동, 그리고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하여 알아본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고장이 성립되는 과정을 지명의 변천이 포함된 연표와 지도를 통해 확인하며, 지명과 전설에 담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③ 고장의 옛날 인물 및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고장의 자연적 특징과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파악하며,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상상적으로 이해한다.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관련된 인물과 사건을 파악하고, 배경이 되는 고장의 자연적 특징과 조상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여 이야기에 담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상상한다. 이를 위해 고장의 옛날 인물과 사건과 관련된 적절한 이야기를 선정하는 것은 물론, 관련된 음성 자료 및 사진, 지도 등을 제시하여 고장의 자연적 특징과 생활 모습을 파악한다. 아울러 이야기에 담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고 의식주 및 관혼상제 등의 생활 모습을 상상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고장의 행사를 자연적, 인문적 환경과 관련지어 파악하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그 위치를 이해한다.

고장의 전통 문화 행사를 조사하여 이를 고장의 자연적·인문적 환경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아울러 고장의 행사를 세계의 다른 지역의 행사와 비교하여 행사의 의미를 이해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고장의 자연적·인문적 환경과 관련하여 문화 축제를 조사하여 축제의 성립 과정과 내용, 그리고 의의를 조사한다. 아울러 세계 다른 지역의 축제를 조사·비교하여 우리 고장 축제의 장단점 등에 대하여 탐구할 수 있다.

⑤ 고장을 대표하는 자연적, 인문적 상징을 답사, 조사, 체험하고, 고장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지어 그 의미를 이해한다.

고장을 대표하는 자연적·인문적 상징·경관, 혹은 자랑거리를 답사, 조사, 체험하고 고장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지어 상징 혹은 경관, 자랑거리의 의미를 이해한다. 고장을 대표하는 자연적·인문적 상징의 대상을 선정하고 나서 사전 학습을 하고 답사 계획을 세워 답사를 한다. 고장의 상징 혹은 경관이 어떻게 고장의 생활과 관련되는지를 탐구하면서 고장의 정치·경제생활 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문화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다.

⑥ 고장의 행사를 위해 준비하고 애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고장의 일에 참여하려는 마음을 가진다.

고장의 축제를 비롯해 행사를 준비하고 돕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고장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고장의 행사를 준비하는 공공 기관의 직원들을 비롯해 각종 문화, 예술, 봉사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사에서 각각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의 직원 혹은 단체 회원들에 대한 인터뷰, 해당 인사를 초청하는 자원인사 초빙 학습 및 인터넷을 통한 조사활동 등을 전개할 수 있다.

⑦ 고장을 대표하는 문화재를 조사하여 파악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생활에 끼친 영향을 이해한다.

고장을 대표하는 유·무형 문화재 및 민속자료를 조사하여 파악하고, 그것이 고장 사람들의 생활에 끼친 영향을 이해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고장을 대표하고 학생들이 접하기 쉬운 문화재를 선정하여 그것의 유래와 과정을 이해한다. 다음으로, 선정된 문화재가 고장 사람들의 종교·여가·안보 등의 생활과 관련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한다. 이를 위해 고장의 문화재와 관련된 사람들의 신분과 종교 및 경제 활동 등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여 생활 모습을 이해하도록 한다.

(3) 고장의 생활 문화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와 여가 생활 및 생활 도구, 그리고 문화재를 통하여 그 안에 담긴 조상의 멋과 슬기를 이해하며 어떻게 변화, 발전하여 오늘날에 계승되는지를 이해하고자 설정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오늘날의 의식주와 여가생활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생활문화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김치, 한복, 온돌 및 생활 도구 등에 담긴 조상의 멋과 슬기를 알아보고 오늘날과 비교한다. 아울러 의식주 및 생활 도구의 변천 과정과 오늘날의 계승·발전된 모습을 확인하며, 나아가 고장의 유물과 유적을 통해 조상의 생활과 생각을 추론하고 우리나라의 문화 유산을 아끼고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본 단원의 특성상 조상의 생활 문화가 오늘날에 계승·발전된 점을 강조하면서 그에 따른 변화와 지속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조상의 생활과 물건이 우수하고 슬기로웠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미개하고 불편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 교수·학습내용

① 오늘날의 의식주 생활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생활 문화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한다.

오늘날의 의생활, 식생활, 주거생활의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생활 문화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본다. 자연 환경과 사회 변화에 따라 정착된 오늘날의 의식주 생활과 생활문화의 특성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의식주의 개별적인 특성에 집중하기보다는 의식주를 통해 생활 문화가 형성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일반화로 이루어지는 접근이 필요하며, 다양한 사진 자료와 영상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

② 오늘날의 여가 생활의 모습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여가 시간 활용의 의미를 이해한다.

오늘날의 취미와 여가 생활의 종류를 알아보고, 여가 생활의 변천 과정을 파악하며 여가 시간 활용의 의미를 이해한다. 특히 어린이들의 놀이와 관련된 여가 생활을 중심으로 점차 가족과 성인들의 여가 생활에 관심을 두도록 한다. 아울러 옛날과 오늘날의 여가 생활의 변화를 알아보고 여가 생활이 우리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여가 생활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 활동과 바람직한 여가 생활에 대한 토론 활동 등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4학년 과정과의 중복을 피하도록 여가의 종류와 변화에 중점을 둔다.

③ 김치, 한복, 온돌 및 생활 도구 등에 담긴 조상들의 멋과 슬기를 알아보고 오늘날의 모습과 비교한다.

김치, 한복, 온돌 및 가정용품, 학용품 등 생활도구에 담긴 조상의 멋과 슬기를 알아본다. 또한 오늘날의 의식주 및 생활도구와 비교하고, 옛날의 음식, 의복 도구 등이 오늘날까지 사용되는 까닭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가족의 유물을 활용할 수 있으며, 미니 박물관 혹은 포트폴리오 제작 등과 같은 활동이 유익하다. 아울러 광고, 신문 등을 통해 조상의 멋과 슬기가 적용된 물건을 홍보하는 활동도 가능하다.

④ 의식주 및 생활 도구의 변천 과정과 오늘날 계승·발전된 모습을 이해한다.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정용품이나 학용품 등 생활 도구의 모양과 쓰임의 변화가 우리 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가족사와 가족 유물을 활용할 수 있고, 연표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다. 다양한 사진과 영상자료의 활용이 가능함은 물론 미래의 생활용품과 도구를 예측하는 활동 등이 필요하다.

⑤ 고장의 유물·유적을 통하여 조상들의 생활과 생각을 추론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아끼고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갖는다.

고장의 유물과 유적을 통하여 문화재의 뜻과 종류를 이해하고, 아울러 박물관의 기능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생활 도구의 변화에 나타난 조상의 생활과 생각을 추론하고 문화재 보존·계승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여기서는 고장을 대표하는 상징으로서의 문화재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으며, 문화재의 본질적인 접근은 ‘(2) 우리 고장의 정체성’에서 다루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과정에서 박물관의 견학 계획을 세워 현장학습을 실천할 수 있으며, 생활 도구 혹은 문화재에 대한 포트폴리오, 견학보고서, 미니 박물관 꾸미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4) 사람들이 모이는 곳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사람들은 고장의 생활에서 경제, 교통, 교육, 행정, 서비스, 문화, 여가 등 다양한 욕구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설정되었다. 고장 사람들은 욕구를 해결하고자 일정한 장소에 모여 서로 필요한 것들을 교환한다. 이러한 장소는 고장에서 일정한 중심지를 이루며, 중심지에서는 고장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고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보고, 그곳에서 고장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탐색한다. 또한, 고장의 중심지는 나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다른 고장과의 연결되어 고장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찾고 분류하는 활동과 고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고장 생활에 다양한 욕구가 있으며, 다양한 생활의 중심이 있음을 이해한다. 또한, 고장의 중심지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서로 교환하는 것을 조사하고 분류하는 활동을 통해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파악하고 고장의 중심지를 이용해 본 경험을 통해, 내가 필요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아울러 우리 고장의 중심지 중 특징적인 곳을 선정하여 견학해 보고, 옛날과 오늘날의 모습, 입지 조건, 경관의 특징, 역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조사한다.

(나) 교수·학습내용

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찾고, 분류하는 활동을 통하여 고장 생활에는 다양한 욕구가 있음을 파악한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찾아 분류하는 활동을 통하여 고장 생활에는 다양한 욕구가 있음을 이해한다. 이를 위해 입고, 먹고, 잠자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에서부터 문화생활에 필요한 것 등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분류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일반적인 분류의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찾아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② 고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보는 활동을 통하여 고장에 다양한 생활의 중심지가 있음을 알아본다.

역과 터미널, 시장과 관공서 등 고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고장에는 다양한 생활의 중심지가 있음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고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하여 경제, 교통, 교육, 행정, 서비스, 문화, 여가 등 욕구의 해결과 관련지어 이해하도록 한다. 고장의 중심지에 대하여 관계있는 것끼리 분류하는 활동과 중심지의 입지적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 등이 필요하다.

③ 고장의 중심지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서로 교환하는 것을 조사하고, 분류하는 활동을 통하여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파악한다.

고장의 중심지에서 사람들이 이동하거나 물건을 사고파는 모습을 조사하고 분류하는 활동을 통하여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이해한다. 이를 위해 역과 터미널, 시장 등의 중심지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조사·분류하여 생활 모습을 파악한다. 특히 역·터미널·시장 등의 기능과 사람들이 하는 일을 조사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분류한다. 이를 위해 역과

터미널, 시장 등 고장의 중심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업소별(약국, 편의점, 식당 등), 층별, 시간대별로 주제를 나누어 간단한 책자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고장의 중심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혹은 퀴즈를 해결하는 문제상황지 혹은 게임 등을 통해 중심지의 기능과 관련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④ 고장의 중심지를 이용해 본 경험을 통하여, 내가 필요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나와 관계된 고장의 중심지를 찾아본다.

고장의 중심지를 여행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 본 경험을 통해 내가 필요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나와 관계된 고장의 중심지를 파악한다. 학생들은 역·터미널, 시장 등을 이용해 본 경험을 통해 원하는 곳으로 여행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고장의 중심지가 어떻게 나와 관련되는지를 알아본다. 이를 위해 상점, 버스 터미널, 도서관, 병원, 학원 등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우리 고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욕구를 다른 고장에서 해결하는 모습을 찾아보고, 이를 통하여 고장과 고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본다.

우리 고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욕구를 다른 고장에서 해결하는 모습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 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상호 의존의 양상을 이해한다. 학생들이 다른 고장으로 여행하거나, 다른 고장에서 들어온 생산물을 조사함으로써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음을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여행 신문, 여행 보고서 등을 제작하거나 여러 고장의 생산물이 이동하는 경로를 지도에 표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⑥ 우리 고장의 중심지 중 특징적인 곳을 선정하여 견학해 보고, 옛날과 오늘날의 모습, 입지 조건, 경관의 특징, 역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조사한다.

역, 터미널, 시장, 관공서 등 고장의 중심지 중 특징적인 곳을 선정하여 견학해 보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조사한다. 특히 중심지의 옛날과 오늘날의 모습, 입지 조건, 경관의 특징, 역할 등을 조사한다. 조사의 과정에서 사진 촬영, 그림지도 제작, 유동 인구의 조사, 인터뷰, 질문지 작성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5) 이동과 의사소통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고장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장 간, 지역 간의 다양한 이동, 의사소통의 필요성과 양상,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과 이들이 고장 생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설정되었다. 이동과 의사소통은 물자, 사람, 정보 간의 상호 의존성을 포함하는 경제, 문화, 교육, 정보의 흐름이며, 이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교통, 통신 수단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내용의 학습을 위해 이 단위에서는 ‘이동과 의사소통의 필요성’, ‘많은 사람이 활용하는 이동과 의사소통의 도구와 수단’, ‘이동과 의사소통 수단의 변화 양상’, ‘이동과 의사소통의 변화로 말미암은 오늘날과 미래 고장 생활의 변화 모습’ 등이 구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장 사람들이 이동·의사소통하는 까닭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이동·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다음으로, 고장 사람들의 이동과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도구와 수단을 알아보고, 인근 고장의 위치와 명칭을 확인한다. 또한, 고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동과 의사소통의 도구를 알아보고 선호하는 까닭을 조사한다. 그리고 이동·의사소통의 도구와 수단의 변화 요인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생활 모습의 변화를 이해하는 수업이 제안될 수 있다. 그리고 이동·의사소통 방법의 변화가 고장 생활의 변화 및 고장 간의 상호 의존성을 더욱 높였음을 이해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생활 속에서 가족의 이동·의사소통 이유를 조사하여 이동·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찾아본다.

이동과 의사소통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한 경제, 문화, 교육, 정보 공유, 교류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며 교통, 통신 수단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내용의 학습은 일상생활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 친구, 이웃의 이동과 의사소통의 다양한 모습을 조사하고, 이러한 이동과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이유를 파악하게 하는 데 초점이 두어진다. 사례들로는 생필품의 구입, 여가 생활, 방과 후 학습, 학생 자신과 형제·자매의 교육, 부모님이나 친척의 직장 출·퇴근 등이 있을 수 있다.

② 우리 고장을 중심으로 주위에 있는 고장들의 위치와 명칭을 확인하고, 고장 간의 이동과 의사소통 방법을 조사하여 이를 그림지도로 나타낸다.

이동과 의사소통을 통해 우리 고장을 중심으로 이웃 고장들의 위치와 명칭, 그리고 이들 고장과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파악한다. 이웃 고장들의 위치와 명칭 파악에서는 그 범위가 시·군·구 수준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지역과의 활발한 이동과 의사소통 사례가 없을 경우, 그 범위를 주변 광역시, 도청 소재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그림지도의 활용은 작도 활동이 아닌 기존 지도에 이웃 고장들의 위치와 명칭, 의사소통 양상을 확인, 정리하는 수준이 권장된다.

③ 옛날과 오늘날의 이동·의사소통 수단에 관한 자료를 수집, 비교하여 이동 방법이 변해 온 모습을 파악한다.

옛날과 오늘날의 다양한 이동·의사소통 모습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들을 교통, 통신 수단, 시대별, 편리성과 비용 등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사람들의 이동,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를 파악한다. 이를 위한 활동은 과거와 현재의 이동과 의사소통 모습 파악이 중심이 되며, 이동과 의사소통의 유형별, 시대별, 쓰임새별 분류하기, 시대별 가장 효과적인 교통·통신 수단 선정 및 선정 근거 제시하기 등이 권장된다.

④ 이동·의사소통의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 생활의 변화된 모습을 비교, 조사한다.

이동·의사소통 수단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이웃, 학교, 고장 생활에 나타난 변화를 이해한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동, 의사소통 방법이 달라지고, 이는 다시 우리의 의식주, 문화, 교육, 여가 생활 등에도 영향을 준다. 이의 구체적인 모습과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생활 모습별, 이용하는 사람별, 고장별로 비교한 후 그 특징을 정리하는 활동이 가능하다.

⑤ 오늘날 이용되고 있는 이동·의사소통 수단 간의 비교를 통하여 수단의 차이가 서로 다른 생활 모습을 만들어 내는 구체적인 예를 조사한다.

오늘날 다양한 이동과 의사소통 수단들의 종류를 파악하고, 사람들이 이들을 선택, 이용하는 이유와 이로써 나타나는 생활 모습 변화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정리한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대중교통과 승용차 이용이 주는 장단점, 무선전화와 인터넷의 일반화가 주는 영향 등에 대한 비교를 통해 변화된 이동과 의사소통 수단의 사용이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과 그 이유를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한다.

⑥ 우리 고장과 주변 고장 간에 오고가는 사람, 정보, 물자를 조사하고 이를 도표로 나타낸다.

우리 고장과 이웃 고장 간의 사람, 정보, 물자의 이동 양상을 신문, 통계자료 등 다양한 자료의 수집을 통해 종합하고, 이를 쉽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낸다. 오늘날 고장 생활은 주변 고장과 교류를 통해 가능하다. 생필품의 구입과 판매, 여가 생활, 직업의 선택 등 어느 것 하나 이웃 고장과 교류 없이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고장 간의 교류 양상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정리하고 이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리한다.

⑦ 미래의 이동·의사소통 방법을 예상하여 변화될 고장의 생활 모습을 예측한다.

이동과 의사소통 방식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이는 다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변화하게 한다. 앞으로 변화될 미래의 이동과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예상한다. 이러한 예상 활동은 이동·의사소통 수단의 변화를 가능하

게 한 이유 파악과 이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는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 변화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한 그리기, 글쓰기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질 수 있다.

(6) 다양한 삶의 모습들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오늘날 이웃 간, 고장 간, 지역 간, 국가 간에 존재하는 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 이해를 통해 자기 문화,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 형성과 다른 문화에 대한 상호 존중의 마음을 가지게 하고자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 단원의 내용은 작게는 이웃집과 우리 집의 서로 다른 생활양식의 차이에서 시작하여 학급 간, 학교 간, 지역 간, 국가 간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그 사례들로는 의식주 생활은 물론 여가, 놀이, 친교활동, 단체생활, 기념일, 혼례, 상례, 제례, 성인식 등이 될 수 있으며, 개별 사례 간의 공통적 속성 찾기와 대표적 사례를 다른 사례에 적용하기, 이해된 개념적 지식을 자기 삶과 연관시켜는 수업이 권장된다.

이러한 사례들과 수업 방향을 바탕으로, 이 단원에서는 이웃, 지역, 국가 간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된 자연적, 역사적 배경을 추론하게 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 특수성과 보편성 사이에서 우리가 유지, 보호하고 개선해야 할 문화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하는 데 초점이 있음을 유의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오늘날 학생들의 놀이, 친교, 단체 활동 등에 담겨 있는 문화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우리 반과 다른 반, 우리 학교와 다른 학교 학생들이 학교, 혹은 가정과 고장에서 접하게 되는 놀이와 친교, 단체 활동의 다양한 사례를 정리하고, 이들 활동에 담긴 다양한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기 다른 생활 모습과 활동이 지속됨에 따라 고유한 특징을 가진 문화가 형성됨을 이해한다. 그 사례로 점심시간 및 방과 후 놀이, 도시와 촌락(농촌, 산촌, 어촌) 학생들의 여가활동, 부모님이나 지역 사람들의 단체활동, 봉사활동 등이 제시될 수 있다.

② 고장, 지역, 국가의 서로 다른 학생들의 문화를 알아보고 유사성과 차이점을 조사한다.

고장, 지역, 국가 수준에서 각기 다른 학생들의 문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사례 수집과 분석을 통해 이들에 담긴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낸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다양한 기

준, 예를 들면, 학교생활, 방과 후 여가 및 놀이, 친구관계, 가정에서의 의식주 생활 등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그 속에서 각각의 문화가 지닌 특징을 발견한다. 이러한 분류, 종합 활동을 통해 각기 다른 지역 학생들이 지닌 고유한 생활방식을 이해한다.

③ 다른 고장을 여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고장의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이해한다.

학생들의 여행 경험 속에서 고장마다 각기 다른 생활방식의 사례를 발표하고, 이들 문화가 고장마다 다른 자연 환경,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형성되었음을 이해한다. 이러한 특성 이해를 통해 각각의 문화에는 고유한 형성 논리가 있음을 알고, 이것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다른 고장의 의식주 생활, 주요 문화재, 축제 등을 소재로 한 수업이 가능하다.

④ 전통적 혼례와 상례, 제례의 특징을 알아보고, 옛날과 오늘날의 달라진 모습을 이해한다.

우리 고장의 혼례, 상례, 제례, 손님맞이 방식 등과 같은 생활 문화가 옛날과 오늘날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변화 양상을 이해한다. 이를 위해 옛날과 오늘날의 혼례, 상례, 제례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수집하여 비교하거나, 이들의 장단점을 정리하는 활동 등을 전개할 수 있다.

⑤ 설과 단오, 추석 등의 명절과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등 기념일의 유래와 의미를 알아보고 다른 나라의 명절 및 기념일과 비교한다.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과 기념일 등의 종류, 유래와 의미를 찾아보고, 이를 다른 나라의 명절과 기념일에 비교한다. 여기서 초점이 두어지는 내용은 우리나라의 명절과 기념일의 종류, 유래와 의미 이해와 더불어 이와 관련된 의식행사 과정, 음식과 의복의 특징을 조사, 정리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명절과 기념일은 우리나라의 명절과 기념일과의 종류, 공통점을 비교하는 수준에서 다루는 것이 권장된다.

⑥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하여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우리 고장의 문화와 다른 지역 문화의 종류와 형성 과정, 공통점과 차이점 발견을 통해 각각의 문화가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한다. 또한,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문화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보이도록 한다. 이를 위해 고장의 범위를 넘은 지역, 국가 수준의 다양한 문화적 사례를 찾아 직·간접적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

【4학년】

(1) 우리 지역의 자연 환경과 생활 모습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우리가 사는 고장과 지역의 위치와 지형, 기후 등의 자연 환경, 그리고 인구와 취락, 자원과 산업, 교통과 통신, 문화 등 인문 환경의 여러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고장과 지역의 수준에서 인간의 생활과 자연 환경 간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우리 고장과 지역의 모습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이해하고자 설정된 단원이다. 나아가 우리가 사는 고장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자 설정된 단원이다.

우리 고장과 지역의 ‘모든 곳’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하여 학습하기보다 우리 고장과 지역에서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의 관련성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장소나 현상을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그리고 지도, 그래프, 사진, 도표 등 도해 자료에서 고장과 지역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찾아내고, 그것을 지도, 그래프, 도표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해력(圖解力, graphicacy)의 함양에 중점을 둔다. 특히 우리 고장과 지역의 주요 장소들을 대상으로 지도상에서 그 위치를 파악하고, 방위, 기호, 축척, 등고선의 의미 등을 학습함으로써 사회과 교육의 기본적인 학습 기능이고, 자아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이며, 공간적 존재감 함양과 관련되는 지도읽기 기능을 기르게 하는 단원이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우리 지역의 위치와 경계를 여러 가지 지도에서 확인하여 그 위치적 특징을 이해한다.

이 내용에서는 다양한 축척(대축척 지도, 소축척 지도) 및 주제(지형, 행정 구역, 교통망)의 지도를 통하여 우리 고장과 지역의 위치와 경계를 확인함으로써 지역 인식의 기초인 위치와 영역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쓰이는 우리 고장과 지역을 나타내는 다양한 종류의 지도들을 수집, 확인하고, 그 지도를 활용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습과 생활 경험의 거리를 좁히도록 한다. 지도의 수집과 활용에서 온라인 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지형, 기후에 관한 지리적 정보를 조사하여 우리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이해한다.

이 내용에서는 인터넷과 각종 자료 등의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우리 고장과 지역의 위치, 영역, 지형과 기후 등 자연 환경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조사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

을 둔다. 산, 하천, 평야 등 지형과 기온, 강수, 바람 등 기후의 특성을 파악하려면 우리 고장과 지역에 한정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공간 규모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시화된 생활 속에서 학습자들이 직접적, 일상적으로 자연 환경을 경험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생활 경험 중 자연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생활 지리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우리 지역의 인구, 자원, 산업, 문화 등에 관한 지리적 정보를 조사하여 인문적 특성을 이해한다.

이 내용에서는 인터넷과 인쇄 매체 등에 의한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우리 고장과 지역의 인구와 취락, 자원과 산업, 교통과 통신, 문화 등 인문 환경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조사하여 우리 고장과 지역의 인문 환경이 가진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인문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려면 우리 고장과 지역에 한정하기보다는 공간적으로 인접한 고장과 지역 및 멀리 떨어져 있는 고장이나 지역과의 연계성에도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 축제나 관광지 등과 같이 우리 고장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표현되는 대표적인 현상이나 경관을 소재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우리 지역의 인구, 자원, 산업, 문화 등을 자연 환경과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면서 자연 환경과 생활 모습의 관계를 이해한다.

이 내용에서는 우리 고장과 지역의 인구와 취락, 자원과 산업, 교통과 통신, 문화 등 인문 환경적 특성이 우리 고장과 지역의 위치, 영역, 지형, 기후 등 자연 환경적 특성과 어떤 관련성 속에서 형성, 전개되는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우리 고장의 자연 환경을 슬기롭게 이용하는 생활 모습을 파악하고, 의식주 생활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자연 환경과의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⑤ 우리 지역의 전형적인 장소와 경관을 관찰, 견학, 조사하여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알아본다.

이 내용에서는 우리 고장과 지역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장소, 경관, 현상 중에서 전형적이면서, 학습자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쉬운 장소, 경관, 현상을 선택하여 실제로 관찰, 견학, 조사함으로써 장소감을 체험하고 우리 고장과 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이 내용에서는 특히 학습자들로 하여금 우리 고장과 지역의 전형적인 장소 및 경관을 직접 체험하는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지도에서 우리 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나타내는 방위, 기호, 축척, 등고선 등과 같은 지도 요소를 이해한다.

이 내용에서는 다양한 자료원(인터넷 및 각종 매체 자료), 다양한 축척(대축척 지도, 소축척 지도) 및 주제(기후, 지형, 행정 구역 및 도시 분포, 교통망 등)의 지도를 통하여 우리 고장과 지역의 자연 환경적, 인문 환경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지도를 읽을 수 있는 기능을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도 읽기의 학습요소는 방위, 기호, 축척, 등고선 등이며, 지도 요소에 대한 학습은 지도 읽기, 지도 그리기와 만들기 등 지도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 지역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에 관한 정보들을 지도, 그래프, 도표로 나타낸다.

이 내용에서는 우리 고장과 지역의 위치와 영역, 지형, 기후, 인구 및 취락, 자원 및 산업, 교통과 통신, 문화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들을 지도, 그래프, 도표 등의 형태로 표현하는 도해력의 함양에 중점을 둔다. 특히 이 내용에서는 학습자들이 정보와 자료들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우리 고장과 지역의 이해에 관련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⑧ 다양한 지도, 사진, 그래프, 도표를 보고 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파악한다.

이 내용에서는 우리 고장과 지역에 관한 지도, 사진, 그래프, 도표 등에서 우리 고장과 지역의 위치와 영역, 지형, 기후, 인구와 취락, 자원과 산업, 교통과 통신, 문화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고장과 지역의 성격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관련하여 이 내용에서는 학습자들이 우리 고장과 지역에 관한 지도, 사진, 그래프, 도표 등의 다양한 도해 자료들을 충분히 접하도록 해야 바람직하다.

(2) 주민 자치와 지역 사회의 발전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삶을 조직하는 원리인 민주주의와 민주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정치적 삶에 대한 이해와 참여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동체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며,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그 해결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정책 과정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가 발전함을 이해하도록 한다.

대의 제도와 주민의 직접 참여 방식 등 현대 민주 정치의 다양한 운영 방식을 익히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관계를 이해하며, 지방 자치 단체가 하는 일을 조사·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선거와 대표자 선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 지방 자치 단체가 하는 일, 공공 생활과 주민 참여,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 과정 등을 파악한다. 또한, 지역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려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다양한 의견 차이와 갈등을 조정해 가는 민주적 정치 생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이 내용은 공동체 생활에서 발생하는 의견 차이와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 규칙과 절차 준수,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 의견 존중, 공익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 결정 등 민주적 정치 생활의 기본 원리들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적으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내용의 학습 과정에서 학급이나 생활 주변에서 경험하는 문제나 갈등 사례를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결해 보는 경험을 중심으로 학습 활동을 구성하도록 권장한다.

② 선거를 통해 대표의 의미 및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이 내용은 생활 주변에서 경험하는 선거와 선거 과정을 통해서 대표와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회 선거, 지방 선거, 전국적인 선거 등을 사례로 하여 투표의 의미, 공정한 선거 절차, 대표의 의미, 지도자의 자질과 역할,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구성하도록 한다. 모의 투표나 선거와 같은 활동 중심의 학습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한 사례 분석도 좋은 학습 경험이 될 수 있다.

③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 분담을 이해하고, 지방 자치 단체가 하는 일의 개략을 파악한다.

이 내용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며, 주민 자치를 더 잘 실현하려고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지방 자치 단체가 하는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 자치 단체가 하는 일을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가 하는 일로 나누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지방 자치 단체의 활동이 학생 주변의 생활과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는지도 파악하도록 한다. 이 내용의 학습 과정에서 지역 신문이나 관련 사이트 등을 통해서 지방 자치 단체가 하는 일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주민 참여와 자원 봉사의 경험을 통해 참여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이 내용은 주민 참여와 자원 봉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민주 정치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자원 봉사와 주민 참여가 중요함을 깨닫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자원 봉사자를 초청하여 그 경험을 듣는 활동을 하거나 다양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민 참여를 통해서 지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수준에서 가능한 실제적인 참여의 경험을 갖도록 하고 이를 학급 구성원과 함께 나누어 본다. 될 수 있으면 직접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좋은 자원 봉사 사례 혹은 주민 참여 사례를 조사하거나 관련 인사를 초빙하여 이야기를 듣는 간접 경험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⑤ 지역 사회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문제 해결 활동을 수행한다.

이 내용은 지역 사회의 문제와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여 지역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선택한 후에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결되어 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문제의 해결 과정, 지방 정부의 역할, 주민 참여의 중요성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여건이 허락하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택하여 학생의 수준에서 그 해결 과정을 모색하는 모의 체험을 하거나, 실제로 참여해보는 문제 해결 활동의 경험을 갖도록 한다.

⑥ 우리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상상해 보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이 내용은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극복된 바람직한 지역 사회의 미래 모습을 상상해 보고 그런 미래를 실현할 방법을 창의적으로 모색해 보기 위한 것이다. 주민 참여와 합리적 의견 조정 과정을 통해서 지역 사회가 발전함을 이해하고 추세 예측법이나 시나리오법 등 미래를 예측해 보는 다양한 학습 방법을 응용하여 지역 사회의 미래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그리고 바람직한 미래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토론해 본다. 지역 사회의 미래를 상상하는 활동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학생들은 지역 사회의 미래 모습을 글, 그림, 노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우리 지역과 관계 깊은 곳들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우리 고장, 지역과 관계 깊은 다른 고장, 지역의 자연·인문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 고장, 지역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그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고장, 지역의 형성, 발전이 고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고장, 지역과 밀접한 연관하에서 이

루어짐을 깨닫게 하려는 취지에서 설정되었다. 우리 고장, 지역과 관계가 깊은 다른 고장, 지역을 선정함에는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으로 관계가 깊은 지역을 선정하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지역도 포함하고, 우리 고장,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계화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단원에서는 고장, 지역 간의 상호 의존 및 나아가 세계의 여러 지역과의 상호 의존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공간 규모에서의 상호 의존을 깨닫고, 이 과정에서 여러 고장, 지역들이 가지는 공통점뿐만 아니라 차이점들을 인정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기르며, 우리 고장, 지역과 관계 깊은 곳을 선정하고 학습함에 있어서 지도, 그래프, 도표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지역 간 교류의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보고 상호의존이 필요한 까닭을 이해한다.

이 내용에서는 고장과 지역들이 서로 여러 부문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의존하고 있는 사례들을 다양한 공간 규모에서 찾아서 조사하고, 지역 간 상호 의존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하여 이 내용에서는 각종 자료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지역 간 교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찾아 교류의 목적, 주체, 내용, 규모, 기간 등에 따라서 유형화해 봄으로써 지역 간 상호 의존의 다양한 형태를 파악한다.

②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한다.

이 내용에서는 우리 고장, 지역이 예로부터 다른 고장,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리 고장, 지역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의 고장, 지역을 대상으로 학습하기보다는 여러 고장, 지역들에 대해서 각각 그 고장, 지역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관계의 의미, 상호 의존의 중층성(重層性) 등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는 데 유의한다.

③ 우리 지역과 자연적·인문적으로 관계가 있는 지역을 다양한 공간 규모에서 선정한다.

이 내용에서는 우리 고장, 지역과 자연·인문 환경적으로 관계가 있으며 학습 대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고장, 지역을 다양한 공간 규모와 다양한 관계의 유형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내용에서는 우리 고장, 지역과 관계가 있는 지역을 선정, 학습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흥미와 관심을 둘 수 있는 지역을 다양한 공간 규모에서 선정한다.

④ 우리 지역과 관계 깊은 다른 지역의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하고, 자연적·인문적 특성을 조사한다.

이 내용은 우리 고장, 지역과 관계 깊은 지역으로서 학습하고자 하는 고장, 지역의 위치와 영역을 지도에서 확인하고, 나아가 여러 가지의 자료들로부터 그 고장, 지역의 지형, 기후 등 자연 환경 및 인구, 자원, 산업, 문화 등 인문 환경의 특성을 조사하여 종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때 각종 자료와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 고장, 지역과 관계가 깊은 부분을 중심으로 한 정보와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우리 지역과 관계 깊은 다른 지역을 비교하여 자연적·인문적 특성의 차이를 이해한다.

이 내용은 우리 고장, 지역의 자연 환경적, 인문 환경적 특성을 관계 깊은 고장, 지역의 특성과 비교하여 서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내용에서는 또한 두 고장, 지역 간의 교류 및 상호 의존이 필요한 이유를 깨닫고 두 고장, 지역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그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교류 및 상호 의존의 필요성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유의한다.

⑥ 다양한 지도, 사진, 그래프, 도표를 통해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한다.

이 내용에서는 지도, 사진, 그래프, 도표 등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고장, 지역과 교류가 많거나 상호 의존도가 높은 고장, 지역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관련하여 이 내용에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정보, 자료의 공간적 저장 형태인 도해 자료를 분석하고, 획득한 정보, 자료를 도해적 형태로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경제 활동을 할 때 자원의 희소성으로 말미암아 선택의 문제가 발생함을 이해하고, 경제적 선택의 결과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설정되었다. 이를 통해 생산과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생활의 의미를 이해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로서 바람직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경제생활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고 바람직한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경제적 의사 결정을 위해 경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생산자 및 소비자로서 바람직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기르고, 생산 및 소비 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의사 결정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또한, 소비자로서 소비 생활에서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①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경제 활동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함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생산 및 소비와 같은 기본적인 경제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인간의 욕구보다 자원이 희소하여 경제 활동을 할 때 필연적으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함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우리의 일상생활을 생산 및 소비와 같은 경제 활동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활동을 권장한다. 또한,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는 선택의 상황을 제시하고, 왜 그러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 활동을 구성하도록 한다.

② 경제 활동에서 바람직한 선택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확인한다.

이 내용은 경제 활동을 할 때 필요한 바람직한 의사 결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비용, 만족감, 사회적 영향 등 바람직한 의사 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선택의 기준들을 탐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 활동에서 바람직한 선택은 개인의 만족감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선택이 필요한 모의 상황을 제시하고, 스스로 의사 결정 기준을 세워서 선택을 해보게 한 뒤, 그 결과에 비추어 선택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하는 경제적 의사 결정을 중심으로 학습 활동을 권장한다. 경제적 의사 결정 학습은 학생들의 의사 결정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바람직한 선택을 강조하려고 학생 개인의 선호를 무시하고 사회 혹은 공공의 이익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다양한 일을 조사하여 생산 활동의 의미를 이해한다.

이 내용은 사회 구성원들의 직업이나 일과 연관 지어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활동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우리 사회에서 생산 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직업이나 일들을 1차, 2차, 3차 산업, 혹은 농림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하여 생산 활동의 성격에 따른 차이를 구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 주민의 직업을 조사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는 조사 학습을 중심으로 학습 활동을 구성한다. 또한, 생산 활동의 의미를 현재 존재하는 직업 생활에만 국한하지 않고 미래 직업 세계의 변화와도 연관 지을 수 있도록 유의한다.

④ 생산자의 입장에서 생산 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의사 결정을 수행한다.

이 내용은 생산물의 종류, 생산 방법, 생산량 등 생산에 필요한 주요 의사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생산 활동과 연관된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함을 강조하도록 한다. 또한, 생산 활동을 할 때 창의적 도전 정신의 발휘와 경제 정보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소비자의 요구 조사, 새로운 생산물이나 판매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 탐색 등 생산과 관련된 실제적인 과제를 부과하고 해결하게 하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학습을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⑤ 소득의 원천 및 용도를 파악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 및 저축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한다.

이 내용은 가게가 소득을 얻는 방법과 사용하는 곳을 알고, 소비자로서 제한된 소득을 소비하거나 저축할 때 바람직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게의 소득 획득이 생산 활동 참여와 연관되어 있으며, 소비 활동에도 희소성에 따른 선택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소비 및 저축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 경제 정보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가게 소득의 원천과 용도를 보여주는 가상의 자료를 분석하고, 경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 및 저축과 관련된 선택을 해보는 조사 활동 및 의사 결정 활동을 중심으로 학습을 구성하도록 한다.

⑥ 소비자 권리의 내용을 이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소비자 권리의 존재 이유와 그 내용을 알게 하고,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구제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 주권 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교수·학습 과정에서 시사 자료 및 학생 경험에 기초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실제와 비슷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보는 활동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의 내용을 세세히 전달하기보다 소비 생활에서 손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와 방법이 있음을 알리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5) 여러 지역의 생활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우리나라의 도시와 촌락 지역의 생활 모습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지역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상호 관계를 인식하기 위한 취지로 설정된 단원이다. 즉, 도시와 촌락이 각각 고유한 입지 조건과 분포 및 기능적인 특성을 지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도시와 촌락의 특성 및 여러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파악함에서 전형적인 특성이 있는 도시와 촌락의 사례 지역의 탐구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수 있는 탐구 학습을 강조한다.

도시 지역의 생활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도시 분포와 도시화 과정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지역의 주요 도시와 수도권의 도시를 사례로 도시의 생활 모습과 인구의 밀집, 환경의 파괴와 오염 등의 도시 환경 문제 및 그 해결 방안 등을 이해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다. 촌락 지역의 생활과 관련해서는 자연 환경, 교통, 대도시와의 접근도 등과 관련한 촌락의 입지와 기능 및 산업 활동, 생활 모습,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살펴봄으로써 촌락의 지역성을 파악한다. 아울러 이 단원에서는 촌락의 개발을 국토의 균형적 발전의 관점에서 보며, 도시와 촌락 지역의 관계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도시의 기능적인 특징을 알고,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는 까닭을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한다.

이 내용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와 지역의 도시(중심지)를 사례로 도시의 기능을 이해하고, 촌락의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는 실태와 이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둔다. 도시의 기능과 인구의 도시 집중에 대해서는 촌락의 기능 및 인구의 유출 실태와 관련지어 이해하도록 한다. 농촌에서 유출된 인구가 도시로 전입하는 실태에 대한 학습에서는 학습자들의 가족, 친척, 지인 등의 사례를 활용한다.

② 지도와 통계 자료를 통하여 도시의 분포와 도시화 과정을 이해한다.

이 내용에서는 우리나라의 도시가 어떤 분포상의 특성을 보이는가, 그리고 도시의 형성, 발전 과정을 여러 종류의 지도, 사진, 그래프, 통계 자료들을 통하여 파악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내용에서는 특히 시각적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도시의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끼친 주요한 요인들에 대하여 파악하도록 한다.

③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나누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이해한다.

이 내용에서는 우리나라의 도시들을 규모에 따라서 대도시와 중소 도시로 분류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모습을 생산 활동, 소비 활동, 여가 활동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각종 매체와 인터넷에 실려 있는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모습에 관

한 자료를 찾고, 이를 도시의 기능에 관련시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 도시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도시 문제의 복합적 성격을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알아본다.

이 내용에서는 인구의 밀집, 주택 문제, 교통의 혼잡, 환경의 오염 등 도시 문제의 복합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그 해결 방법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내용에서는 특히 도시 문제의 해결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화가 산업 발달, 근대화의 중심 지역, 인구 이동의 집중 등과 복합적인 요인 하에 이루어진 점과 관련하여 도시 문제 또한 복합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한다. 또한, 이 내용에서는 도시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을 조사하여 우리 지역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의 탐색에 활용한다. 그리고 촌락의 문제와 관련하여 도시 문제를 이해하도록 한다.

⑤ 촌락 지역의 생활 모습을 자연 환경 및 산업 활동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이 내용에서는 촌락 지역의 생활 모습을 위치, 지형, 기후 등 자연 환경, 자원과 산업 활동, 인구와 취락, 문화 등 인문 환경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촌락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자연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면서도 자연 환경을 슬기롭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는 데 유의한다.

⑥ 촌락을 농촌, 어촌, 산지촌으로 구분하고, 그 특징을 비교한다.

이 내용에서는 자연 환경 중 평지, 해안, 산지 등의 상이한 지형 조건에 발달한 우리나라의 농촌, 어촌, 산지촌에 대하여 각 촌락은 고유한 성격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그 성격들을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촌락을 비교할 때에는 각 촌락의 입지 요인, 주요 기능, 주요 생산물,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 모습 등을 중심으로 하되, 촌락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깨닫도록 한다.

⑦ 촌락의 생활 모습과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알아본다.

이 내용에서는 촌락의 생활 모습 중 인구의 고령화 등 인구 감소, 산업적 기능의 축소, 문화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 방법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촌락 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개발의 필요성과 그 사례에 대하여 학습한다. 학습자들에게 직접 관련되는 문제들을 다루되, 그 배경으로서 촌락의 생활이 가지는 문제의 구조를 드러내도록 한다. 특히, 이 내용에서는 촌락의 문제점만을 부각하여 촌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지 않도록 하며, 최근 촌락의 긍정적인 변화, 발전 모습을 제시하도록 한다.

⑧ 도시와 촌락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한다.

이 내용에서는 도시와 촌락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파악하며, 이와 관련하여 근래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나는 촌락의 쇠퇴는 우리나라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깨닫는 데 중점을 둔다. 최근 도시와 촌락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존중함으로써 상생하는 사례를 조사, 이해함으로써 우리 고장과 지역, 나아가서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을 탐색하도록 하는 데 유의한다.

(6)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 변화의 모습과 이러한 변화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자 설정되었다. 여기서 주로 고려해야 할 사회 변화는 가족 구성의 변화, 성역할의 변화, 인구 구성의 변화, 대중 매체의 발달, 생활 방식의 다양화 등이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대하여 그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개인과 개인 간, 공동체와 개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더불어 사회 변화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 변화로 말미암은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현대 사회의 가족 특성과 의미, 성 역할과 인구 구성의 변화를 파악하고, 대중 매체의 특성과 현대 사회에서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 변화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도록 한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 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또한, 인간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태도를 갖도록 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① 현대 사회 가족 구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본다.**

이 내용은 대표적 가족 분류인 핵가족과 확대 가족 이외에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고려해 보아야 할 다양한 가족 유형과 가족 형성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모습을 탐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탈 가부장적 가치, 수평적인 가족 관계 등 새로운 가족 관계의 특징을 살펴 보면서 현대 사회에서 바람직한 가족의 의미와 역할을 찾아보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다양한 가족의 사례를 활용하거나 가족을 주제로 하는 역할 놀이를 할 수 있다.

② 성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양성 평등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 내용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성 역할 변화 양상과 양성 평등한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해하고 양성 평등한 성 역할에 기초한 사회생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성 역할 인식과 성 고정 관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양성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인적·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조사해보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신문 기사나 만화 자료 등을 활용하여 성 역할 인식에 대한 고정 관념을 비판하는 활동과 양성 평등 사회를 위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이해한다.

이 내용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인구 문제를 인식하고, 연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우리 사회의 인구 구성이 어떠한 양상으로, 그리고 어떠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은 사회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하여 세대 간 비교를 통해서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얼마나 급격하게 나타나는지 파악하도록 하며, 간단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 구성의 변화를 읽을 수 있도록 한다.

④ 현대 사회에서 대중 매체가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파악한다.

이 내용은 TV, 컴퓨터 등의 대중 매체와 이로 말미암아 형성된 대중문화가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대중 매체를 잘 활용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TV, 만화, 컴퓨터 매체의 영향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다양한 사례를 조사 발표하면서 대중 매체와 대중문화의 영향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중 매체의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 토론 자료를 제시하여 자료에 근거한 토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⑤ 현대 사회에서 여가의 중요성을 알고, 바람직한 여가 활용 방안을 찾아본다.

이 내용은 현대 사회에서 여가 생활의 중요성과 현재 우리 사회의 여가 문화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전한 여가 활용 방안과 여가 문화 형성을 위한 태도를 모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변 사람들이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하고 분류해보면서, 여가 생활의 긍정적인 측면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바람직한 여가 활용 방안을 토론해 보도록 한다.

⑥ 생활 방식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영위하는 삶의 다양한 방식에 대하여 사회적 편견과 고

정 관념을 갖지 않고 이해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인권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이주 노동자, 새터민, 다문화 가정 등 삶의 방식 차이나 사회적 차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서 그 원인을 조사하고, 이들의 권리가 지켜질 방안을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5학년】

(1) 하나 된 겨레

(가) 단원 개관

이 단원은 선사 시대와 고조선의 성립, 삼국의 성립과 발전, 통일 신라와 발해의 역사를 생활과 문화를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하고자 설정하였다. 먼저, 선사 시대 조상의 생활 모습과 고조선이 성립된 이후의 사회상을 설명한다. 나아가 삼국과 통일 신라·발해의 성립과 발전 및 생활 모습과 문화를 제시한다. 인물 이야기는 물론 연표, 역사 지도, 유물과 유적 등의 자료를 풍부하게 활용하여 생활과 문화의 양상을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

선사 시대와 고조선의 성립, 삼국의 성립과 발전, 통일 신라와 발해의 역사를 생활과 문화를 중심으로 보여준다. 우리 겨레의 터전이 마련되고 생활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과 고대인으로서의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문화의 특질을 알려 준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선사 시대 유물과 유적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파악한다.

이 내용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의 생활상을 도구와 주거지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유물과 유적을 통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의 생활상을 시기별 특징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점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각 시기를 대표하는 유물과 유적을 선정하여 사진을 제시하고 자세한 설명을 덧붙인다.

② 고조선이 우리 겨레가 세운 첫 국가임을 알고 생활 모습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우리 겨레가 세운 첫 국가인 고조선의 성립 과정을 단군 이야기와 그 해석을 통해 살펴보고, 고조선인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단군 이야기, 즉 단군 설화의 해석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역사성을 읽어내고,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성립된 고조선인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는 것이 중점 요소라고 할 수 있다.

③ 삼국의 발전 과정 및 상호 경쟁을 그림, 지도, 연표로 표현한다.

이 내용은 삼국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살피고 삼국의 상호 경쟁을 영역 변화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삼국의 성립은 건국 설화와 각국이 차지했던 지역의 지리적·사회적 환경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삼국의 발전과 상호 경쟁은 영역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연표, 최대 영역을 표시하는 지도 등을 덧붙인다.

④ 유물과 유적, 역사 인물 이야기를 통하여 삼국의 생활 모습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귀족과 평민, 노비로 살아갔던 삼국인의 생활 모습과 불교 전파와 중국, 일본 등과 교류를 통해 형성된 삼국 문화의 특징을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둔다. 신분 문제는 사료를 통해 살피고, 불교의 전파 과정은 유물과 설화 등을 통해 설명하고 삼국의 대표 고분의 벽화와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점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유물과 유적은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덧붙인다.

⑤ 인물의 활동을 중심으로 삼국 통일과 발해의 건국 과정을 파악한다.

이 내용은 고구려, 백제가 멸망하고 신라가 당을 물리침으로써 삼국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과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건국되는 과정을 인물을 중심으로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둔다. 고구려의 연개소문, 백제의 의자왕, 신라의 김유신과 김춘추, 그리고 발해 대조영의 활약을 중심으로 삼국 통일과 발해의 건국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점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삼국 통일과 발해 건국 과정과 관련된 전쟁은 지도와 연표 등으로 보여준다.

⑥ 통일 신라와 발해의 인물, 유물과 유적을 통해 여러 신분의 생활 모습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통일 신라의 귀족과 서민의 생활과 문화를 골품제, 불국사와 석굴암, 그리고 장보고의 활동을 통해 살피고, 발해의 생활과 문화를 동경성 등의 유적지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골품제와 관련해서는 6두품이었던 최치원의 활동과 신분적 제약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각종 설화를 통해 평민들의 삶을 알아보며 수도인 경주 사람들의 삶을 복원하여 살피고, 고구려 유민이 건국하여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내세웠던 발해인의 삶을 유물과 유적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중점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다양한 문화가 발전한 고려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고려 시기의 역사를 당시 조상의 생활 모습과 문화, 그리고 인물을 중심으로 파악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고려인의 외세 침략 극복의 과정과 불교와 유교를 근간으로 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생활과 문화를 발전시켰던 노력을 설명한다. 인물 이야기와 대표적인 유물과 유적에 관한 설명과 사진, 연표, 지도, 삽화 등을 활용해 고려의 생활과 문화를 알아본다. 이를 통해 고려 시기 사람들의 삶과 문화, 그리고 시대적 특징을 이해한다. 고려 시기의 역사를 조상의 생활 모습과 문화, 그리고 인물을 통해 설명한다. 불교와 유교가 조화를 이루고 주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다원 사회를 이루었던 고려 시기의 특징을 당시의 생활과 문화 속에서 찾아낸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을 견훤, 궁예, 왕건 등의 인물을 통해 파악한다.

이 내용은 후삼국의 통일 과정을 견훤, 궁예, 왕건 등의 인물을 통해 파악하고 고려 건국 이후 달라진 정치의 내용을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둔다. 견훤, 궁예, 왕건 이야기를 중심으로 후삼국의 통일 과정을 이해하고 고려 건국 이후 달라진 정치 내용을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 중점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일어난 정치적 변화는 연표와 지도 등을 통해 보여준다.

② 고려 시기 왕과 귀족, 백성들의 생활 모습을 탐구하고 비교한다.

이 내용은 고려 시기가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음을 이해하고 신분제하에서 일반 백성의 삶을 탐구하고 비교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고려 시기가 귀족 중심으로 사회가 운영되고, 여러 신분으로 나뉘었고, 농민과 천민이 12세기 향쟁을 통해 신분 해방을 꿈꾸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점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신분별로 생활 모습의 차이를 삽화, 역사 일기 등을 통해 재구성하여 보여준다.

③ 고려 시기 불교가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미친 영향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고려 시기에 왕과 귀족만이 아니라 백성까지 불교가 국가와 개인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는 가운데 불교가 융성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훈요십조, 팔관회, 연등회 행사 등을 통해 불교가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 등을 알아보는 것이 중점 요소라고 할 수 있다.

④ 고려 시기 거란, 몽골의 침략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상의 노력을 조사한다.

이 내용은 고려 시기에 일어난 거란과 몽골의 침략을 극복하고 변경 지역의 주민을 괴롭히던 여진족을 막아낸 조상의 활동을 알아보는 데 주안점을 둔다. 거란의 침략은 서희의 담판과

강감찬의 귀주 대첩, 몽골의 침략은 지방민과 삼별초의 저항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점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여진족과의 싸움은 윤관의 별무반과 9성 건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침략과 저항에 관련된 사실은 연표와 지도를 통해 보여준다.

⑤ 금속 활자, 청자, 팔만대장경 등 고려 시기 대표적인 문화재를 통해 고려 시기 과학과 문화를 탐구한다.

이 내용은 고려 시기를 대표하는 금속 활자, 청자, 팔만대장경 등의 과학 기술과 문화를 탐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금속 활자, 상감청자, 팔만대장경, 부석사 무량수전 등을 탐구하여 오늘날 문화 유산으로서 그것들이 갖는 소중한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점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재의 제작 과정을 삽화 등으로 보여준다.

⑥ 생활을 개선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려 노력했던 고려 시기 인물을 조사한다.

이 내용은 고려시기에 생활의 개선과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을 조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를 발전시킨 인물, 교육 기관을 세워 인재 양성에 이바지한 인물, 역사서를 편찬한 인물, 과학 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 문인과 예술가 등을 조사하는 것이 중점 요소라 할 수 있다. 분야별로 대표적인 인물을 선정하여 사료로 업적을 보여주거나 인물의 일생을 연극 등으로 재현하거나 관련 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다.

(3) 유교 전통이 자리 잡은 조선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조상의 생활과 문화를 중심으로 민족 문화의 융성기인 조선 전기의 역사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조선 전기를 유교와 그 속에서 전개된 조상의 삶, 문화, 인물 등을 통해 설명한다. 특히 세종 시기 전후의 문화 융성기에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던 조상의 노력과 우리 문화의 여러 모습을 확인한다.

조선 전기의 역사를 생활과 문화를 중심으로 이해한다. 민족 문화의 전성시대인 조선 전기의 문화 발전을 살펴봄으로써 민족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도성과 궁궐 건축을 통해 조선이 유교 국가를 지향하였음을 파악한다.

이 내용은 도성인 한양과 궁궐인 경복궁 건축 등에 나타난 조선의 유교 국가적 특징을 이해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한양에 도움을 설치하게 된 배경, 한양의 도성으로서의 면모, 궁궐과 종묘 등의 특징을 통해 유교 국가로서의 면모를 알아보는 것이 중점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삽화, 사진, 복원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보여준다.

② 세종 대에 이룩한 문화, 과학 분야의 성과를 탐구한다.

이 내용은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과학 기술 문명을 이룩한 세종 대의 문화와 과학 분야의 성과를 탐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훈민정음, 해시계·물시계, 측우기, 간의·혼천의, 달력, 농사직설 등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러한 성과를 내는 데 이바지한 집현전 학자와 장영실 등의 활약을 알아보는 것이 중점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각종 과학 발명품은 사진과 함께 사용 방법 등을 보여준다.

③ 여러 신분의 생활 모습을 통해 유교적 전통이 어떻게 자리 잡아 나가게 되었는지를 탐구한다.

이 내용은 조선 시기 양반과 상민의 생활 모습 비교를 통해 유교 전통이 어떻게 조선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지를 탐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유교적 의례와 규범을 중시하며 교육에 힘쓰던 지식 관료층인 양반과 생산 활동에 종사하였던 상민의 일생을 의식주의 차이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탐구하는 것이 중점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양반과 상민의 일생을 그림 등으로 복원하여 보여준다.

④ 조선 시기 사람들의 생활과 놀이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사례를 조사한다.

이 내용은 조선 시기 사람들의 생활과 놀이 중 현재까지 전승되는 사례를 조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음식과 민간 신앙, 그리고 세시 풍속, 전래 놀이 등을 중심으로 오늘날까지 계승되는 사례들을 탐구하는 것이 중점 요소라고 할 수 있다.

⑤ 인물이나 유적을 통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극복 과정을 파악한다.

이 내용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극복 과정을 인물이나 유적을 통해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순신과 여러 의병장 등의 활약과 자기 고장에 남아 있는 관련 유적을 통해 임진왜란을 이해하고, 전쟁에 대해 입장을 달리했던 인물들과 남한산성에서의 저항, 그리고 북벌 정책을 중심으로 병자호란을 이해하는 것이 중점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난중일기 등의 사료와 남한산성 등의 유적, 전황도 등을 보여준다.

⑥ 생활을 개선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려 했던 조선 전기의 인물을 조사한다.

이 내용은 조선 전기에 생활의 개선과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을 조사하는 데 주안점

을 둔다. 역사서, 지리서, 의례서, 법전 등의 편찬과 성리학 발달에 이바지한 인물, 여성으로서 문학과 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 등을 조사하는 것이 중점 요소라 할 수 있다.

(4)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양란 이후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새롭게 등장한 문화 요소들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인물, 문학과 예술, 대표적인 문화재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를 탐구한다. 그리고 실학이 대두하고 서양 종교와 학문이 소개되면서 유교 중심의 생활과 문화에 변화가 왔음을 설명한다.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이로 말미암은 생활과 문화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 겨레가 근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스스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었음을 이해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영조·정조 시기에 문화가 크게 발달하였음을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이 내용은 조선 후기 문화의 꽃을 피운 영조와 정조 시기의 문화 발달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영조와 정조 시기의 문물 정비와 문예 부흥을 설명하고 화성 건설 등을 사례로 문화 발달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중점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화성의 건설과 정조의 화성 행차를 의궤 등의 그림 사료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당시 사람들의 삶과 문화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② 풍속화, 민화, 서민 문학을 통해 조선 전기와 달라진 새로운 생활 모습을 탐구한다.

이 내용은 풍속화, 민화, 서민 문학 등에 나타난 조선 후기 사람들의 달라진 생활 모습을 탐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김홍도, 신윤복 등이 그린 풍속도나 작자 불명의 민화, 그리고 판소리, 탈놀이와 서민 문학 등을 탐구하여 조선 후기 사람들의 삶을 복원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신분제 변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점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당시 그림이나 문학작품을 통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도자기와 칠기 등 조선 후기에 사용된 생활용품을 조사하여 그 속에 담겨진 조상의 지혜를 확인한다.

이 내용은 백자, 옹기, 칠기 등 조선 후기에 사용된 생활용품을 조사하여 그 속에 담긴 조상

의 지혜를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청자-분청사기-백자로 이어지는 도자기 변천사와 일반인이 사용한 생활 용기의 특징을 그 제작 방법과 용도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점 요소라고 할 수 있다.

④ 서양에서 전래된 문물을 조사하고, 서양 학문과 천주교가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조선 후기에 전래한 서양 문물을 조사하고, 서양 학문과 천주교가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중국에서 들어온 서양 문물의 종류와 쓰임새를 알아보고, 대표적인 인물들을 통해 천주교의 전파를 이해하고, 서양 문물과 천주교가 평등 사상을 확산하는 역할을 했음을 알아보는 것이 중점 요소라고 할 수 있다.

⑤ 실학자와 농민 봉기 지도자를 사례로 사회 변화를 위한 조상의 노력을 알아본다.

이 내용은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실학의 등장과 농민 봉기를 인물 중심으로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사회와 경제에 관한 실학자의 개혁 방안을 조사하고, 그들이 우리 역사, 지리, 국어, 자연 등을 연구하면서 중국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된 점을 이해하고, 농민 봉기 지도자의 활약과 그들의 주장을 파악한다.

⑥ 조선 시기 여성의 생활과 사회적 지위 변화를 파악하고 생활을 개선시키고자 했던 여성의 노력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고려 시기와는 달리 변화된 조선 시기 여성의 생활과 사회적 지위를 파악하고 생활을 개선하고자 했던 여성들의 노력을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유교 문화로 말미암아 조선 시기 이전과 달라진 여성의 위상과 삶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풍속화, 민화, 문학 작품 등을 통해 여성들의 삶을 재현해 본다.

(5)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민족 운동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개항 이후 대한 제국까지 진행된 반외세 근대화 운동과 일제 강점기에 전개된 독립 운동을 살피고, 근대 문명의 수용과 더불어 변화한 사회의 모습과 일상생활을 역사적 사건, 인물 등과 연계하여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아가 일제의 가혹한 지배 정책하에서도 민족 독립과 삶의 근대화를 위해 전개된 각종 운동과 문화 예술가들의 활동을 설명한다.

개항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근대 국가를 수립하고자 했던 노력과 민족 독립을 위한 투쟁에

대해 살펴본다. 급격히 서구화, 근대화되어가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생활 개선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근대화와 자주화를 동시에 쟁취하고자 노력한 우리 조상의 불굴의 노력을 살펴본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개항 전후 시기부터 일제 강점까지 외세의 침략 과정과 그에 대한 조상의 대응을 파악한다.

이 내용은 개항 전후 시기부터 일제 강점이 이루어진 시점까지 외세의 침략 과정과 이에 대한 대응 및 저항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두 번의 양요와 대원군의 통상 거부 정책, 강화도 조약을 비롯한 열강과의 불평등 조약 체결, 청·일 전쟁과 동학 농민 운동, 러·일 전쟁, 을사조약과 의병 운동 등 외세의 침략과 그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점 요소이다. 외세에 대한 저항은 인물을 중심으로 살피고 연표와 지도를 활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②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근대 국가를 세우기 위해 전개한 노력과 대한 제국의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

이 내용은 갑신정변, 갑오개혁, 대한 제국의 수립과 독립협회 운동 등 근대 국가를 세우고자 전개한 노력을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여러 사건을 차례로 나열하기보다는 각 세력이 주장한 개혁 내용과 대한 제국의 주요 정책을 인물과 그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사료나 사건을 통해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근대 문명의 수용이 가져 온 일상생활의 변화 모습을 조사한다.

이 내용은 서양 근대 문명의 수용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가져온 변화를 조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전기와 철도가 일으킨 교통 통신 수단의 변화, 양력 채택으로 말미암은 시간 개념의 변화, 단발과 양복으로 대표되는 복식의 변화 등을 조사하는 것이 중점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일상생활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과 삽화를 활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④ 대표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여러 갈래로 이루어진 독립 운동의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무장 독립 운동과 의열 투쟁, 실력 양성 운동과 신한회 운동 등 여러 갈래 독립운동을 대표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학습자가 스스로 특정한 분야를 선정하고, 대표적인 인물과 그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사료나 사건 관련 이야기를 조사하여, 독립 운동을 구체적이고 체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일제의 수탈과 근대 문물의 확산이 생활 문화에 미친 영향을 추론한다.

이 내용은 일제의 경제 침략으로 조선인의 삶이 매우 어려웠음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일제 강점기 동안 새로운 도시와 산업 시설이 등장하고 근대적인 문물이 수용되었으나, 그 혜택을 누리는 이는 일본인이거나 일부 계층에 불과하였고, 대다수 조선 사람들은 가난한 소작농민, 노동자로 어려운 삶을 살았고, 살길을 찾아 해외로 이주하는 이도 많았다. 사료나 사진 자료를 통해 일제의 수탈과 우리 민중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일제 강점기 역사, 문학, 예술 등의 분야에서 활동한 인물들의 활동을 조사한다.

이 내용은 일제 강점기에 역사, 문학,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한 인물들을 조사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학생들이 스스로 관심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역사, 문학, 예술 등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과 그들의 활동을 조사하여 해당 분야에서 이바지한 바를 다양한 형태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6)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8·15 광복에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8·15 광복 이후 우리 민족이 분단과 전쟁 등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온 과정을 인물과 사건을 통해 이해한다. 조상의 지난한 노력의 결과 민주화와 경제 발전, 문화 성장이 가능하였음을 살펴본다. 경제 성장의 토대 위에서 민주주의가 더욱 신장되고 평화 통일이 실현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8·15 광복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우리 민족의 저력에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 통일과 인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를 찾아본다.

(나) 교수·학습 내용**①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분단과 6·25 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 내용은 8·15 광복부터 6·25 전쟁까지 남북에 각각 정부가 수립되고 분단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둔다. 남북에 미군과 소련이 주둔하게 된 배경, 1948년 남북에 각각의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 김구를 중심으로 전개된 통일 운동의 의미, 6·25 전쟁과 분단이 가져온 이산, 전쟁 고아 등의 민족적 고통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점 요소라고 할 수 있다. 8·

15 광복부터 6·25 전쟁까지 남북의 역사적 사건은 연표로,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은 지도 등을 통해 보여준다.

② 민주화와 경제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이 가져온 생활 문화의 변화를 탐구한다.

이 내용은 1960년대 이후 민주화와 경제 발전의 과정을 설명하고, 그로 말미암은 생활 문화의 변화를 탐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4·19 혁명-5·16 군사 정변-유신 독재와 민주화 운동-5·18 민주화 운동-6월 민주 항쟁으로 이어지는 정치사,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의 밝고 어두운 면을 이해하고 이농과 도시로의 인구 집중 및 전기와 전화, 텔레비전 등의 보급으로 시작된 생활 문화의 급격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점 요소라고 할 수 있다.

③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의 삶을 조사한다.

이 내용은 현대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의 삶을 조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정치가, 경제인, 사회 운동가, 과학·기술자, 문화 예술가, 체육인 등 우리나라의 발전과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 인물들을 선정하여 그 업적을 조사하는 것이 중점 요소라고 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의 발전, 평화 통일, 인류 문화의 향상을 위해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본다.

이 내용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평화 통일, 나아가 인류 문화의 향상을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보는 데 주안점을 둔다.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이해하고 나아가 세계화·정보화의 시대에 인류 문화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바를 찾도록 하는 것이 중점 요소라고 할 수 있다.

【6학년】

(1) 아름다운 우리 국토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을 확인하고, 국토의 자연 환경과 인구나 취락, 자원과 산업, 교통, 문화 등의 인문 환경에 관한 주요 사실과 특성을 파악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연 환경에 어울리는 의식주 생활을 하면서 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연 환경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슬기롭게 노력하는 모습을 이해하는 내용을 다룬다.

이 단원에서 학습자들은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 및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지도, 그래프, 도표 등으로 나타내고, 그러한 자료에서 정보를 읽어내는 도해력을 기르며, 산업 활동의 입지 선정, 지역의 문제 해결 등에 관하여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기른다. 나아가 지역과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지역과 국토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기른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지역의 자연 환경, 인문 환경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의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우리나라 국토의 위치와 영역을 지도와 지구본을 활용하여 확인한다.

이 내용에서는 지표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지도와 지구본의 기능 및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하며, 세계지도와 지구본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토의 절대적, 상대적 위치와 영역의 특수성을 확인함으로써 국가 수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지역 인식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세계지도와 지구본뿐만 아니라, 지구의 인터넷 위성사진 사이트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에 관련된 다양한 지리 정보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우리나라 국토의 자연적 특성을 지형, 기후 등의 측면에서 이해한다.

이 내용에서는 인터넷과 인쇄물 등의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우리나라 국토의 위치와 영역, 산맥, 하천 등 지형, 기온과 강수 등 기후, 나아가 지형과 기후에 관련된 자연 재해 등 자연 환경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리나라 자연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려면 동부 아시아 또는 그 이상의 넓은 공간 규모 속에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다가올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국토의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에서 북한 지역의 위치와 영역 및 지형과 기후에 대한 학습을 포함하는 것에 유의한다.

③ 전형적인 사례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자연적 특성을 이해한다.

이 내용에서는 우리나라의 지형과 기후 등 자연 환경의 요소 중 전형적이면서도 학습자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쉬운 현상을 나타내는 지역을 선정하여 학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내용에서는 특히 학습자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자연 현상과 관련된 지역을 선택적으로 학습하며 그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표현하도록 해야 바람직하다.

④ 자연적 특성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지역의 차이를 생활 모습의 측면에서 이해한다.

이 내용에서는 우리나라를 자연적 특성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고나서 각 지역별 차이를 자원과 산업, 인구 분포와 취락, 문화와 여가 등 생활 모습 측면에서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역의 구분과 지역에 따른 생활 모습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이 내용에서는 지역 간 상호 의존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유기적 관련성을 강조해야 바람직하다.

⑤ 전형적인 사례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인문적 특성을 이해한다.

이 내용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와 취락, 자원과 산업, 교통과 통신, 문화 등 인문 환경의 요소를 전형적으로 담고 있으며 학습자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쉬운 인문 현상을 지니는 지역을 선정하여 학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문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내용에서는 특히 학습자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인문 환경과 관련된 현상과 관련된 지역을 선택적으로 학습하며 그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우리나라 국토의 인문적 특성을 인구, 산업, 교통, 문화 등의 측면에서 이해한다.

이 내용에서는 인터넷과 인쇄물 등의 다양한 지리 정보 원천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인구와 취락, 자원과 산업, 교통과 통신, 문화와 여가 생활 등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인문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인문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려면 우리나라에 한정하기보다는 공간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및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들과의 연계성에도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인구와 취락, 자원과 산업, 문화 등의 인문 환경적 특성 중 우리나라의 특성과 관련성이 큰 점을 소재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 북한 지역의 자연·인문 지리적 특성을 이해한다.

이 내용에서는 북부 지방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에 관한 주요한 사실, 현상 및 생활 모습을 파악함으로써 다가올 통일 시대를 대비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위치와 영역, 지형과 기후 등 자연 환경 영역에서는 남부, 중부, 북부 지방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일체성을 강조하며, 북한 지역의 인문 지리적 성격에서는 분단 이후의 이질화 현상, 북한의 개방 지역, 통일의 당위성, 통일 후의 국토 공간 이용 계획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⑧ 우리나라의 자연·인문 지리적 특성을 지도, 그래프, 도표로 나타내고, 다양한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읽을 수 있다.

이 내용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연, 인문 환경적 특성의 학습에서 도해력(圖解力, graphicacy)의 함양에 중점을 둔다. 즉, 우리나라의 지형, 기후, 인구 및 취락, 자원 및 산업, 교통과 통신, 문화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들을 지도, 그래프, 도표 등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

그래프, 도표 등에서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 및 인문 환경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추출해내고 이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표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도해력의 함양에 중점을 둔다. 특히 이 내용에서는 학습자들이 우리 고장과 지역에 관한 지도, 사진, 그래프, 도표 등의 다양한 도해 자료들을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습자들이 정보와 자료들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이해에 관련짓도록 해야 바람직하다.

(2)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과제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시장 경제의 원리에 기초하여 발전해 온 우리 경제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나라 경제의 성장과 쇠퇴가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며,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안을 창의적으로 모색하고자 설정되었다.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민 경제의 성장과 쇠퇴는 시민들의 삶의 모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시민들의 삶을 풍요하게 유지하려고 지속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삶의 질 향상은 경제 성장과 함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취지에 근거하여 자유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 경제의 기본 특징을 이해하도록 하고, 다양한 경제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경제의 변화 과정 및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와 상호 의존하는 동시에 경쟁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우리 경제의 특징을 자유와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

이 내용은 우리 경제가 생산, 소비, 저축 및 직업 선택 등 경제생활 영역에서의 자유와 이에 따른 경제 주체들 간의 경쟁 원리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경제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 양질의 물건과 서비스의 공급 등 경쟁이 주는 이점을 이해하고, 경제생활의 자유를 잘못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도 인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가게와 기업이 누릴 수 있는 경제 활동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 기업 간 경쟁의 모습을 조사한 후 그 이점에 대해 탐구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성하도록 한다.

② 우리 경제의 변화를 성장, 위기, 위기 극복이라는 국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 내용은 8·15 광복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가 성장해 온 역사적 과정을 성장, 위기, 위기 극복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나라 전체의 경제 성장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 자료를 비교하거나, 8·15 광복, 6·25 전쟁,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외환 위기 사태와 극복 등과 관련된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전화, TV, 자동차 보급률의 확대 등 생활상의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여러 경제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 경제의 현황을 파악한다.

이 내용은 우리 경제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제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 경제 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총생산, 경제 성장률, 산업 구조, 실업률, 수출과 수입 등과 관련된 표, 도표, 그래프 등을 조사하여 정보를 해석하는 자료 분석 활동을 중심으로 주요 학습 내용을 구성하도록 한다. 각종 경제 지표 혹은 경제 통계 자료는 학생들의 자료 해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시하며, 경제 지표에 대한 개념 설명보다는 경제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유의한다.

④ 우리 경제가 국제 거래를 통해 다른 나라 경제와 상호 의존하며 경쟁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자원, 자본, 노동 등과 관련된 거래 및 수출과 수입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와 상호 의존하는 동시에 경쟁하는 관계에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생필품의 생산국이나, 식품 등에 표시된 원료의 산지 등을 조사하는 활동을 통해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시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동차, 이동 전화, 반도체 등 국외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국내 제품을 조사하여 기업 간 경쟁이 국경을 넘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성하도록 한다.

⑤ 국제 경쟁력 증진을 위한 기업가, 근로자, 정부의 역할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제 거래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기업가, 근로자,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가상 시나리오로 만들어 예측해보고, 기업가, 근로자, 정부로 나누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경제적 역할을 창의적으로 탐색하는 활동으로 학습 내용을 구성하도록 한다.

⑥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대안을 모색한다.

이 내용은 자원 고갈, 환경오염, 빈부 격차, 노사 갈등, 이주 노동자의 인권 문제 등 경제 성장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확인하고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시사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 성장 과정에서 겪는 사회 문제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문제 해결 학습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성한다.

(3) 환경을 생각하는 국토 가꾸기**(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우리나라의 주요 자연 재해, 도시화와 산업화로 말미암은 자원 고갈, 환경 파괴와 오염 문제에 대한 사실적 지식을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균형 있는 국토 개발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를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어 설정되었다. 이 단원에서는 특히 자원 고갈에 대한 예측을 중심으로 자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며, 자연 환경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국토의 균형적 발전,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을 확인하면서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과 일상생활에서 국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이 단원에서는 특히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태계를 구성하는 일원임을 파악하게 하며, 국토 개발과 환경 보전 간의 갈등 사례, 혐오 시설 설치의 장소 선정을 둘러싼 갈등 사례, 자원의 개발을 둘러싼 지역 간의 갈등 사례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환경 문제에 내재한 공간적 맥락을 인식하며, 민주적인 공간적 의사 결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개발과 보전에 대한 균형 있는 사고의 기능을 기르며, 지속 가능한 국토의 미래를 위한 생태적 가치,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는 데 유의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① 인간이 자연 생태계를 구성하는 일부분임을 이해한다.**

이 내용에서는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의 일부분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내용에서는 우리 조상들 및 세계 여러 곳의 환경 친화적 생활 모습에 내재되어 있는 환경관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평가하여 계승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생태계의 그물망과 같은 체계 속에서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유의한다.

② 인간이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국토 수준에서 파악한다.

이 내용에서는 인간의 생활 모습이 위치, 지형, 기후 등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국토 수준에서 파악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자연 환경의 영향력을 이해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내용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영향을 끼치는 전형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하되, 결정론적 관점에서 다루지 않도록 유의하며, 인간이 자연 환경에 슬기롭게 적응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③ 인간은 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음을 국토 수준에서 이해한다.

이 내용에서는 지역 개발 사업을 통하여 환경의 제약을 극복한 사례, 일상생활 및 산업 활동 등에서 인간이 지형, 기후 등 자연 환경의 제약을 극복한 사례를 학습함으로써 우리의 조상, 우리 자신들이 자연의 제약을 극복해왔음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이 내용에서는 현대와 미래의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자연 환경을 변화시키고,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한 미래 예측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④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이해한다.

이 내용에서는 우리나라의 각 지역이 가진 자연 환경의 특성에 적합하면서도 환경 친화적인 국토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학습함으로써 개발 지향적인 국토 개발을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의 국토 공간을 실현하기 위한 국토 개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내용에서는 특히 지속 가능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환경의 보전, 경제적 발전, 사회적 형평성 등 3자의 균형 있는 추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져야 할 자세 등에 대하여 파악하는 데 유의한다.

⑤ 국토 개발과 환경 보전에 대한 균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에서는 국토 개발과 환경 보전이라는 갈등적인 상황에 대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관점에서 개발과 보전의 균형적인 사고를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즉, 국토개발과 환경 보전을 통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가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생태 관광 등의 실제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게 하는 데 유의한다.

⑥ 산업 활동의 입지 선정과 지역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에서는 산업 활동의 입지 선정, 지역의 개발 및 보전에 관련된 문제의 해결 과정이 민주적이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파악하게 하고 의사 결정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데 중

점을 둔다. 이 내용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제 사례 및 그 해결 과정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모의 상황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산업 활동의 입지 선정과 지역의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민주적, 합리적 의사 결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⑦ 국토 가꾸기와 환경 문제에 대하여 미래 지향적인 관점과 태도를 가진다.

이 내용에서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국토 개발의 필요성과 전략, 환경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국토의 개발과 환경 문제의 해결에서 미래 지향적인 관점과 태도를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토 개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 규모에서의 상황 변화에 대한 예측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 문제의 속성과 관련하여 환경 문제의 해결이 미래 세대의 복지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 데 유의한다.

(4)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주화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적 정치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규범 및 주요 국가 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파악하고, 다양한 정치생활에 참여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자 설정되었다.

헌법과 주요 법률이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국민의 생활을 어떻게 규율하는지 이해하고, 권력 분립의 원리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파악하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 및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자각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는 참여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임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우리 현대사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개선하고 성취하여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참여의 중요성과 제도화된 참여 방법들을 알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참여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구성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을 학습할 때는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에 주목하

기보다는 그 과정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참여 정신을 이해하도록 한다.

②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외의 다양한 법들이 우리 생활을 위해 필요함을 인식한다.

이 내용은 국가 통치 체계의 근본 원리를 정하는 기본법인 헌법을 포함한 주요 법률이 개인과 공동체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헌법 전문과 헌법의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국가 조직의 기본 원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등을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민법, 상법, 형법, 행정법 등 여러 가지 법률들이 우리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헌법 이외의 법률을 안내할 때 법체계 전체를 세세하게 파악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③ 국회, 행정부, 법원의 구조와 기능을 권력 분립의 원리와 연관 지어서 이해한다.

이 내용은 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사법부의 주요 기능과 권한을 파악하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삼권 분립의 원칙에 기반하여 운영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중요 국가 기관이 하는 일을 사례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국가 기관의 기능을 모두 학습하기보다는 핵심 역할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국가 기관의 역할이 학습자의 실제 생활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하여 추상적인 학습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 내용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등 헌법을 비롯한 중요 인권 문서 등에 규정된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과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며,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행동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나 집단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인권 교육은 인지적 정보의 습득만으로는 완결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험적이고 참여적이며 활동 중심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⑤ 공공 생활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자각하고 이를 준수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 내용은 국방, 교육, 납세, 근로의 의무 등 국민의 4대 의무와 더불어 환경 보전의 의무, 공공의 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의무 등과 같이 국가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가 필요하며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나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시켜 토론이나 모의 활동을 해 봄으로써 권리와 의무의 상호 의존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관용, 대화, 타협, 절차 준수 등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 내용은 민주적인 가치관을 내면화하여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보편적 인권 의식에 기반하여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동체 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차이와 갈등들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실천적 경험을 갖도록 학습 내용을 구성한다. 관용, 대화, 타협, 절차 준수 등을 모의 학습 상황이나 구체적인 참여 경험에 바탕하여 경험하도록 한다. 다양한 차이와 갈등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들을 많이 접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생활 태도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한다.

(5)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 인문 환경적 특성을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해함으로써 지구촌 사회의 다양성과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게 하는 취지로 설정되었다.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 국가로 구성된 세계가 교통, 통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서 이제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화해가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 여러 지역에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다양성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 지구촌의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 해결 및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시키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단원에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사 자료와 세계지도, 지구본 등 다양한 지리 정보 매체를 이용하여 세계 여러 지역의 특성을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을 함양하고자 한다. 특히 이 단원에서는 인쇄물과 인터넷 등 여러 매체와 자료를 통하여 세계 여러 지역의 어린이들의 일상적 삶에 대해서 알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 다양한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우리나라와 관계가 깊은 세계 여러 지역을 선정하고 그 선정 기준을 제시한다.

이 내용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관계 깊은 세계의 여러 지역과 나라를 선정하고, 그 선정 기준을 숙고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지구촌의 관련성에 대해

여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내용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및 인식 형성의 주요한 요인을 파악하거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를 파악하여 이를 학습할 국가의 선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특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가 가지는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최근 지구촌화, 세계화 현상 속에서 우리나라와 새롭게 중요한 관계를 맺게 된 나라와 지역들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유의한다.

② 세계지도 및 지구본의 기능을 활용하여 세계 각 지역의 위치를 확인한다.

이 내용에서는 다양한 세계지도와 지구본을 활용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와 지역의 위치와 영역을 확인함으로써 지구 수준에서 여러 나라와 지역에 대한 인식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세계지도와 지구본뿐만 아니라, 지구의 인터넷 위성사진 사이트를 비롯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와 지역의 위치와 영역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지리 정보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세계지도 및 해당 지역의 지도와 여러 가지 시사 자료를 활용하여 선정된 지역의 자연적·인문적 특성을 이해한다.

이 내용에서는 여러 종류의 세계지도 및 해당 국가, 지역에 대한 지도, 사진, 그래프 등의 도해 자료와 시사 자료를 활용하여 선정된 국가, 지역의 위치와 영역, 지형, 기후, 인구와 취락, 자원과 산업, 교통과 통신, 문화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얻어내고 이를 종합하여 해당 국가, 지역의 자연, 인문 환경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이 내용에서는 학습자들이 해당 국가, 지역에 관한 지도, 사진, 그래프, 시사 자료 등 다양한 도해 자료들을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바람직하다.

④ 다양한 인종, 민족, 국가로 구성된 세계는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지구촌화되고 있음을 이해한다.

이 내용에서는 세계가 다양한 인종과 민족, 국가로 구성되어 있지만, 교통과 통신, 교류 등의 발달로 급격히 지구촌화되고 있음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이 내용에서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지구촌화, 세계화된 현상을 이해하도록 하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구촌화, 세계화와 관련되는 현상, 사실들을 소재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지구촌에서는 여러 가지의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와 단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이 내용에서는 세계의 여러 나라 및 나라 사이에서는 기아 문제, 환경 문제, 종교 간의 갈등, 영토 분쟁, 이념적 대결 등 다양한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여러 비정부기구(NGO) 및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이 내용에서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분쟁으로서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 그리고 우리나라의 군인, NGO, 개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나라들의 갈등과 문제들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한다.

이 내용에서는 세계 여러 국가, 지역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구촌화, 세계화 현상 속에서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들은 고유한 문화적 성격과 역량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인류 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바탕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데 유의한다. 축제나 관광지 등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깨닫고 이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이 내용에서는 지구촌화, 세계화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깨닫고 이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선도적 위상, 국토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과 실현, 민족 문화의 유지와 세계화 등을 통하여 세계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점을 깨닫게 한다.

(6)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정보화와 세계화에 따른 사회 변화의 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정보화와 세계화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변혁으로 현재와 미래의 생활을 이해하는 밑그림의 역할을 한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 문제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민족 통일이라는 요소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정보화와 세계화라는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세계 시민으로서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는가를 탐구하도록 한다.

우선 주변의 사례를 통해 정보화와 세계화의 의미와 과학 기술의 발달 방향을 이해하고 이로 인한 사회 변화의 방향을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최근의 국내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거대

한 사회 변화 속에서 한민족으로서 우리나라와 겨레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탐구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더불어 국제 사회의 교류 및 협력하는 모습을 조사하여 인류 번영을 위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을 확인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정보 사회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보화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이 내용은 정보와 지식이 생산의 기반이 되는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러한 정보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미래 사회의 모습도 예측하도록 한다. 맞춤형 소량생산, 인터넷 시장의 활성화, 인터넷 저작권 문제 등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정보와 지식 중심 사회의 등장이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들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보화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학생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정보화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과학과 기술 발달의 방향을 이해하고, 그것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 내용은 가속화하고 있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며 과학과 기술 발달이 인간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킨 사례를 제시하고, 과학과 기술의 긍정적인 발달 방향을 토론하게 한다. 최근에 논의되는 유전자 조작 식물, 인간 복제 문제 등과 같이 논란이 있는 사례들을 통해 과학과 기술의 발달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하면서 과학과 기술의 발달 방향은 인간의 선택의 문제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③ 세계화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우리 삶의 변화를 이와 관련지어 파악한다.

이 내용은 세계화의 의미와 관련 현상을 이해하고, 세계화가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화로 인한 우리 삶의 문제를 정치, 경제, 문화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신문 기사나 자료를 활용하여 세계화로 인한 삶의 변화를 생생하게 인식하도록 한다.

④ 세계화와 관련하여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인식하고, 민족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을 창의적으로 모색한다.

이 내용은 문화적 세계화와 관련하여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인식하고,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세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창의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다양한 전통적인 문화 소재를 창의적으로 계승·발전시켜서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계화에 성공한 문화 사례를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학습자 스스로 다른 문화 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세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독창적으로 사고해 볼 수 있도록 한다.

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분단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한다.

이 내용은 이데올로기 갈등이 줄어드는 국제 사회의 변화 추세에서 여전히 분단으로 인한 갈등을 겪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관련하여 이산가족 문제, 문화의 이질화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탐구해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독일 통일 과정의 사례를 활용하거나 최근 남북 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협력 방안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새터민의 사례 등도 활용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남북 간 갈등의 현실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⑥ 세계 인류의 번영과 평화로운 삶을 위한 다양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조사해본다.

이 내용은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국제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전쟁 등의 사례를 통해 인류 번영과 평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UN 등의 다양한 국제기구와 국내 외적인 NGO의 활동을 탐구하여 국제 사회가 인류평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는 국제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 파악과 더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초점을 두며, 특히 우리나라가 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참여 활동도 소개한다. 세계 지도와 신문 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다양한 해결 노력들을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

4. 교수·학습 방법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교수·학습 원칙과 방법을 해설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수·학습의 원칙

(1) 원리 발견과 적용을 강조하는 교수·학습(“(1)형”)

사회과는 학생들에게 인간 관계 및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 변화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사회 문제를 반성적 사고와 가치 선택을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과이다. 학생들이 복잡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힘을 기르려면 그들 스스로 원리나 법칙을 발견하고, 이를 실행에 적용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물이나 사실을 통하여 개념을 이해하고, 원리나 법칙을 발견하며, 이러한 개념, 원리, 법칙 등을 생활의 여러 분야에 적용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지식의 생성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업 결과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개념 형성 과정 혹은 문제 해결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다양한 삶의 맥락에서 사회적 현상을 탐구하여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고, 지식이 학습자의 삶의 맥락 속에서 재구성되어 문제 해결에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과정에 학생들을 노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과 학습이 쉽고 재미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사회과 목표와 교육 환경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 활용(‘(2, 4)’항)

사회과는 사회 현상을 인식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 조직,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 사회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비판적 사고능력, 창의적 사고력 등의 고등 사고 능력(higher order thinking) 향상을 수업의 중요 요소로 부각시키고 있다.

사회과 교수·학습에서 고등 사고력을 신장하려면 개념의 특성을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학습, 반성적 사고에 의해 원리를 발견하는 학습, 발견된 원리를 적용하여 사실을 증명하는 학습, 당면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학습, 가치 명료화 학습, 대안을 선택, 결정하는 의사 결정 학습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력 등을 신장시킬 수 있다. 개념을 정의하는 학습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내적 일관성의 유지를 통해 논리적 사고를 신장시킬 수 있으며, 문제를 파악하고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진술이나 증거의 타당성을 밝히는 학습은 비판적 사고를 활발하게 전개하는 학습이 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과정에서는 문제 해결의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사고 활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제 인지 과정에서는 요약, 중요한 것의 선택, 개념 정의, 사실과 의견 및 편견 등의 구분, 탐구 이유 추론, 문제의 의미 해석, 유사 사태의 추론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설 단계에서는 자료의 분석, 요인 관계 추론, 원리 적용, 조건이나 원인 등의 예견, 문제 해결의 방향 추론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증거 제시 단계에서는 정보의 정확성 검토(분석), 번역, 해석, 분류, 요인 및 요인 간의 관계 분석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며, 결론의 단계에서는 가설과 증거 간의 논리적 관계 검토·평가, 가설의 긍정 또는 부정이나 수정, 여러 요소

의 종합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학습 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사고 활동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수업의 실제에서는 사고의 과정이나 학습 형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거나 한 사고 과정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 단원의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사고를 강조할 것인가를 주제의 특성에 적절하게 선정,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단원의 수업 설계에서부터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고등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는 하나의 주제, 개념, 사건, 문제를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며, 주어진 문제에 관한 여러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자신의 사고 틀로 탐구하면서 조작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가능한 소집단 활동을 자주 하며, 이때는 구체적인 과제를 제한된 시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쓰기(writing)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쓰기를 통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하고 타인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사고력이 개발된다. 또한 교사는 좋은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끊임없이 사고를 자극하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

(3) 학습자 중심의 수업 운영('3, 5'형)

학습자 중심의 수업 운영은 학습의 주도권을 학습자에게 두는 교육, 개별화 수업을 지향하는 교육, 교사와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교육, 경험의 통합을 강조하는 교육,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을 통해 이를 수 있으므로 크게 자기 주도적 학습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학습으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우선,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습자가 능동적 자기 통제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학습에 대한 자기 인식, 자기 조절 활동, 자기 모니터링, 자기 성찰 활동, 지식의 구성 및 활성화 활동과 관련된다. 자기 주도적 학습 관점에서 본 사회과 교육의 목적은 자기 모니터링과 자기 성찰적 자세를 통하여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영위하며 개인·사회의 자아 실현을 이루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사회과 교육은 사회적 상호 작용 속에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신 인식 체계에 의하여 학습하며 스스로 체계화하여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학습자가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학습을 계획, 실행, 평가할 수 있도록 학습이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이해를 심화시켜 나갈 뿐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즉, 귀납적 인식, 반성적 사고, 메타인지 등과 같은 학습 과정은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이 수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면 그래프 만들기, 지도 그리기, 보고서 쓰기 등 조작적인 학습 자료와 질문, 토론 수업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한 내용과 자료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스스로 파악하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실제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다.

나. 교수·학습의 방법

(1) 통합적인 교수·학습 방법(‘(1)’항)

사회과는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강조하는 교과이므로 학문과 생활 영역 간의 통합, 지식과 기능, 가치·태도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지식과 행동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통합의 방법은 흥미 중심, 활동 중심, 탐구 중심, 주제 중심, 기능 중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학습자의 활동 및 경험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선하고 그것을 학생의 이해 수준에 맞는 형태로 구조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지식으로 인해 이해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수업에 대한 흥미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용과 유리되지 않은 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지식과 기능, 가치·태도가 함께 획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교재의 재구성과 주제 및 문제 중심의 접근(‘(2)’항)

학습자들이 실생활 경험에서 도전적인 과제로 인지하는 주제와 문제를 통해 사회 현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넓히고 인간 생활과 사회 현상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며 이를 실생활에 연계할 수 있도록 교사는 교재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고등 사고력 신장과 사회과 영역 내용의 중복 및 연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용 재구성 시에는 사회과 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교육 내용을 재구성해야 하며, 교실 상호 작용 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교재 재구성을 위해 우선 각 단원의 주제에 포함된 주요 개념과 일반화, 가치 등을 찾아서 확인하고,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내용들을 파악하여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 학습 경험, 학습 자료의 형식, 소요 시간 등을 선정, 결정한다. 그 다음에 단원 전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교과서 단원, 주제, 제재 등의 명칭이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실제 학습 내용에 더 적합한 주제와 문제를 선정하여 활동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단원을 재구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학습 교재는 지역 또는 학교 특성에 알맞도록 재구성하되 교육과정에서 의도하는 기본 정신이나 주요 목표, 기본 원리 등은 반드시 유지되도록 한다.

주제 중심의 내용 재구성은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한 소재나 주제를 중심으로 의미를 폭넓게 깊이 있게 탐구하여 가는 방식으로 실시하며, 학습한 내용을 실제 생활 세계에 적용시켜보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한 수업 상황에서 교사는 문제 토론 전 학생들에게 문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설명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문제는 질문의 형태를 취하여 제시되는 것이 좋고, 학습 종결 과정에서는 마무리 과제를 부여하도록 한다.

(3) 다양한 발문 기법 활용(‘(3)’항)

발문은 학생들로 하여금 탐구를 지향하게 하고 독자적인 탐구 습관을 형성하게 하며 비판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수업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의 언어 상호 작용은 교사의 발문과 학생의 응답 형태에서 학생과 학생 간의 자연스러운 토의나 대화 형태로 옮겨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습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모호성의 용인), 적절한 시기에 발문하고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 사고가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자유로운 분위기 조성) 그리고 항상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습관을 길러 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발문의 표현은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적절한 속도로 재미있게, 체계적·단계적으로, 불필요한 반복이 없게 해 나가야 한다.

〈교사의 지도 관점에 따른 발문의 예〉

- (1)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는 발문
 -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애매모호한 점은 없는가?
 - 서로 모순된 것은 없는가?
 - 결론이 타당한가?
 - 그 진술은 구체적인가?
 - 그것은 어떤 원리를 적용한 것인가?
 - 그것은 신빙성이 있는가?
 - 그 사람의 말은 옳다고 할 수 있는가?
- (2) 창조적 사고를 촉진하는 발문
 - 지금까지 생각한 것과 어떤 점이 다른가? 새로운 점은 무엇인가? (독창성)
 - 또 다른 생각은 없는가? (유연성, 융통성)
 - 그 밖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가? (융통성)
 -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정교성)
- (3) 발견 및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발문
 -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 유사하거나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무엇이 더 적합한가?
 -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어떤 결론이 예상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점은 어떨까?
 - 지금까지 말한 것을 종합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4) 소집단 학습을 통한 민주시민 자질 함양(‘(4)’항)

소집단 학습이란 2~6명 내외 학습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하여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소규모의 집단 내에서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동일한 학습 목표를 향하여 함께 활동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동기, 학업 성취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관

계 형성을 통해 개별적 책무성,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 역동적인 상호 작용을 가지게 되며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익히게 된다. 협동 학습은 소집단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어진 학습 과제나 학습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수업 방법이며, 수평적 의사소통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구성주의적 수업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교사는 학생 소집단 성취 분배 모형(STAD), 소집단 게임 토너먼트 모형(TGT), 직소 모형(Jigsaw), 집단 연구 모형(Group Investigation) 등의 다양한 협동 학습 방법을 참조하여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자료와 과제를 개발하여 협동 학습의 원리와 규칙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킨다. 즉, 학습 목표 혹은 과제 성격에 따라 학습자들을 동질적 혹은 이질적으로 4~6인 정도의 소규모 집단으로 구성하여 학습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학습 목표를 명료화하고 학습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여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타인 존중 의식, 사회 참여 의식, 협동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저학년의 협동 학습은 산만한 수업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교사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들이 수행해야 하는 과제의 내용과 활동을 충분히 이해하여 협동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나친 통제적인 분위기보다는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활용(‘(5)’항)

사회과 학습은 학생들이 이미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에 접근하여 그 문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문제 해결 방향과 연구 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선정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사회 과학적 연구 방법에 기초한 탐구 방법이나 그 밖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과 학습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가치·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사례 학습, 통계(표본) 조사 학습, 야외 관찰 및 현장 학습, 지도 이용 학습, 문헌 조사 학습, 인물 학습, 사료 학습, 상황 분석 학습, 미래 예측 학습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야외 학습이나 지도 이용 학습은 지리적 성격이 강한 내용에 더 적합하며, 인물 및 사료 학습 등은 역사적인 학습에 더 적합하다. 가치 학습에는 도덕적 발달 모형, 가치 명료화 모형, 가치 수용 모형, 가치 분석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안의 선택 결정을 위한 학습에서는 의사 결정 모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강의 학습, 조사 학습, 문답법, 토의법, 역할 학습, 시뮬레이션 학습 등은 여러 분야의 내용에 고르게 활용할 수 있다.

(6) 정보화·세계화 및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학습 지도(‘(6)’항)

자신이 가진 혹은 가질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의 수준, 정확성 및 활용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 처리 능력과 고차적 사고력을 함양하여 스스로 사회 현상에 관한 지식을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신문 활용 교육(NIE), 컴퓨터 보조학습 프로그램(CAI), 인터넷 활용 교육(IEE), 이러닝(e-learning)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능력과 문제 해결력, 의사 결정력, 개념화 능력을 함양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컴퓨터의 활용은 정보화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식이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자료와 정보를 선택하고, 검색하고, 조직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해석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정보 처리 및 탐구와 사회 참여 능력을 신장시킨다.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 각지의 산업, 문화, 환경 등의 최신의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사고의 기회를 가지도록 격려한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사회 문제를 더 현실감 있게 이해하고, 지식과 기능을 더 능동적으로 획득하고 적용하며,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통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 해결의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컴퓨터의 활용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들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새로운 정보를 창조할 수 있도록 돕고, 흥미 본위의 교수·학습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한편,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생활 문화를 우리들의 생활과 비교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환경, 생태, 자원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한다.

민주 시민 교육에 비중 있게 지도하여야 할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으로는 부패방지 교육, 환경 교육, 에너지 교육, 경제 교육, 소비자 교육, 법 교육, 복지·보험 교육, 고령화 사회 대비 교육, 진로 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공명 선거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문화 예술·문화 유산 교육, 국제 이해 교육, 정보화·정보 윤리 교육, 건강한 가정 만들기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외국인 근로자 포함), 지적 재산권 교육 등이다.

(7)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활용(‘(7, 8, 9)’항)

다양한 종류의 교수·학습 자료는 수업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의 물질적 매개로 작용하기 때문에 교과서 외의 다양한 수업 자료 활용은 사회과 교수·학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사회 교과서가 탐구 형식에 따라 구성됨으로 인해 교사들은 수업 내용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활용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 초등학교 사회과에서는 사진, 그림, 지도, 통계, 도표, 연표, 문화재, 참고 도서, 신문, 잡지, 방송, 이야기, 노래, 실물, 표본, 모형, 기록물, 여행기, 탐험기, 파워포인트(PPT) 자료, 영화, 워크시트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관련 자료는 교재를 분석한 후 필요한 자료의 목록을 작성

하고, 이들 자료를 수집, 제작, 구입하여 자료의 유형별로 분류한 다음, 자료 활용을 위한 목록을 만들고, 사회과 각 학년 단원의 목표, 교재 내용, 활용 방법 등에 관한 안내서를 만들어 활용하도록 한다.

사회과 내용의 특성 및 사회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시사 자료 활용은 사회 현상 및 변화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켜주고, 쟁점이 되는 문제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시사 자료 활용에서 유의할 것은 자료가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관점의 편중화이다. 따라서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에서 수집된 자료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어느 한 측면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중히 검토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교재 내용에 반영하여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자료를 선정할 때는 교육 목적과 수업 목표의 일치성, 흥미 유발의 적절성, 학생의 연령과 수준의 적절성,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의 증진 여부, 오류와 편견의 여부, 자료의 정확성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사회 자료는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지역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여 지역에 대한 애정과 사회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유용하며, 교수·학습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도구이다. 또한, 지역 사회에 대한 직접 탐구를 통해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실과 결부시켜 이해하도록 하며 지역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미를 구성하게 하여 사회 인식 능력을 향상시킨다. 지역 사회 자료는 학생들의 주변 문제로 의식된 것, 지역의 과제를 명확히 나타내는 전형적인 것, 학생들의 힘으로 끝까지 추구할 수 있는 것, 학생들이 체험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것, 새로운 시점이나 생각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학생들에게는 워크북 형식으로 제시하여 활동을 안내하고 활동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8) 교수·학습지도의 유의점

사회과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영역이 분명하게 드러난 단원이나 주제를 지도할 때에는 단원 및 주제의 배경 학문적 관점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 역사, 심리 등 여러 영역 생활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또한, 교수·학습 설계 시 각 학년에서 강조하여 신장시켜야 할 주요 기능이나 능력을 협의, 결정하여 평소의 학습에 반영하여야 한다. 유의할 점은 학년 간의 계열성을 유지하는 일이다.

사회과 학습 기능으로 중시되는 정보의 수집 및 활용, 문제 해결 및 사고, 사회 참여를 중심으로 각 학년에서 고려하여야 할 기능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과의 학년별 주요 학습 기능〉

(1) 정보의 수집 및 활용 기능

- 3학년 :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 4학년 : 면담과 조사를 통하여 자료 수집하기
- 5학년 : 탐구 주제와 개요에 따른 여러 가지 정보 찾아내기
- 6학년 : 여러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2) 문제 해결 및 사고 기능

- 3학년 : 고장의 여러 현상을 관계 지어 생각하기, 문제 파악 및 해결 방법 생각하기
- 4학년 : 시·도 및 지역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사고하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 추론 및 근거 제시하기
- 5학년 : 역사적 사실의 기초적 인과 관계 파악하기, 한 가지 이상의 자료에서 탐구 주제 파악하기, 추론과 증거에 의하여 문제 해결하기
- 6학년 : 우리나라 산업 활동과 국토 활용을 국민 생활과 관련지어 사고하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 결정하기,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를 상호 관련지어 생각하기,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를 관련지어 생각하기

(3) 사회참여 기능

- 3학년 : 공동 작업 및 고장의 일에 참여하기
- 4학년 :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을 위한 집단 작업 및 토의에 참여하기
- 5학년 : 자율적인 시민 생활과 정치, 경제, 문화 등에 관련된 여러 생활 문제의 협의에 참여하고 역할을 수행하기
- 6학년 : 민주적 생활 문제에 대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할 수행하기

이 밖에 여러 가지 자료 활용 등에 관한 기초적 능력 및 가치·태도에 관한 요소도 학년별 지도 중점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5. 평 가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평가의 내용과 방법을 해설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회과 평가의 일반적 방향

(1) 교육의 한 과정으로서의 평가(‘(2)’항)

사회과의 평가는 목표, 내용, 방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즉, 성취 기준으로서의 목표

와 이를 바탕으로 한 내용에 대해 학습한 과정과 결과를 평가해야 하므로 목표·내용·방법·평가가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가’라고 하면 중간 고사, 혹은 학기말 고사를 연상하게 되는데, 이것은 평가를 교육 활동의 종착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는 종착점도 아니고 시작도 아니며, 일련의 순환적인 교육의 한 과정이다. 교육은 목표 설정과 교수·학습 활동, 평가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은 한 번에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이다. 따라서 평가는 다음 목표 설정과 교수·학습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며 이 세 가지 사이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2) 개인별 성취 수준과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3, 4)’항)

교육 활동이란 목표를 지향하는 활동으로 평가의 기준은 한 학생이 그 목표에 도달했는지가 되어야 한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을 목표에 도달시키는 것이므로, 평가에서는 학생이 집단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해진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는가를 알고자 해야 한다.

성취 수준은 평가를 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잘 분석되고 체계화된 기준이다. 이때, 교육과정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사회과에서의 평가는 성취 수준을 근거로 설정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성취 수준은 교육과정의 목표 또는 내용으로 제시된 내용 기준과 수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행동 기준으로 구성되는데, 평가 기준 역시 이에 따라 설정된다. 행동 기준은 주로 학습 기능, 사고력의 신장과 가치·태도의 변화에 주목한다. 따라서 평가 기준이란 성취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여 평가에 도입해야 할 요소와 그것의 범위 및 심화의 정도를 명시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목표는 평가의 기준으로서 다소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더욱 상세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며, 이러한 평가 기준을 만들려면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교육과정 내용의 대강화와 교수·학습 방법의 자율화를 고려한 평가 방법 적용(‘(1)’항)

교육과정 내용의 대강화와 교수·학습 방법의 자율화에 맞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07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수준에서 교사에 의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져 다양화되고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가 수준에서 ‘대강의 교육과정 지침’을 제시하고 기존의 대단원-중단원-소단원 체제를 주제명-성취 기준 체제로 단순화하였으며,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개발’을 수행하도록 이원화하였다. 따라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대강의 열개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학교의 교사 수준에서 그 열개에

따라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맞는 수업을 계획하고, 자신이 수행한 수업을 고려한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양한 평가 방법의 활용(‘(1, 7, 8)’항)

사회과의 평가는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학습이 총체적인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개인 수준에 맞는 평가를 지향하므로 평가의 주안점에 따라 다양한 평가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지식을 평가하는 데 주로 사용한 지필 평가에서 더 나아가 기능 및 가치·태도를 평가하고 학습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관찰 평가, 작품 분석법, 면접법, 상호 평가, 자기 평가 등의 다양한 질적 평가 방법도 활용해야 한다. 객관식 평가 방법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중요하고 편리한 평가 방법임은 분명하다. 객관식 중에서도 선택형(선다형)이 많이 이용되는데, 이를 적용할 때에도 단순한 암기력보다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교수·학습 개선을 위해 평가에 대한 교사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업의 언어적 상호 작용 분석과 같은 형태적인 분석과 더불어, 교육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여 수업으로 구성했는지에 관한 내용 분석이 이루어져 교사 자신의 교수·학습이 객관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 도구의 개발은 교재의 분석을 통해 배울 내용과 활동들을 추출하고 교사의 평가 관점을 체계화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내용에 따른 행동 요소에는 지식 영역은 사실, 개념, 일반화, 기능은 정보 수집 처리, 자료 활용, 의사소통, 참여 활동, 문제 파악, 가설 방법 및 추론, 근거 분석 및 제시, 그리고 가치·태도 영역으로는 관심, 흥미, 동기, 규범 지키기, 신념, 태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5) 학습의 과정 및 수행을 중시하는 평가(‘(5)’항)

평가는 교육의 한 과정임을 고려하여 학습 과정과 성취 수준을 이해하고 발달을 돕는 차원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탐구 지향적 수업 또는 사고력 신장을 위한 수업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 수행 평가 또는 질적 평가의 방법도 도입되어야 한다. ‘수행 평가’는 기본적으로 ‘평가 방법’에 관련되는 것으로, 그 이론은 지금까지 많이 실시해 온 지필 평가가 실제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데에서 출발한 것이다.

수행 평가는 일반적으로 기능과 가치·태도 영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지식 영역에서도 암기 이상의 인지 작용을 측정하려고 할 때에는 객관식 지필 평가 방법으로는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수행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고도의 정신 작용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행 평가는 주로 질적인 자료에 의존하는데, 질적 자료란 지

필 평가에 의한 자료가 아닌 관찰, 면접 등에 의한 자료를 말한다. 양적 자료는 숫자로 표시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에는 편리하지만, 사고의 과정, 기능 영역, 가치 영역 등을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 수행 평가의 기본은 실제 상황과 가장 근접한 상황에서 목표를 성취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6)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평가(‘(6)’항)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종합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를 요구하는 종래의 평가관에서 벗어나 지식은 물론 기능과 가치·태도를 종합하여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가의 세 영역 중에서도 비교적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 기능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 영역은 실제로 해 보이는 것을 평가해야 하므로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치·태도 영역도 강조되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가치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벽에 부딪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식 목표에서는 고급 사고력보다는 낮은 수준의 사고력, 개념이나 일반화보다는 단편적인 사실 위주로 평가하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사회과는 지식, 기능, 가치·태도의 세 영역이 합쳐져 하나의 큰 목표를 이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세 영역이 균형 있게 평가되어야 한다.

나. 평가의 내용

사회과 평가는 일반적으로 지식 영역, 기능 영역으로서 탐구 기능과 의사 결정 및 실천 능력, 그리고 가치·태도 영역으로 나뉜다.

(1) 지식 영역(‘(1)’항)

사회과에서 다루는 지식에는 사실적 지식, 기본 개념과 일반화 및 원리가 있다. 사실적 지식이란 특정 공간과 시간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 사회과에서 사실에 관한 지식들은 여러 현상을 설명해 주지 못하므로 사실에 관한 지식만을 평가한다면, 흔히 말하는 암기 위주의 사회과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보다는 상위 수준의 지식을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념과 일반화는 사실보다는 상위의 지식이다. 개념은 여러 사실에서 공통성을 추출하여 이름을 붙인 지식이다. 개념이나 일반화는 사실적 지식보다는 적용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상위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과에서 중시하는 평가 영역이다. 지식을 사실에 관한 지식

과 개념·일반화의 두 층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이를 인지 작용의 측면에서 보면, 전자는 주로 단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후자는 고급 사고력에 관계된다고 볼 수 있다. ‘암기’의 결과로써 얻은 지식은 주로 ‘사실’에 해당하는 지식일 것이며, ‘적용’ 이상의 인지 작용의 결과로써 얻은 지식은 ‘개념’이나 ‘일반화’일 것이다. 그러므로 개념과 일반화의 성취 여부를 측정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 이상의 고급 사고력 혹은 인지 기능을 측정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개념과 일반화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지필 평가도 있고 관찰 등의 방법도 있다. 지필 평가의 방법은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되기도 하는데, 지필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온 종전의 관행을 개선하여 고급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2) 탐구 기능(‘(2)’항)

기능이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기능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는 능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사회과에서 기능은 지역의 모습을 지도로 표현하거나 지도를 통해 지표 현상을 읽어내는 지도 관련 기능, 연표의 작성과 같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되는 기능, 도표나 그래프의 분석 및 해석에 관계되는 기능,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일을 해 나가는 기능 등이 전통적으로 중시됐고, 최근에는 정보 처리 기능도 강조되고 있다. 정보 처리 기능이란 사회 현상을 탐구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 정리, 재조직, 평가해 가는 일련의 기능을 말한다. 이 기능은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세부 기능도 다양화하고 있다. 정보(자료) 수집 기능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도서 및 신문, 시사 자료에 대한 수집 능력 정도를 가리켰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검색뿐만 아니라 GIS 및 인공 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할 줄 아는 기능까지 중요한 기능으로 취급되고 있다.

(3) 의사 결정 및 실천 능력(‘(4)’항)

사회과 평가 요소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의사 결정 능력이다. 사람들은 모두 수많은 의사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간다. 즉, 우리는 선택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선택이 합리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개인 생활, 나아가 사회 전체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의사 결정 능력은 소집단 활동 등 여러 장면에서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 결정 능력 및 의사 결정에 따른 실천 행위에 대한 평가는 소집단 활동 등 여러 장면에서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 실천 능력이란 사회 문제나 쟁점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은 상호 작용 관여 수준과 관련된다. 상호 작용 관여는 한 사람이 사회 환경이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수준을 말한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 관여 능력은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예민하게 지각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타인 지향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능력들은 그 성격상 지필 평가보다는 실제 기능을 실연하는 장면을 포착하여 관찰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가치·태도 영역('3'항)

책임 있는 민주 시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과 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의 자질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가·사회적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치·태도 영역은 사회과에서 매우 다루기 어려운 평가 영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덕과가 사회과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과의 가치·태도 목표는 도덕과의 목표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과에서 가치·태도 영역은 우선 역사, 지리, 정치, 사회 제도 등 사회과 고유의 영역에 관련되는 것이라야 한다. 예를 들면, 21세기 세계화된 시대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환경친화적 사회 조망 능력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적인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여기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는 능력, 과학·기술·사회의 통합 인식능력으로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로 인한 사회 변화 관계를 인식하고 관련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능력, 민주 이념의 이해와 실천 능력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과에서 가치·태도 영역은 '무조건……하여야 한다.'라는 식보다는 가치를 분석하는 측면에 중점을 둔다.

가치·태도 영역의 평가 방법으로는 관찰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 대상자가 평가를 의식하면 관찰하기가 어렵게 되므로, 학생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관찰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평소에 꾸준히 관찰하고 체크리스트 방법 등으로 그 결과를 누가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5) 학습자의 흥미, 관심, 동기, 습관('5'항)

학습자의 흥미, 관심, 동기는 정의적이며 과정적인 특성을 갖는 학습자 변인인 동시에 학업 성취를 위한 노력 또는 활동을 시작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원천이다. 흥미, 관심, 동기란 대체로 행동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행동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으로 정의된다. 학습 흥미와 관심 및 동기의 일반적 특성은 내적인 보상을 주는 학습을 모색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새로운 정보를 알고, 정보의 축적을 확장하는 것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긴다. 학습자의 흥미, 관심, 학습 동기와 태도는 학업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적 영역은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된다.

다. 사회과 평가의 방법

선다형 지필 평가이든 수행 중심의 평가이든 어떠한 방법의 평가를 하더라도 단순한 결과적 지식 습득의 여부보다는 기본 개념 및 원리의 이해와 아울러 이러한 지식 및 정보의 획득 과정과 활용 능력이 평가되도록 한다. 이것은 곧 교수·학습 활동의 평가로서 학습 과정의 평가를 말한다. 지금까지 평가라면 결과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행이 지배적이었으나, 평가의 대상은 교육 활동 전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의 학습 활동 내용이 어떠한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며 결과와 마찬가지로 과정도 교육 활동으로서 중요시되어야 한다.

(1) 수행 평가 중심의 평가('1')항

학습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에는 지필 평가 외에 면접, 체크리스트, 토론, 논술, 관찰, 활동 보고서, 포트폴리오 등이 있다.

(가) 면접

관찰이 평상시 행동을 보고 평가하는 방법이라면, 면접은 평가 시간을 따로 설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주로 구두 문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초등학교에서는 정식 면접(interview)보다는 대화를 통하여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 등을 끄집어낸다는 관점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나)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법은 '특정 행동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는가?'의 여부를 기록해 가는 방법이다. 관찰법이나 면접법을 적용할 때에 학생의 행동을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문장화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여 각 항목에 도달했는지, 어느 정도로 도달했는지를 점검(체크)해 갈 수도 있다.

〈예 : 체크리스트의 관점〉

- ① 학습에 대한 흥미, 욕구, 문제 의식 : 의문을 제기하는가? 자료에 관심을 가지는가?
- ② 학습 계획 : 학습 문제를 찾아내는가? 학습을 설계하는가?
- ③ 조사, 보고, 토의 : 조사할 내용을 잘 파악하였는가? 정보의 소재를 잘 알고 있는가? 정확하고 세밀하게 조사하는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조사하는가?
- ④ 학습 결과의 종합 응용 : 학습 결과를 다른 사례와 관계 지어 말할 수 있는가?
- ⑤ 학습 목표에 대한 성취 수준은 어떠한가?

〈등급 : 관점별로 ‘상, 중, 하’로 결정〉

번호	이름	관점 1	관점 2	관점 3	관점 4	관점 5	비 고
1	○○○	상	중				전반적으로 잘함
2	○○○	상	중				
3	○○○	중	상				

(다) 관찰

이 방법은 평상시 학생의 행동을 보고 어떤 교육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관찰 평가를 하기에 적합한 평가 영역은 지식 영역 중 수준이 높은 사고력, 기능 영역, 그리고 가치·태도 영역이다. 관찰한 결과는 누군가 기록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이는 체크리스트 법과 관련된다.

(라)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최근에 수행 평가와 함께 강조하고 있는 평가 방법으로서, 이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각종 자료들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단원을 학습해 나가면서 학생이 모은 자료, 만든 도표나 연표, 발표 요지 메모, 기록해 낸 학습지 등은 그 학생이 이 단원을 학습한 결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들이며, 이러한 자료들은 학생의 성취 정도를 평가하기에 매우 편리하다.

(2) 지필 평가(선다형 평가)('2')항

지필에 의한 평가 방법의 효율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중요하고 편리한 평가 방법임은 분명하다. 선다형 문항은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사회과의 주요 지식이나 원리 등을 잘 이해, 혹은 기억하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데 적절한 평가 도구이다. 선다형 문항은

매우 쉬운 문항부터 어려운 문항까지 다양한 문항을 제작할 수 있어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선다형은 다른 객관식 문항보다 내재적인 결점이 적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 상태·목적·내용을 다룰 수 있는 다양성·포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험자의 우연적 오차의 영향도 적게 받기 때문에 문항 형식으로서 가장 적절하다. 만약 답지들을 단순하게 제작하면 단순 기억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되지만, 답지를 매력적으로 만들면 고등 정신 능력까지 측정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선다형 지필 평가를 적용할 때에는 단순한 암기력보다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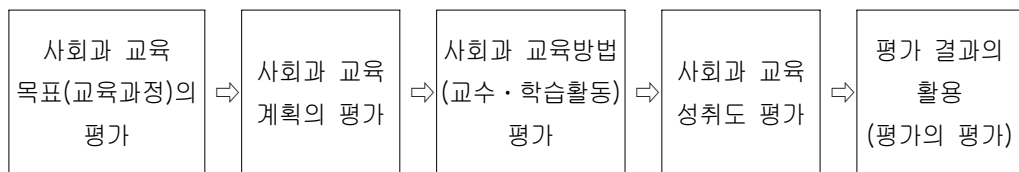
(3)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병행한 평가(‘(3)’항)

전인적 교육 목표에 충실하려면 이른바 결과 평가라고 일컬어지는 통계 중심의 양적인 성취도 평가만을, 그것도 교과서 내용의 이해 여부만을 측정하는 한계성을 극복해야 한다. 물론 학습 목표나 학습 내용의 이해가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고력 신장이나 가치·태도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양적 자료와 더불어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질적 자료란 지필 평가에 의한 자료가 아닌 관찰, 면접 등에 의해 누적 기록된 자료들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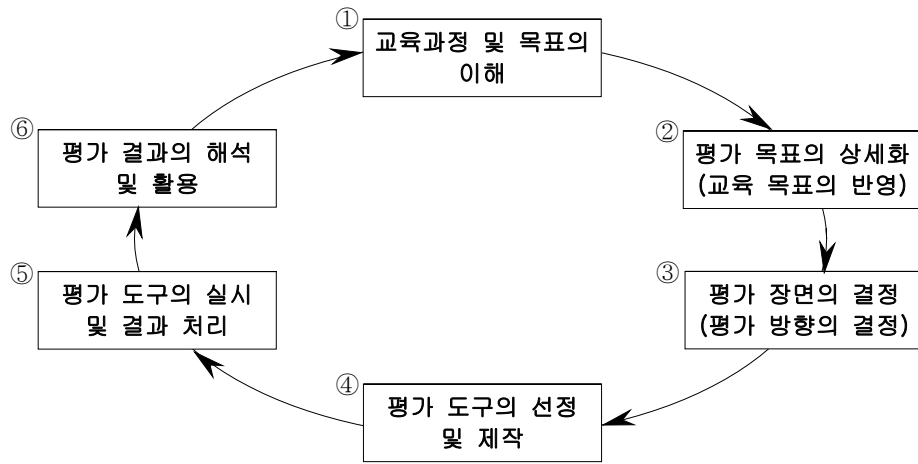
(4) 사회과 평가의 절차와 실제

(가) 평가의 절차

평가 절차는 평가를 시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평가의 절차는 큰 영역의 절차인 거시적·원리적 절차와 세부적인 영역의 절차인 미시적·실천적 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사회과 평가 과정 전체에 대한 절차를 말하고 후자는 실제 평가를 하는 단계의 절차를 가리킨다. 거시적·원리적 절차의 평가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실제 평가의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영역은 다음 그림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위의 과정 중에서 실행 상 주의를 요하는 절차는 ‘평가 장면의 결정’ 과정과 ‘평가 도구의 실시’ 과정이다. 평가 도구의 실시는 먼저 평가 도구의 선정 및 제작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가 장면이라 하면 평가 도구의 내용이 담고 있는 방향성을 가리키며, 이에 따라 평가 도구의 형태가 달라진다. 즉, 평가에서 창의력을 측정하느냐, 발표력 또는 작문 능력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평가 도구가 다른 것과 같다. 보통 평가 사태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면 지필 고사를 통해 평가하는 것과 작품 분석법을 통해 평가하는 것은 그 평가 사태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종의 평가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과거에 상대 평가를 선호하였을 때에는 주로 지필 평가를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도달 정도에 대한 평가가 강조되고 있으므로, 이에 적절한 평가 장면(사태)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 장면과 유사한 말로 평가 장소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직접 평가 활동을 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교실, 야외, 혹은 평가 장면이 설정 가능한 다양한 장소 등을 평가 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평가 장면이 결정된 이후에 평가 목표가 상세히 수립되면,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려면 평가 도구가 적절히 선정되어야 한다. 특히 과정 평가인 경우, 수시 점검법이나 보고서 또는 작품 분석법 등에서 사용하게 될 적합한 평가 도구를 사전에 구상하여야 평가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지필 평가의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의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면서 더욱 다양한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사회과 교육이 추구하는 전인 교육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평가 도구는 지적 수준에서 볼 때 학생들이 풀기에 적절해야 하고 문제의 발문법이나 구성상 오류가 없어야 하며, 타당도와 신뢰도 등 문항의 양호도가 높아야 한다. 이러한 요소 외에도 모든 사람과 집단에 공정성을 갖춘 평가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나) 평가의 실행**① 학습 목표의 진술**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역시 학습 목표의 성취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 평가는 수업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학습 목표의 진술 방식이 정확한 평가를 하기에 부적절하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목표 진술 용어가 애매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였기 때문이다. 학습 목표는 상세하고 한정적으로 진술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학습 목표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특정 학습 행동을 성취하려는 사람(학생, 분단, 학급)
- 목표 달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데 필요한 명시적 행동(쓸 수 있다, 규정할 수 있다 등)
- 학습의 결과 또는 효과(사실의 진술, 가설 설정, 관계 파악)
- 목표 달성의 조건
-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의 기준

② 이원 분류표의 작성

수업 목표 진술이 이루어지면 그 목표들 중에서 형성 평가의 문항 개발에 좀 더 적절한 수준의 목표들을 평가 요소로 잡아 보고, 세로는 내용 영역, 가로는 행동 영역으로 구성된 이원 분류표를 작성한다. ‘학습 평가의 영역’에 대해서는 블룸(Bloom)의 분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가 있다.

(다) 평가의 형태**① 진단 평가**

진단 평가는 학습자들의 학력 수준, 수업 결손 부분, 흥미, 성격, 적성 등을 바르게 파악하여 교육적 활동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려는 일련의 평가 활동으로서 예전적 평가라고도 한다. 이러한 평가 활동은 필연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지는 교수 활동에 반영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형성 평가

형성 평가는 학습 과정 중의 평가로서, 최종의 교육 목표를 향하여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평가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학습 효과의 극대화와 더불어 교육과정의 질적 관리를 위한 노력으로서 교수·학습이 전개되는 유동적인 상태에서 학습자에게 피드백(feedback)의 효과가 있으며, 사회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선하고, 수업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이다.

③ 총괄 평가

총괄 평가는 주어진 학습 과제 또는 한 교재가 끝났을 때, 설정·진술된 사회과 학습 목표의 달성도를 알아보기 위한 평가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학업 성취도 검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라) 평가 결과의 활용(‘(1, 2)’항)

평가는 학습에서 끝이 아니라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수업에 다시 환류(feedback)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평가 결과는 교사에게는 수업의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학생의 무엇을 더 보충해 주어야 하는지를 아는 자료가 되어야 하고, 학생에게는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가 되어야 한다. 평가는 점수화와 등급화의 의미를 넘어 각 개인의 인지 수준과 기능의 발달, 가치·태도 함양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 결과의 해석 및 활용은 평가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겠다.

평가의 서술이 수량화되었을 경우 학습자의 평소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나 발달의 정도에 대한 평가가 소홀히 될 수 있다. 따라서 질적인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동기, 의도, 의욕을 촉진하여 더 나은 성장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가 자신의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지속적인 자기 성장의 지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교사 자신도 학생의 평가와 수업의 평가를 분석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평가 결과가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V. 사회과 신·구 교육과정 비교

과 목	현 행	개 정	비 고
구 성 (문서체제)	1. 성격 2. 목표 3. 내용 가. 내용 체계 나. 학년별 내용 ○ 주제명 ○ 주제 안내 ○ 소주제명 ○ 성취 기준 4. 교수·학습 방법 5. 평가	1. 성격 2. 목표 3. 내용 가. 내용 체계 나. 학년별 내용 ○ 주제명 ○ 주제 안내 ○ 소주제명(삭제) ○ 성취 기준 4. 교수·학습 방법 5. 평가	○ 교과서 개발자에게 주제 구성의 재량권 부여 목적 ○ 초등 과정에서는 사회와 역사가 통합되어 있지만, 중등 과정에서는 사회와 역사를 분리하여 편성함.
사 회 (국 민 공 통)	성격	○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	현행 유지
	목표	○ 총괄 목표-내용 영역별 목표-지식, 기능, 가치·태도 목표로 나누어 제시	현행 유지
	내용	<내용 체계> ○ 공통기본교육과정(3-10학년)의 내용 요소 제시 <내용> ○ 형식 : 성취 기준 형식, 수준별 교육과정 내용 제시 ○ 공통 기본 교육 영역별로 제시 · 인간과 공간 · 인간과 시간 · 인간과 사회 ○ 국사 : 10학년 편제에 표기	○ 성취 기준 중 심화과정은 기본 과정에 통합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은 내용을 영역별로 제시 · 역사 · 지리 · 일반사회 ○ 역사 : 별도 편제 표기
	방법	○ 21개 항목의 열거식 제시 ○ 학생 중심의 수준별 지도 ○ 주제, 문제 중심의 통합적 접근 ○ 개별화 학습과 협동학습 조화 ○ 탐구를 위한 학습 환경의 조성 ○ 정보화 시대의 자료 활용	○ 기본 방향은 유지함 ○ 범주별 유목화하여 14개 항목으로 제시 - 교수·학습의 원칙 - 교수·학습의 방법
	평가	○ 14개별 항목의 열거식 제시 ○ 목표·내용·방법의 일관성 유지 ○ 지식, 기능, 가치·태도 종합 평가 ○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 교수·학습 방법의 평가	○ 기본 방향은 유지함 ○ 범주별 유목화하여 14개 항목으로 제시 - 평가 방향 - 평가 내용 - 평가 방법 - 평가 결과의 활용
			○ 대강화 강조 ○ 수준별 교육 폐지 ○ 기본 개념, 원리의 이해 및 문제 해결 강조 ○ ‘인간과 공간’, ‘인간과 시간’ ‘인간과 사회’로 구분하던 것을 ‘지리’, ‘역사’, ‘일반 사회’로 구분함.
			○ 방법의 체계화 필요
			○ 평가의 체계화 필요

참고 문헌

- 강대현(2004). **사회과 교육내용 적정성 분석 및 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4-1-4.
- 강선주(2005). 생활사 교육의 내력과 방향, **역사교육** 95.
- 김정호(2005).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5-9.
- 교육인적자원부(2007). **사회과 교육과정**.
- 권혁재(2003). **한국지리 총론편 3판**. 법문사.
- 권혁재(2005). **한국지리 지방편**. 법문사.
- 김한중(2006).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선인.
- 류재택(2004). **사회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4-4-5.
- 모경환(2006).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 체제 및 개정 방식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8(2).
- 박선미(2004). **한국의 지리교육과정론**. 문음사.
- 박순경(2005). **국가 수준 교육과정 총론 개선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5-1.
- 박진동 외(2006).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보고 CRC 2006-8.
- 서의식(2006). 세계 주요국의 자국사 교육현황과 올바른 국사교육의 방향. **역사교육**, 100.
- 서태열(2005). **지리교육학의 이해**. 한울.
- 설규주(2007).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특징과 의의. **교원교육**, 23-1.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 차경수(2000). **현대의 사회과 교육**. 서울 : 학문사
- 최상훈, 이영효, 김한중, 강선주(2007).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책과함께.
- 최석진 외(2001). **사회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1-5.
- 최용규, 정호범, 김영석, 박남수, 박용조(2005).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수업까지**. 서울 : 교육과학사
- 허경철 외(2005). **세계 각국의 최근 교육동향 및 교육과정 국제비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5-14.
- 홍후조(2002). **교육과정의 이해와 개발**. 문음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교과서 정보서비스 : <http://cutis.moe.go.kr/>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국어, 도덕, 사회

2008년 4월 1일 발행

저작권자 : 교 육 과 학 기 술 부
발 행

인 쇄 : 한 술 사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898-3
